성경적 시각으로 천천히 다시 보는

신약 교회 역사

침례교회와 신앙의 자유

History of The New Testament Church

Baptist Church and Religious Liberty

정동수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신약 교회 역사
침례교회와 신앙의 자유

지은이 / 정동수

Copyright ©

2026년 3월 1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25,000원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으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History of The New Testament Church"
Baptist Church and Religious Liberty

— D. S. Jung —

목차

서문: 신약 교회 회복을 위한 교회사의 이해 **6**

제1부 》 신약 교회의 타락과 그 원인

진리의 상실과 회복의 소망: 1,500년의 암흑과 등불

제1장 | 초대 교회 시대:
국가 권력과 대립한 순수한 교회 시대 (AD 30–313) **12**

제2장 | 밀라노 칙령과 기독교 공인:
정치와 종교의 일치 (AD 313–380) **36**

제3장 | 어거스틴과 국가 교회:
천주교 신학의 완성 (AD 354–430) **69**

제4장 | 중세 카톨릭교회의 등장: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다 (AD 476–1500) **98**

제5장 | 중세 종교 재판소:
교회의 무력 사용과 이단 탄압 (AD 1184–1600) **143**

제6장 | 어둠 속의 등불:
선구자들의 등장 (AD 1170–1415) **170**

제7장 | 16세기 종교 개혁:
좋은 시작, 미완의 개혁 (AD 1517–1564) **204**

제2부 》 신약 교회 회복 운동으로서의 침례교

신약 교회 원리의 부흥: 500년의 신실한 증언

제8장 | 스위스 재침례교회:
신앙의 자유를 향한 여정의 출발 (AD 1525–1530) **236**

제9장 | 영국 침례교의 탄생 및 확산:
분리주의에서 침례교로 (AD 1534–1689) **266**
제10장 | 신대륙의 청교도 신정 국가:
광야에서 피어난 자유 (AD 1620–1707) **299**
제11장 | 버지니아에서의 자유 투쟁:
세계 최초의 정교분리 성취 (AD 1760–1791) **317**
제12장 | 침례교 신학이 법이 되다:
266년 투쟁의 완성 (AD 1525–1791) **349**
제13장 | 자유의 열매:
미국 침례교의 폭발적 성장 (AD 1707–1890) **364**
제14장 | 침례교 최대의 분열:
남침례교 총회의 탄생 (AD 1814–1845) **389**
제15장 | 세계로 뻗어나간 침례교:
선교 확장과 영적 부흥 (AD 1870–현재) **415**
제16장 | 독립침례교회의 도전과 응답:
침례교 본래 정신의 회복 (AD 1930–현재) **442**
제17장 | 신약 교회의 회복과 침례교의 유산:
사도행전에서 오늘날까지 (AD 30–현재) **482**

부록 »

1. 침례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신약 교회 정신을 실천한 신앙의 거인들 **499**
2. 죽음으로 지킨 진리: 침례(Baptism)/침례 성도(Baptists) **543**
3.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560**
4. 참고 문헌 **567**

서문

신약 교회 회복을 위한 교회사의 이해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1]
"우리는 왜 교회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교파 정체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현실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교회 역사를 과거의 이야기로만 다루지 않고 오늘의 교회를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질문들은 결코 추상적인 학문 주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이면서 영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신약 교회의 정체성과 그 역사적 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할 때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교회는 전통과 분위기에 휩쓸려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침례교 목사로서, 그리고 신약 교회의 원형을 사랑하는 한 신앙인으로서 이 질문들 앞에서 언제나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목회는 단지 설교나 행정을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1. 이 책에서 말하는 '침례교' 혹은 '침례교회'는 현대 교단이나 교파를 의미하는 좁은 용어가 아니다. 이 책에서의 침례교나 침례교회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신약 교회의 원형을 지키고자 했던 역사적 흐름 전체를 가리킨다. 시대마다 도나투스파, 왈도파, 롤라드파, 후스파, 재침례파 등 다양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원리는 같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말하는 침례교 역사는 특정 교파의 발전사가 아니라 신약 교회를 회복하려는 영적 전통의 역사이다.

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영적 성장을 돕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며, 교회 자치와 회중 정치라는 침례교 고유의 원리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신약 교회의 뿌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역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침례교의 참된 정체성과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 온 순수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침례교회의 우수성을 주장하거나 특정 교단의 정통성을 입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교파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려는 의도로 쓰인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교단 간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교회의 본질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존되고 회복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침례교 역사는 그 자체로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신약 교회를 회복하려는 영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증언입니다.

기존의 교회사 서술은 대체로 세속 정치사나 개신교 각 교파의 발전사 중심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으로서의 침례교의 진정한 뿌리와 신앙적 동기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사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례교의 역사는 교회사 전체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교회사가 놓치기 쉬웠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증언이 됩니다. 침례교의 역사는 특정 제도나 권력의 발전사를 설명하기보다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신자들의 반복된 선택과 희생을 통해 신약 교회의 원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침례교의 역사는 교회사 속에서 신약 교회관을 가장 분명하게 비추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침례교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신약 성경의 교회관을 회복하려는 긴 영적 투쟁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신자들의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며 제도화되고 국가 권력과 결탁하면서 점차 본질을 잃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들의 이름은 달랐어도 그 흐름은 하나였으며, 그 운동은 종

교 개혁 이후 침례교회라는 형태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제1부에서는 초대 교회부터 약 1,500년에 걸친 교회사의 배경을 다룹니다. 초대 교회의 순수함에서 출발하여, 기독교의 국교화, 어거스틴 신학에 기반한 강제적 국가 교회 체제, 중세 카톨릭교회의 제도화와 권력 집중, 종교 재판소의 폭력과 이단 탄압,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성경으로 돌아가려 했던 선구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침례교 정신의 뿌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제2부에서는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지난 500년간 전개된 침례교의 형성과 확산을 다룹니다. 1525년 스위스 재침례교회에서 시작된 신약 교회 회복 운동이 영국에서 침례교회로 조직되고, 신대륙 미국에서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회중 정치'라는 결실을 맺으며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간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부분은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흐름입니다.

제1부는 '왜 침례교가 필요했는가'를, 제2부는 '침례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었는가'를 보여 줍니다.

이 책은 교회 역사를 중립적인 사건의 나열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책은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본질을 기준으로 역사를 읽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침례교 역사를 관통해 온 핵심 원리들을 하나의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교회 역사를 살펴봅니다. 그 기준의 핵심 원리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이 원리들은 침례교 역사를 관통해 온 근간이자 신약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① 성경의 절대적 권위
②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교회
③ 신자 침례와 침수례[2]
④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⑤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자율성

---

2. 침수례(Immersion)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침례의 본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물속에 온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장사·부활과 신자가 동일시됨을 상징하며, "담그다, 잠기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baptizō'의 의미와도 일치한다. 초대 교회와 초기 사료 역시 침수례가 보편적이었음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침수례는 신자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진리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외적으로 고백하는 공적 선언이며, 침례교회는 이러한 성경적 모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침수례를 시행해 왔다.

이 원리들은 침례교만의 전통이 아니라 신약 교회의 본질에서 직접 나온 것들입니다. 침례교는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원칙들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훨씬 더 깊고 실천적인 데 있습니다. 침례교 역사를 배우는 일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영적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독자가 교회와 신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도록 돕고자 합니다.

- 오늘날 교회는 초대 신약 교회와 얼마나 가까운가?
-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 우리는 신자 침례, 구원받은 신자들 교회, 양심의 자유, 회중 정치를 얼마나 진지하게 실천하고 있는가?
-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침례교는 새로운 운동이 아닙니다. 신약 교회를 회복하려는 운동입니다.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진리가 이 책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이 2,000년의 교회 역사와 500년의 침례교 역사를 따라가며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다음 한 문장을 깊이 새겨 주기를 기도합니다.

"침례교는 신약 교회를 이 시대에서 실천하려는 운동이다."

이 책을 꼼꼼히 교정해 주신 사랑침례교회의 김지훈 형제님과 여러 형제자매님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이 책을 쓰도록 권유해 준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셔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신약 교회의 비전을 회복하고 신약 성경의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5년 10월 유럽 종교 개혁 투어를 마친 뒤

사랑침례교회 목사

정동수

History of The New Testament Church

Baptist Church and Religious Liberty

Part 1

신약 교회의 타락과 그 원인

진리의 상실과 회복의 소망
1,500년의 암흑과 등불

제1부는 “순수했던 신약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다루며 초대 교회에서 종교 개혁까지 약 1,500년의 변화를 보여 준다. 초대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형성한 단순하고 순수한 공동체였으며 박해 속에서도 신약 성경의 교리를 붙들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밀라노 칙령 이후 교회는 국가 권력과 결합했고 국가 교회인 천주교가 제도화되면서 신약 교회 본래 모습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어거스틴은 카톨릭 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상가였지만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에서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논리를 제시해 무력 사용에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는 중세 천주교 박해 신학의 토대가 되었다.

중세 카톨릭교회는 정치·법·교육 등 사회 전 영역을 장악한 거대한 종교 권력이 되었고 종교 재판소는 그 타락의 절정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그 아래에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왈도파, 롤라드파, 후스파 같은 증언자들은 ‘오직 성경’을 붙들며 신약 교회 정신을 이어 갔다.

16세기 종교 개혁은 이신칭의를 회복했으나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는 국가 교회 체제와 유아 세례를 유지해 온전한 신약 교회 회복에는 실패했다. 이 미완의 개혁은 재침례교와 침례교의 등장을 낳으며 신약 성경의 원형을 다시 찾는 새로운 흐름을 이끌었다.

Chapter 1

초대 교회 시대
국가 권력과 대립한 순수한 교회 시대

AD 30-313

오늘날 기독교에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존재하며 각기 다른 예배 전통과 교회 구조가 공존한다. 그런데도 모두가 "우리 방식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적인 방식은 오직 성경이 말한 대로 하는 것이며, 무엇이 참된 신약 교회인지 판단하려면 반드시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서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이미 신약 성경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교단의 전통이나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패턴 자체에 우리의 교회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 장은 바로 그 기준을 따라 초대 교회의 원형을 살피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쓰였다. 초대 교회의 순수함과 말씀 중심의 구조를 회복해야만 현대 교회가 본래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초대 교회가 왜 세상 권력과 충돌했고, 왜 끊임없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초대 교회의 내

적 순수성과 외적 고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신약 교회의 참된 모습과 함께, 그 교회가 세속 권력과 대립하며 당했던 박해의 역사까지 함께 다루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약 교회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신약 교회의 참된 모습

사도행전을 펼쳐 보면 우리는 최초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조직이나 화려한 건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것은 회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였다.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라.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행 2:38)라고 대답했다.

순서를 주목하라.

첫째,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

둘째,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회심).

셋째,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 그날 3,000명이 침례를 받았고 이들이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도행전 2장 42-47절이 이를 아름답게 묘사한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믿

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행 2:42–47)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모든 특징을 볼 수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첫째, 교회는 가정 중심이었다.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라는 표현을 보라. 초대 교회는 거대한 성당이나 장엄한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았다. 누군가의 집 거실이 교회였다. 로마서 16장 5절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고 권면하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자신들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고린도 사람들에게 문안하였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는 눔바의 집에 있는 교회가 언급되고 빌레몬서 2절에서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온다.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대 교회에는 전용 건물이 없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교회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1]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내

1. 초대 교회가 주로 '집에서' 모인 이유는 건물 교회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상황상 전용 예배 장소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수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었으며(행 2:41; 4:4), 이처럼 큰 규모는 자연스럽게 여러 장소의 모임을 필요로 했다. 신약 성경의 핵심 원리는 "집에서만 모여야 한다."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인 성도들이 교회이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는 환경과 필요에 따라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현대처럼 전용 예배당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규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는 소수의 성도들로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면 큰 모임을 이룰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교회란 성령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교회 크기와 건물 유무는 형식에 속하는 문제일 뿐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주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다.

이 원리는 훗날 침례교회에 매우 중요했다. 침례교인들이 박해받을 때 그들은 공식 건물을 가질 수 없었지만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집에서, 숲에서, 지하실에서, 어디서든 모였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는 성경 중심이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행 2:42). 초대 교회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 즉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것을 가르쳤다. 초대 교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모세 오경, 시편, 대언서들을 읽고 연구했다. 그리고 점차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모아지기 시작했다. 사도들의 서신들이 교회들 사이에서 읽히고 필사되고 전달되었다.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며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였다.

초대 교회에게 성경은 최종 권위였다. 교황의 칙령도 아니고, 공의회의 결정도 아니고, 오랜 전통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기준이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을 기억하라.

>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교회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훈련시킨다.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규칙이고 지침이다. 이것이 침례교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 침례교는 '오

직 성경'(Sola Scriptura)을 다른 어떤 개신교 교파보다 철저하게 실천하려 했다. 성경이 명령한 것은 지키고 성경이 침묵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것이 초대 교회의 원칙이었고 근대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원칙이다.

셋째, 교회 조직은 매우 단순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 직분을 보는가? 감독들과 집사들이다.[2]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과 집사들, 이들이 전부이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마다 장로들을 임명했다."고 말한다. 각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고 여러 명의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인도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설명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고, 술에 탐닉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목하라. 감독들과 집사들은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막 10:43-44)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권면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

2. 초대 교회에서는 감독, 장로, 목사가 서로 다른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신약 성경은 이 세 용어를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동일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사도행전 20장, 디도서 1장,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와 감독과 목사의 사역을 서로 교차하여 동일한 직무로 언급한다. 유대인 배경의 초기 교회에서는 유대 공동체 전통에 따라 주로 장로라는 호칭이 사용되었고, 그리스 문화권의 이방 교회에서는 행정적 의미가 강한 감독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였다. 시간이 지나 감독이라는 용어가 제도화되고 후대 카톨릭교회의 주교라는 계급으로 발전하자, 성경적 목양을 강조한 공동체에서는 보다 성경적인 의미를 담은 목사라는 호칭을 선호하게 되었다.

떼에게 본이 되라"(벧전 5:2-3).

초대 교회에는 복잡한 위계질서가 없었다. 교황도 없었고 추기경도 없었고 대주교도 없었고 주교도 없었다(초대 교회의 '감독'은 단지 한 지역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 혹은 장로를 의미했다). 거대한 관료 체계도 없었다. 각 지역 교회는 자율적이었고 장로들이 그 교회를 섬겼다.

사실 성경은 지역 교회가 단수 감독 체제를 가질지, 복수 감독 체제를 가질지에 대해 어떤 형식적 제한도 두지 않는다. 신약 성경은 특정한 구조를 법처럼 강요하기보다, 교회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감독(장로)들을 세워 양 떼를 돌보도록 하는 원리를 제시할 뿐이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서 복수 장로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원칙의 강제가 아니라 당시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서술이다. 따라서 성경은 교회가 단수 목회자든 복수 목회자든 질서와 신실함 속에서 목양이 이루어진다면 그 형태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가? 회중이 함께 결정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라. 교회가 일곱 명을 섬기는 자로 선택할 때 어떻게 했는가?

사도들이 임의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행 6:3). 회중이 그들을 선택했고 사도들이 임명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보라. 할례 문제를 논의할 때 누가 참여했는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는데 (행 15:6)

그리고 결정이 내려진 뒤 편지를 보낼 때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함께 보냈다(행 15:23). 즉, 회중 전체가 이 일에 관여했다. 이것이 침례교 회중 정치의 성경적 근거이다.

또한 각 지역 교회는 자율적이며 외부 권위가 통제하지 않는다. 회중이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결정한다.

넷째, 교회 가입은 명확했다.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순서는 항상 같았다. 첫째 믿음을 통한 회심, 둘째 침례, 셋째 교회 교제. 사도행전을 통틀어 이 패턴이 반복된다. 오순절에 3,000명이 회심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삼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행 2:41). 그들은 먼저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였고(이해하고 믿어서 회심함),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내시가 믿었으며 그 뒤에 그가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리고 빌립이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자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했다(행 8:36-37). 믿음이 먼저였고 그 뒤에 고백과 침례가 있었다.

빌립보 간수의 경우도 동일하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자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 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행 16:33) 기록이 있다.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행 16:32).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침례를 받았다.

유아 세례는 어디에도 없다. 신약 성경에는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도, 예도, 암시도 없다. 오직 신자들의 침례만 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복음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유아가 세례를 받으면 교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혼합체가 된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중세와 종교 개혁 시대의 국가 교회 모델을 재현하게 된다. 국가 교회는 특정 지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유아 세례를 통해 자동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간주하며 신앙 고백이나 회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회심한 신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구성과 거의 동일한 인구 집단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만약 오직 신자들만 침례를 받으면, 교회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

람들의 공동체가 된다. 초대 교회는 다시 태어난 신자들만의 교회였다. 그것이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것이다.

다섯째, 초대 교회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비공식 공동체였다.

로마 제국의 법률 체계 안에서 교회는 합법적인 종교 단체가 아니었다. 로마 제국은 오래된 종교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고 유대교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새로웠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유대교가 아니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간주했고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했고 국가의 승인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교회는 국가의 의심과 적대의 대상이었다. 초대 교회는 초기부터 '국가 권력과의 결합'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존재였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었다. 아니,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립했다. 이 점을 기억하라. 이것이 훗날 침례교가 강력히 주장한 정교분리 원칙의 성경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침례교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지 않았다. 침례교는 초대 교회의 패턴으로 돌아갔는데 초대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 있었다.

초대 교회의 예배와 실천

이제 우리는 초대 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지도 살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의 예배도 침례교 예배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예배는 매우 단순했다. 예배에는 복잡한 의식이 없었다. 화려한 의복도, 향로도, 성상도, 제단도 없었다. 예배는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1. 성경 읽기와 가르침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라.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그것을 읽게 하고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

신을 너희도 읽으라." 회중들은 바울의 서신들을 읽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말한다. 성경 읽기, 권면(설교), 교리(가르침) —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었다.

2. 찬송

에베소서 5장 19절은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라고 말한다. 골로새서 3장 16절도 비슷하다. 성도들은 함께 찬송했다.

3. 기도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 교회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라고 말한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라고 권면한다.

4. 빵을 뗌(주의 만찬 혹은 애찬 교제)[3]

사도행전 2장 42절은 교회가 '빵을 떼는 일'을 했다고 말하며 사도행전 20장 7절은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라고 말한다. 주의 만찬이나 애찬은 정기적으로, 아마도 매주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5. 헌금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 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

3. 초대 교회에서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다시 태어난 신자들이 참여하는 신앙 고백의 예식이었다. 애찬은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적 식사였다. 초기에는 두 예식이 함께 진행되었으나 무질서가 생기자 점차 분리되어 주의 만찬은 독립된 예식으로 자리 잡았다.

라."고 말한다.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헌금했다.

이것이 전부이다. 단순하지 않은가?

성경, 찬송, 기도, 주의 만찬(혹은 애찬 교제), 헌금. 복잡한 의식도, 제사장의 특별한 옷도, 연극이나 드라마도 없었다. 예배는 단순하고 영적이고 성경적인 예배였다. 이것이 침례교 예배의 모델이 되었다. 침례교는 예배를 단순하게 유지하려 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침례는 어떻게 행해졌는가?

우리는 이미 믿음을 고백한 신자들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침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침례'라는 단어 자체가 답을 준다. 헬라어 '밥티조'(βαπτίζω)는 '담그다', '잠기게 하다'를 의미한다.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침례를 보라.

>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마 3:16)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셨다."(he… out of the water)는 구절은 그분이 물속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은 어디에서 침례를 주었는가?

>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많은 물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으니 (요 3:23)

왜 물이 많이 필요했는가? 침수를 위해서다. 단지 머리에 물을 뿌리려고 했다면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를 보라.

> [내시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into the water)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out of the

water)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시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행 8:38–39)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다. 그것은 침수 즉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었다. 로마서 6장 3–4절은 침례의 의미를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는 것을 나타내며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상징을 완전히 표현하려면 침수가 필요하다. 초대 교회는 침수로 침례를 주었다. 이를 의심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역사적 증거가 명확하다. 침례교는 이 초대 교회의 실천을 회복했다.

박해 속에서 정결해진 교회

초대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박해의 대상이었다. 사도행전만 읽어도 박해가 시작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되었고 산헤드린(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섰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행 4:19–20)

산헤드린은 그들을 위협했지만 석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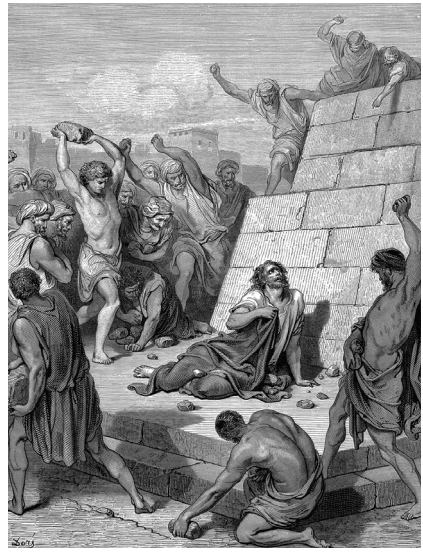
그러나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은 다시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혔으나 천사가 그들을 풀어 주자 그들은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다시 체포되어 다시 산헤드린 앞에 섰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또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라고 말하였다(행 5:28).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행 5:29)

이 문장은 초대 교회의 정신을 완벽하게 요약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침례교의 정신이 되었다. 침례교인들도 같은 원칙으로 살았다. 국가가 유아 세례를 명령할 때 침례교인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국교회에 참석하라고 명령할 때에도 침례교인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산헤드린이 사도들을 때리고 석방하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행 5:41)

그들은 기뻐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 사도행전 7장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자 그들은 분노하여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쳤으나 스데반은 죽어 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행 7:59-60).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여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라고 말한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교회를 흩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아이러니하게도 박해가 복음을 확산시켰다! 이는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이다. 박해는 교회를 파괴하지 못한다.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확산시킨다.

로마 제국의 박해

사도행전 이후,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점점 더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

1.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시민의 의무로 여겼다. 해마다 한 번씩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카이사르는 주(主)시다."(Caesar is Lord.)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의 표시였다. 로마는 이를 통해 제국의 통합을 유지하려 했다. 황제 숭배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광대한 제국을 묶는 접착제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카이사르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신들도 계속 숭배할 수 있었다. 해마다 한 번 황제에게 향을 피우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그저 형식적으로 하면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셨다. "예수님께서 주시다."(Jesus is Lord.)는 초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롬 10:9; 고전 12:3). 따라서 "카이사르는 주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할 수 없었고 그들은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

2.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 종교였다.

로마는 오래된 종교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다. 특히 오래된 '고대 종교'는 존중을 받았고 그래서 유대교는 합법적이었다. 유대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고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새로웠다. 기독교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시작되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새롭고 해로운 미신'으로 보았다. 게다가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유대교가 아니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로마법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고 따라서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였다.

3.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의 여러 관습과 제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로마 사회는 종교와 깊이 얽혀 있었다. 공공 행사, 사업 모임, 길드 회합, 심지어 사회적 파티들도 종종 우상 숭배를 포함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이교 신들을 위해 건배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행사들에 참여할 수 없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가르쳤고(고전 10:14)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고전 10:21)라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거부는 그들을 사회에서 고립시

켰다. 그들은 '반사회적'으로 보였다. 그들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불렸고 그들은 의심과 적대의 대상이 되었다.

4.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했다.

어떤 직업들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잃었다. 연극은 이교 축제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배우가 될 수 없었다. 황제 숭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이 되기 어려웠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거나 파는 등 우상과 관련된 어떤 장사도 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하며 유산 상속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이 말하듯이,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결박 중에 있는 바울을 불쌍히 여겼고 자신들의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

5.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주시다." 이 단순한 고백이 로마 제국과의 충돌의 핵심이었다. 로마에서 '퀴리오스', '도미누스'라는 칭호는 황제의 것이었다. 황제는 '주(主)이자 신(神)'이라고 불렸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선언할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정치적 도전이었다. 다시 말해 "카이사르는 주가 아니며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로마 당국이 이 언행을 반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에서 박해를 받았다.

박해의 역사 - 250년의 고난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약 250년 동안 교회는 주기적인 박해를 경험했다. 박해는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평화가 있었지만 박해는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때로는 극도로 잔인했다.

네로 황제 (Nero, 재위 AD 54-68)

제국 차원의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 시대에 일어났다. AD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도시의 많은 부분이 불탔다. 사람들은 네로가 화재를 지시했다고 의심했다(그가 로마를 재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네로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 56-120)는 이렇게 기록했다.

"군중의 증오를 진정시키기 위해 네로는 거짓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여 처벌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행 때문에 대중에게 혐오받는 집단이었다.… 막대한 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이 죽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개들에게 찢겨 죽게 했다. 다른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다른 이들은 해가 질 때 횃불로 사용되기 위해 불태워졌다."

전승에 따르면 이 박해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되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한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Domitian, 재위 AD 81-96)

도미티아누스는 강력한 황제 숭배를 추진하며 자신을 '주와 신'으로 부르게 했고, 이 요구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로마 귀족과 황실 내부에 대한 숙청을 단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 정치적 반역자로 의심받는 일이 많았다.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밧모 섬으로 유배된 시기가 이때로 알려져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깔린 긴장과 압박도 도미티아누스 치하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의 박해는 네로처럼 공개적이고 전국적인 대학살은 아니었지만 이 시기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적 박해와 사회적 압력이 크게 증가한 때였다.

트라야누스 황제 (Trajan, 재위 AD 98-117)

트라야누스는 비교적 관대한 황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그는 소아시아의 총독 플리니우스(Pliny the Younger,

61-113)에게 편지를 보냈다. 플리니우스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물었기 때문이다. 트라야누스의 답변은 흥미롭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는 안 되지만 고발되고 유죄가 입증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석방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35-107)가 순교했는데 그는 시리아 안디옥의 감독(목사)이었다. 그는 체포되어 로마로 보내져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졌다. 로마로 가는 도중 그는 여러 교회들에 편지를 썼는데 이것들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으며 초대 교회의 신앙과 용기를 보여 준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썼다. "나는 맹수들에게 바쳐질 하나님의 밀알이다. 그것들의 이빨에 갈릴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순전한 빵이 되리니 그러므로 나를 사자들에게 넘겨주라. 그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드리아누스와 안토니누스 피우스 (Hadrian & Antoninus Pius, 재위 AD 117-161)

이 시기는 비교적 평화로웠지만 지역적 박해는 계속되었다.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100-165)이 이 시기에 살았는데 그는 철학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기독교를 변호하는 저술들을 썼다. 그는 로마 황제들에게 '변증서'를 제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무고하다고 주장했고, 하드리아누스와 안토니누스 피우스 시대에 주로 활동했으나 최종적으로는 165년경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에 로마에서 순교했다. 그와 여섯 명의 동료들이 재판을 받을 때 로마 관리가 먼저 물었다. "너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저스틴은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그는 단지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고 "저는 확신하며, 전적으로 확신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관리가 명령했다.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저스틴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답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의 불경

한 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단호한 고백 때문에 저스틴과 그의 동료들은 끝내 참수형을 당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Antoninus, 161–180)는 철학자 황제로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를 비이성적이고 완고한 종교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치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증가했다.

소아시아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Polycarp, 69–155)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보다 조금 앞선, 안토니누스 피우스 치세(155년경) 당시에 순교한 인물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그는 이미 고령(아마도 80대)이었으며 결국 체포되어 경기장으로 끌려갔다.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먼저 말했다. "네 나이를 생각하라. 카이사르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자 폴리캅은 담대히 대답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 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다시 협박했다. "내게는 맹수들이 있다."

폴리캅은 두려움 없이 말했다. "그것들을 데려오십시오."

총독이 더 강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너를 불태워 버리겠다."

폴리캅은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잠시 타고 사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심판의 날에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폴리캅은 화형으로 순교하였다.

이 시기에는 오늘날 프랑스의 리옹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도 참혹한 박해가 일어났다. AD 177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맹수들에게 던져졌으며 끝내 처형되었다. 당시 리옹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데, 그 안에는 순교자들의 믿음과 용기가 깊은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블랑디나(Blandina, ?–177)라는 여성 노예였다. 그녀는 여러 날 동안 끊임없는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마지막 날, 그녀는 황소의 뿔에 묶여 공중으로 내던져졌고 마침내 칼

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 편지는 이렇게 증언한다. "그녀는 연약한 여인이었으나 순교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단장하고, 마치 훌륭한 연회에 초대받은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데키우스 황제 (Decius, 재위 AD 249–251)

데키우스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조직적 박해를 처음으로 시행한 황제였다. 그는 250년에 칙령을 내려 모든 시민이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했고,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는 이교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즉 '리벨루스'(libellus)라는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제사를 드리고 살 것인가, 거부하고 죽을 것인가?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택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적지 않은 이들이 타협하였다. 일부는 실제로 제사를 드렸고 일부는 뇌물을 주고 가짜 증명서를 얻었다. 교회는 이들을 '라프시'(lapsi, 넘어진 자들), 즉 배교자들이라 불렀다. 박해가 끝난 뒤 교회는 큰 고민에 직면했다. "배교한 자들이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가?" 이 논쟁은 교회를 깊이 갈라놓았고 초기 교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발레리아누스 황제 (Valerian, 재위 AD 253–260)

발레리아누스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했다. 그는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재산을 가진 신자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 결과 많은 감독들과 장로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다. 로마의 감독 식스투스 2세(Sixtus II, ?–258)는 258년,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중 체포되어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했던 카타콤(지하 묘지)

자리에서 즉시 처형되었다. 같은 해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Cyprian, 200-258)도 순교했다. 그는 데키우스 박해 때에는 몸을 숨겼지만, 발레리아누스의 박해 아래에서는 담대히 신앙을 고백했고 마침내 참수형을 당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Diocletian, 재위 AD 284-305)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한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일어난 '대박해'(Great Persecution)였다. 그는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303년에 갑자기 정책을 완전히 뒤집으며 연달아 박해 칙령을 발표했다.

첫 번째 칙령(303년 2월)은 교회 건물의 파괴, 성경의 소각, 그리스도인들의 법적 권리 박탈을 명령했다. 이어진 두 번째와 세 번째 칙령은 교회 지도자들의 체포와 우상 제사의 강요를 지시했고, 네 번째 칙령(304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죽음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박해의 집행 강도는 지역마다 달랐지만 특히 동방 지역에서 극렬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순교했고 교회 건물은 불타며 성경은 압수되어 파괴되었다.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신자들이 맹수 앞에 던져지거나 칼날 아래 쓰러졌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는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311년 황제 갈레리우스(Galerius, 250-311)가 관용 칙령을 선포하면서 대박해는 사실상 끝이 났다. 그는 박해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굴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 기독교를 합법화함으로써 약 250년에 걸친 박해 시대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박해가 교회에 미친 영향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박해는 교회를 정화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1. 박해는 진정한 신자와 명목상의 신자를 구별했다.

박해 속에서는 진정한 신자만이 교회에 남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사회적 이익도, 재정적 이점도, 정치적 특권도 없었다. 오직 고난과 손실과 죽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긴 참된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라는 말씀을 실제 삶으로 보여 주었다. 명목상의 신자들과 타협하는 신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박해는 그들을 걸러냈다. 그 결과 박해 시대의 교회는 작았지만 순수했고, 약해 보였지만 신실하였으며,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다.

2. 박해는 교회를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켰다.

박해 시대의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황제의 칙령도, 군대의 힘도, 법률의 지원도 없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교회를 공격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다.

성령님이 교회의 힘이었고 기도와 믿음이 교회의 무기였다. 교회는 인간의 제도나 전통이 아니라 복음에 의지했고 세상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을 구했다. 세속 권력과 결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타협 없이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3. 박해는 침례를 의미 있게 만들었다.

침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고백이었다. 당시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순교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었다. 이 때문에 침례는 진지하고 무게 있는 행동이 되었고 아무도 가볍게 침례를 받지 않았다. 침례 전에는 '예비 신자 과정'이라는 긴 준비 기간이 있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시험을 거쳐 그들의 신앙이 진실한지 확인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아 세례가 전혀 의미가 없었다. 유아는 믿음을 고백할 수도,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4. 박해는 교회를 복음 전파에 헌신하게 만들었다.

박해는 교회를 위축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지자,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느니라."(행 8:4)라고 기록되어 있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때로는 찬양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죽었다. 이러한 순교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았다. 그 질문은 복음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5. 박해는 교회를 사도행전의 패턴에 충실하게 만들었다.

박해 시대의 교회는 놀라울 만큼 사도행전의 모범을 그대로 유지했다. 작고 순수한 공동체, 자발적 가입, 신자 침례, 단순한 조직, 성경 중심, 가정 모임, 국가로부터의 독립, 희생적 헌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등. 이 모든 신약 교회의 특징은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고 강화되었다.

침례교와의 연결

왜 우리는 초대 교회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는가? 그 이유는 침례교가 새롭고 낯선 무엇을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침례교는 혁신을 추구한 운동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순수한 신약 교회의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회복 운동이었다. 사도행전의 교회, 박해 시대의 순수한 교회, 침례교의 모든 특징은 이미 그 안에 존재했다.

초대 교회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1. 신자 침례 – 초대 교회는 오직 회심한 신자들에게만 침례를 주었다.
2. 침수례 – 침례는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3. 다시 태어난 신자들만의 교회 – 교회는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였다.
4. 회중 정치 – 중요한 결정은 회중이 함께 참여하여 내렸다.
5. 성경의 권위 – 성경만이 교회의 최종 권위였다.
6.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 –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었으며,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했다.

침례교는 바로 이 신약의 패턴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것이 침례교 운동의 중심이자 전체 목적이었다. 곧, 신약 성경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일관된 열망이었다.

변화의 도래

그러나 313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합법화한 것이다. 박해는 끝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복처럼 보였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예배할 수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복과 함께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적이 다가오고 있었다. 타협이었다. 국가와의 결합, 세속 권력과의 혼합이었다. 순수하고 작으며 박해받던 교회는 점점 부유하고 강력하며 국가와 결탁된 교회로 변해 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초대 교회가 지녔던 많은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장에서 다룰 이야기이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라. 초대 교회, 즉 박해받고, 순수하고, 신실했던 그 교회가 바로 신약 교회의 참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모습이며, 모든 시대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Check Point

초대 교회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난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본질을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우리 교회는 얼마나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초대 교회처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짐을 지는 교제가 살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3. 성경은 우리의 최종 권위인가?

전통이나 의견보다 성경을 먼저 두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검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나는 직분을 섬김으로 이해하는가?

직분을 특권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받아들이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5. 나는 침례를 진지하게 바라보는가?

침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압력과 말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내 중심을 돌아보아야 한다.

7. 나는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각오가 있는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hapter 2

밀라노 칙령과 기독교 공인
정치와 종교의 일치

AD 313-380

오늘날 교회는 국가의 인정을 받고, 때로는 세금 혜택과 사회적 영향력, 정치 권력과의 연결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기 쉽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법과 제도가 우리의 신앙을 지지하면 이상적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합할 때, 과연 그것이 언제나 복인지, 아니면 교회의 본질을 바꾸어 버리는 위험한 시작인지 하는 물음을 진지하게 던져야 한다. 역사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결합은 언제나 신약 교회의 단순함과 순수성을 위협해 왔기 때문이다.

이 장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룬다. 이 장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콘스탄티누스와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교회가 제국의 정치 구조 안으로 끌려 들어가며, 마침내 AD 380년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한다. 겉으로는 박해의 종식과 특권, 화려한 건축과 영향력의 확대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 어떻게 신약 교회

의 모습이 훼손되고 국가 교회가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 침례교가 왜 정교분리, 신자 침례, 다시 태어난 신자들만의 교회, 회중 정치, 오직 성경을 다시 붙잡으려 했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려 한다.

콘스탄티누스의 등장 - 역사의 전환점

312년 10월 28일,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아니 기독교 역사 전체를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밀비우스 다리 전투'였다. 이 전투를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 제국은 여러 황제들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콘스탄티누스(Constantine the Great, c.272–337, 재위 306–337)는 브리타니아(영국), 갈리아(프랑스 포함 주변 지역), 히스파니아(스페인)를 포함한 '서방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였는데 그는 요크(Eboracum)에서 군대의 지지를 받아 황제로 선포된 뒤 갈리아와 브리타니아를 안정시키고 이탈리아를 향해 진군했다. 한편 막센티우스(Maxentius, 278–312)는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탈리아–아프리카 권역'을 지배하던 황제로, 로마시를 직접 장악하고 프라이토리안 경비대를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정복을 위해 이탈리아로 진군했고 두 군대는 로마 북쪽 테베레 강의 밀비우스 다리에서 마주쳤다. 병력 규모는 막센티우스가 더 컸고 전투는 콘스탄티누스에게 불리해 보였다. 그러나 전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콘스탄티누스와 키-로 기호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Eusebius, c.260–339)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환상을 보았다. 태양 위에 빛나는 십자가가 나타났고 그 곁에 "이것으로 정복하라."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날 밤 꿈에서

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군대의 방패에 십자가 표식을 하라고 명했다고 한다. 콘스탄티누스는 그 명령을 따랐다. 그는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χρ(Chi-Rho, 키-로) 기호[1]를 그리게 하고 전투에 나섰고 전투는 완전히 그의 승리로 끝났다.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무너졌고 막센티우스는 도망치다 테베레 강에 빠져 익사했으며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에 입성하여 서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다. 그는 이 승리가 기독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었고, 기독교에 호의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일부는 그가 진심으로 회심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는 교회를 후원했고 여러 성당을 세웠으며[2] 기독교 신학 논쟁에 깊이 관여했다.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의 행적 중에는 의문을 남기는 부분도 많다. 그는 죽기 직전인 337년에야 침례를 받았다. 콘스탄티누스는 당시 동방 교회의 관례에 따라 니코메디아(오늘날 터키 이즈미트 인근)에서 침수례로 침례를 받았다.[3] 어떤 이들은 그가 침례 이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복음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그는 자기 아들과 아내를 처형했다는 점이다. 그는 326년에 자기의 장남 크리스푸스를 처형했고 이어 자기의 아내 파우스타를 죽였다.

---

1. 이 기호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어 Χριστός의 첫 두 글자에서 온 것이다.
2.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라테란 대성당과 구(舊) 성 베드로 대성당을 비롯해 여러 교회를 제국 재정으로 후원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성지 순례 중 예루살렘의 성묘 교회, 베들레헴의 탄생 교회, 올리브 산의 엘레오나 교회, 그리고 시내 산의 초기 수도원 전통(후대의 성 캐서린 수도원으로 발전했는데 이곳은 훗날 현대 성경 비평학과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된 소수 사본 중 하나인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함) 등 성지 주요 성당들의 건립을 직접 주도했다. 즉, 제국적 후원은 콘스탄틴이 맡고, 성지 현장 건축의 주도권은 헬레나가 담당한 것으로 교회사는 구분한다.
3. 집례자는 니코메디아의 주교 유세비우스(Eusebius of Nicomedia)였으며, 이는 가이사랴의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콘스탄틴의 생애」를 비롯해 여러 고대 사료가 일관되게 전하는 사실이다.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궁정 내 정치적 음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기 가족을 죽인 흉악한 사람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을까?

또한 그는 계속해서 이교 신들을 인정했다. 그의 동전에는 태양신의 이미지가 남아 있었고 그는 기독교와 이교를 혼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끌리긴 했지만, 그의 신앙은 불완전하고 혼합적이었다는 결론이 타당하다. 정치적 목적이 그의 종교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콘스탄티누스가 회심했든 하지 않았든, 그는 기독교에 호의적이었고 그의 정책은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밀라노 칙령 - 박해의 종식

콘스탄티누스의 승리 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313년 2월, 역사적 전환점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밀라노 칙령의 발표였다. 이는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서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Licinius, 263–325)가 밀라노에서 합의한 정책을 각 지방 총독들에게 편지 형태로 전달한 것이었다.

밀라노 칙령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종교의 자유

칙령은 제국 내 모든 종교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리키니우스가 동방 총독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모든 이가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따를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는 하늘의 어떤 신이든 우리와 모든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다."

로마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순간이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특별 보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해나 공격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어 예배드릴 필요가 없었다.

셋째, 교회 재산의 회복

박해 시기에 몰수되었던 교회의 땅과 건물, 물품들은 보상 없이 즉시, 무조건 교회에 반환되어야 했다.

이 칙령이 가져온 변화는 엄청났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체포되지 않았고 황제 숭배를 강요받지 않았으며 지하 묘지나 숲에서 은밀하게 모일 필요도 없었다. 성경은 더 이상 불태워지지 않았고 침례는 더 이상 순교의 위험을 수반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로마법 아래서 보호받는 합법 종교가 되었다.

처음에 이 모든 것은 큰 복처럼 보였다. 300년 동안 이어진 박해가 끝났기 때문이다. 네로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고 교회는 언제나 두려움 속에 존재했다. 이제 그 긴 어둠이 끝난 것이다. 교회는 환호했고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를 '새로운 모세'라고 부르며 기쁨을 표현했다. 많은 이들은 이를 하나님의 특별한 복으로 보았다.

"마침내 교회가 안식을 얻었다. 이제 복음이 방해 없이 전파될 것이다."

실제로 밀라노 칙령 이후 황제의 호의는 계속 커졌다.

1. 성직자 특권

313-319년 사이, 콘스탄티누스는 주교, 장로, 집사들에게 세금 면제를 부여했다. 로마 제국의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엄청난 특권이었다. 또한 이들은 공공 의무(도로 건설 등 강제 노동)에서도 면제되었다.

321년에는 교회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성직자가 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길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영적 소명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성직자가 되려 했다.

2. 화려한 교회 건축

콘스탄티누스는 제국 곳곳에 거대한 교회 건물을 세웠다.

- 로마: 성 요한 라테란 대성전
- 바티칸: 구(舊) 성 베드로 대성전
- 예루살렘: 성묘교회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십자가의 위치'를 발견했다고 보고함)
-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

이 교회들은 대리석, 모자이크, 금·은 장식 등으로 꾸며진 호화로운 건물들이었다. 교회는 이제 작고 가난한 지하 공동체가 아니라 막대한 재산과 건물을 보유한 제국의 보호받는 기관이 되었다.

3. 주교들의 정치화

콘스탄티누스는 주교들을 궁정으로 초대하여 정치적 조언을 구했다. 주교들은 국가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했고 제국의 고위 관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314년, 그는 갈리아의 아를(현재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도시 아르)에서 도나투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회 회의를 소집했다. 황제가 회의를 소집하고 여비를 제공하고 결정 사항을 집행했다.

325년에는 더욱 큰 규모의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 아리우스 논쟁을 다루게 했다. 황제는 개회를 선언했고 토론을 주재했고 결의를 강제로 관철했다. 이때부터 황제의 교회 개입이 관례로 굳어졌다.

4. 주일 제정

321년,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을 공식 휴일로 선포했다. 칙령에는 '주의 날'이 아니라 '태양의 날'(Day of the Su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

시 이교도 사회도 무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국가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 — 세금 면제, 화려한 건물, 정치적 영향력, 공휴일 제정 — 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복과 같았다. 이제 교회는 인정받고, 보호받고, 성장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역사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시험 앞에서 교회는 타협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가난하고 순수하고 핍박받던 '신약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부유하고 권력과 결합된 '국가 교회'(State church)[4]가 등장하게 되었다.

니케아 공의회 (AD 325) - 불신자가 교회를 주도하다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지 12년이 지난 325년,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니케아 공의회(Council of Nicaea)이다.[5]

이 공의회는 여러 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이 공의회는 전 세계 교회의 첫 번째 에큐메니컬 공의회, 곧 보편 공의회였다.[6] 로마 제국 전역에서 약 300명의 주교들이 모였고 그들은 중요한 신학 문제들을 논의하며 니

4. 국가 교회란 국가가 특정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교회를 국가 제도와 연결하여 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교회 조직과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보통 국가 권력과 교회 권위가 결합하여 국민 전체를 동일한 종교 체계 아래 두려는 구조를 이룬다.
5. 니케아(Nicaea)는 오늘날 터키 북서부의 작은 도시인 이즈닉(Iznik)에 해당하며, 이즈닉 호수 동쪽 연안에 자리 잡은 고대 비티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다. 이곳은 소아시아 서쪽과 비잔틴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바로 이곳에서 AD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다.
6. 에큐메니컬 공의회란 전 세계, 곧 '보편(catholic)'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과 교리, 교회 질서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그래서 '보편 공의회'라고도 불리며, 니케아 공의회(325년)가 그 첫 번째 사례로 인정된다.

니케아 공의회 회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

케아 신조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공의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누가 이 공의회를 소집했는가?"

"누가 회의를 주도했는가?"

그 중심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침례도 받지 않은,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었다.

아리우스 논쟁의 시작

이 공의회가 왜 소집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318년경, 알렉산드리아에 아리우스(Arius, 256–336)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그는 인기 있는 설교자였고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위험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다음으로 손꼽힐 만큼 거대한 대도시였으며, 오늘날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항구 도시로 학문과 신학 활동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아리우스가 점점 '아들은 창조된 존재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위험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논쟁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와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동방 교회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고 가르쳤으며, 이를 요약한 그의 유명한 표현이 바로 "한때 아들이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아리우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서 아버지보다 열등한 분이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더(Alexander, 250–326)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우려를 품었다. 이는 단지 사소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가르침이었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만약 예수님이 단지 창조물이라면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무한한 가치와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알렉산더는 321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역 회의를 소집했다. 약 100명의 이집트 주교들이 모였고 그들은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면밀히 조사한 뒤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했으며 그 결과 아리우스는 파문되었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집트를 떠나 소아시아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오히려 강력한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다. 특히 니코메디아의 주교 유세비우스[7]가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논쟁은 점점 더 넓게 퍼져 나갔고 동방 교회들은 둘로 갈라졌다. 어떤 주교들은 아리우스를 지지했고 다른 주교들은 알렉산더를 지지했다. 교회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 상호 교제가 끊어지기도 했으며 심지어 폭력 사건까지 발생했다.

콘스탄티누스의 개입

이 혼란에 대한 보고가 결국 콘스탄티누스에게까지 올라가자 이 소식을 들은 그는 크게 불쾌해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신학 그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었

7. 그는 교회 역사 저술로 유명한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와는 다른 인물, 출생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341년경에 사망하였다.

다. 그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제국의 통합이었다. 그는 기독교를 제국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도구로 보았는데 이제 기독교 내부의 분열이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 콘스탄티누스는 비교적 온건한 방법을 시도했다. 그는 양측에 편지를 보내 화해를 권고했고, 코르도바의 주교 호시우스(Hosius of Cordova, 256-357)를 특사로 보내 중재를 시도하게 했다. 그러나 논쟁의 골은 이미 너무 깊었기 때문에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결국 콘스탄티누스는 보다 강력한 방법을 선택했다. 전 제국의 주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공의회를 열고 이 논쟁을 제도적으로 정리해 버리겠다는 것이었다.

325년 봄, 그는 칙령을 내려 모든 주교들에게 소아시아의 니케아로 오라고 명령했다. 황제가 여행 경비를 부담했고, 황제의 마차와 말이 제공되었으며, 주교들은 황제의 손님으로 대접받았다.

약 300명의 주교들이 니케아에 모였는데 정확한 숫자는 사료마다 조금씩 다르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동방 출신이었고 서방에서는 소수만이 참여했다. 로마 주교는 고령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해 대신 대표단을 파견했다.

황제가 주재한 교회 회의

325년 5월 20일, 공의회는 콘스탄티누스의 궁전에서 개회되었다. 큰 홀 안에 주교들이 줄지어 앉았다.

그들 가운데는 박해의 상처를 몸에 지닌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쪽 눈을 잃은 주교, 다리를 저는 주교, 고문으로 인해 신체가 불구가 된 주교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은 참된 증인들이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렸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입장했다. 황제는 화려한 자주색 황제복을 입고 보석으로 장식된 의복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위엄 있게 걸어 들어와 중앙에 놓인 금 의자에 앉았고, 주교들은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모든 사람이 일어났고 황제는 마치 하늘의 천사처럼 입장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그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용모에는 힘과 아름다움이 넘쳐 보였다."

콘스탄티누스는 개회사에서 교회의 분열은 전쟁보다 더 해롭다고 강조하며 주교들에게 화평과 일치를 이루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며 감독'이라고까지 부르며 교회의 일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시점에서 잠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콘스탄티누스는 아직 침례조차 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지금 그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 자리에서 회무(會務)를 주재하고 있었다.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가?

초대 교회의 회의를 떠올려 보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 회의는 누가 소집했는가? 교회가 소집했다.

>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매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의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행 15:2)

교회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냈다.

누가 회의를 주재했는가? 사도행전 15장 6절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느니라."고 말한다.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는가?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토론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한 후에 결론에 도달했다.

>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행 15:28)

그러나 니케아에서는 모든 구조가 달라져 있었다. 공의회를 소집한 이는 교회가 아니라 세속 통치자였고, 교회 밖에 있던 황제가 회의의 중심에 서서 진행

을 주도했다. 그의 동기는 신학적 진리를 추구하려는 열정이라기보다 제국의 정치적 통합과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더 가까웠다.

황제가 신학 토론을 주도하다

공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콘스탄티누스는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아리우스파와 정통파 사이에는 날카로운 논쟁이 이어졌다. 핵심 질문은 한 가지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인가, 아니면 비슷한 본질인가?"

정통파는 '호모우시오스'(homoousios)라는 단어의 사용을 주장했다. 이는 '동일한 본질'이라는 뜻이며 예수님과 아버지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아리우스파는 '호모이우시오스'(homoiousios)를 선호했다. 이는 '비슷한 본질'이라는 뜻이다. 철자 하나(i) 차이지만 이 둘의 신학적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이 지점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다시 개입했다. 그는 '호모우시오스'를 지지했는데, 이는 신학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논쟁을 일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단호한 표현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모호함이 남는 결론을 원치 않았고 분쟁을 끝내어 제국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합의를 필요로 했다.

황제의 입장은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다. 주교들은 황제의 뜻을 노골적으로 거스르기 어려웠고 결국 '호모우시오스'가 채택되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창조되지 않은 분이며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명기하는 니케아 신조가 작성되었다.

신학적으로 니케아 신조는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고백한 것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교회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도달한 합의라기보다는, 황제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해석을 밀어붙였고 공의회는 그 압력 아래 움직였다는 점에서 논란을 남겼다.

황제가 결정을 집행하다

공의회가 끝난 후에도 콘스탄티누스의 개입은 계속되었다. 니케아 신조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주교들은 추방되었다. 아리우스 역시 추방되었고 그의 저술들을 불태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책을 숨기거나 소지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제 황제는 교리를 강제로 믿게 하고, 무엇이 이단인지 규정하며, 그에 대한 처벌까지 집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는 교회 역사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콘스탄티누스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몇 년 뒤 그는 점차 아리우스파에 호의를 보였고 아리우스를 복권시키려 했다. 반대로 정통파 주교들, 이를테면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는 추방을 당했다.

이 모든 과정이 보여 주는 바는 분명하다. 황제가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교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교리와 결정이 좌우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니케아 공의회가 남긴 가장 심각한 그림자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 교회의 위험한 선례

니케아 공의회는 국가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는 황제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

1. 황제가 교회 문제에 최고 권위를 가진다는 선례

콘스탄티누스가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고 토론을 주도하고 결정을 집행했다. 이는 황제가 교회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초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였다.

>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 1:18)

그러나 이제 황제가 사실상 교회의 머리처럼 기능하기 시작했다.

2. 신학이 정치에 종속된다는 선례

콘스탄티누스는 신학적 진리보다 제국의 정치적 통합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는 교리를 분별할 신학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이는 이후 수백 년 동안 반복될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다. 황제들이 신학 논쟁에 개입하여 때로는 정통을, 때로는 이단을 지지하는 일이 계속되었고, 결국 교리는 궁정 정치의 도구처럼 취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3. 국가가 이단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는 선례

니케아 공의회 이후, 제국의 힘이 처음으로 특정 종교적 의견을 강제로 억누르는 데 사용되었다. 아리우스파 주교들은 추방되었고 아리우스의 저술은 불태워졌다.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였으며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중세 시대에 이르러 이단 심문이 제도화되고 수천 명이 화형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4. 교회가 국가의 도구가 된다는 선례

콘스탄티누스는 교회를 제국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교회의 주된 목적이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아니라 제국의 안정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마 28:19)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사명이 황제의 정치적 목표를 섬기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침례교회의 인식

침례교는 니케아 공의회를 볼 때 늘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다. 한편으로 니케아 신조가 선언한 신학 —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아버지와의 동일

본질 — 은 성경적 진리이며 침례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리우스주의가 이단이라는 점 역시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침례교가 문제 삼는 핵심은 그 과정이다. 불신자가 공의회를 소집하고, 황제가 신학적 결정을 내리며, 국가 권력이 교리를 강제했다는 사실은 성경적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침례교는 질문한다. "만약 콘스탄티누스가 아리우스주의 편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황제가 오히려 정통을 박해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아리우스주의를 지지하며 정통을 압박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 위험한 이유다. 권력은 진리를 지켜 주지 못하며, 때로는 오히려 왜곡한다.

침례교는 교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믿는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신학적 결정은 성경 연구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니케아 공의회는 이 원칙이 처음으로 무너진 사건이었고, 그 여파는 천 년 넘게 교회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공의회의 권위 – 왜 침례교만 다른 길을 가는가?

니케아 공의회를 이해할 때, 침례교와 대부분의 다른 기독교 전통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은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Apostles' Creed)을 암송하는데,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8]

여기 'catholic'은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universal)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그래서 소문자 'c'로 표기한다. 이는 전 세계의 모든 참된 신자들로 이루어진 보편적 교회를 고백하는 말이다.

8. 한국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holy catholic church)를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catholic'이라는 단어가 천주교(카톨릭교회)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든 '거룩한 공회'라고 하든, 이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로마 제국이 형성한 국가적 교회 구조, 즉 국가 종교 체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편적 교회의 존재만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이 고백은 '교회의 집단적 목소리', 곧 초대 교회 공의회들이 내린 결정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전통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고대 교회의 에큐메니컬 공의회들, 곧 보편 공의회들에 매우 높은 권위를 부여하며, 특히 처음 일곱 개 공의회를 '신성한 공의회들'로 여긴다.

1. 니케아 공의회 (AD 325) – 아리우스주의 정죄, 그리스도의 신성 확립
2.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AD 381) – 니케아 신조 재확인, 성령의 신성 확립
3. 에베소 공의회 (AD 431) – 네스토리우스주의 정죄
4. 칼케돈 공의회 (AD 451) – 단성론 정죄, 그리스도의 두 본성 확립
5. 콘스탄티노플 제2차 공의회 (AD 553)
6. 콘스탄티노플 제3차 공의회 (AD 680–681)
7. 니케아 제2차 공의회 (AD 787) – 성상 파괴 논쟁

카톨릭과 정교회는 이 공의회들의 결정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 이 공의회들은 성경 바로 다음가는 높은 권위를 지니며,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교회의 공식 목소리'로 간주된다.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후대의 공의회들 — 예를 들어 트렌트 공의회(1545–1563),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 에도 동일한 권위를 부여한다. 또한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오류설' 역시 고백한다.

놀라운 사실 – 개신교도 거의 다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놀랄 만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들 역시 초기 공의회들의 권위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 루터교: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많은 오류 — 면죄부 판매, 연옥 교리, 성자 숭배, 교황의 절대 권위 — 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초기 공의회들 자체는 존중했다. 루터교는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케돈 신조를 받아들인다.

2. 장로교: 존 칼빈 역시 초기 공의회들을 높이 평가했다. 장로교의 핵심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총회와 공의회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장로교는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를 사용한다.

3. 성공회(영국 국교회): 성공회는 39개 신조 제8조에서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증명될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4. 감리교: 존 웨슬리가 성공회 전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리교 역시 초기 공의회를 존중한다. 많은 감리교회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5. 오순절 교회들: 대부분의 오순절 교회들도 니케아 신조의 신학을 받아들이며 예배나 교육에서 활용한다.

6.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들 역시 대체로 니케아 신조의 신학을 인정하며, 복음주의 신학교들은 초기 공의회들을 '교회의 정통 교리를 확립한 중요한 사건들'로 가르친다. 즉,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물론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그리고 대다수 복음주의 교회들까지도 초대 공의회들에 일정한 권위를 인정한다.

물론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카톨릭과 정교회는 공의회들에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반면, 개신교는 '성경에 일치하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개신교가 초대 공의회들의 핵심 결정들 —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두 본성 등 — 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침례교의 급진적 입장 – 오직 성경만

그러나 침례교는 다르다. 침례교는 이 길을 따르지 않고 별개의 원칙을 따른다. 침례교는 이렇게 말한다.

"공의회는 틀릴 수 있다. 공의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사람은 실수한다. 공의회가 어떤 교리를 정통이라 선포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공의회의 결정이 옳은지 틀린지는 오직 성경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침례교가 니케아 신조의 신학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침례교는 삼위일체를 믿고,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믿고,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믿는다. 이 모든 핵심 교리에서 침례교는 정통 신앙을 유지한다.

그러나 침례교가 이 교리들을 믿는 이유는 공의회가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다. 침례교가 이 진리를 고백하는 근거는 오직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차이가 분명해진다. 다른 교회 전통은 "니케아 공의회가 결정했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침례교는 "성경이 가르치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니케아 공의회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는 공의회의 권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만약 니케아 공의회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는가?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들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지만, 침례교는 단순히 "공의회가 틀렸다. 우리는 성경을 따른다."고 말할 것이다.

침례교의 입장은 일관된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어떤 공의회도, 신조도, 전통도, 교회도, 교황도, 어떠한 인간의 권위도 성경과 동등할 수 없다.

침례교가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도신경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내용은 성경적이다. 그러나 침례교의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가 아니다. 이름과 달리 사도신경은 2세기 후반이나 3세기에 형성되었으며, 사도들이 죽은 지 오래된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

둘째, 사도신경에는 성경에 없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거룩한 공교회'(holy catholic church)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정기적으로 암송한다는 것은 그 문서에 일정한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침례교는 성경 외의 어떤 문서에도 신앙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역사적 문서로 존중하며, 초기 교회의 신앙을 잘 요약한 문장이라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침례교는 성경 그 자체를 읽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도신경이 아니라 성경 본문으로 대답한다.

또한 많은 침례교회는 자체적인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689년 침례교 신앙 고백이나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문서들 역시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설명일 뿐이다. 만약 어떤 신앙 고백이 성경과 충돌한다면, 언제나 성경이 우선한다.

왜 이것이 그렇게 급진적인가?

이 입장이 왜 급진적으로 보일까? 그 이유는 침례교가 1,500년 이상 이어져 온 교회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이다. 초대 공의회들은 AD 300년대부터 700년대 사이에 열렸고 그 이후 천 년 이상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의회들의 권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카톨릭도, 정교회도, 그리고 훗날 등장한 대부분의 개신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침례교는 "그렇지 않다. 공의회는 참고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오직 성경만이 권위다."라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

라 교회 역사 전체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아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카톨릭과 정교회는 "우리는 성경과 전통,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개신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지만, 교회의 역사적 신조들이 그 이해를 돕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침례교는 명확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안다. 성경이 유일하고 충분한 권위이다. 공의회, 신조, 전통, 교회 지도자,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으며, 모두 성경에 의해 판단받아야 한다."

침례교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

이 점이 침례교를 거의 모든 다른 기독교 전통과 구별하는 핵심 중 하나이다. 카톨릭과 정교회는 물론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전통은 교회 역사와 신조들에 일정한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나 침례교는 이러한 관점과 달리, 진정으로 급진적인 의미의 '오직 성경'을 실천하려 한다. 침례교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이며, 다른 모든 것은 참고할 수 있을 뿐 구속력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침례교는 때로 '비신조적'(non-creedal) 전통이라고 불린다. 침례교는 신조 자체를 거부하지 않지만 그 신조들에 권위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침례교의 유일한 신조는 성경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침례교가 묻는 유일한 근본 질문이다. "니케아 공의회가 무엇을 선언했는가?", "교회 전통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부들이 무엇을 믿었는가?"라는 질문들은 흥미롭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 기준은 될 수 없다.

침례교에게 결정적인 것은 오직 하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이다.

왜 침례교는 이렇게 급진적인가?

왜 침례교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가? 역사가 분명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

다. 침례교는 니케아 공의회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배웠다. 교회 역사에서 공의회들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공의회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고, 때로는 정치가 신학을 지배했으며, 때로는 권력이 진리를 억압했다.

그래서 침례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권위에도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둔다. 공의회가 성경과 일치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만, 공의회가 틀릴 때 우리는 성경을 따른다."

이것이 침례교의 정신이며, 침례교를 침례교답게 만드는 핵심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니케아 공의회는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기 시작한 순간을 보여 주며, 인간의 권위가 교회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장면을 드러낸다. 그것은 '오직 성경'에서 '성경과 교회 전통'으로 기울어지던 흐름의 출발점이었다.

침례교는 그 흐름을 거부한다. 침례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순수한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글자 그대로의 '오직 성경'으로 서기를 추구한다.

보이지 않는 위험 - 교회의 본질 변화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가 직면한 상황을 생각해 보라. 오랜 내전과 박해로 제국은 깊이 분열되어 있었고, 민족도 종교도 충성심도 제각각이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난 제국을 물려받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거대한 제국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는가?

전통적으로 그 역할은 황제 숭배가 담당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체계는 제국의 접착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고, 300년 동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이에 콘스탄티누스는 다른 길을 생각했다. 황제 숭배 대신 기독교를 새로운 통합의 중심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모든 이들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교회에 속하며,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면 제국이 하나로 묶일 수 있다고 보

았다. 이것이 콘스탄티누스가 품었던 비전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황제의 정치적 도구가 되기 시작했다.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발적 공동체가 아니었다. 교회는 이제 제국의 정치 구조 속에 편입되었고, 황제는 교회를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다. 순수한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보다 제국의 정치적 안정이 더 강조되었다. 진리보다 통합이, 신앙보다 충성이 더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졌다.

'박해받는 교회'는 '국가가 보호하는 교회'로 변화했고, 이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변화였다. 초대 교회를 떠올려 보라. 초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였고,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칼이 아닌 복음으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의지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황제의 후원과 세속 권력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교회가 국가 권력에 의지하는 순간, 그 권력에 종속될 위험이 생겼다. 황제의 보호를 받는 교회는 더 이상 황제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회는 국가 정책에 도전하기 어렵게 된다.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요 18:36)고 하셨지만, 교회는 점점 이 세상의 왕국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더 큰 위험은 사람들의 동기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해의 시대를 기억해 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다. 직업을 잃을 수 있었고, 재산을 빼앗길 수 있었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 있었다. 언제든지 체포와 고문과 죽음을 감수해야 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뿐이었다. 명목상의 신자

나 형식적인 신자, 이익을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박해는 교회를 정결하게 했고, 가라지를 걸러냈으며,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구별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다. 성직자가 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황제의 호의를 얻거나 정부 직책을 얻는 데 유리해졌다.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교회의 재산에 접근하는 길도 열렸다.

그 결과는 예견할 수 있었다. 진정한 회심 없이 교회로 몰려드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속적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출세를 위해 침례를 받는 사람들,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 정치적 야심 때문에 주교가 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도 않았고, 새롭게 태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종교적 형식과 관습을 따라 행동했을 뿐이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교회는 급속도로 규모가 커졌지만 동시에 세속화되기 시작했다. 순수한 복음 공동체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추구하는 거대한 종교 조직이 차지해 갔다.

유아 세례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전이었다. 초대 교회는 오직 구원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베푸는 '신자 침례'를 실천했다. 사람이 믿고, 회심하고, 그 후에 침례를 받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패턴이었다. 그러나 3세기 말과 4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유아 세례가 점점 흔해지기 시작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 요인이 있었다. 첫째, 침례가 죄를 씻어 준다는 잘못된 가르침(침례 중생론, baptismal regeneration)이 퍼지기 시작했다. 만약 침례가 죄를 제거한다면, 원죄를 가진 유아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유아 세례

둘째, 당시 높은 유아 사망률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침례 없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서둘러 침례를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이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사회적 압력이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황제의 호의를 얻게 되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일이 되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기독교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했고, 유아 세례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처럼 여겨졌다.

그 결과 4세기 후반에 이르면 유아 세례는 사실상 보편적인 관습이 되었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신학적으로 적극 변호하기까지 했다.

이 변화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교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난 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게 되었다.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회 구성원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회심이 필수적 요소가 아니게 되었고, 신앙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부모가 대신 내려주는 결정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

신약의 교회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313년의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방향 전환을 가져왔다. 박해에서 자유로, 불법에서 합법으로, 멸시에서 존경으로, 가난에서 부로, 약함에서 권력으로 이동하는 변화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위기였다. 교회는 박해의 불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번영과 권력이라는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역사는 교회가 이 시험 앞에서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전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67년 뒤에 일어난 또 하나의 결정적 사건 — 기독교가 단순한 합법 종교를 넘어 제국의 '국교'가 된 사건 — 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다 (AD 380)

380년 2월 27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종교 칙령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 칙령(Edict of Thessalonica)이 발표되었다.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Theodosius I, 재위 379–395)가 그라티아누스(Gratianus, 359–383)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2세(Valentinianus II, 371–392) 황제와 함께 이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 칙령의 공식 이름은 '모든 민족들에게'(Cunctos populos)였다.

테오도시우스는 누구였는가? 테오도시우스는 스페인 출신의 군인이었다. 그는 스페인 출신의 유능한 군인이었으며, 탁월한 장군으로 명성을 얻은 뒤 379년에 동로마의 황제로 선택되었다. 그는 열렬한 니케아파 그리스도인으로서 니케아 공의회가 확정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테오도시우스는 제국이 니케아파와 아리우스파, 여러 형태의 이단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이교도 집단들로 인해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분열이 제국을 약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그의 해결책은 결국 종교적 통일을 강제로 이루려는 것이었다.

데살로니가 칙령의 내용

데살로니가 칙령의 핵심은 그 시대 기준으로 충격적일 만큼 단호한 선언이었다. 칙령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민족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인들에게 전한 그 종교를 따르기를 원한다. 곧 현재 로마 주교 다마수스(Damasus I,

305–384)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페트로스 2세(Peter II of Alexandria, 373–380)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말한다.… 우리는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카톨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그러나 나머지 자들은 광적이고 모욕적인 이단자로 규정하며 그들의 모임은 '교회'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며, 이어 우리의 권위 아래 집행될 하늘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라.

첫째, 기독교가 제국의 유일한 국교가 되었다. 밀라노 칙령이 기독교를 '허용'했다면, 데살로니가 칙령은 기독교를 '강제'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둘째, 니케아파 기독교만이 합법적이었다. 아리우스파나 다른 기독교 분파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들의 집회는 곧바로 불법이 되었다.

셋째, 이단들은 단지 신학적으로 비판받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징벌'뿐 아니라 '국가가 집행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국가가 이단을 직접 처벌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넷째, 이교 역시 사실상 금지되었다. 칙령에 노골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 이교 신전과 제사들은 불법이 될 운명이었다.

테오도시우스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381년에 그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해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고 아리우스주의를 공식적으로 정죄하게 했다. 그 결과 아리우스파 주교들은 추방되었고 그들이 목회하던 교회들은 니케아파 주교들에게 넘겨졌다. 이어 391–392년에 발표된 일련의 칙령들로 이교 숭배는 전면 금지되었고 많은 이교 신전들이 폐쇄되거나 파괴되었다. 이교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불법이 되었고 심지어 집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교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명한 이교 신전인 세라페움(Serapeum)이 기독교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주교 테오필루스(Theophilus, ?–412)가 이 일을

주도했다. 로마에서는 가정과 화로의 여신 베스타(Vesta)의 신전이 문을 닫았고 제우스를 기리는 이교적 성격 때문에 올림픽 경기는 393년에 마지막으로 열린 뒤 폐지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 곧 유일한 합법적 종교가 되었다.

문제는 즉시 시작되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무서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1.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강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 않았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죄들의 용서를 경험하지도 않았다. 성령님을 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법을 따랐을 뿐이었다. 종교 의식을 형식적으로 수행했을 뿐이었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생각해 보라. 이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아닌가? 성경은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제국의 모든 시민을 포함하는 거대한 집단이 되어 버렸다. 회심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고, 신앙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 교회의 권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주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역의 행정관처럼 기능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법정을 가지게 되었다. 주교들은 민사 분쟁을 판결할 권한을 받았다. 사람들은 세속 법정 대신 교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로써 주교들은 세속적인 통치 권력까지 거머쥐게 되었다.

교회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사람들이 교회에 땅과 재산을 기증했다(부

분적으로는 세금 혜택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영적 공로를 쌓는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부유해졌다. 주교의 자리는 영적 섬김의 자리에서 권력과 명예의 자리로 변질되었다. 주교가 되면 권력, 재산, 명예가 따라왔고 그래서 주교직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역사는 주교 선출을 둘러싼 정치적 술수, 뇌물, 음모, 심지어 폭력의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366년 로마에서 다마수스와 우르시누스가 주교직을 놓고 다투었을 때 그들의 지지자들 사이에 폭력 충돌이 일어나 수십 명이 죽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다(막 10:43). 그러나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고 있었다.

3. 국가가 신학 논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콘스탄티우스 2세

이는 매우 위험한 발전이었다. 초대 교회에서 교리적 논쟁은 교회 내부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해결되었다. 사도들은 가르쳤고 장로(목사)들은 성경을 연구했다. 교회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논의했고 진리가 점차 명확해졌다.

그러나 이제 황제가 신학 논쟁에 개입해서 공의회를 소집하고 토론을 주재했다. 황제가 어떤 교리가 정통이고 어떤 것이 이단인지 결정했다. 황제의 지지를 받는 견해는 정통이 되었고 황제가 반대하는 견해는 이단이 되었다. 진리 여부가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가 교리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가? 만약 황제가 잘못된 신학을 지지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황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잘못된 교리가 제국 전체에 강제되고 만다. 역사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2세(Constantius II, c.317–361, 재위 337–361)는 아리우스주의를 지지했다. 그는 니케아파 주교들을 박해하고 추방했으며 그 결과 정통 교리를 지키려는 주교들이 고난받았다.

4. 이단으로 판정된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는 가장 비극적인 발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는 박해하는 교회가 되었다. 아리우스파가 박해받았다. 그들의 주교들은 추방되었고 그들의 교회들은 몰수되었으며 모임조차 불법이 되었다.

도나투스파도 박해받았다.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의 엄격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박해 시대에 배교했던 주교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순수한 교회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죄되고 투옥되었으며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다.

프리실리아누스(Priscillian, 340–385)라는 스페인 주교는 385년에 이단으로 고발되어 처형되었다. 그는 이단 혐의로 처형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교회가 교회를 죽이기 시작한 것이다. 재산 몰수, 추방, 투옥, 처형.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세속의 칼과 권력으로 신앙을 강제하는 거대한 권력 기구로 변질되고 말았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어 자신을 보호하려던 자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마 26:52)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교회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칼을 잡았다.

교회는 거대해졌지만 순수함을 잃었다

380년을 기점으로 교회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 초대 교회는 규모는 작았지만 순수하고 강했다. 외적으로는 약해 보였으나 내적으로는 견고했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다.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승리했고 세상 권력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기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380년 이후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갔다. 외형은 거대해졌으나 내면은 세속화되었고 권력은 손에 넣었으나 영적 능력은 잃어 갔다. 부유해졌지만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졌으며 더 이상 박해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박해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국가의 풍성한 지원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점점 사라졌다.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교회의 본래 모습은 '다시 태어난 자들의 자발적 공동체'였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스스로 모여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

교회 회원권의 기준은 혈통이나 지역이 아니라 오직 회심과 믿음이었다. 그러나 380년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황제의 명령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직장을 지키기 위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 않았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죄들의 용서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성령님을 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법을 따랐을 뿐이다. 종교적 의식을 수행했을 뿐이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회심한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인구 집합체'가 되었다.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동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개인적 믿음이나 구원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시민권과 교회 회원권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교회는 신약 시대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심각했다.

첫째, 신앙보다 권력이 우선되었다. 교회의 관심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 권력 유지와 확장이 되었다.

둘째, 정치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황제와 주교는 서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고 주교 임명과 교회 정책 결정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이 개입했다. 진리보다 정치가 상위 기준이 되었다.

셋째, 복음이 뒷전으로 밀렸다. 교회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에서 "교회에 순종하고 의식을 지키라."로 변했다. 개인적 회심은 희미해지고 의식, 전통, 교권이 복음 위로 올라섰다.

넷째, 회중의 역할이 사라졌다. 초대 교회에서는 회중 전체가 함께 결정했지

만 이제 모든 권력은 주교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성도들은 단순한 수용자로 전락했고 교회는 '형제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직자 중심 제도'로 변했다.

이렇게 초대 교회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공동체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국가의 정치 구조와 결합한 종교 제국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카톨릭 시대로 이어지는 출발점이었다. 이후 천 년 동안 교회는 세속화, 권력화, 부패의 길을 걸었고 복음은 점점 더 흐려졌다. 교황권의 등장, 성상 숭배의 확산, 면죄부 판매,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이단 심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이미 AD 313년과 380년에 뿌려졌던 것이다.

침례교의 관점에서 왜 이 역사가 중요한가?

침례교의 관점에서 이 역사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살펴본 313-380년의 변화는 침례교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침례교가 주장해 온 모든 원칙 — 다시 태어난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정교분리, 자발적 신앙, 신자 침례 — 은 새롭게 등장한 사상이 아니라 원래 초대 교회가 지녔던 정신이며 콘스탄티누스와 테오도시우스 시대에 잃어버린 것들이었다.

초대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만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가와 결합하면서 '국가 교회'가 등장했고 교회는 다시 태어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제국 인구 전체를 포괄하는 조직으로 변질되었다. 침례교가 신자 침례를 고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아 세례는 교회를 '인구 집단'으로 만들어 버린 핵심 요인이었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교회 안에 포함시키는 통로였다. 침례교는 이 구조를 철저히 거부했다. 신자 침례는 신약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울타리였기 때문이다.

침례교가 정교분리를 강조하는 이유도 동일하다.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국가 권력과 결합한 교회는 반드시 타락했다. 313-380년의 국가 지원

은 겉으로는 복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위험이었다. 권력은 복음을 흐리게 하고, 정치적 목적은 진리를 왜곡했다. 침례교는 이 역사를 바라보며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정치 철학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필연이었다.

침례교가 회중 정치를 고집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부패는 피할 수 없다. 초대 교회는 회중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결정하는 공동체였다. 이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아래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신약 교회의 본래 구조였다. 침례교는 이 원리를 회복하려 했다.

따라서 313–380년의 사건들은 침례교 신학의 뿌리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침례교는 이 시기를 국가와 교회가 결탁한 잘못된 경로로 진단하고, 시계를 거슬러 그 이전 즉 초대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려 했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창설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상실된 교회의 본모습을 재건하려 했을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에서 얻은 교훈을 마음에 새긴 채 중세 시대와 종교 개혁을 지나 마침내 침례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

1.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취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2. 교회가 권력을 추구하면 교회는 복음을 잃는다.
3. 교회가 국가와 결합하면 교회는 타락한다.
4. 순수한 교회, 신약 교회는 언제나 동일하다.

작고 자발적이며 다시 태어난 신자들로 구성되고 국가로부터 독립하며 복음에 헌신하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약 교회이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Check Point

기독교 공인이 던지는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세속 권력의 지원은 정말 복인가, 아니면 교회를 시험하는 위험한 유혹인가?

세상 권력이 주는 혜택이 교회의 순수성과 우선순위를 흐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2.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영적 판단은 반드시 성경과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는 신자들이 해야 한다.

3. 나는 전통, 신조 등을 성경과 같거나 더 높은 권위로 여기고 있는가?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오직 성경인지, 아니면 다른 권위를 끌어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4. 교회가 복음의 사명보다 국가의 목적과 이념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국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5. 우리 교회는 명목상의 교인을 어떻게 분별하며 회심한 신자의 공동체라는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와 단순 참여자를 구별하는 건강한 영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6. 오늘의 풍요와 변영이 박해보다 교회를 더 약하게 만들지는 않은가?

편안함 속에서 영적 경계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번영이 교회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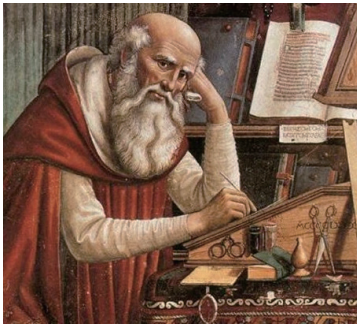
7. 우리는 초대 교회의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돌아갈 용기를 정말 갖고 있는가?

안락함과 제도적 보호를 내려놓고 신약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결단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Chapter 3

어거스틴과 국가 교회
천주교 신학의 완성

AD 354-430



어거스틴

오늘날 카톨릭에서 나온 대다수 개신교는 히포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로 존경하며 그의 사상 위에 종교 개혁 이후의 많은 신학 전통을 세워 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313년 밀라노 칙령과 380년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 국가와 결합한 교회 체제가 자리 잡은 뒤, 이 새로운 천주교 구조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이론화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다. 연옥, 마리아에 대한 과도한 존경, 극단적 예정론, 무천년설, 이단과 다른 교파에 대한 강제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 등 중세 카톨릭의 핵심 사상 상당 부분이 그의 신학에서 나왔고 그 영향력은 그가 죽은 뒤 천 년 이상 서방 교회를 지배했다.

침례교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교회사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관과 어떤 신학 위에 서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침례교가 거부한 것은 바로 어거스틴이 정당화한 국가 교회 체제이며,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것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교회 즉 다시 태어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신약 교회였다.

이 장에서는 먼저 어거스틴의 생애와 회심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도나투스파 논쟁과 그의 저서「하나님의 도시」등을 통해 그가 어떻게 국가 교회, 연옥, 마리아, 예정론, 무천년설의 신학적 기초를 놓았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침례교는 어거스틴의 권위를 절대화하지 않고 오직 성경과 초대 교회의 패턴으로 돌아가려 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어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어거스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났고 어떤 사상적 여정을 거쳐 중세 교회의 핵심 신학자가 되었는지 그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겠다.

어거스틴의 생애 - 방황에서 주교까지

마니교에 빠진 9년

어거스틴은 354년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현재 알제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지만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다.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였다. 그는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18세의 어거스틴은 마니교(Manichaeism)라는 이단에 깊이 빠져들었다. 마니교는 페르시아의 마니(Mani, 216–276)가 창시한 종교였다.

마니교의 핵심 교리는 철저한 이원론에 기초해 있었다. 그들은 세상을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라는 두 영원한 원리가 서로 대립하는 전장으로 이해했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영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육체, 결혼, 노동, 먹고 마시는 일 등 일상적 삶의 영역까지 악한 세계의 속박으

로 규정했다. 이러한 이원론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마니교는 구약 성경을 거짓된 계시라고 단정했고, 신약 성경조차 마니가 받은 '참된 계시'의 기준에 맞추어 재해석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의 권위가 마니교의 신화적 체계 아래에 종속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마니교는 구원의 대상까지 제한했다. 그들은 오직 영적으로 선택된 소수만이 빛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고, 나머지 다수는 물질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로써 마니교의 구원론은 성경의 보편적 구원 초청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극단적 운명론의 또 다른 형태가 되었다.

어거스틴은 373년부터 382년까지 9년 동안 마니교에 깊이 헌신했다. 그는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적극적인 전도자였다. 그는 친구들과 후원자들을 마니교로 개종시켰다. 생각해 보라. 9년이다. 이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이 기간 동안 구약 성경을 거부하고 극단적 이원론을 믿으며 이단 사상을 전파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서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니교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였다. 어거스틴이 9년간 이 이단에 헌신했다는 사실은 그의 영적 분별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 큰 문제는 이 9년간 습득한 마니교 사상이 어거스틴의 후기 신학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극단적 예정론과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마니교의 잔재로 볼 수 있다.

신플라톤주의를 거쳐 기독교로

어거스틴은 마니교에서 벗어난 뒤 곧바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신플라톤주의로 전환했다. 여러 역사가들은 "신플라톤주의가 어거스틴

을 마니교에서 기독교로 인도한 다리였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성경이 아니라 철학이 어거스틴을 '기독교'로 이끌었다는 점 때문이다.

386년 밀라노에서 그는 인생을 뒤바꿀 회심의 순간을 맞았다. 정원에서 방황하던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집어 들고 읽어라!"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을 따라 성경을 펼쳤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로마서 13장 13-14절이었다.

>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을 깊이 꿰뚫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했다. 이후 그는 골로새서 2장 8절, 곧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라는 경고를 자신의 평생 신학적 토대 중 하나로 삼았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의 회심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회심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어거스틴의 후기 신학이 여전히 신플라톤주의 철학과 마니교의 이원론이 깊이 혼합된 형태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고했다. 진정한 회심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일어나지 결코 철학적 사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이 신플라톤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의 신학이 성경보다 철학에 더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히포의 주교가 되다

어거스틴은 391년에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히포(현재 알제리 아나바)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았고 395년에 히포의 주교가 되었다. 그는 430년 죽을 때까

지 35년 동안 그곳을 섬겼다.

이 기간에 그는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겼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고백록」(Confessions), 「하나님의 도시」(City of God), 「삼위일체론」(On the Trinity)이 있다. 그는 또한 수백 편의 편지와 설교를 남겼다. 어거스틴은 철학, 신학, 수사학에 능통한 뛰어난 사상가였고 그의 글은 깊이와 설득력, 그리고 문학적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 중세 시대 내내 그는 가장 권위 있는 교부로 여겨졌다. 그러나 뛰어난 지성이 항상 성경적 진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많은 가르침은 성경과 맞지 않았다.

교회가 칼을 든 날 - 도나투스파 박해

4세기의 갈림길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었다. 오히려 황제의 총애를 받는 종교가 되었고 급속도로 제국의 권력 구조 속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교회 안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그중 가장 심각한 갈등이 바로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도나투스파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신학 논쟁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처음으로 국가 권력을 빌려 자신과 다른 견해의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길을 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어거스틴이 "강제로라도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라."는 신학적 정당화의 논리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 논리는 그 이후 중세 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화형대로 보내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침례교가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를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도나투스파는 누구였는가?

이야기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

아누스는 303년부터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이는 소위 '대박해'로 알려진 마지막이자 가장 극심한 박해였다. 그는 교회 건물을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성경을 불태우라고 지시했으며 성직자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했다.

이 박해 기간에 많은 성직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용감하게 순교했다. 그러나 일부 성직자들은 극심한 압박과 두려움에 굴복했다. 그들은 성경을 관리들에게 넘겨주었고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은 '배교자들', 즉 '넘겨준 자들'이라고 불렸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박해가 마침내 끝났을 때 교회는 즉시 깊고도 민감한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 박해 동안에 변절한 성직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교회 전체를 흔들었다. 그들이 다시 성직자로 활동할 수 있는가? 그들이 박해 시절 집례한 침례 등은 유효한가?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기 시작했다.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파의 논쟁

이 논쟁은 북아프리카, 특히 카르타고 지역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다. 311년에 카르타고의 새 주교로 카이킬리아누스가 임명되었는데, 그 임명식에 참여한 주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펠릭스가 박해 기간 동안 '배교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의혹은 이미 카르타고 내부에 존재하던 분파 갈등과 결합되어 커다란 논쟁으로 번졌다. 이에 반대파 주교들과 신자들은 카이킬리아누스의 임명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먼저 마요리누스를 경쟁 주교로 세웠다. 마요리누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하자 그 뒤를 이은 도나투스(Donatus, 270–355)가 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이때부터 이 분파는 그의 이름을 따서 '도나투스파'(Donatists)라 불리게 되었다.

도나투스파의 주장 – 순수한 교회를 위하여

도나투스파의 주장은 매우 명확했고 그들의 논리는 일관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먼저 박해 시기에 신앙을 버린 성직자는 더 이상 참된 성직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박해 시대에 두려움에 굴복하여 성경을 넘겨주고 황제 숭배 의식에 동참했으며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 그들은 배교자들이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배신했으며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도나투스파는 배교자가 집례한 성례전 역시 무효라고 보았다. 침례든 주의 만찬이든 안수든, 성례전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제의 도덕적 순결과 거룩함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고 믿었다. 그들의 관점에서 성례전은 거룩한 그릇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데, 배교자의 손을 거쳐 나온 성례전은 더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과 같아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배교자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성례전은 무효라고 단정했다.

도나투스파에게 교회는 무엇보다 거룩한 자들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공동체여야 했다. 죄를 범한 자들, 박해 시기에 믿음을 저버린 자들, 국가 권력과 타협한 자들과 섞여 있는 집단은 결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순수주의였고, 자신들이 초대 교회의 순교자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한 근거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 낸 순교자들의 진정한 후계자로 여겼다. 그리고 자신들의 분리 운동이야말로 초대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도나투스파는 국가 권력과 결탁한 '공적 교회'를 철저하게 거부했다.

그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후원을 받는 카톨릭교회를 부패한 교회라고 규정했다. 그들의 눈에 진정한 교회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교회였으며, 국가의 총애를 받는 교회는 이미 세속 권력과 타협하여 본질을 잃은 교회였다.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교회는 도덕적, 영적 순수성을 잃고 세속화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도나투스파는 이러한 교회관을 바탕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끊임없이 외쳤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의 구호는 '순교자의 교회'였으며 실제로 그들은 박해받는 초대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당시 추산으로는 북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의 절반 이상이 도나투스파를 따랐다고 전해지며 수십만 명의 신자들이 그들의 교회에 속했다. 도나투스파 진영에는 수백 명의 주교들이 동참했고 이 운동은 단순한 지역 분파나 주변부 이단이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 거대한 세력을 이룬 광범위한 운동이었다.

카톨릭교회의 반론

카톨릭교회(당시에는 단순히 '보편 교회' 또는 '공교회'라고 불렸다)는 도나투스파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들은 교회가 거룩한 자들만으로 구성된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보았다. 그들은 교회 안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으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처럼 다양한 성향과 믿음의 깊이를 지닌 사람들이 공존한다고 주장했고 지금은 서로 섞여 있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실 것이므로, 인간이 교회를 스스로 완전히 순수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여겼다.

카톨릭교회는 또한 배교자라 할지라도 진심 어린 회개가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고 성직도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끝내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그들은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교회는 죄인을 영원히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자를 회복시키

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례전의 효력이 성직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침례는 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며, 성찬 역시 집례자의 개인적 거룩함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재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도나투스파처럼 성례전을 인간의 도덕성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성례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1]

결국 이 논쟁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나 성직자 개인의 자격 문제를 넘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신학적 대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도나투스파에게 교회는 '순수한 자들의 모임'이었고, 카톨릭교회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공동체'였다. 두 진영의 교회관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출발점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은 신학적·영적 충돌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어거스틴의 딜레마

391년에 히포에 부임한 젊은 사제 어거스틴은 곧 이 논쟁 한가운데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히포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도나투스파의 세력이 매우 강했고, 반대로 카톨릭교회는 소수파로 밀려난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 논쟁을 단순한 신학적 갈등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지역 사회 전체의 신앙 질서를 뒤흔드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초기 어거스틴은 국가가 종교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했다. 그는 도나투스파가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지만 그들의 양심을 억압하거나 폭력을 통해 개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어거스틴은 당시 "그들의 양심을 억압하지 말라. 신앙은 강요로

1.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식사를 '주의 만찬'(Lord's Supper)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이를 '성찬'(Eucharist) 혹은 '성례전'(sacrament)으로 이해하는데, 그 이유는 미사를 죄들의 용서를 전달하는 희생 제사 성례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통념을 따라 천주교와 그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의 관례를 설명할 때만 '성찬' 또는 '성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성경적 의미를 말할 때는 '주의 만찬'을 사용한다.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앙의 본질이 자발성과 자유 의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렇듯 초기 어거스틴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의 원리에 매우 가까웠다. 그는 진리가 논증과 설득을 통해 승리해야지, 칼이나 감옥 같은 세속 권력을 동원해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다. 그에게 진리를 수호하는 길은 폭력이 아니라 설득이었고, 강제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였다.

만약 어거스틴이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기독교 역사는 아주 다른 길을 걸었을지 모른다. 그의 초기 신념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 양심의 자유, 복음 전파의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신학은 이후 상황 변화 속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후대 기독교 역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기게 된다.

어거스틴의 입장 변화 – 폭력이 사랑이 되는 순간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390년대 후반부터 도나투스파 내부에서 급진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소그룹이 등장해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서큐리'(Circumcellions, '농가 주변을 돌아다니는 자들'이라는 뜻)라고 불렸으며, 주로 가난한 농민과 일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분노와 종교적 열정이 결합된 과격 집단이었다. 그들은 도나투스파의 순교 정신을 극단적으로 오해하고 폭력적 행동을 신앙적 열심으로 착각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큐리는 카톨릭 성직자들을 공격했으며 카톨릭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카톨릭 신자들의 재산을 약탈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다. 그들은 스스로를 순교자의 전통을 지키는 전사라고 여겼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종교적 신념을 미명으로 내세운 테러리스트에 가까웠다. 이 지점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어떤 운동이든 본래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 안에 부작용이나 왜곡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초기 도나투스파가 강조했던 순수함이나 배교자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인정할 수 있지만,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

당화될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루되, 폭력적 행동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비판해야 한다.

로마 제국의 관료들은 더 이상 이러한 혼란을 방치할 수 없었다. 제국은 질서 회복을 무엇보다 우선시했고, 카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도나투스파 전체를 '질서 파괴자'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황제는 도나투스파를 억압하는 여러 칙령들을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군대가 직접 동원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거스틴의 입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주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국가의 강제 개입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입장 변화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나도 강제를 반대했다. 그러나 경험이 나를 가르쳤다. 많은 이들이 강제를 통해 진리로 돌아왔다."

그가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4장 23절이었다. 이 구절은 큰 잔치의 비유에 등장하는 말씀이며, 주인이 종에게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눅 14:23)고 말하는 장면이다.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억지로' 혹은 '강권하여'에 해당하는 단어는 'compelle'이었는데, 이는 '강제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어거스틴은 이 단어를 근거로 도나투스파를 교회 안으로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강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자신의 해석을 확증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한 해석이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억지로'라는 표현은 '간곡하게 권유하라' 또는 '적극적으로 초대하라'는 의미였지 결코 '폭력으로 끌고 오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 말씀은 복음의 긴급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지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거나 강제 개종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거스틴의 논리 – 어떻게 폭력이 사랑이 될 수 있는가?

어거스틴은 단순히 성경 구절 하나만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교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여러 신학적 논증을 전개했다.

우선 그는 강제가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거스틴은 "폭력 자체는 악이다.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영혼의 구원이라면 폭력도 사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매를 드는 것을 예로 들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단을 강제로 교화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도구라고 가르쳤다.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어거스틴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단은 명백히 악이며 진리를 왜곡하고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존재이므로 국가가 이단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거스틴은 강제가 장기적으로 영혼에 유익하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그는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에 들어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강제로라도 진리를 접하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어떤 도나투스파 신자들이 강제로 카톨릭교회에 편입된 후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보라, 그들은 나중에 우리에게 감사한다. 우리가 그들을 강제로 교화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논리를 강화했다.

그는 또한 사회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어거스틴은 서큐리가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며 재산을 약탈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폭력은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모든 논리를 종합하여 어거스틴은 결국 국가가 교회를 돕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오히려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고까지 주장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거스틴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었다. 우선 이 논리는 신약 성경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을 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자 즉시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요 18:11). 사도들은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설득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바울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고후 10:4)라고 말했다.

또한 어거스틴의 논리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다. 참된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반응이다. 강제된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위선이다. 사람을 협박하여 교회에 나오게 하고 두려움으로 신조를 암송하게 만들 수는 있다. 벌금을 통해 성례전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 압박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반감을 심어 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 논리는 또한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혼동한다. 국가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외적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고,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둘의 수단과 목적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리는 순간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복음은 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파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주장은 결국 "선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때로는 강제나 폭력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경은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악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바울은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고 말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롬 3:8)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만이 아니라 선한 방법도 요구하시

는 분이다.

이 논리는 또한 양심의 자유를 부정한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직접 책임지는 영역이지 교회나 국가가 강제로 통제할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조차 인간의 마음을 강제로 꺾지 않으신다면 사람에게 그럴 권리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강제 대신 선택을 강조한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수 24:15)고 요청했다.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신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지 않는다.

도나투스파의 종말

어거스틴의 신학적 정당화와 로마 제국의 무력이 결합하면서 도나투스파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411년에 카르타고에서 대규모 종교 회의가 열렸고 양측에서 수백 명의 주교들이 모였다. 회의는 3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결국 황제의 대리인은 카톨릭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결정으로 도나투스파는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 후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도나투스파 교회는 몰수되어 카톨릭교회에 넘겨졌고 도나투스파 주교들은 추방되었다. 도나투스파 신자로 남는 것은 불법이 되었으며 벌금과 재산 몰수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도나투스파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카톨릭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했다(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카톨릭교회는 재침례교인들을 박해하게 된다). 조직적인 운동으로서의 도나투스파는 5세기 중반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다.

어거스틴의 유산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 그는 개인적으로 폭력을 즐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진리를 사랑하려 했고 도나투스파 신자들의 영혼을 걱정했다. 그는 극단적인 형벌에는 반대했고 가능한 한 온건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형에 반대했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이

제한마저 무시했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결과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어거스틴의 "억지로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신학은 중세 천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낳았다. 그의 논리는 강제 개종, 이단 처형, 종교 재판소, 십자군 전쟁, 유대인 박해, 재침례교 학살, 신대륙 원주민 강제 개종과 같은 일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었고 그 이론적 토대는 어거스틴이 제공했다.

어거스틴은 도나투스 논쟁에서 '평화와 질서'를 원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신학은 평화가 아니라 폭력을, 질서가 아니라 공포를 가져왔다. 그는 교회를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교회를 세상의 권력과 더 깊이 결탁시켰다.

어거스틴의 연옥 교리

어거스틴은 연옥(Purgatory) 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초대 신학자였다. 연옥은 카톨릭이 가르치는 교리로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정화하는 중간 상태를 의미한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신자가 죽을 때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된 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정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정화는 살아 있는 자들의 기도로 단축될 수 있고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개념의 근거로 외경인 마카베오하 12장 43-45절을 인용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5절 즉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같이 받으리라."를 연옥의 비유로 해석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선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마카베오하는 개신교가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며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므로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는 디모데후

서 3장 16절은 정경을 지칭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사도들은 외경을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다.

또한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왜곡했다. 이 구절의 불은 연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15절에서 신자의 일이 심판받는 것을 비유로 설명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 건물이 불로 시험받는 것은 신자의 사역이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의미이지 죄를 정화하는 중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선언한다. 죽음과 심판 사이에 연옥 같은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2장 8-9절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다. 만약 연옥이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되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부인하는 심각한 오류이다.

또한 죽은 자는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는 누가복음 16장 22-23절은 불신자인 부자가 죽자마자 지옥에 갔음을 보여 준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라고 말했다. 이는 신자가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연옥 교리의 끔찍한 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연옥 개념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으며 어거스틴이 외경과 왜곡된 해석을 바탕으로 형성한 카톨릭의 비성경적 교리이다. 그리고 이 교리는 중세에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연옥 교리는 면죄부 판매의 신학적 근거가 되었고 중세 시대 카톨릭교회는 사람들에게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내면 그들의 고통 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라고 가르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약속을 믿고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바쳤으며 카톨릭교회는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결국 이것이 종교 개혁을 촉발한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되었으며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발표한 것은 바로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였다. 그리고 면죄부의 신학적 근거는 어거스틴이 놓은 연옥 교리였다.

어거스틴의 마리아 신학

어거스틴은 마리아를 전례 없이 존경하는 신학을 발전시킨 초대 신학자였다. 그는 마리아가 특별한 영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라고 가르쳤다. 어거스틴은 마리아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직접 장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에 대한 과도한 존경의 문을 열어 두었고, 이는 후대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로 발전하는 신학적 기초가 되었다. 나중에 카톨릭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발전시켜 "마리아가 잉태될 때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마리아 무염시태'(1854년 교리화)와 '마리아 승천'(1950년 교리화) 같은 교리를 형성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먼저 마리아 자신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마리아는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라고 말했다. 이는 마리아가 자신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고백한 것으로, 그녀 역시 죄인임을 인정한 것이다. 만약 마리아가 죄 없는 자였다면 왜 '구원자'가 필요했겠는가?

또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한다. 여기에 마리아 역시 포함된다. 예외는 오직 예수 그리

스도뿐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마리아가 중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으라는 가르침은 없다. 오히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 외의 다른 자녀들을 낳았음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마태복음 13장 55-56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을 언급한다. 카톨릭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경의 기록과 명백히 다르다.

어거스틴의 마리아에 대한 과도한 존경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 위배된다. 그의 신학은 후대 카톨릭의 비성경적 마리아론의 신학적 기초가 되었고 성경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잘못된 흐름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어거스틴의 극단적 예정론

어거스틴이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친 신학은 극단적 예정론이었다. 그의 예정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전에 일부는 구원하시기로 일부는 지옥에 보내기로 정하셨으며, 인간의 자유 의지는 타락 후 완전히 파괴되어 선을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며 인간의 의지나 행위와 무관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어거스틴은 초기에 자유 의지를 강력히 옹호했다. 그는 「자유 의지론」(De Libero Arbitrio)에서 "의지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나중에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이후 어거스틴은 정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후기 어거스틴은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극단적 숙명론(Fatalism)에 가까운 입장이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분께서는[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선언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가르친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전에 일부를 지옥에 가도록 정하셨다면 이러한 구절들은 의미를 잃게 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가르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부만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라고 말한다. 또한 로마서 10장 9-10절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가르친다. 만약 인간이 믿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이러한 구절들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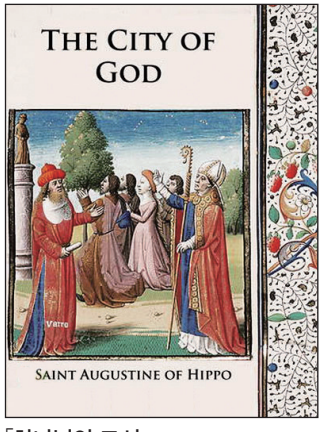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악의 창조자가 아니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부를 지옥으로 미리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의 창조자가 되어 버린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전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만약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고 선택받지 않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전도는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한다.

어거스틴의 극단적 예정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왜곡하고 인간의 책임을 부인하며 전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위험한 교리이다. 이는 마니교의 극단적 이원론과 신플라톤주의의 숙명론이 혼합된 비성경적 사상이다.

하나님의 도시 - 국가 교회 신학의 완성

어거스틴의 가장 방대한 저작은 「하나님의 도시」(City of God, 413-426)이다. 이 책은 22권으로 구성된 거대한 역사신학 저작이다. 이 책은 AD 410년 고트족에 의한 로마 약탈 이후 쓰였다.



「하나님의 도시」

로마가 수백 년 동안 '영원한 도시'로 여겨져 왔던 만큼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특히 이교도들은 로마의 몰락을 기독교 탓으로 돌리며 이렇게 비난했다. "로마가 전통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국이 무너졌다." 다시 말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이 신들의 진노를 불러왔고, 그 결과 로마가 멸망했다는 논리였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는 바로 이 비난에 대한 신학적 답변으로 집필된 저작이다.

어거스틴은 이교도들의 주장을 단순히 반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문제의

틀 자체를 바꾸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흥망을 기독교의 성패와 직접 연결시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어거스틴은 인류 역사를 '두 도시의 투쟁'이라는 틀로 해석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다른 하나는 '땅의 도시' 혹은 '사탄의 도시'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이 두 도시는 단순한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뉘는 영적 공동체였다.

이 구분을 통해 어거스틴은 중요한 주장을 펼친다. 로마 제국은 결코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로마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도, 기독교가 패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로마는 처음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도시', 곧 땅의 도시에 속해 있었고 그러한 도시는 흥망성쇠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이로써 어거스틴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는 이교도들의 비난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로마의 몰락은 기독교의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는 제국의 역사적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이 논증을 전개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도시'를 가시적 교회, 곧 카톨릭교회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의 도시는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바로 카톨릭 교회라고 주장했다. 이 지점에서 그의 신학은 단순한 변증을 넘어 국가 교회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시」는 이교도들의 비난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교회 =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상을 강화하여 중세 카톨릭 국가 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시」는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도시에서 분리함으로써 이교도들의 공격을 차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시를 특정한 제도 교회와 동일시함으로써 이후 교회가 정치적·사회적 권력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바로 이 지점이 어거스틴 신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며, 침례교가 그의 교회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핵심 이

유이기도 하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에 대한 해석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본래 이 본문은 고대 유대교와 초대 교회에서 거의 일관되게 천사들과 인간 여성들의 결합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 전통적 해석을 체계적으로 뒤집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사람들의 딸들'을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한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다. 이 해석은 「하나님의 도시」를 포함한 그의 저술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성경 자체는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서 반복되며, 그 모든 경우에 천사를 가리킨다.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이 사용된 창세기 6장에서만 갑자기 인간 혈통으로 바뀐다고 보는 것은 문맥과 성경 해석의 일관성을 무너뜨린다. 더 나아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7절은 노아의 홍수와 연결된 '죄지은 천사들',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언급함으로써, 창세기 6장의 사건을 실제 천사들의 타락과 연결하고 있다.

초대 교회의 이해도 동일했다. 유스티노스, 이레니우스, 터툴리아누스 등 초기 교부들은 창세기 6장을 천사와 인간의 비정상적 결합으로 해석했으며 이를 논쟁거리로 취급하지 않았다. '셋의 후손 대 가인의 후손'이라는 해석은 이 시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흐름을 바꾼 것이 어거스틴이다. 그는 신플라톤주의적 세계관의 영향 아래, 천사들이 육체적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 결과 그는 창세기 6장을 초자연적 타락의 사건이 아니라 경건한 집단과 불경건한 집단의 혼합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 이야기로 재해석했다. 이 해석은 「하나님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그의 역사관, 곧 영적 질서를 체계화하고 불안정한 초자연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시도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히브리어 본문이 말하는 '네피림'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

지 못한다. 단순한 인간 집단 간의 혼합으로, 본문이 묘사하는 비정상적인 거인 종족의 출현과 전 지구적 심판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어거스틴의 해석은 성경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론이라기보다 철학적 전제를 성경에 적용한 결과였다.

이 해석은 이후 중세 교회를 거쳐 개신교 전통 안에도 깊이 자리 잡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주석과 신학교 교육에서 거의 의심 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창조 질서 자체를 훼손한 초자연적 반역으로 제시한다. 이는 노아의 홍수가 단순한 윤리적 심판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예외적인 심판이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 점에서 창세기 6장에 대한 어거스틴의 재해석은 「하나님의 도시」가 가진 한계를 드러낸다. 그는 이교도들의 비난에 응답하며 기독교 역사를 방어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성경이 말하는 불편한 초자연적 현실을 철학적으로 정리하고 축소시켰다. 이 사례는 성경 해석에서 인간의 이성과 체계가 아니라 본문 자체가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핵심 신학: 교회가 곧 왕국이다

「하나님의 도시」의 가장 위험한 신학적 주장은 '교회가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장이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첫째, 천년 왕국은 현재 교회 시대이다. 어거스틴은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로 해석했다.

그는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지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둘째, 교회는 지상의 모든 권세 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교회가 곧 하나님의 왕국이므로 교회는 세속 정부보다 우월한 권위를 갖게 된다. 이는 훗날 카톨릭 교황이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셋째, 교회는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고 가르쳤다. 어거스틴은 교회가 단순한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카톨릭 국가 교회 체제의 직접적 신학적 기반이 되었다.

무천년설의 기원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는 "실제 천년 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의 고전적 표현이다. 그는 계시록 20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첫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는 구절은 문자적 부활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았다. 어거스틴은 천 년(10×10×10)이 완전한 수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그는 계시록 20장 5-6절의 '첫째 부활'을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중생(다시 태어남)으로 보았다. 즉,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다. 셋째, 그는 사탄이 이미 결박되었다고 해석했다. 계시록 20장 2절의 사탄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지금이 사탄이 결박된 시대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첫째, 교회는 왕국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요 18:36)라고 명백히 선언하셨다. 만약 예수님의 왕국이 지금 교회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마 6:10)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는가? 왕국이 이미 왔다면 '왕국이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둘째, 계시록 20장의 '천 년'은 문자 그대로의 기간이다. 계시록 20장 2-7절은 '천 년'을 여섯 번 반복한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 문자적 의미가 불가능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천 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문자적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시록 20장 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한다. 만약 '천 년'이 상징이라면 '죽은 자들의 나머지'도 상징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절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셋째, '첫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다. 계시록 20장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한다.

'부활'(resurrection)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항상 육체적 부활을 뜻한다. 예수님의 부활(마 28장), 나사로의 부활(요 11장), 마지막 날의 부활(고전 15장) 모두 육체적 부활이다. 만약 '첫째 부활'이 영적 중생이라면 성경은 왜 '다시 태어남'(regeneration)이란 정확한 단어 대신 '부활'이라는 혼란스러운 단어를 사용했겠는가?

넷째, 사탄은 아직 결박되지 않았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한다. 사탄이 결박되었다면 어떻게 마귀(사탄)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도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라고 말한다. 사탄이 결박되었다면 이러한 영적 전쟁은 존재할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라고 말한다. 만약 교회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 전체가 사악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역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라고 가르친다.

다섯째,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주장은 성경과 모순된다. 현재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며 교회는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시」의 끔찍한 결과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시」는 끔찍한 역사적 결과를 낳았다.

첫째, 카톨릭 국가 교회 체제를 정당화했다. '교회가 곧 왕국'이라는 신학은 카톨릭 교황이 세속 군주들 위에 군림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1077년 카노사 굴욕 사건에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독일 황제 하인리히 4세를 무릎 꿇게 한 것은 어거스틴의 신학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였다.

둘째, 종교 재판을 정당화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논리는 교회가 이단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는 근거가 되었고 중세 종교 재판은

어거스틴의 신학에 기초한 제도였다.

셋째, 십자군 전쟁을 정당화했다. '교회가 곧 왕국'이라는 신학은 '이슬람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이라는 논리로 이어졌다.

넷째, 전천년설을 억압했다. 어거스틴의 무천년설이 카톨릭의 공식 교리가 되자 전천년설 신자들은 이단으로 낙인찍혔다. 초대 교회의 대부분은 전천년설을 믿었지만(유스티노스, 이레니우스, 테르툴리아누스 등) 어거스틴 이후 전천년설은 '유대적이고 육체적인 이단'으로 비난받았다.

「하나님의 도시」는 카톨릭 국가 교회 체제의 신학적 기초였다. 이 책은 무천년설을 체계화했고 교회가 곧 왕국이라는 거짓 교리를 만들었으며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위험한 주장을 정당화했고 카톨릭 교황 권력의 신학적 기반을 형성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예수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요 18:36)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교회는 왕국이 아니며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권리도 없다.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세워질 문자 그대로의 천년 왕국이다.

개신교는 왜 어거스틴을 숭배하는가?

어거스틴의 유산

어거스틴은 카톨릭 국가 교회 체제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인물이었다. 그의 신학은 다음과 같은 비성경적 결과들을 낳았다. 국가가 무력을 사용하여 종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했고, 이는 종교 재판을 낳았으며 결국 이단 화형으로 이어졌다. 연옥 개념의 형성은 면죄부 판매의 신학적 근거가 되었고, 이는 종교 개혁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마리아에 대한 과도한 존경은 마리아 숭배로 발전했고, 이는 결국 우상 숭배에 이르게 했다. 무천년설은 교회가 곧 왕국이라는 사상을 낳았고, 이는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

는 빌미가 되었다. 극단적 예정론은 숙명론으로 기울어졌고, 결국 전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 모든 것은 어거스틴의 비성경적 신학에서 직접 흘러나온 열매들이었다.

연옥 교리를 설명한 그림

개신교의 모순

그렇다면 왜 개신교는 이렇게 위험한 인물을 계속 존경하고 따르는가?

첫째 이유는 칼빈과 루터의 영향 때문이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고, 루터는 어거스틴파 수도사였다. 종교 개혁자들이 어거스틴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어거스틴을 따라가게 되었다.

둘째 이유는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이다. 루터, 칼빈, 츠빙글리 모두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했다. 그들은 카톨릭의 교황 권력은 거부했으나 국가와 교회의 결합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어거스틴이 세운 국가–교회 결합 이론이 여전히 필요했다.

셋째 이유는 교부 신학에 대한 과도한 존경 때문이다. 개신교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교부들, 특히 어거스틴을 거의 성경과 같은 권위로 대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침례교는 다르다

침례교는 어거스틴을 거부한다. 침례교가 어거스틴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어거스틴의 신학이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침례교는 '오직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침례교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따른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은 이렇게 선언한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어거스틴의 말도, 칼빈의 말도, 루터의 말도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이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의 모든 가르침을 성경으로 검증해야 한다.

마태복음 15장 6-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며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어거스틴 숭배는 바로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행위이다.

침례교가 회복하려는 것

침례교는 어거스틴 이전으로, 콘스탄티누스 이전으로, 초대 교회로 돌아가려 한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초대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었고, 자발적으로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였다. 그들은 신자 침례를 실천했고, 회중이 함께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 성경을 최고이자 최종 권위로 삼았고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장했으며 칼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들은 양심의 자유를 존중했고 강제가 아니라 설득과 가르침으로 진리를 나누었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가 회복하려는 모습이다. 어거스틴이 놓은 국가 교회 체제가 아니라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다.

인간의 신학은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으로 판단받아야 한다. 교부들의 권위도, 종교 개혁자들의 권위도, 어떤 인간의 권위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거스틴의 비성경적 신학을 거부하고,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Check Point

어거스틴과 국가 교회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교부들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어거스틴, 칼빈, 루터 등 어떤 신학자의 말도 절대화하지 않고, 모든 가르침을 날마다 성경으로 검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2. 나는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라는 명분 아래에서 거짓, 조작, 강압, 정치적 거래 같은 비성경적 수단을 용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3. 교회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진리를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가?

복음은 칼과 강제가 아니라 진리의 설득과 성령님의 역사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4. 나는 성경에 없는 교리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연옥, 마리아 숭배 등 성경에 근거가 없는 전통과 교리를 "교회가 말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5. 극단적 예정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책임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6. 나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사명을 이 땅의 정치권력 장악이나 사회 지배로 이해하지 않고, 복음 전파와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본래의 역할로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7. 나는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가?

다른 이의 잘못된 믿음까지도 강제가 아니라 대화와 설득으로만 상대하려 하며, 하나님조차 인간의 양심을 억지로 누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Chapter 4

중세 카톨릭교회의 등장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다

AD 476-1500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세 천 년을 막연히 교회가 유럽을 지배하던 '기독교의 전성기'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시기는 신약 교회가 가장 멀리 사라진 영적 암흑기였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 로마 카톨릭교회는 정치, 법, 교육, 경제, 군사 기능까지 떠안으며 유럽 전체를 지배했고, 교황은 왕들보다 큰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권력이 커질수록 복음은 뒤로 밀려났다. 은혜는 성례와 행위로 대체되고, 개인의 회심은 유아 세례 속에 묻혀 버렸으며, 성경의 권위는 전통과 교황의 말 아래 종속되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연옥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가?"를 묻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 년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신약 교회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진다. 이 장에서는 서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교회가 어떻게 국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교황권과 사제

계급, 일곱 성사 체계, 유아 세례와 시민권의 결합, 그리고 연옥, 면죄부, 전통 우위, 양심의 자유 박탈 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버리고 어떤 부분을 다시 붙잡아야 신약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교회의 부상

서로마 제국의 멸망, 역사의 분기점

476년 9월 4일, 약 천 년 동안 서구 문명의 중심이었던 서로마 제국이 마침내 멸망했다. 게르만 족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시켰다. 이 마지막 황제의 이름에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다. 로마를 건국한 전설적 인물 로물루스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합친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후대에 '아우구스툴루스'(Augustulus)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라틴어 축소형에서 나온 별칭으로 '작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었다. 그는 475년경 약 14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약 1년간 통치했으나, 실권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는 아버지 오레스테스가 정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형식상 황제로 옹립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결국 그는 군사적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476년 오도아케르에 의해 왕좌에서 쫓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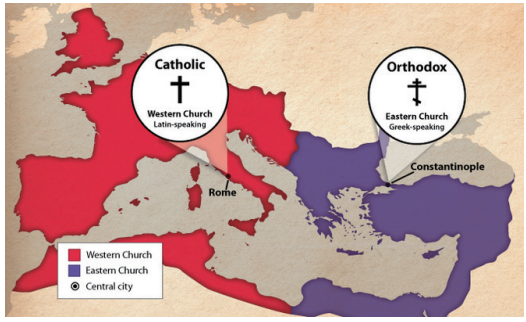
토마스 콜레의 〈로마 제국의 멸망〉

동로마 제국(비잔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1453년까지 존속했지만, 서유럽은 이날을 기점으로 정치적 혼란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치·행정 체계의 완전한 붕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 단순히 한 왕조의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서유럽을 하나로 묶어온 거대한 정치·행정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다. 중앙 정부가 무너지면서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던 행정 체계가 소멸되었다.

로마 제국은 속주(프로빈키아)로 나뉘어 있었고, 각 속주는 총독이 다스렸다. 총독 아래에는 수많은 관리들이 있었고, 이들은 세금 징수, 치안 유지, 재판, 공공사업 등을 담당했다. 이 모든 체계가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속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총독도 관리도 사라졌다. 제국 전역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던 행정 절차와 규정들이 의미를 잃었다.



서로마와 동로마의 분리

로마 제국의 통일된 법률 체계 역시 붕괴했다. 로마법은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한 정교한 법체계였다. 민법, 형법, 상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제국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법정이 있었고 법률가들이 있었으며 판례가 축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법정은 문을 닫았고 법률가들은 사라졌으며 판례집은 먼지만 쌓였다. 이렇게 법과 제도가 기능을 잃자, 법의 지배는 힘의 지배로 대체되었다.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군사 조직도 해체되었다. 로마 군단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 군사 조직이었고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었다. 엄격한 계급 체계, 표준화된 훈련, 보급 시스템, 군사 공학 등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476년 이후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 군단들은 해체되었고 병영은 버려졌으며 무기고는 약탈당했다.

권력의 공백 속에서 게르만 족들은 유럽 곳곳에 작은 왕국들을 세웠다. 갈리아 지역에는 프랑크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에는 서고트 왕국이, 이탈리아에는 동고트 왕국이, 북아프리카에는 반달 왕국이, 부르군디 지역에는 부르군트

왕국이 들어섰다. 각 왕국을 지배했던 게르만 족 전사 출신의 귀족들은 로마식 행정이나 법률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력과 충성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왕국은 로마 제국의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국경은 수시로 변했으며 왕조도 자주 교체되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었고, 강력한 왕이 죽으면 왕국은 곧바로 분열되었다. 영토는 왕의 개인 재산처럼 아들들에게 분할 상속되었고 이는 더 많은 분쟁과 혼란을 야기했다.

법과 질서가 붕괴하면서 서유럽은 사실상 무법천지가 되었다. 로마 시대에는 여행자가 제국 어디를 가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도적이나 강도를 만나면 지방 관리에게 고소할 수 있었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은 없었다. 힘 있는 자가 정의였고, 무력이 법이었다. 약자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었고, 정의를 구할 곳도 없었다.

경제와 인프라의 급격한 쇠퇴

경제와 인프라 역시 급격히 붕괴했다. 로마 제국의 가장 눈에 띄는 업적 중 하나는 방대한 도로망이었다. 로마 시대에 건설된 총 80,000킬로미터에 달하던 포장도로는 제국 전역을 연결했다. 이 도로들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다. 탄탄한 기초 위에 여러 층의 자갈과 돌을 깔고 그 위에 평평한 돌판을 깔아 만든 정교한 공학 구조물이었다. 배수를 위한 도랑이 양옆에 파여 있었고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으며 중요한 지점마다 역참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476년 이후 중앙 정부가 사라지면서 도로를 유지·보수할 주체도 없어진 탓에 도로망은 자연스럽게 방치되었다. 포장은 깨지고 금이 갔으며, 배수로는 막혔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몇 세대가 지나자 한때 전차가 달리던 로마의 대로는 진흙탕 오솔길로 전락했다. 여행은 느리고 위험한 일이 되었다.

수도교와 상하수도 시설도 무너졌다. 로마인들은 도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대한 수도교를 건설했다. 로마 시만 해도 11개의 주요 수도교가 매일 수십만 톤의 물을 공급했다.

또한 하수도 시스템을 통해 오폐수를 처리했다. 이러한 시설들이 로마 도시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방치되면서 도시의 위생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오물은 거리에 쌓였다.

로마 제국의 자랑이던 도시들은 급격히 쇠퇴했고 인구도 대폭 감소했다. 한때 1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던 로마 시는 겨우 3만 명으로 격감했다. 밀라노, 트리어, 아를 같은 주요 도시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웅장한 공공건물들은 버려졌고 화려한 저택들은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흩어졌다. 도시는 더 이상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상업 활동 역시 크게 위축되었다. 로마 시대에는 활발한 상업 활동이 있었다. 이집트의 곡물, 스페인의 올리브유, 갈리아의 포도주, 동방의 향료와 비단이 제국 전역에서 거래되었다. 전문 상인들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으며, 표준화된 화폐가 통용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

화폐 경제가 붕괴하고 물물교환으로 회귀했다. 로마 제국은 금화(아우레우스), 은화(데나리우스), 동전(아스) 등 표준화된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이 화폐들은 제국 전역에서 통용되었고 안정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었다. 그러나 게르만 왕국들은 안정적인 화폐를 발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사람들은 다시 물물 교환에 의존하게 되었다. 밀 한 자루에 천 한 필을, 양 한 마리에 철제 농기구 하나를 교환하는 식이었다.

경제는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체제로 퇴보했다. 각 지역, 각 장원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생산해야 했다. 전문화와 분업은 사라졌다. 장거리 무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지역 간 경제적 교류도 크게 줄어들었다. 로마 시대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해상 무역은 거의 사라졌다. 지중해는 더 이상 '로마의 호수'가 아니었고, 해적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으로 변하고 말았다.

문화와 교육의 암흑기

교육과 문화의 쇠퇴는 더욱 심각했다. 로마 제국에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문법 학교(그람마티쿠스)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 문학, 수사학을 배웠다. 한 단계 더 고급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수사학 학교나 철학 학교에 진학했다. 주요 도시마다 공립 도서관이 있었고, 로마 시에만 28개의 공립 도서관이 있었다. 지식인들은 책을 읽고 토론하며 학문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공립 학교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교육 체계가 급격히 쇠퇴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교사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책은 너무 비싸고 귀해서 일반인은 구할 수 없었다. 양피지에 손으로 베껴 쓴 책 한 권의 가격은 소 한 마리 값과 버금갔다. 도서관들은 파괴되거나 방치되었고, 수많은 고대 문헌들이 영원히 사라졌다.

문맹률이 급증하여 귀족조차 글을 못 읽는 경우가 많았다. 프랑크 왕국의 초대 왕 클로비스는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몰랐다. 8세기의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귀족들이 문맹이었다. 일반 백성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성직자들 중에서조차 라틴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미사 때 라틴어 경문을 암송하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신부들이 흔했다.

로마 시대에 발전했던 학문과 예술이 점차 사라졌다. 그리스 철학은 점차 잊혀졌다. 플라톤의 대화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들은 서유럽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겨우 몇몇 수도원에서 단편적인 인용문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로마 법학의 정교한 체계도 사라졌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편찬한 「로마법 대전」은 서유럽에서 망각되었고, 12세기에 재발견될 때까지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

고전 문학과 과학 지식도 사라져갔다. 키케로의 연설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리비우스의 역사서 같은 명작들은 극소수의 필사본만이 수도원에 보존되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 로마 시대의 의학, 건축, 공학 기술도 소실되었다. 또한 갈레노스의 의학 지식,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원리, 로마인들의 콘크리트 제조 기술 등이 잊혀졌다. 6세기 이후 서유럽에서는 로마 시대와 같은 웅장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 암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식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소실되었고, 과거의 위대한 업적들은 전설이 되었다.

약 천 년 동안 지속된 로마 제국의 서쪽 절반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순간, 서유럽은 문명의 급격한 약화를 넘어 완전한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암흑기는 수백 년간 지속되었고 서유럽이 다시 문명의 빛을 회복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교회, 혼란 속에서 부상하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정치·경제·문화가 모두 붕괴하는 가운데, 오직 단 하나의 조직만이 온전히 살아남았다. 바로 기독교 교회였다. 제국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네 가지 핵심 요인이 있었다.

첫째, 교회는 로마 전역에 정교하게 조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제국의 행정 조직이 붕괴했을 때, 교회의 조직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요 도시마다 주교가 있었고 주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로마 주교(교황), 밀라노 주교, 카르타고 주교, 알렉산드리아 주교 등은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환했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공의회를 소집했다.

교회의 조직 체계는 로마 제국의 행정 구역을 그대로 따랐다. 제국의 속주마다 대주교구가 있었고, 그 아래 여러 교구가 있었으며, 각 교구에는 주교가 있었다. 주교 아래에는 사제들이 있었고, 사제들은 각 지역 공동체를 돌보았다. 이 위계 구조는 명확했고 안정적이었다. 정치적 중앙 정부가 무너졌지만 교회의 조직망은 온전히 남아 있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조직망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주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정을 각 교구에 전달했다. 사제들은 주교의 지시를 따랐고 신자들은 사제의 가르침을 따랐다. 게르만 왕국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국경이 수시로 바뀌는 와중에도 교회의 조직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교회는 유럽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범유럽적 조직'이 되었다.

둘째, 교회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 문맹률이 급증하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게르만 왕들은 대부분 문맹이었다.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서고트 왕국의 알라리크, 롬바르드 왕국의 왕들 모두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다. 귀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말을 타고 칼을 쓰는 일이 중요했지 책을 읽는 일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교들과 사제들은 달랐다. 그들은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었다. 성경을 읽어야 했고, 교회 교부들의 저술을 공부해야 했으며, 미사 전례문을 암송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도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젊은 수도사들은 라틴어 문법을 배우고 성경을 필사하며 때로는 고전 문헌도 공부했다.

이러한 교육은 교회를 당대 유일한 지식인 집단으로 만들었다. 행정 문서 작성, 법률 문서 작성, 외교 서신 작성 등 모든 문서 업무는 사제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게르만 왕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교회의 협력을 필요로 했다. 왕실의 서기는 대부분 성직자였고 왕의 고문도 주교들이 맡았다. 교회는 지식의 독점을 통해 세속 권력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셋째, 교회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중세 초기 사람들은 내세를 믿었다. 천국과 지옥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실재하는 장소였다. 선한 삶을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한 삶을 살면 지옥에 간다는 믿음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교회가 쥐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교회는 성례전을 통해 구원의 수단을 제공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고해 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성찬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교회만이 이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는 구호가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왕들조차 교회의 파문을 두려워했다. 파문은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저주를 의미했다. 사람들은 파문당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더 나아가, 파문은 정치적 정당성에도 타격을 주었다. 파문당한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은 왕이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충성과 정당성을 잃을 수 있었다. 신하들은 파문당한 왕에 대한 충성 서약에서 해방되었다. 이러한 도덕적·정치적 권위 덕분에 교회는 세속 권력자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넷째, 교회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수 세기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재산을 모았다. 신자들의 헌금이 있었고, 부유한 신자들의 기부가 있었으며,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재산을 교회에 남겼다. 황제들과 귀족들도 교회에 토지를 기증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이러한 기부는 더욱 증가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 게르만 왕들과 귀족들은 앞다투어 교회에 땅을 기증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고자 했고, 동시에 교회의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했다. 전쟁에서 이기면 교회에 토지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했고 실제로 이기면 그 서약을 지켰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광대한 토지와 재정을 확보하게 되었다. 8세기에 이르면 서유럽 경작지의 3분의 1 이상이 교회 소유였다는 추정도 있다. 주요 수도원들은 수십, 수백 개의 장원을 소유했고, 수천 명의 농노를 거느렸다. 주교들은 영주와 다름없는 부를 누렸다. 이러한 경제적 독립성은 교회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 교회는 세속 권력자들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가 왕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았다.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을 가능하게 했고, 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독자적 권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네 가지 요인 — 조직력, 지식 독점, 도덕적 권위, 경제력 — 이 결합하여, 교회는 서로마 제국 멸망 후 혼란의 시대에 유일한 안정적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권력은 분열되고 약했지만, 교회 권력은 통합되고 강했다. 중세 천년 동안 교회가 서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기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교회가 국가를 대체하다

로마 제국의 행정 구조가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겼다. 누가 도시를 관리할 것인가? 누가 법을 집행할 것인가? 누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것인가? 게르만 왕들은 전쟁에는 능했지만 행정에는 무능했다. 그들에게는 로마식 관료 조직도 없었고 문서 업무 경험도 없었으며 법률 체계도 없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은 교회였다. 교회의 조직 구조가 로마 제국의 행정 구조를 그대로 대체했다. 황제가 사라진 자리에 교황이 있었고, 지방 총독이 사라진 자리에 주교들이 있었다. 교회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우기 시작했다.

교황 – 로마 시의 실질적 통치자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은 로마 시의 실질적인 행정관이 되었다. 5세기 중반, 서로마 제국은 이미 형식적 존재에 불과했다. 황제는 라벤나에 숨어 있었고 로마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1] 이때 로마를 실제로 이끈 사람은 교황이었다.

교황 레오 1세(Leo I, 재임 440–461)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452년, 훈 족의 아틸라가 이탈리아를 유린하며 로마를 향해 진군하자 로마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틸라는 '신의 채찍'이라 불렸고, 그가 지나간 곳에는 폐허만 남았다.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무력했다. 군대는 약했고 재정은 바닥났으며

1. 3세기 말부터 로마 제국의 실질적 수도는 이미 로마가 아니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부터 밀라노가 서방 제국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했다. 밀라노는 북부 국경에서 가까워 게르만 족의 침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02년, 서고트 족의 알라리크가 이탈리아를 침공하자 황제 호노리우스는 밀라노마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도를 라벤나로 옮겼다. 라벤나는 이탈리아 북동부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 주변이 습지와 늪으로 둘러싸여 게르만 기병대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다. 또한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해상으로 동로마 제국과 연락하고 보급을 받을 수 있었으며 위급할 때는 탈출도 가능했다. 이후 라벤나는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제국의 수도로 남았다.

황제 자신은 겁에 질려 있었다.

이때 교황 레오 1세가 나섰다. 그는 로마의 원로들과 함께 직접 아틸라의 진영으로 갔다. 민치오 강(Mincio River) 근처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아틸라는 로마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전설에 따르면 아틸라는 교황의 위엄에 압도되었고 하늘에서 칼을 든 천사들이 나타나 위협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뇌물을 포함한 협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황제가 아닌 교황이 로마를 구했다.

3년 후인 455년, 반달 족의 왕 가이세리크가 로마를 공격했는데 이번에도 황제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이미 암살당한 후였고 새 황제 페트로니우스 막시무스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다가 로마 시민들에게 살해당했다. 완전한 무정부 상태였다.

또다시 교황 레오 1세가 나섰다. 그는 반달 족 진영으로 가서 가이세리크와 협상했다. 약탈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반달 족은 이미 로마에 들어왔고 14일 동안 체계적으로 재물을 약탈했다. 그러나 교황은 최소한의 양보를 얻어냈다. 대규모 살육을 막았고, 건물의 무차별적 파괴를 막았으며, 납치와 강간을 제한했다. 황제는 어디 있었는가? 황제는 죽었거나 도망쳤다. 실제 권력은 교황에게 있었다.

교황 그레고리 1세 – 사실상의 국가 원수

교황 그레고리 1세(Gregory I, c.540–604, 재임 590–604)는 이 과정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대(大) 그레고리'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가 교회를 실질적 정부로 변모시켰기 때문이다.[2]

그레고리 시대에 로마는 비참한 상태였다. 540년대와 550년대에 동고트 족과 동로마 제국 사이의 전쟁으로 이탈리아는 황폐화되었다. 이어서 568년 롬바르드 족이 침입하여 이탈리아 북부를 장악하면서 로마는 고립되었다. 동로

2. 교황 그레고리 1세부터 교황은 명실상부하게 서방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자 세속 권력을 겸한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이 시기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황권의 출발점으로 본다.

마 제국의 라벤나 총독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게다가 590년에는 페스트가 창궐하여 인구가 급감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그레고리는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의 행정관을 역임한 경험도 있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레고리 1세

첫째, 그레고리는 로마 시의 식량 공급을 관리했다. 전쟁과 약탈로 농업 생산이 급감했고 무역도 중단되어 로마 시민들은 굶주렸다. 그레고리는 교회 소유의 시칠리아 장원에서 곡물을 가져와 로마 시민들에게 분배했다. 그는 상세한 장부를 작성하여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기록했다. 그는 단순히 자선을 베푼 것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식량 배급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는 황제가 했어야 할 역할이었다. 그러나 황제는 없었고 교황이 그 일을 했다.

둘째, 그레고리는 군대를 조직하여 롬바르드 족의 침입을 막았다. 동로마 제국의 군대는 무력했다. 그들은 로마를 방어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레고리는 교회의 재산으로 용병을 고용했다. 성벽을 수리했고 수비대를 배치했으며 정찰병을 보냈다. 591년과 592년, 두 해에 걸쳐 롬바르드 족이 로마를 공격했을 때 그레고리가 조직한 군대가 이를 막아냈다. 그는 또한 롬바르드 족과 직접 협상하여 평화 조약을 맺었다. 라벤나의 총독은 그레고리가 자신의 권한인 외교권을 행사하자 화를 냈다. 그러나 그레고리는 개의치 않았는데 이미 그가 실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그레고리는 외교 사절을 파견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황제와 서신을 교환했고 프랑크 왕국, 서고트 왕국, 켄트 왕국 등 유럽 각지에 사절을 보냈다. 597년에는 선교사 아우구스티누스를 잉글랜드에 파견하여 앵글로·색슨 족을 개종시켰다. 이는 순수한 종교적 동기만은 아니었다. 그레고리는 유럽 전역에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로마 교황의 권위를 강화하려 했다. 교

황 그레고리 1세는 성경이 말하는 개인의 회심과 거듭남을 중심에 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추진한 선교와 교회 확장은 '영혼 구원'이라는 신약 성경의 개념보다는 로마 교황권에 종속된 기독교 세계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넷째, 그레고리는 세금을 걷었다. 교회 소유의 광대한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관리했다. 그는 각 장원의 관리인들에게 상세한 지시를 내렸고 수입과 지출을 엄격하게 감독했다. 그의 서신집에는 "시칠리아 장원에서 밀 600톤을 로마로 보내라", "나폴리 인근 포도원의 수확량을 보고하라."는 식의 구체적 명령이 가득하다. 이는 재정 관료의 일이었다.

다섯째, 그레고리는 법을 집행했다. 교회법을 확립하고 교회 법정을 강화했으며 주교들의 부패를 단속했다. 그는 또한 세속 문제에도 개입했다. 노예 해방, 상속 분쟁, 재산권 다툼 등을 중재했다. 사람들은 세속 법정보다 교회 법정을 더 신뢰했다.

그레고리는 사실상 로마의 왕이었다. 그리고 이는 로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유럽 전역에서 주교들이 비슷한 역할을 했다. 투르의 주교, 랭스의 주교, 밀라노의 주교, 톨레도의 주교 — 이들은 모두 자신의 도시를 통치했다. 주교는 영주였고, 행정관이었으며, 군사령관이었고, 법관이었다.

교회의 다면적 기능 – 정부를 대체하다

교회는 이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다. 교회는 정부였다. 즉, 국가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교회가 떠맡았다.

교육: 로마 시대의 공립 학교가 사라진 후, 교육은 거의 전적으로 교회의 몫이 되었다. 중세 시대에 학교는 거의 전부 수도원이나 대성당에 속해 있었다. 수도원 학교에서는 젊은 수도사들에게 라틴어, 성경, 전례, 음악을 가르쳤다. 대성당 학교는 더 넓은 교육을 제공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트리비움), 산술, 기하, 천문학, 음악(콰드리비움)을 가르쳤다. 물론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성직자 양성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는 유럽의 유일한 교육 기관이 되었다.

책을 소장하고 필사하는 일도 수도사들이 했다. 수도원의 서고에서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양피지에 글을 옮겨 적었다. 성경, 교부 문헌, 전례서는 물론이고, 때로는 고전 문헌도 필사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키케로의 저술, 심지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까지도 수도원 서고에서 보존되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책들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중세의 지적 생활은 전적으로 교회에 의존했다.

사법: 주교들은 법을 집행했다. 교회법이 점차 체계화되었고 교회 법정이 생겼다. 처음에 교회 법정은 성직자들 사이의 분쟁만 다루었다. 그러나 점차 관할권이 확대되었다. 결혼 문제는 교회 법정의 전속 관할이 되었다. 교회는 결혼을 성사(聖事)로 규정했고, 따라서 결혼의 유효성, 이혼, 혼인 무효 등은 모두 교회가 판단했다. 상속 문제도 종종 교회 법정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유언장에 교회가 언급된 경우가 그러했다. 계약 분쟁, 특히 서약이나 맹세가 포함된 경우도 교회 법정으로 갔다. 도덕 문제 — 간통, 불경죄, 거짓 증언 등 — 는 당연히 교회의 관할이었다.

많은 경우 교회법이 세속법보다 더 강력했다. 세속 법정은 약하고 부패했으며 종종 강자의 편을 들었다. 반면 교회 법정은 상대적으로 공정했고 법 절차가 확립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판결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졌다. 교회 법정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파문의 위협은 강력한 집행 수단이었다.

교회가 정의하는 도덕규범이 사회 전체의 규범이 되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교회가 결정했다. 간음은 죄였고, 고리대금은 죄였으며, 일요일에 일하는 것도 죄였다. 누가 결혼할 수 있고 누가 결혼할 수 없는지도 교회가 결정했다. 근친혼은 금지되었는데, 교회는 7촌까지를 근친으로 규정했다. 이는 사실상 귀족들의 정략결혼을 크게 제한했다. 교회는 이혼도 금지했다. 일단 맺어진 결혼은 죽을 때까지 유효했다. 왕들조차 이 규칙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교회는 또한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했다. 11세기 교황 그레고리 7세의 개혁 이후, 성직자 독신제가 엄격히 시행되었다.

복지와 의료: 이 기능도 교회의 몫이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와 부유한 시민들이 빈민 구제를 했다. 공공 목욕탕, 서커스, 무료 빵과 곡물 배급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모든 역할이 마비되었고 교회가 그 자리를 메웠다.

수도원들은 병원을 운영했다. 중세의 병원은 현대적 의미의 병원과는 달랐다. 그곳은 주로 노숙자, 순례자, 병자를 위한 쉼터였다. 의학적 치료는 제한적이었다. 로마 시대의 의학 지식이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환자들은 깨끗한 침대와 음식을 제공받았고, 기도와 위로를 받았다.

수도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 사업을 했다. 매일 수도원 문 앞에는 빈민들이 줄을 섰고, 수도사들은 빵과 수프를 나누어 주었다. 이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다. 베네딕트 규칙서에는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맞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었고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수도원들은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했다. 중세에는 성지 순례가 매우 성행했다. 예루살렘, 로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순례자들이 수만 명에 달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수도원에서 묵었다. 수도원은 숙소와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고 때로는 순례자를 위한 병원과 마구간도 갖추고 있었다. 알프스를 넘는 고개에는 생베르나르 수도원이 있었고 수도사들은 조난당한 여행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견을 기르기도 했다.

이 모든 면에서 교회는 필수적인 존재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교회 없이는 살 수 없었다. 태어날 때 세례를 받았고, 교육받을 때 교회 학교에 갔으며, 결혼할 때 교회에서 했고, 병들면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으며, 죽을 때 교회가 장례를 치러주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교회가 있었다.

교회가 국가가 되다

결국 교회는 '국가의 빈자리를 대체한 권력'이 되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교회가 곧 국가가 되었다. 중앙 정부, 지방 행정, 사법 체계, 교육 기관, 복지 시스템 — 이 모든 것이 교회였다. 세속 권력자들, 즉 게르만 왕들과 귀족들은

군사적 힘은 있었지만 통치 능력은 없었다. 그들은 교회의 협력 없이는 다스릴 수 없었다.

이것이 중세 유럽의 근본적 특징을 만들었다. 서유럽은 정치적으로는 수백 개의 작은 왕국과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종교적·문화적으로는 교회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 교회는 국경을 초월했다. 프랑스의 주교나 독일의 주교나 모두 같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고, 같은 교회법을 따랐으며, 같은 로마 교황에게 복종했다. 유럽은 정치적으로는 파편화되었지만 종교적으로는 통일되어 있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Christendom)의 탄생이었다.[3]

그리고 이 구조는 1,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교회의 권력은 중세 내내 계속 강화되었고, 11세기와 12세기에는 절정에 달했다. 교황은 황제를 파문했고 왕들을 무릎 꿇렸다. 교회는 십자군을 일으켰고 이단을 심판했으며 유럽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476년의 폐허 위에서 교회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다. 정치적 제국이 아니라 영적 제국을. 그리고 이 제국은 로마 제국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다.

성경적 평가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 18:36)

교회의 사명은 세속 정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

3. '기독교 세계'(Christendom)는 기독교가 국가와 사회 질서 속에 제도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 체제 안에서는 신앙이 개인의 회심과 결단이 아니라 출생, 국적, 문화적 소속에 의해 규정되고, 교회는 정치권력과 결합하여 사회를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반면 '기독교'(Christianity)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의 자발적 회심과 믿음에 기초한 신앙이다. 여기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국가나 문화의 지배 구조가 아니라 복음 전파와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본래의 사명을 따라 존재한다.

하고 신자들을 양육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을 들라고 하지 않으셨고 왕좌에 앉으라고도 하지 않으셨다.

로마서 13장은 정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정부와 교회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다. 정부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외적 질서를 유지하며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내적 변화를 추구한다. 둘의 목적과 수단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이 구분을 허물어 버렸다. 교회가 칼을 들었고 교회가 왕좌에 앉았으며 교회가 세금을 걷고 군대를 지휘했다. 그 결과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 교회는 제국이 되었다.

교황권의 절정 - 교회가 왕을 지배하다

교황령의 탄생 – 피핀의 기증

8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황의 세속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751년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 북부를 정복하고 로마를 위협하자 동로마 제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러자 교황 스테파누스 2세(Stephen II, 재임 752–757)는 전혀 새로운 동맹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알프스를 넘어 프랑크 왕국으로 갔다. 당시 프랑크 왕국의 실질적 지배자는 피핀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라 '궁재'(궁정의 재상)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었다. 교황은 이 인물과 담판을 지었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으니 그 대가로 롬바르드 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754년 교황은 피핀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선례였다. 세속 통치자의 정당성이 교황의 인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피핀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롬바르드족을 물리쳤다. 그리고 756년 이탈리아 중부의 광대한 지역을 교황에게 헌납했다. 이것이 바로 '피핀의 기증'이다. 바로 이때 교황령 즉 '교황이 다스리는 국가 혹은 영토'(Papal States)가 탄생했다. 교황은 더 이상 영적 지도자만

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 영토를 다스리는 세속 군주가 되었으며 이 교황령은 1870년 이탈리아 통일까지 천 년 이상 존속했다. 교황은 이 영토에서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고 군대를 유지했다.

더 나아가 중세 시대 전반에 걸쳐 교황은 서유럽 전체의 최고 권력자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모든 왕들이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카롤루스 황제의 대관식

800년 크리스마스에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Charlemagne, 재위 768–814)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 교황 레오 3세가 다가와 그의 머리에 황제 관을 씌웠다. 군중이 환호했다. "찬양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신 위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황제 카롤루스여!"

이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다. 무엇보다도 첫째, 서로마 제국이 324년 만에 '부활'한 것이었다.[4]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하게, 교황이 황제를 임명한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다. 황제의 지위조차 교황의 손에서 나온다는 의미였다. 다시 말해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카롤루스 대제 자신은 이 대관식에 대해 매우 복잡한 감정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황제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교황이 관을 씌움으로써 마치 교황의 허락을 받아 황제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우려는 정확했다. 후대의 교황들은 바로 이 논리를 사용하여 황제들을 굴복시키게 된다.

교황 그레고리 7세의 혁명

11세기에 이르러 교황 그레고리 7세(Gregory VII, 재임 1073–1085)는 교황의 절대적 우월성을 역사상 가장 분명하게 선언한 인물로 등장했다. 그는 원

4.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으로 본다.

래 힐데브란트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였지만 교황이 되면서 그레고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는 강력한 의지와 확신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교회 개혁과 교황권 강화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1075년 그는 유명한 '교황 칙령'(Dictatus Papae)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2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중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 로마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만 세워졌다
- 로마 주교(교황)만이 '보편적'이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다
- 교황만이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
- 교황만이 황제의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군주는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춰야 한다
- 교황은 왕들을 폐위할 수 있다
- 교황은 어떤 인간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
- 로마 교회는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 교황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카톨릭 신자로 여겨질 수 없다

이는 당시 기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주장들이었다. 교황이 황제보다 높다는 것, 교황은 무오(無誤)하다는 것,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까지 선언한 것이었다.

카노사의 굴욕

그레고리 7세는 이러한 주장을 단순히 문서에 적어 두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세속의 최고 권력자와 충돌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Henry IV, 재위 1056–1105)와의 대립이 그것이다. 논쟁의 핵심은 성직자 임명권 문제였다. 왕들은 전통적으로 주교를 임명해 왔지만 그레고리 7세는 이것이 교회의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1076년 1월, 황제는 독일의 주교들을 소집하여 교황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교황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당신은 더 이상 교황이 아니다. 이제

거짓 수도사일 뿐이다."라고 통보했다. 그레고리 7세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황제를 파문했다. 파문은 단순히 교회에서 추방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파문당한 사람은 성례전에 참여할 수 없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으며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선언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교황이 황제의 모든 신하들을 충성 서약에서 해방시켰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신하들은 더 이상 하인리히 4세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독일 제후들이 하나둘 황제 곁을 떠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새로운 왕을 선출하겠다고 위협했다. 황제는 고립되기 시작했고 권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인리히 4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1077년 1월, 그는 혹독한 겨울에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향했다. 교황은 당시 카노사 성에 머물고 있었다. 황제는 성 밖에서 사흘 동안 맨발로 눈 속에 서서 교황의 용서를 구했다. 그는 참회자의 옷을 입고 금식하고 있었으며 세 번이나 교황에게 용서를 요청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야 교황은 그를 받아들였고 파문을 해제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다. 세속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중세 교황권의 상징으로 남아 이후 수백 년 동안 교황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 권력의 절정

13세기에 이르러 교황권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Innocent III, 재임 1198–1216) 시대에 절정에 달하였다. 그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교황이었을 것이다. 그는 37세의 젊은 나이에 교황이 되었고, 탁월한 법학자이자 외교가였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의 권위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였다. "교

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다. 하나님보다는 작지만 인간보다는 크다." 그는 또한 유명한 비유를 제시하였다. "교황은 해요, 황제는 달이다."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하듯이 세속 권력은 교황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의미였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실제로 이 권위를 광범위하게 행사하였다. 그는 프랑스 왕 필립 2세를 파문하였다. 필립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하자 교황이 이를 금지했으며 왕이 불복하자 파문을 단행하였다. 프랑스 전체에는 성무금지령(Interdict)이 내려졌다. 이는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성례전이 중단된다는 의미였다. 결국 필립 왕은 굴복하였다.

그는 잉글랜드 왕 존(King John)을 굴복시켰다.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자 교황은 존을 파문하고 잉글랜드 전체에 성무금지령을 선포하였다. 6년에 걸친 투쟁 끝에 존 왕은 완전히 항복하였다. 그는 잉글랜드 왕국을 교황에게 바치고 다시 봉신으로 받는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후 잉글랜드 왕은 매년 교황에게 공물을 바쳐야 했다.

그는 독일 황제 오토 4세를 폐위시키고 프리드리히 2세를 황제로 세웠다. 그는 불가리아, 아라곤, 포르투갈의 왕들을 교황의 봉신으로 만들었다.

그는 제4차 십자군(1202–1204)을 조직하였다. 비록 이 십자군은 예루살렘이 아닌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는 결과로 끝났지만 이것 또한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그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의회에는 400명 이상의 주교와 800명 이상의 수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 공의회에서 여러 중요한 교리가 확정되었다. 화체설 즉 빵과 포도주[5]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5. 성경의 'wine'(yayin, oinos)은 현대와 달리 발효·비발효를 구분하지 않는 단어로, 알코올 포도주와 신선한 포도즙 모두를 뜻하는 동형이의어였다. 따라서 주의 만찬의 wine이 반드시 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fruit of the vine, 마 26:29)라는 표현은 비발효 포도즙 사용과 일치한다. 성경 시대에는 문맥이 발효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wine을 무조건 술로 이해하는 것은 현대적 오해에 가깝다.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과 대부분의 개신교 전통에서는 관습적으로 주의 만찬의 wine을 '포도주'로 이해하고 사용해 왔다. 그러나 많은 미국 침례교회들은 비발효 포도즙을 사용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한 본래 의미와 더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주로 카톨릭의 화체설과 관련하여 'wine'이 등장하므로, 당시 그들의 관례와 신학적 이해를 반영해 '포도주'라는 표현으로 표기하였다.

변한다는 교리, 일 년에 한 번 이상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한 표식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결정되었다.

그의 시대에 교황은 문자 그대로 '왕들의 왕'이었다. 유럽의 모든 통치자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했다.

성경적 평가

이 모든 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권력을 추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마 20:25–27)

그러나 교황들은 정반대로 행동하였다. 그들은 왕들 위에 군림하려 했고 세속 권력을 추구했으며 섬김이 아니라 지배를 원했다.

둘째, 베드로는 겸손을 가르쳤다.

>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 떼에게 본이 되라. (벧전 5:2–3)

교황들은 자신들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베드로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었지만 교황들은 오히려 '왕들의 왕'이 되려 하였다.

셋째, 바울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딤전 3:2–4)

그러나 교황들은 결혼을 금지하였다. 그들은 자기 영토를 다스렸지만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했다. 가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이 제시한 기본적 자격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넷째, 성경 어디에도 한 사람이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대 교회에는 사도들이 여럿 있었고, 초기에는 각 지역에 장로들이 복수로 세워져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다(행 15장). 모든 사도는 동등한 권위를 가졌고 그 누구도 다른 사도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

교황 제도는 성경에 근거가 없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이며, 권력욕에서 태어난 구조이며, 복음을 왜곡한 비성경적 체계이다.

사제 계급과 성례전 체계

엄격한 위계질서

중세 카톨릭교회의 또 다른 핵심적 특징은 강력한 사제 계급 제도였다. 이 위계질서는 엄격하면서도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였다. 맨 위에는 교황이 있었고, 그 아래로 추기경들, 대주교들, 주교들, 사제들, 부제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들과 별도로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독립된 조직을 이루었다.

이 구조 안에서 성직자들은 일반 성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여겨졌다. 성직자와 일반 성도는 두 개의 분리된 계급이었고 성직자는 거룩한 존재로, 일반 성도는 세속적인 존재로 간주되었다. 성직자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

고 있었으며 일반 성도는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었다.[6]

사제의 특별한 권한

성직자들은 일반 신자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미사 집례 권한: 카톨릭교회는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가르쳤다. 이는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면 그것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이다. 외형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완전히 변한다고 가르쳤다. 카톨릭은 사제만이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하는 순간 빵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고, "이것은 내 피니라."라고 말하는 순간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가르쳤다.

더 나아가 카톨릭은 미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사를 자주 드릴수록 좋다고 하였다. 이 교리는 사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다. 사제 없이는 미사를 드릴 수 없고, 미사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논리였기 때문이다.

2. 죄들의 용서 권한: 카톨릭교회는 사제가 죄들을 용서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받아야 했다.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했다.

---

6. 목사나 사제를 '성직자'로, 그 외의 성도들을 '평신도'로 구분하는 전통은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중세 카톨릭교회에서 형성된 '성직자 계층과 일반 신자'(clergy/laity) 체계의 유물이다. 즉, 교회를 전문 종교직과 일반 신자로 나누는 구조는 로마 카톨릭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원리를 왜곡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평신도'라는 용어 대신 '일반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실 '일반'이라는 말조차 신약 교회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구분이지만, 오늘날 통념 속에서 목회자와 구분하여 부르는 관례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제는 고해소에 앉아 있었고 신자는 옆 칸에서 격자를 통해 죄를 고백했다. 사제는 죄가 용서받을 만한지, 어떤 속죄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언했다.

이 권한은 사제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 사제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았고 필요하면 용서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 사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3. 파문 권한: 사제와 주교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 파문당한 사람은 성례전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없으며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선언되었다. 파문은 단순한 종교적 제재가 아니라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다.

4. 결혼과 장례의 권한: 사제 없이는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없었다. 또한 사제 없이는 기독교인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 — 출생, 결혼, 죽음 — 마다 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구성된 구조였다.

5. 일곱 성사 제도: 중세 시대에 이르러 교회는 일곱 가지 성사 제도를 체계화했고, 이는 이후 피렌체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첫째, 유아 세례.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내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했다. 이것이 원죄를 씻어 준다고 가르쳤다.

둘째, 견진 성사. 아이가 7세에서 12세가 되면 주교에게 견진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7]

셋째, 성체 성사.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미사이다. 신자들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성체를 받아야 했다.

---

7. '견진'(Confirmation)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장한 뒤, 주교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며 "성령을 받는다."고 선언하는 의식이다. 세례로 시작된 신앙을 '굳게 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절차였지만 성경에 근거한 제도는 아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임하신다고 가르친다(엡 1:13).

넷째, 고해 성사.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는 절차였다. 최소한 일년에 한 번은 의무적이었다.

다섯째, 병자 성사.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제가 기름을 바르고 마지막 복을 주는 의식이었다. 이것이 천국에 입장하는 필수 요소라고 가르쳤다.

여섯째, 성직 서품. 사제로 임명되는 의식이며, 일반인을 '특별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절차라고 여겨졌다.

일곱째, 혼인 성사. 사제가 집례해야만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되었다.

이 성사들은 모두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졌고 모든 성사는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에 사제가 필요하도록 만든 구조였다.

사제의 세속 권력

사제들의 권한은 영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고 그들은 세속 권력도 강력하게 행사하였다. 사제들은 법을 집행하였는데 교회법은 세속법과 별도로 존재했으며 종종 세속법보다 강력하였다.

교회 법정은 결혼, 이혼, 상속 문제, 서약이 포함된 계약 분쟁, 간음, 신성모독, 이단과 같은 도덕 문제, 십일조 분쟁 등을 다루었다. 사람들은 종종 세속 법정보다 교회 법정을 더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파문이라는 궁극적인 제재 수단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제들은 교육을 독점하였다. 중세 유럽의 학교는 거의 모두 교회나 수도원 소속이었다. 파리, 옥스퍼드, 볼로냐와 같은 대학도 교회가 설립하고 통제하였으며, 따라서 교육받은 사람은 거의 다 성직자였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모든 책을 손으로 필사해야 했고 그 일을 담당한 사람도 수도사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지식은 성직자에게 집중되었고 일반 성도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제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사제들은 세금을 걷었다. 십일조는 법적으로 의무였고 모든 사람은 수입의 십분의 일을 교회에 바쳐야 했다. 내지 않으면 파문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침례 수수료, 결혼 수수료, 장례 수수료, 미사 봉헌료, 고해 성사 헌금, 성지 순례 비용, 유품 구입 비용 등 각종 비용이 부과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비용은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성례전을 받을 수 없었고, 성례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적 평가

이 모든 제도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모순된다.

첫째, 신약 성경은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을 가르친다.

>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9)

신약 시대에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따라서 별도의 제사장 계급이 필요하지 않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중세 카톨릭이 만든 사제 계급 제도는 신약의 이 명백한 가르침과 충돌한다.

둘째, 화체설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눅 22:19)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기억하는 것'(remembrance)이지 반복적 희생이 아니었다.

성경은 더욱 분명히 말한다.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

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히 10:12).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 영원히 유효한 희생이다. 그러므로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제물로 바친다는 교리는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셋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매"(막 2:7).

성경은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배타적 권한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사제가 개인에게 죄들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다는 교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곧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될 것이요."(요 20:23)라는 구절은 죄를 실제로 용서하는 능력을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을 선포하는 권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들의 용서를 받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머문다."는 선언적 권위를 주신 것이다.

즉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사제가 사람의 죄를 직접 사할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넷째, 성례전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다.

신약 성경은 침례나 성찬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행위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기념하기 위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

카톨릭의 성사 체계는 성례전을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신자를 사제와 교회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주의 만찬을 '순종의 행위, 기억의 행위, 고백의 행위'로 제시한다.

다섯째, 신약 성경은 카톨릭교회같이 위계질서를 두라고 말하지 않는다.

중세 교회의 위계질서 즉 교황 → 추기경 → 대주교 → 주교 → 사제 → 일반 성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수평적, 공동체적 지도 체제와 정반대였다.

유아 세례와 시민권의 결합

유아 세례의 강제

중세 사회에서 유아 세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출생 신고, 시민권 부여, 사회 소속 확인이 하나로 묶여 있는 중요한 사회 제도였다.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안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했다. 교회법은 출생 후 8일 이내에 세례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고 이를 어기면 부모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 이유는 교회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당시 교회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기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쳤다. 후대에 '림보'라는 중간 개념이 생겼지만 그곳 역시 천국은 아니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혹시라도 아이가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을까 두려워했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산파가 직접 '긴급 세례'를 주는 일도 흔했다.

유아 세례가 부여한 것들

유아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아기에게 동시에 여러 신분을 부여한 제도였다.

첫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세례를 받으면 곧바로 카톨릭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고 "원죄가 씻겼으며 구원받았다."고 간주되었다.

둘째, 국가의 시민이 되었다. 세례 기록은 곧 출생 신고였다. 세례 증명서가 오늘날의 출생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

셋째, 법적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정되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아기는 '법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상속권도 보호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넷째, 세금 납부자로 등록되었다. 교회 기록부는 곧 세금 명부였다.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십일조 납부 의무가 생겼다.

다섯째, 사회적 신분이 확정되었다. 세례 때 대부모[8]가 지정되었고 이는 아이의 장래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귀족들은 귀족을 대부모로 두었고 이는 사회적 신분을 확증하는 역할을 했다.

유아 세례 거부의 결과

중세 사회에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자살이었다.

첫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는 법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기에 살해되어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었다.

둘째, 상속권이 없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었다. 이는 부모에게 엄청난 압력 요소였다.

셋째, 기독교인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아동은 복받은 땅이 아닌 길가나 숲에 묻혔다. 이는 가족에게 큰 수치였다.

넷째, 결혼할 수 없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 결혼이 불가능했고 교회 결혼 없이는 법적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섯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중세의 대부분 직업 길드는 교회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다. 즉, 대부분의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여섯째, 공직·군대 진출 불가. 국가 운영·군대·법 집행 등 모든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었다.

결과적으로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아무도 감히 거부할 수 없었다.

---

8. 중세 천주교에서 대부모(godparents)는 유아 대신 신앙을 고백해 주는 '영적 보호자'로 세워졌다. 아이가 믿음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모가 그 믿음을 보증하고 이후 신앙 교육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동시에 대부모는 사회적 후견인 역할도 수행하여, 교회가 출생·신앙·사회적 관계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능을 했다.

'회심'의 개념이 사라지다

이 체계가 낳은 가장 심각한 영적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회심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구원은 반드시 (1) 회개, (2) 믿음, (3) 개인적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아 세례에서는 어떠한 개인적 결단도 없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다. 아기는 선택하지 않는다. 부모와 교회가 대신 선택한다.

결과적으로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 "아기 때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까?" →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요 3:3)

다시 태어남은 물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되는 것이다. 유아 세례는 이 진리를 완전히 왜곡했다.

교회가 국가가 되다

유아 세례 체계는 교회와 사회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교회는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가 아니라 '한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되어버렸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카톨릭 신자였다. 독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카톨릭 신자였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모두 마찬가지

였다. 교회와 국가는 사실상 같은 것이 되었다.

이는 신약 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신약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교회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였고(벧전 2:11)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발적 모임이었다. 그러나 중세의 '교회'는 지리적, 정치적 실체였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였다. 이는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질시켰다.

성경적 평가

성경은 명백히 신자들의 침례만을 가르친다.

첫째, 침례는 믿음을 따른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순서를 보라. 먼저 믿고 그다음 침례를 받는다. 아기는 믿을 수 없으므로 아기에게는 침례를 줄 수 없다.

둘째, 침례는 회개를 요구한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아기는 회개할 수 없으므로 아기에게는 침례를 줄 수 없다.

셋째, 침례는 신앙 고백을 동반한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행 8:37).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뒤 침례를 받았다. 아기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므로 아기에게는 침례를 줄 수 없다.

넷째, 신약의 모든 침례 사례는 성인 신자들에 대한 것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유아 세례의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것은 2세기경 사람의 전통으로 서서히

도입되었고 4세기에 일반화되었으며 중세 시대에 강제되었다. 성경은 언제나 회개하고 믿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음을 말한다. 그렇기에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일 뿐이다.

구원론의 완전한 왜곡

행위 구원론

중세 카톨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론의 왜곡이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 신약 성경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이는 복음의 핵심이다.

>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엡 2:8–9)

>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롬 3:28)

이것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 구원은 은혜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구원을 복잡한 체계로 만들어 버렸다. 구원은 더 이상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구원은 성례전, 선행, 고행, 기부, 순례, 면죄부 등의 복잡한 조합이 되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들

중세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배웠다.

첫째,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중세 교회는 이것이 원죄를 제거한다고 가

르쳤다.

둘째, 견진 성사를 받아야 한다. 중세 교회는 이것이 성령을 받게 한다고 가르쳤다.

셋째,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해야 한다. 미사를 빠지는 것은 중죄였다. 특히 주일 미사는 의무적이었다.

넷째,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고해 성사에서 죄를 고백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파문당할 수 있었다.

다섯째, 사제가 부과한 속죄를 이행해야 한다. 사제는 죄를 용서한 후 속죄를 지정했다. 예를 들어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라", "성모 마리아께 50번 기도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라." 등이다.

여섯째, 선행을 쌓아야 한다. 중세 교회는 구원이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며 선행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신도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방문하고 교회를 짓고 수도원에 기부해야 했다.

일곱째, 십일조와 헌금을 바쳐야 한다. 이는 의무였다. 중세 교회는 이를 구원의 조건 중 하나로 가르쳤다.

여덟째, 성지 순례를 가야 한다. 중세 교회는 로마, 예루살렘 등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큰 공로를 쌓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아홉째, 유품(성인들의 뼈, 옷, 물건 등)을 숭배해야 한다. 교회와 수도원들은 수많은 유품들을 소장했다. 사람들은 이 유품들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었고 유품을 만지거나 절하는 것이 공로를 쌓는 것이라고 배웠다.

열째,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해야 한다.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중보를 구하라고 배웠다.

열한째, 임종 시 종부 성사를 받아야 한다. 중세 교회는 이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큰 문제라고 가르쳤다.

연옥과 면죄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중세 교회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확고히 정착시켰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상태로 이해되었다. 카톨릭교회는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지 않았다면 연옥에 가서 남은 죄의 형벌을 치러야 한다고 가르쳤다.

연옥은 영원한 지옥은 아니지만, 죄를 정화하기 위해 고통을 겪는 일시적 처소로 여겨졌다.

중세에 판매되던 면죄부(면벌부)

연옥에 머무는 기간은 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수백 년, 어떤 사람은 수천 년을 연옥에서 보낸다고 중세 교회는 가르쳤다. 결국에는 모두 천국에 가지만 그 전에 연옥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세 교회는 또한 연옥에서의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쳤다. 살아 있는 가족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의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면죄부는 교회가 파는 서류였다.

이 면죄부를 사면 일정 기간의 죄에 대한 벌이 면제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100일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100일 동안 죄에 대한 벌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수십 년, 수백 년치의 면죄부를 샀다.[9]

더 나아가 교회는 죽은 사람을 위한 면죄부도 팔았다.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위해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9. 면죄부에 해당하는 'indulgence'는 본래 '죄의 형벌을 면제한다'는 의미이므로 '면벌부'가 더 정확한 번역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역사적으로 '면죄부'라는 표현이 이미 굳어진 관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면죄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영어 'indulgence'는 본래 라틴어 'indulgentia'(형벌을 풀어 줌, 관용)에서 온 신학 용어로, 죄의 형벌을 감면해 주는 조치를 뜻한다. 오늘날 영어 'indulge'의 '탐닉하다'는 뜻은 후대적 의미 변화일 뿐 원래의 기본 뜻은 '허용하다, 풀어 주다'였기에 '면벌부' 개념이 형성되었다.

종교 개혁 시대에 유명한 면죄부 판매원 요한 테첼은 이러한 구호를 외쳤다.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 짤랑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이 그 자리에서 풀려나 곧바로 천국으로 날아갑니다!"

이는 완전히 복음을 왜곡한 것이다.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살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연옥에서 고통받아야 했다.

성경적 평가

이 모든 것은 신약 성경을 정면으로 거역한다.

첫째, 연옥은 성경에 없다. 성경은 죽은 후에 단 두 곳, 즉 천국과 지옥만 있다고 가르친다. 중간 장소는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연옥이 아니다.

둘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야고보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약 2:26)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는다는 의미이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하다.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히 10:14).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으므로 연옥에서 추가로 정화받을 필요가 없다.

넷째,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은 성경에 없다. 성경은 살아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죽은 자는 이미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다.

다섯째,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마리아의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선물(은사)을 사려 하자 베드로가 말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네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행 8:20).

중세 교회의 성경 금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불태우는 사제들

라틴어 독점

중세 교회가 저지른 또 다른 중대한 죄악은 성경을 일반 성도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다. 교회는 4세기 말 제롬(Jerome, 347-420)이 번역한 라틴어 불가타(Vulgate) 역본만이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주장했다.[10] 카톨릭교회는 이것만이 정확한 번역이며 다른 번역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라틴어는 학자들과 성직자들의 언어였고 일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을 사용했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를, 영국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다. 1229년 툴루즈 공의회는 일반 성도가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고 1234년 타라고나 공의회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다.

결과적으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사제가 읽어주는 것을 들을 뿐이었다.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형식을 따라 할 뿐이었다.

성경 소유와 번역의 처벌

교회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간주했다. 성경을 몰래 읽다가 발각되면 이단으로 고발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단 심문

10. 불가타(Vulgate)는 라틴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판'(vulgata editio)에서 나온 말로,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제롬이 4세기 말에 개정·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롬 이전에는 구(舊) 라틴 성경(Vetus Latina)이 여러 판본으로 존재했으며 이는 제롬의 불가타와 문헌 계열이 전혀 다른 독립 전통이었다. 제롬의 번역본이 교회의 공식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불가타'라는 명칭이 구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제롬 계열의 라틴 성경을 가리키는 용어로 재정의되었다. 한국어 표기 '불가타'와 영어식 표기 '벌게이트'(Vulgate)는 같은 말이다.

소인 종교 재판소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화형당했다.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더욱 가혹하게 처벌받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는 생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호를 받아 화형을 피했지만 죽은 후 카톨릭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리고 1428년, 죽은 지 44년 후에 그의 무덤을 파헤쳐 뼈를 꺼내 불태웠고 그의 재는 강에 뿌려졌다.

위클리프의 후계자들인 롤라드파(Lollards)는 더욱 혹독하게 박해받았다. 그들은 영어 성경을 손으로 베껴서 비밀리에 돌려 읽었고 발각되면 영어 성경을 목에 매달고 화형당했다.

보헤미아의 얀 후스(Jan Hus, 1369–1415)도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고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콘스탄츠 공의회에 소환되었다. 공의회는 그에게 안전 통행증을 주었지만 약속을 어겼다. 그는 재판을 받고 1415년 7월 6일 화형당했다. 화형대에서 그는 시편을 노래했다.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은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는 영국을 떠나 유럽 대륙에서 번역 작업을 했지만 결국 체포되었고 1536년 10월 6일 목 졸려 죽은 후 불태워졌다. 그의 마지막 말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였다.

왜 카톨릭교회는 성경을 숨겼는가?

교회는 왜 이렇게 성경을 숨기려 했을까? 표면적으로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만약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교황의 지상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베드로도 잘못을 범했고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다(갈 2:11–14). 성경은 연옥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면죄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마리아 숭배나 성인 숭배를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유품을 숭배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유아 세례를 명령하지 않는다. 성경은 신자 침례만을 가르친다.

성경은 사제가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미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희생되셨다고 명백히 가르친다. 만약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교회의 권위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숨겼다.

전통이 성경을 대체하다

교회는 성경보다 전통을 우선시했다. 트렌트 공의회(Council of Trent, 1545–1563)는 공식적으로 "교회의 전통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비록 성경에 없어도 권위가 있다는 의미이다. 교황의 말씀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는 의미이다. 공의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했다.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되었다. 그저 교회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는 신약 교회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었다. 초대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기록들을 탐구하여 칭찬을 받았다(행 17:11). 그러나 중세 교회는 "교회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성경을 탐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단이었다.

성경적 평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

려 함이라."(딤후 3:16-17)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성경은 모든 교리의 기초이다. 성경은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교회가 성경을 숨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둠 속에 가두는 범죄였다. 이는 영적 학대였고 지적 억압이었으며 영혼에 대한 폭력이었다.

양심의 자유 박탈

신앙의 강제

중세 카톨릭 체제의 또 다른 근본적 문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신약 성경은 신앙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임을 명백히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뿐이다. 문을 여는 것은 각 사람의 선택이다.

그러나 중세 사회에서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였다. 한 사람이 무엇을 믿을지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카톨릭 신자였다. 다른 것을 믿을 자유는 없었다. 스페인에서 태어나면 카톨릭 신자였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도 카톨릭 신자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만약 누군가 다른 것을 믿거나 카톨릭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면 이단으로 고발되었다.

종교 재판소 – 이단 심문 및 양심의 재판[11]

종교 재판 혹은 이단 심문(Inquisition)은 이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무서운 도구였다. 이는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양심의 박해였다. 종교 재판소(이단 심문소)는 13세기 초에 시작되었다. 교황 그레고리 9세는 1231년 이단 심

11. 이단 심문을 위한 중세 종교 재판은 침례교회의 모토인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므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문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했다. 이는 처음에 남프랑스의 카타리파와 알비파(Albigenses)를 척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단 심문관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제들이었다. 그들은 주로 도미니크회나 프란체스코회 수도사들이었으며 그들은 마을과 도시를 순회하며 이단을 찾아냈다. 이단 심문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발. 누구나 이웃을 이단으로 고발할 수 있었다. 익명 고발도 가능했으므로 개인적 원한으로 무고한 사람을 고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둘째, 체포. 고발당한 사람은 즉시 체포되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고발자가 누구인지 알 권리도 없었다.

셋째, 심문. 심문관은 피고인을 문초했다. "너는 이단인가?", "너는 교회의 가르침을 믿는가?", "너는 누구에게서 이러한 생각을 배웠는가?" 심문관은 피고인이 다른 이단자들을 밀고하도록 강요했다.

넷째, 고문.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고문을 가했다. 카톨릭교회는 고문을 정당화했다.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는 1252년 고문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고문의 종류는 다양했다. 물고문, 몸통 늘임대, 쇠사슬 매달기, 손가락 꺾기 등이 사용되었다.

다섯째, 재판. 심문관이 재판관이었다. 배심원도 없고 공정한 재판도 없었다. 유죄 판결은 거의 확실했다.

여섯째, 형벌.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 채찍질, 순례 등이 부과되었고 심각한 경우에는 종신 투옥이나 사형이 선고되었다.

일곱째, 화형. 회개하지 않는 이단자는 화형에 처해졌다. 교회법이 사제가 피를 흘리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대신 세속 당국에 넘겼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했다. 세속 군주들은 교회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화형은 공개적으로 집행되었다. 마을 광장에 장작더미를 쌓고 이단자를 기둥에 묶었다. 군중이 모였고 사제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단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불을 붙였고 이단자는 산 채로 불에 타 죽었다.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행해졌다는 점이다. 교회는 이단자를 화형시키는 것이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이었다.

"이단자는 영혼의 병에 걸린 사람이다. 병든 사지를 잘라내야 온몸이 살 수 있듯이, 병든 영혼을 제거해야 교회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 "이단자를 죽임으로써 우리는 그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는다. 이는 그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단자를 죽임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는 사랑의 행동이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을 왜곡한 논리인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는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에게 사용한 논리와 똑같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었다.

통계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역사가들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종교 재판소의 이단 심문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한다. 스페인 종교 재판소만 해도 1478년부터 1834년까지 약 3만에서 30만 명이 화형당했다고 추정된다.

알비파를 제거하기 위해 카톨릭교회가 파견한 알비 십자군(Albigensian Crusade, 1209–1229)은 남프랑스 전역에서 수만 명의 카타리파 신자들을 학살했다. 1209년 베지에(Béziers)가 함락되었을 때만 해도 약 2만 명이 몰살된 것으로 전해진다.[12]

12. 이때 교황 특사 아르노 아모리는 "모두 죽여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아실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누가 카타리파이고 누가 카톨릭 신자인지 구분할 필요 없다. 모두 죽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의로운 자를 구별하실 것이다."라는 뜻으로, 당시 학살이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잔혹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 발언으로 기록된다. 카타리파(Cathars)는 그들의 신학적·영적 운동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이름이고, 알비파(Albigenses)는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프랑스 남부 알비(Albi) 지역에서 유래한 지역 기반 이름이다.

후스 전쟁(Hussite Wars, 1419–1434)에서도 수만 명이 죽었고 재침례파 박해에서도 수천 명이 순교했는데 이 모든 것이 "정통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행되었다.

"그 지역의 종교는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도 이 체제에 협력했다. 세속 군주들은 교회가 이단으로 판결한 사람들을 처형했다.

때로는 한 나라 전체의 종교가 왕의 결정에 따라 바뀌기도 했다. 왕이 카톨릭이면 나라가 카톨릭이었고, 왕이 개신교로 바뀌면 나라도 개신교가 되었다.

이는 16세기 종교 개혁 후에 더욱 명확해졌다. 루터 이후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는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도 개인의 양심이나 신앙의 자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무엇을 믿을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통치자가 선택하는 것이었다.

만약 당신의 양심이 통치자의 종교와 다르다면 당신은 이단이었고 그 결과 박해받거나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했다.

성경적 평가

이 모든 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을 들라고 하지 않으셨고 무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둘째, 사도들은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설득과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셋째, 초대 교회는 강제나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설득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넷째,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로마서 14장은 양심의 문제를 다룬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양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결론 - 잃어버린 천 년

중세 천 년 동안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복음을 왜곡하고 가렸다. 구원은 더 이상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성례전과 선행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되었다. 믿음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통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되었다. 교회는 자발적 신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한 나라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제도가 되었다.

사제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필수적 중재자가 되었다. 교황은 왕들보다 높은 권력을 주장했다. 성경은 사람들로부터 빼앗겼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했다. 양심의 자유는 부정되었다. 이단자들은 화형당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그러나 빛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천 년 동안 소수의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지켰다. 왈도파, 알비파, 롤라드파, 후스파 등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약 교회의 원리를 실천하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나 종교 개혁마저도 완전하지 않았다. 루터와 칼빈은 일부 진리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했고 그들도 재침례교인들을 박해했다. 신약 교회를 완전히 회복하려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침례교의 선조들이었다. 그들은 천 년 동안 잃어버렸던 다음과 같은 신약 교회의 원칙들을 되찾으려 했다.

- 오직 성경만이 최고 권위다
-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 교회는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다
- 구원받은 신자의 침례만이 성경적이다
-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침례교는 결국 이것들을 회복하였다.

Check Point

중세 카톨릭 시대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교회가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날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과 제도적 특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2. 사제 계급 제도를 만들고 일반 성도와 성직자를 나누는 것이 옳은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 계급 구조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3. 현대 교회는 유아 세례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회심'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태생이나 전통에 두지 않고, 다시 태어남이라는 성경적 요구를 진지하게 붙드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4. 현대 교회는 구원을 복잡한 행위 체계로 만들어 은혜를 가리고 있지 않은가?

종교적 활동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만들고 있지 않은지,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라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5. 현대 교회는 성경보다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돕고 있는지, 아니면 목회자나 전통의 권위를 더 높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6.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신학적 차이를 이유로 비난과 정죄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말하되 사랑과 온유함으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7.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가?

획일성과 강제를 통해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양심을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Chapter 5

중세 종교 재판소
교회의 무력 사용과 이단 탄압

AD 1184-1600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 어느 정도의 강제는 필요하지 않은가?", "국가의 힘을 빌려 도덕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왜 나쁜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진다. 그러나 중세 역사 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면 교회가 칼을 들 때 무엇이 파괴되는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 로마 카톨릭교회는 정치, 법, 교육, 경제, 군사 기능까지 떠안으며 대륙을 지배했고 권력이 커질수록 복음은 뒤로 밀려났다.

은혜는 성례와 행위로 대체되었고 개인의 회심은 유아 세례 속에 묻혀 버렸으며 성경의 권위는 전통과 교황의 말 아래 종속되었다. 연옥, 면죄부, 강제 개종과 같은 제도들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침례교가 회복하려 한 것은 바로 이 천 년 동안 잃어버렸던 신약 교회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진다. 이 장에서는 어거스틴의 "강제로

라도 데려오라."는 원칙이 어떻게 중세 종교 재판소라는 거대한 폭력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버리고 어떤 부분을 다시 붙잡아야 신약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어거스틴에서 종교 재판소까지

1077년 1월, 독일 황제 하인리히 4세는 한겨울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의 카노사 성으로 갔다. 그는 맨발로 눈 속에 사흘 동안 서서 교황의 용서를 구했는데 이것이 '카노사의 굴욕'이었다.

1415년 7월 6일,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는 콘스탄츠 공의회의 재판을 받고 화형대에 섰다. 그는 불길 속에서 시편을 노래했는데 그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고 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것이었다.

1633년, 69세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로마의 종교 재판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지동설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았고 남은 생애를 가택 연금 상태로 보내야 했다.

이 세 사건은 서로 다른 시대에 일어났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이다. 교회가 칼을 들었고 교회가 강제로 억압했으며 교회가 죽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신학적 뿌리는 4세기 어거스틴이 놓았다. 앞에서 살핀 대로,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 논쟁에서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원칙을 확립하며 누가복음 14장 23절을 국가적 강제력의 근거로 사용했다. 그는 강제 무력 사용이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고 이 사상은 중세에 이르러, 종교 재판소(Inquisition)는 무서운 나무로 자라났다. 종교 재판소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제도화하고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기구였다. 만약 어거스틴의 원리가 '이론'이었다면 종교 재판소는 그 이론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 주는 '실천'이었다.

종교 재판소 - 국가 정책이 된 이단 심판

베로나 칙령(1184) – 공식적인 종교 재판소의 시작

종교 재판소의 기원은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유럽 곳곳에서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운동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왈도파와 알비파(카타리파)였다.

알비파는 남프랑스 랑그독(Languedoc) 지역에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한 집단으로, 영혼과 물질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원론을 믿었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했다. 그들은 카톨릭의 성례전과 사제 제도를 거부했다. 왈도파 역시 성경 중심의 신앙, 일반 성도 설교, 단순한 교회 형태를 추구하며 카톨릭의 권위를 부정했다. 두 운동의 공통점은 로마 카톨릭교회를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1184년, 교황 루키우스 3세(Lucius III, 재임 1181–1185)는 베로나에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Frederick I Barbarossa, 재위 1155–1190)를 만나 '폐지하기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공동 칙령(Ad abolendam)을 발표했는데 이 칙령은 이단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확립한 문서였다. 베로나 칙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지역 주교는 매년 두 차례 자신의 관할 구역을 순회하며 이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 이단으로 판정된 자는 세속 권력, 즉 국가에 넘겨져 형벌을 받아야 한다.
- 이단을 숨기거나 돕는 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 이단의 재산은 몰수된다.

이 칙령은 공식적인 이단 심판 제도의 출발점이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제도가 교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서명한 문서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거스틴이 제시한 원리, 즉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려 이단을 억압할 수 있다."는 원

리가 서유럽의 공식 정책으로 제도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교황청 종교 재판소 설립(1231)

123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Gregory IX, 재임 1227–1241)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파문'이라는 뜻의 교황 교서를 발표하며 교황청이 직접 통제하는 종교 재판소를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교황청 종교 재판소 또는 중세 종교 재판소이다.

그레고리우스 9세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는 분명했다. 지역 주교들이 이단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떤 주교는 지나치게 관대했고 어떤 주교는 가혹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부패했다. 그레고리우스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작동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교황청 종교 재판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황의 직접 통제이다. 종교 재판관들은 지역 교회나 세속 권력에 속한 인물이 아니라 교황이 직접 임명한 특별 사법관들이었다. 이들은 오직 교황에게만 보고했으며 지역 주교들조차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다. 이는 단순한 교리 문제를 넘어 교황권이 현장의 사법권까지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종교 재판은 지역 교회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지방까지 직접 행사된 체제였다.

둘째, 도미니크회 중심의 운영이다. 종교 재판관으로 활동한 인물들은 주로 도미니크회 수도사들이었다. 이들은 카톨릭교회의 학문적 훈련이 뛰어났고 엄격한 규율과 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단 색출에 매우 적극적이었다.[1] 이후에는 일부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도 종교 재판에 참여했으나 중심

1. 도미니크(Dominic, 1170–1221)는 로마 교회의 교리를 '진리'로 확신하고 이를 설교로 확산시키려 했으나, 이는 성경적 복음과 다른 체계였다는 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는 출발부터 오류였다. 그의 수도회는 곧 교황권을 지키기 위한 교리 단속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결국 중세 종교 재판소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 이는 신앙을 강제와 형벌로 통제하는 반(反)복음적 방식으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적 악을 낳았다. 성경 신자들은 회심은 성령님의 일이며 어떤 교회도 권력과 폭력을 통해 신앙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믿는다.

축은 여전히 도미니크회였다.

셋째, 고문 사용의 공식화이다. 1252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는 이단을 '뿌리 뽑기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고문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아드 엑스티르판다'(Ad Extirpanda) 교서를 발표했다. 형식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 말 것', '사지 훼손을 가하지 말 것'과 같은 제한이 명시되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고문은 자백을 얻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고통 속에서 나온 진술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넷째, 피고인의 권리 제한이다. 종교 재판에서는 고발자가 익명으로 보호되었고 피고인은 누가 자신을 고발했는지 알 권리가 없었다. 이는 개인적 원한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무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변호사 선임은 형식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이단 혐의를 받은 사람을 변호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단 혐의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정한 재판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다섯째, 재산 몰수의 제도화이다. 이단으로 판정된 사람의 재산은 몰수되어 교회, 세속 권력, 그리고 고발자에게 분배되었다. 이 제도는 종교 재판소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킨 핵심 요인이었다. 부유한 사람을 이단으로 몰면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재판에 개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 결과 종교 재판은 진리를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과 탐욕이 결합된 억압적 장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포의 시스템 - 종교 재판의 절차

종교 재판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국가 교회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는 중요한 교훈임을 알게 된다.

1단계: 조사와 고발

종교 재판관이 한 지역에 도착하면 먼저 일정 기간의 '은혜 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보통 2주에서 1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나와 이단 혐의를 고백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사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백을 통해 추가 피의자들의 이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은혜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종교 재판소는 정보원과 밀정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했고 익명 고발을 적극 장려했다. 그러자 이웃, 친구, 가족 간의 상호 고발이 빈번했고 고발 동기는 진짜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원한, 경제적 이익, 시기심 등 다양했다. 일단 고발되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는 바로 어거스틴이 열어 놓은 원칙, 즉 "강제로라도 데려오라."가 현실에서 어떻게 폭력적 감시 체계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2단계: 체포와 수감

이단 혐의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체포되어 종교 재판소 감옥에 갇혔다. 이 감옥들은 일반 감옥보다 더 열악했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몇 주에서 몇 년까지 수감되었다. 심지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있었다.

수감자는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끝없는 불확실성과 공포 속에 지내야 했다. 이 자체가 심각한 심리적 고문이었다.

3단계: 심문과 고문

심문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피의자는 어두운 심문실로 끌려갔고 그곳에는 종교 재판관들과 서기만이 있었다. 변호인은 허용되지 않았다. 증인도 없었다. 가족도 들어올 수 없었다. 피의자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러한 비공개성 자체가 강력한 심리적 압박 도구였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고, 언제 풀려날지도 알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정확히 무엇으로 고발당했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교 재

판관들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오." 피의자는 어떤 죄를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고, 그 당황함 자체가 유죄의 증거로 간주되었다.

모든 진술은 상세히 기록되었다. 서기는 피의자가 말하는 모든 것, 심지어 망설임, 말더듬, 표정의 변화까지도 기록했다. "피의자는 질문을 듣고 창백해졌다", "피의자는 답변하기 전에 긴 침묵을 유지했다", "피의자의 손이 떨렸다." 같은 세부 사항들이 기록되었고 이 모든 것이 유죄의 정황 증거로 사용되었다. 이 기록들은 나중에 유죄 판결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종교 재판소는 자신들의 절차가 합법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고 따라서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심문의 핵심 목표는 자백을 받아 내는 일이었다. 증거는 부차적이었다. 증인의 증언도 부차적이었고 중요한 것은 오로지 피의자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죄의 고백이었다. 이처럼 재판소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잔인했다.

"유죄이면 자백해야 하고, 설령 무죄라 해도 자백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 논리의 배후에는 왜곡된 신학이 있었다. 종교 재판관들은 자백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단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면 적어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죄를 부인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떨어진다. 따라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운 것이며 피의자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또한 자백은 법적 절차를 단순화했다. 자백이 있으면 다른 증거가 필요 없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끝났고 유죄 판결은 확실했다. 재판관들에게 자백은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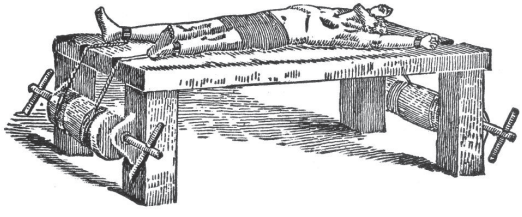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이 체계적으로 사용되었다. 1252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가 고문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교서를 발표한 뒤 고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요한 수단'으로 정당화되었다.

고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고 각각은 특정한 고통을 주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 **물고문(Water Torture)**: 피의자를 경사진 판자에 묶어 머리를 낮추고 발을 높였다. 입과 코에 천을 덮고 그 위에 물을 천천히 부었다. 천이 젖으면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익사하는 듯한 공포와 질식의 고통이 엄습했다. 몇 초 만에 피의자는 공포 상태에 빠졌다. 물을 멈추고 천을 제거하면 피의자는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다시 천을 덮고 물을 부었다. 이 고문을 수차례 반복했다. 육체적 상해는 거의 없었지만 심리적 고통은 극심했다. 많은 이들이 몇 번의 반복 끝에 무엇이든 자백했다.

• **스트라파도(Strappado)**: 피의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었다. 손목에 묶인 밧줄을 천장의 도르래에 걸었다. 그리고 피의자를 공중으로 끌어올렸다. 피의자는 자신의 체중으로 인해 어깨 관절이 뒤틀렸다. 몇 분만 매달려 있어도 어깨가 탈구될 정도로 고통은 엄청났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재판관들은 피의자를 갑자기 떨어뜨렸다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밧줄을 당겨 멈췄다. 급격한 낙하와 정지로 인해 관절이 더욱 심하게 손상되었다. 이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다. 때로는 발에 무거운 추를 달아 체중을 더했다. 이 고문에서 살아남더라도 생존자들은 평생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 **래크(The Rack)**: 이는 가장 악명 높은 고문 기구였다. 긴 나무판자 위에 피의자를 눕히고 손목과 발목을 각각 판자 양 끝의 롤러에 묶었다. 재판관이 손잡이를 돌리면 롤러가 회전하면서 피의자의 사지가 반대 방향으로 당겨졌다. 처음에는 근육이 늘어나는 고통이었다. 계속 돌리면 인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돌리면 관절이 탈구되었다. 피의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래도 자백하지 않으면 더 돌렸다. 결국 팔다리가 몇 센티미터씩 늘어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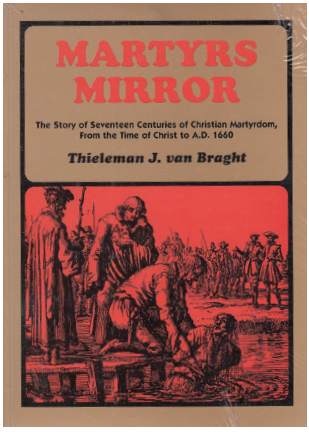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다. 많은 이들이 래크에서 의식을 잃었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고문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 **엄지손가락 압착기(Thumbscrews):** 엄지손가락을 금속 기구로 조여 으스러뜨리는 것
- **수레바퀴(The Wheel):** 사지를 바퀴에 묶어 쇠막대로 뼈를 부수는 것
- **유다의 요람(Judas Cradle):** 피라미드형 뾰족한 좌석 위에 피의자를 앉혀 체중으로 찢어지게 하는 것
- **다리 압착기(The Boot):** 다리를 금속 부츠에 넣고 쐐기를 박아 뼈를 부수는 방식
- **화형(Burning):** 발바닥을 불에 지지거나 뜨거운 쇠로 지지는 방식

이런 고문의 기술들은 1660년대 메노나이트 신자였던 튀레만 판 브라흐트가 집필한 「순교자들의 거울」(Martyrs Mirror)에 잘 나타나 있다.[2]

교회법상 고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기는 했다. 규정상으로는 고문이 "죽음이나 영구적 상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고문은 한 번만 시행되어야 했고, 재판관은 의사의 입회하에 고문을 실시해야 했으며, 고문 중 얻은 자백은 나중에 고문 없이 다시 확인되어야 했다.



「순교자들의 거울」

2. 재침례교도들을 포함한 비국교도 신자들이 국가 교회와 종교 권력에 의해 어떻게 잔혹하게 탄압받았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이 저서는 단순한 역사 서술을 넘어, 강제 개종과 종교 폭력이 본질적으로 반기독교적 행위임을 증언하는 고발 문서의 성격을 지닌다. 책에는 종교 재판과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고문, 투옥, 화형, 참수, 익사 등의 장면이 상세히 서술되며, 특히 후대 판본들에는 100점 안팎의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 삽화들은 다양한 고문과 처형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중세와 근세 종교 박해의 실상을 독자에게 강렬하게 각인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한 번만'이라는 규정은 교묘하게 우회되었다. 재판관들은 같은 고문 세션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계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고문을 가했다. 새로운 고문이 아니라 같은 고문의 연장이라는 것이었다.[3]

"영구적 상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공허한 문구였다. 많은 이들이 고문으로 죽었다. 재판 기록에는 '심문 중 사망'이라고만 기록되었을 뿐 책임을 묻는 사람은 없었다. 생존자들도 평생 불구가 되었다. 탈구된 어깨, 찢어진 인대, 부러진 뼈,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문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고문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고문 기구들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자백했다. 실제로 고문이 시작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굴복했다.

그들은 종교 재판관이 원하는 대로 자백했다. 재판관이 "당신은 이단 집회에 참석했는가?"라고 물으면 "예."라고 답했다. "누가 있었는가?"라고 물으면 재판관이 암시하는 이름들을 그대로 말했다. "마귀를 숭배했는가?"라고 물으면 그렇게 했다고 자백했다. 실제로 한 일이 없어도, 심지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거짓 자백이 흔했다. 순진한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자백했고 결백한 다른 사람들을 연루시켰다. 한 사람의 거짓 자백이 연쇄 체포로 이어졌다. 고문으로 얻은 자백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또 체포되었고 그들도 고문을 받았으며 그들 역시 다른 이름들을 댔다. 이렇게 해서 무고한 사람

3. 중세 종교 재판소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은 다음과 같다. (1) 프라하 중세 고문 박물관 —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 셀레트나(Celetná) 거리에 있는 박물관으로, 중세 유럽과 보헤미아 지역에서 쓰였다고 전해지는 100여 점 이상의 고문 도구와 당시 법·재판 문화를 전시한다. 어두운 감옥 분위기로 꾸며진 내부는 오디오·비주얼 효과와 함께 고문과 재판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2) 중세 고문·형사 박물관(Medieval Crime Museum) — 독일 로텐부르크 암 타우버에 있는 박물관으로, 중세 형사 사법 제도와 함께 고문 도구들을 전시해 당시의 사법·사회 구조를 조명한다. 유럽 전역에 비슷한 유형의 고문 박물관들이 다수 존재한다. (3) 스페인 톨레도, 코르도바, 산틸리아나 델 마르 등 여러 도시에도 고문 도구 및 재판 관련 전시를 볼 수 있는 박물관들이 있으며, 고문 역사와 종교·사법적 맥락을 함께 다룬다.

들의 집단이 이단으로 몰려 처형되는 비극이 반복되었다.

종교 재판소의 기록은 이러한 거짓 자백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백 그 자체였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이었다. 자백이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4단계: 판결과 형벌

재판이 끝나면 판결이 내려졌다. '신앙의 행위'라 부르는 공개 의식에서 판결이 선포되었다. 이는 종교 재판소의 권위를 과시하고 대중을 위협하기 위한 공개 행사였다.

형벌의 종류는 다양했다. 가장 가벼운 형벌은 경고와 회개였다. 순례 명령, 채찍질, 십자가 착용(옷에 노란색이나 빨간색 십자가를 달고 다녀야 했다), 수도원 감금, 재산 몰수, 종신형 등이 있었다. 가장 극단적인 형벌은 화형이었다. 완강한 이단자, 재발한 이단자, 회개를 거부한 자들이 화형당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 공식적으로 교회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교회법은 "교회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그래서 교회는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이단자를 '세속 권력에 넘겨주었고', 그 후에 국가가 실제로 처형을 집행했다. 이는 교묘한 위선이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명령한 것이다. 게다가 교회는 세속 권력자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 만약 영주나 군주가 이단자를 처형하기를 거부하면 그

중세 종교 재판소의 법정

자신이 이단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세속 권력자들은 교회가 넘겨준 사람을 거의 예외 없이 처형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확립한 원칙의 실제 적용이었다. 어거스틴은 "국가가 이단을 억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쳤고 이제 그 원칙이 제도가 되었다. 교회는 판결하고 국가는 집행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였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 모습이었다.

화형의 상징

화형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학적 상징이었다. 중세 신학자들은 화형이 '영혼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이 몸을 태우면서 마지막 순간에 죄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화형이 부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었다(물론 이는 비성경적인 미신이었다). 화형은 공개적으로 보통 시장이나 광장에서 집행되었다. 군중이 모였고 때로는 축제 분위기였다. 이는 대중을 위협하고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는 목적이 있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것이 교회에 도전하는 자의 운명이다."

화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 만약 기둥에 묶인 상태에서라도 회개하면 '자비'가 베풀어졌다. 즉, 불을 붙이기 전에 목을 졸라 죽인 뒤 처형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면 산 채로 불태워졌다.

어거스틴의 논리가 제도가 되다 - 신학적 정당화

종교 재판소는 단순히 권력욕이나 잔인함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종교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 신학적 근거는 어거스틴이 제공했다.

어거스틴의 "강제로라도 데려오라."

중세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도미니크회의 토

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중세 최고의 신학자였는데 그 역시 이단을 처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명확하게 주장했다. 아퀴나스는 이렇게 논증했다.

"위조 화폐를 만드는 자를 세속 군주들이 정당하게 사형에 처한다면 이단자들은 훨씬 더 정당하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단은 영혼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거스틴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어거스틴이 "이단은 영혼의 살인자이므로 육체의 살인자를 처형하듯이 이단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퀴나스는 이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초대 교회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이었다. 원래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였고 여기의 '교회'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했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러 이 말은 "로마 카톨릭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로 왜곡되었다.

만약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면 이단은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이단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따라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단은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살인자'이다. 그렇다면 육체를 죽이는 살인자를 국가가 처형하듯이 영혼을 죽이는 이단을 교회가 제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중세 신학자들의 논리였다.

사회 질서의 보호

중세 사회에서 종교와 사회는 분리될 수 없었다. 종교가 곧 법의 기초였고 도덕의 근거였으며 사회 질서의 토대였다. 그러므로 이단은 단순히 신학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였다. 이단은 '공공의 적'이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국가는 이단을 억압할 의무가 있었다. 국가가 도둑과 살인자를 처벌하듯이 국가는 이단자를 처벌해야 했다. 아니, 이단은 더 위험했다. 왜냐하면 이단은 전체 사회의 기초를 흔들기 때문이다.

영혼에 대한 사랑

가장 기괴한 정당화는 이것이었다. 종교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이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문하고 죽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확히 어거스틴의 논리였다. 어거스틴은 '국가가 이단을 강제로 교화하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매를 드는 것처럼 교회가 이단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종교 재판관들은 이 논리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했다. "만약 우리가 이단자를 그대로 두면 그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고문하여 진리로 돌아오게 하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듯 잠깐의 고통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심지어 화형도 '자비'로 정당화되었다. "만약 우리가 이단자를 살려두면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를 죽임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 또한 불의 고통이 그의 영혼을 마지막 순간에 정화할 수도 있다."

이는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부르는 완전한 도덕적 전도였다. 어거스틴이 AD 400년경에 뿌린 씨앗이 1200년대에 이러한 끔찍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종교 재판소의 희생자들

종교 재판소는 누구를 공격했는가? 공식적으로는 '이단자'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알비파 – 첫 번째 대규모 표적

종교 재판소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표적은 알비파였다. 그들은 12-13세기 남프랑스 특히 툴루즈와 알비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다. 알비파의 신학은 영지주의적 요소를 포함한 이원론이었고 그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례전 체계, 사제 제도, 교회 조직을 거부했다.

남프랑스에서 알비파의 영향력은 너무 강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카톨릭교회보다 더 지배적이었으므로 교황청은 알비파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았다. 1208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알비파에 대한 십자군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알비 십자군'이었다. 전쟁은 1209년부터 1229년까지 이어졌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한 유럽 내부의 십자군 전쟁이었다.

십자군은 북프랑스의 귀족들이 이끌었고 교황의 사절이 동행했다. 그들은 남프랑스를 침공하여 도시들을 포위하고 약탈하고 파괴했다.

1209년 베지에(Béziers) 시가 함락되었을 때 십자군이 도시 주민 전체를 학살했는데 약 2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카톨릭 신자와 알비파 신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질문에 교황 특사 아르노 아모리(Arnaud Amalric)는 악명 높은 말을 남겼다. "모두 죽여라. 모두 죽여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아실 것이다."

십자군 이후 종교 재판소가 남프랑스에 설립되어 남은 알비파를 체계적으로 색출하고 제거했고 알비파는 14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수만 명이 죽었고 한때 번영하던 남프랑스 문화는 파괴되었다.

왈도파 –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자들

종교 재판소의 또 다른 주요 표적은 왈도파였다. 왈도파는 성경 중심, 일반 성도 설교, 단순한 교회, 교황권 비판을 특징으로 했다. 그들은 침례교의 많은 원리들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었다.

1184년 베로나 칙령에서 왈도파는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 뒤 수백 년 동안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곳곳에서 왈도파 신자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화형당했다.

그러나 왈도파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그들은 알프스 산맥의 깊은 계곡들, 특히 이탈리아 피에몬테(Piemonte) 지역으로 도망쳐 숨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공동체들을 이루어 살면서 신앙을 지켰다. 그들은 동굴에 모여 밤에 예배드렸고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여 대대로 전했다.

왈도파에 대한 박해는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1655년에는 '피에몬테의 부

활절 학살'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보이 공작의 군대가 왈도파 마을들을 공격하여 수천 명을 학살했다.

왈도파는 16세기 샤랑콩 회의에서 개신교(칼빈주의 개혁파)와 연합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이탈리아에 소규모 교단으로 남아 있다. 이들은 중세와 근대 초기에 카톨릭교회의 반복된 박해 — 특히 피에몬테 지역의 학살 — 를 견디고 살아남은 공동체로서 종교 자유와 신앙 고백의 역사적 증인으로 평가된다.

성경 번역자들과 성경 소유자들

종교 재판소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이들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았다. 로마 교회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을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왈도파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로,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금지를 뚫고 나아갔다. 이러한 번역 작업은 철저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고, 번역본은 손으로 필사되어 몰래 유포되었다.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거나 소유하거나 읽다가 적발되면 종교 재판소에 회부되었으며, 성경은 불태워지고 소유자는 처벌을 받았다. 끝까지 성경을 포기하지 않으면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성경을 사랑한 죄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유대인과 무슬림

종교 재판소는 기독교 내부의 이단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무슬림에게도 강한 억압을 가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박해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1492년, 스페인 왕실은 유명한 유대인 추방 칙령을 발표하여 유대인들에게 단 두 가지 선택만을 남겼다. 카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조국을 떠나는 것이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생존을 위해 겉으로는 개종했는데, 이들은 '콘베르소'(conversos, 개종자)라 불렸다. 그러나 종교 재판소는 이 콘베르소들이 비밀리에 유대교 관습을 지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으면 체포되어 혹독한 심문과 고문을 당했다. 상당수는 이단자로 판정되어 화형장으로 끌려갔다.

무슬림들 역시 동일한 압력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강제 개종과 추방, 처벌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스페인 종교 재판소가 단순한 교회 재판이 아니라 국가적·민족적 통합을 강요하는 억압 기구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마녀와 지식인들

종교 재판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단 심판을 넘어 다른 영역에도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중세 말과 근대 초에 유럽을 휩쓴 '마녀사냥'이었다. 이 시기에 수만 명이 —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 — 마녀라는 혐의로 고발되어 고문당하고 화형당했다. 마녀사냥은 단순히 미신적 공포의 산물이 아니라 종교 재판소가 구축한 고발, 심문, 처형 구조가 광기에 기름을 부은 결과였다.

종교 재판소는 또한 교회의 가르침과 충돌한다고 여겨지는 지식인들과 과학자들도 표적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이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했으나 그의 주장은 지구 중심 우주관을 고수하던 교황청과 충돌했다.[4]

1633년, 69세의 노과학자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소 앞에 서게 되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필요하면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 아래 자신의 연구와 관측을 철회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았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지동설을 옹호한 것이 교회 기준에서는 오류라고 인정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지구가 움직인다는 견해를 다시는 가르치지 않겠다고 맹세

4. 지동설과 천동설은 역사적으로는 서로 대립된 개념처럼 여겨졌지만 물리학적으로 보면 두 체계 모두 기술 가능하다. 현대 과학은 '절대적인 정지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모든 운동은 관측자가 어떤 좌표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가 지구를 기준좌표로 삼으면 태양과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천동설의 기술이 가능하고, 태양을 기준좌표로 삼으면 지구가 공전·자전하는 지동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즉, 두 모델은 우주의 실제 구조를 기술하는 정확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운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관점에서는 모두 성립 가능한 상대적 기술 방식이다.

해야 했다. 재판 이후 갈릴레오는 여생을 가택 연금 상태로 보내야 했고, 그의 저술은 금서 목록에 올라 200년 넘게 금지되었다.

교황청은 무려 1992년에 이르러서야 갈릴레오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수백 년 동안 과학과 지성에 가해진 억압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이는 종교 재판소가 단순히 '이단 처벌 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식·과학·사상을 통제하는 기구로 변질되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건이었다.

스페인 종교 재판소 - 공포의 절정 (AD 1478-1834)

종교 재판소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스페인 종교 재판소였다.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1478년에 설립되어 1834년까지 무려 350년 이상 지속되었다.

독특한 특징

첫째,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교황이 아니라 스페인 왕이 통제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교황의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운영은 왕실의 손에 있었다. 이는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결합한 형태였다.

둘째,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 1492년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은 마지막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레콘키스타[5]를 마침내 끝내고 통일 스페인을 건설했다. 그들은 종교적 통일이 정치적 통일의 기초라고 보았다. 종교 재판소는 스페인을 '순수한 카톨릭 국가'로 만드는 도구였다.

---

5. 레콘키스타(Reconquista)는 8세기 초 이슬람 세력(무어인)이 이베리아반도를 대부분 점령한 이후, 스페인 북부의 기독교 왕국들이 조금씩 남쪽으로 영토를 되찾아 간 장기간의 투쟁을 말한다. 이 과정은 711년 이슬람의 정복으로 시작되어 1492년 마지막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가 함락될 때까지 약 781년 동안 이어졌다.

셋째,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특히 잔혹하기로 악명 높았다.

대종교 재판관

스페인 종교 재판소의 첫 번째 대(大)종교 재판관(Grand Inquisitor)은 토르케마다(Tomás de Torquemada, 1420–1498)였다. 그는 도미니크회 수도사였고 이사벨라 여왕의 고해 신부였으며 극도로 열정적인 종교 재판관이었다. 토르케마다는 1483년부터 1498년까지 15년 동안 대 종교 재판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종교 재판소를 고도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했고 상세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모든 종교 재판관들이 통일된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토르케마다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보수적인 추정으로도 약 2,000명이 화형당했고 수만 명이 다른 형벌을 받았다. 토르케마다의 이름은 종교적 광신과 잔혹함의 상징이 되었다.

신앙의 행위 공개 행사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신앙의 행위'라고 불리는 공개 의식을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이는 종교 재판소의 판결을 선포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공개 행사였다.

의식은 아침 일찍 시작되어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먼저 종교 행렬이 있었다. 십자가와 깃발을 든 수도사들, 종교 재판관들, 세속 권력자들이 행진했고 그 뒤를 죄수들이 따랐다. 죄수들은 '산베니토'라고 불리는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이는 노란색이나 검은색 옷으로 십자가와 불꽃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죄수들은 광장의 높은 단상으로 인도되었다. 왕족, 귀족, 성직자, 그리고 수천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 죄수의 죄명과 판결이 낭독되고 마지막으로 형벌이 집행되었다. 화형당할 자들은 도시 밖의 화형장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기둥에 묶였으며 장작더미가 그들 주위에 쌓였다.

'신앙의 행위'는 단순히 형벌 집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는 의식이었고 대중을 위협하는 공개 시위였으며 일종의 종교적 스펙터클이었다. 군중은 이를 구경거리로 여겼고 때로는 축제 분위기였다.

종교 재판소의 결과

수만 명의 목숨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종교 재판소에 의해 처형된 사람들의 수는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십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화형당한 사람들뿐 아니라 고문으로 죽은 사람들,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 재산을 몰수당하고 굶어 죽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겪은 고통이다. 가족에게서 찢겨나가 감옥에 갇힌 두려움, 고문대 위에서의 비명, 화형대에서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과 수치. 이 모든 것이 "진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행되었다.

지적 활동의 억압

종교 재판소는 유럽의 지적 활동을 심각하게 억압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두려워했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었으므로 과학적 탐구도, 철학적 사색도, 신학적 논의도 위험했다. 안전한 것은 오직 교회가 이미 승인한 것만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금서 목록이 만들어져 카톨릭 신자들이 읽어서는 안 될 책들의 목록이 게시되었다. 이 목록은 1559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1966년까지 계속 갱신되었다.

양심의 자유 말살

종교 재판소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했다. 사람은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따를 권리가 없었다. 교회가 진리를 정의했고 개인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의심하거나 질문하거나 다르게 믿는 것은 범죄였다.

이는 신앙의 본질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참된 신앙은 강제될 수 없다.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 재판소는 외적 복종만을 요구했고 내적 확신은 무시했으며 그 결과는 위선의 문화였다.

기독교에 대한 증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재판소는 기독교에 대한 증오를 퍼뜨렸다. 종교 재판소가 활동했던 지역들,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남부에서 반교권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교회를 억압의 도구로 보았고 성직자들을 위선자로 경멸했으며 종교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18세기 계몽주의는 부분적으로 종교 재판소에 대한 반발이었다. 프랑스 혁명(1789년) 때 교회가 격렬한 공격을 받은 것도 수백 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복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종교 재판소는 결국 복음에 대한 증오를 낳았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교회가 공포의 도구가 되었다.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쳐야 할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다.

교회의 도덕적 권위 상실

종교 재판소는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했다. 교회는 더 이상 도덕의 모범이 될 수 없었다. 어떻게 고문하고 죽이는 조직이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거짓 고발을 장려하는 조직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종교 재판소의 역사는 교회가 권력을 가질 때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보여 주는 끔찍한 증거이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다. 교회는 희생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희생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결론 - 어거스틴에서 종교 재판소까지, 그리고 침례교의 부름

국가 교회의 필연적 귀결

어거스틴의 도나투스 논쟁과 중세 종교 재판소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대의 다른 사건들처럼 보인다. 하나는 4세기 북아프리카의 신학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13-17세기 유럽의 제도적 박해이다. 시간적으로 800년 이상의 간격이 있고 규모와 조직성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다. 어거스틴은 씨앗을 뿌렸고 종교 재판소는 그 씨앗이 자라난 나무였다. 어거스틴은 이론을 제공했고 종교 재판소는 그 이론을 실천했다. 어거스틴은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원칙을 확립했고 종교 재판소는 그 원칙을 제도화했다.

둘 다 동일한 근본적 오류에서 나왔다. 그것은 "교회가 국가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면, 교회가 칼을 들면, 교회가 강제할 수 있다면 결국 어거스틴의 논리와 종교 재판소의 현실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가 정교분리를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이다. 침례교는 역사로부터 배웠다. 즉,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순간 복음은 사라지고 폭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다.

신앙은 강제될 수 없다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신앙은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문으로 화형으로 재산 몰수로 사회적 압력으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을 진정한 신자로 만들 수는 없다.

참된 신앙은 마음의 문제이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적인 영적 경험이며 외적 강제로는 이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강제된 신앙은 위선만 낳는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회에 나오고 신조를 암송하고 성례전에 참여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익 때문에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적 진실을 원하신다.

침례교는 이를 이해했다. 그래서 침례교는 신자 침례를 주장한다. 침례는 이미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며 유아에게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침례교는 자발적 교회를 주장한다. 교회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공동체이며 국가가 시민을 자동으로 교회 회원으로 만드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부정했다. 그들은 교회가 진리를 정의할 권리가 있고 개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만약 개인이 거부하면 교회는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조차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억누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권유하시고 설득하시고 부르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문밖에서 두드리시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신다면 교회가 어떻게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면 교회가 어떻게 그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가?

침례교는 양심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믿는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믿을 권리가 있다. 설령 그가 잘못 믿는다 하더라도 그의 양심을 강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할 수는 없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의 역사는 왜 정교분리가 필수적인지를 보여 준다.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면 필연적으로 폭력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국가의 본질적 도구는 강제력, 즉 칼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외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범죄를 처벌하고 법을 집행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물리적 힘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이 말하는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히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영적 변화를 추구한

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신자들을 양육한다. 교회의 도구는 칼이 아니라 사랑이고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고 폭력이 아니라 희생이다.

만약 교회가 국가의 칼을 빌리면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세상의 왕국이 된다. 교회는 더 이상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된다. 교회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우는 자가 된다.

침례교는 교회와 국가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는 시민의 외적 질서와 안전을 지키고 교회는 신자의 영적 성장과 복음 전파를 추구한다. 둘은 협력할 수 있지만 하나로 결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교회를 통제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침례교의 외침 – 다시는 어거스틴의 길을 가지 말라

침례교는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의 역사로부터 깊은 교훈을 얻었다. 침례교의 선조들과 왈도파와 재침례교인들은 종교 재판소의 희생자들이었다. 그들은 화형대에서 물속에서 칼 아래에서 죽어갔다.

그들의 피는 침례교인들에게 외친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라. 다시는 교회가 칼을 들지 말라. 다시는 신앙을 강제하지 말라."

침례교의 역사를 쓰면서 우리가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를 자세히 살펴본 이유가 여기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오늘날에도 유혹은 여전히 존재한다.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고 국가의 힘을 빌려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법으로 도덕을 강제하려는 유혹 말이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그 길의 끝에는 어거스틴의 논리와 종교 재판소의 화형대가 있다고.

침례교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길, 강제가 아니라 사랑의 길,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다. 때로는 소수가 택하는 길이고 박해받는 길이고 오해받는 길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사도들이 간 길이고 순교자들이 간 길이다.

어거스틴은 천주교 교리를 확립한 신학자였다. 그의 많은 가르침들 중에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도나투스파 논쟁에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는 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그의 철학과 사고 등은 존중하면서도 그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

종교 재판소는 끝났다. 마지막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1834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회조차 종교 재판소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에 종교 재판소를 포함한 교회의 과거 잘못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원리이다. 종교 재판소라는 제도는 사라졌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리, 즉 "교회가 국가 권력을 사용하여 신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원리는 여전히 위험하다. 이 원리를 거부하고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침례교의 사명이다.

침례교 역사는 권력에 맞선 교회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칼에 맞선 십자가의 이야기이고 강제에 맞선 자유의 이야기이다.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왜 중요한지를 뼈아프게 일깨워 준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의 시대에게 이 교훈을 전해야 한다.

교회가 칼을 드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신앙이 강제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양심이 억압되는 순간, 복음은 사라진다는 것을.

이것이 침례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침례교 역사를 쓰는 이유이다.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교훈 위에 침례교는 '해야 할 것'을 세웠다.

성경의 권위,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회중 정치,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종

교의 자유. 이것들은 단순히 한 교단이나 교파의 특징이 아니다. 이것들은 피로 쓰인 원칙들이다. 화형대에서 고문실에서 감옥에서 강물에서 죽어간 수많은 증인들의 피로 확증된 진리들이다. 우리는 이 유산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지켜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만약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다.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침례교 역사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 준다.

오늘날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어거스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침례교 순교자들의 길을 갈 것인가?

>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마 7:13–14)

침례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때로 외로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어거스틴과 종교 재판소는 우리에게 넓은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 주었다. 이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Check Point

중세 종교 재판소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강제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신앙이나 도덕을 이유로 타인에게 압력이나 강제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타인의 양심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획일성을 강요하는가?

교단·가정·전통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양심 활동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3. 내가 하는 비판과 고발이 '종교 재판소'와 비슷하지는 않은가?

정의라는 명분 아래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집단 비난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4. 나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이단'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적 기준 없이 다른 교단 신자들을 낮게 보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단정하지 않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5. 나는 강력한 권력을 추구할 때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교회가 정치·제도적 영향력을 추구할 때 역사적 오용과 타락의 전철을 밟지 않는지 경계해야 한다.

6. 나는 고통받는 소수자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힘없는 자, 소수자, 약자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권력 편에 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7. 나는 양심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자기 양심에 따라 믿고 행동할 자유를 기꺼이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Chapter 6

어둠 속의 등불
선구자들의 등장

AD 1170-1415

앞 장에서 우리는 교황권과 국가 권력이 결합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종교 재판소는 양심을 꺾고, 성경을 읽으려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 형장의 이슬로 보내는 도구가 되었다. 중세 말 유럽은 겉으로는 웅장한 성당과 교회 권세로 빛났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가려지고 복음이 왜곡된 깊은 어둠의 시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전체가 어둠으로만 채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가장 타락한 순간, 가장 강력한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증인들을 남겨 두셨다. 제도권 교회가 부패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움직일 때에도,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양심과 진리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이 장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루터 이전 100년, 200년, 혹은 300년 앞서 종교 개혁의 원리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전 성도 제사장직'을 발견하고 선포했던 사람들. 그들은 교황권에 맞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고

그들의 외침은 훗날 종교 개혁과 침례교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은 등불들이었다.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 어둠을 가른 최초의 빛

1170년, 프랑스 리옹의 한 부유한 상인이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어 가는 사람을 보았고 그 광경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의 이름은 피터 왈도였다.

1370년경,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신학자가 라틴어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다. 그는 평생을 바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름은 존 위클리프였다.

1402년, 보헤미아 프라하의 한 젊은 사제가 위클리프의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설교단에서 교황청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수천 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의 이름은 얀 후스였다.

이것이 중세 말의 모습이었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권력과 부패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증인들을 남겨 두셨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별빛이 가장 밝게 보이듯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감한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12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유럽 곳곳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일어나 부패한 교회 체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나중에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로 불리게 된다. 이들이 없었다면 16세기 종교 개혁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카톨릭 제국의 심장부에서 목숨을 걸고 성경의 진리를 외쳤다.

이들은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200년, 심지어 300년을 앞서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들을 발견하고 선포했다. 그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전 성도 제

사장직'을 외쳤다. 그들은 교황권의 부패를 폭로했고 성례전 중심의 구원론을 거부했으며 일반 성도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 때문에 화형대에서 죽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했다. 첫째,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라고 선언했다. 둘째, 그들은 교황권과 사제 계급의 부패를 비판했다. 셋째, 그들은 단순하고 순수한 신약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넷째, 그들은 이 모든 것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다섯째, 이들의 많은 원리들이 후에 침례교가 주장하게 될 원리들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이들은 침례교 역사의 서곡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도 자신의 증인들을 남겨 두신다는 것, 그리고 진리는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왈도파 - 알프스 산맥의 증인들 (1170년경부터)

한 상인의 회심

왈도파의 시작은 한 부유한 상인의 극적인 회심에서 비롯되었다. 피터 왈도(Peter Waldo, 1140–1218년경)는 프랑스 리옹에서 매우 성공한 상인이었다. 그는 부유했고, 존경받았으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1170년경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 가지 설명에 따르면 왈도는 거리에서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것을 목격했다. 또 다른 설명에 따르면 그는 음유 시인이 성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어느 쪽이든 그는 영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그를 사로잡았다.

왈도는 성경을 읽고 싶었다. 그러나 라틴어를 모르는 그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없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고 일반 성도가 성경을 소유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왈도는 부유했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두 명의 사제를 고용하여 성경의 일부를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했다. 특히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번역되었다.

성경을 읽은 왈도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마 19:21).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을 읽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또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마 10:7–10).

왈도는 이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즉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충분한 재산을 남겨 주어 생활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거리로 나가 빵을 나누어 주고 돈을 나누어 주었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1173년경 왈도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선언했다. 그는 화려한 옷을 벗고 단순한 옷을 입었다. 그는 거리와 광장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외쳤다. 그는 교회의 부패를 비판

했고 사제들의 탐욕을 폭로했으며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리옹의 가난한 자들'의 탄생

왈도의 진정성과 열정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의 본을 따라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다. 이들은 '리옹의 가난한 자들' 또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렸고 나중에는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왈도파'(Waldensians)로 알려지게 되었다.[1]

이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그들은 둘씩 짝을 이루어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방식을 따른 것이었다.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막 6:7). 한 쌍은 보통 남자 둘 또는 여자 둘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맨발로 다니거나 간단한 샌들을 신었고 단순한 옷을 입었다. 그들은 돈을 가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거리에서 설교했고 시장에서 가르쳤으며 가정을 방문했다. 그들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했는데 많은 왈도파 전도자들은 신약 성경 전체를 암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또한 왈도가 번역한 프랑스어 성경의 필사본들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다.

왈도파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리옹에서 시작된 운동은 프랑스 남부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곧 이탈리아 북부, 독일, 스페인, 보헤미아까지 확산되었다. 수천 명이 왈도파에 가입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왈도파가 카톨릭교회보다 더 많은 추종자를 가지게 되었다.

---

1. 왈도파(Waldensians)는 후대에는 주로 알프스 산지, 특히 이탈리아 피에몬테(Piemonte)와 프랑스와 스위스 접경지대에 정착하여 살아갔다. 이 지역의 프랑스어 계열 방언에서는 왈도파를 자연스럽게 '보두아'(Vaudois)라고 불렀는데, 이는 'Waldensians'의 지역적·언어적 변형으로 같은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왈도파의 신앙과 실천

왈도파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첫째, 그들은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삼았다.

이것이 그들의 모든 신념과 실천의 기초였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만약 어떤 교리나 관습이 성경에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다. 왈도의 프랑스어 번역이 시작이었고 곧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번역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번역은 모두 손으로 베껴야 했기 때문에 매우 귀했다.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왈도파는 이 일에 헌신했다. 그들은 숨어서 밤낮으로 성경을 필사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했다. 왈도파 공동체에서는 어린아이들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시편, 복음서, 서신서의 장들을 통째로 암기했다. 이는 박해 시대에 매우 중요했다. 성경책을 빼앗길 수 있었지만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거부했다. 연옥은 성경에 없으므로 거부했다. 면죄부는 성경에 없으므로 거부했다. 마리아 숭배와 성인 숭배는 성경에 없으므로 거부했다. 사제의 죄 용서 권한은 성경에 없으므로 거부했다. 화체설은 성경에 없으므로 거부했다. 유품 숭배, 성지 순례, 수도원 제도 등도 모두 성경에 없다고 보아 거부했다.

둘째, 그들은 일반 성도 설교를 실천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극도로 급진적인 주장이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안수받은 사제만이 설교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일반 성도가 설교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며 이단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왈도파는 "사도 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답했다. "초대 교회에서는 모든 신자가 증언했습니다. 빌립은 안수받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8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반 성도였지만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행 18:26). 성경은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2:9)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어째서 일반 성도는 설교할 수 없습니까?"

왈도파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더욱 파격적이었다. 당시 여성이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왈도파 여성들도 짝을 이루어 다니며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셋째, 그들은 예배를 단순하게 드렸다.

왈도파의 예배를 로마 카톨릭의 화려한 미사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했다. 카톨릭 미사는 웅장한 성당에서 드려졌다. 왈도파는 가정이나 헛간이나 숲속에서 모였다. 카톨릭 미사는 화려한 제의, 금으로 된 성배, 향, 촛불, 종으로 가득했다. 왈도파의 예배는 아무런 의식 도구 없이 단순했다. 카톨릭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되어 일반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왈도파는 자국어로 예배드렸다. 카톨릭 미사의 중심은 사제가 집례하는 화체설이었다. 왈도파 예배의 중심은 성경 낭독과 설교였다.

왈도파의 전형적인 예배는 이러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어느 가정에 모였다. 대개 밤에 모였고 문을 잠그고 밖에 망을 보는 사람을 세웠다. 예배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그다음 성경이 낭독되었다. 필사본을 가진 사람이 읽거나 아니면 암송한 사람이 구절들을 암송했다. 그다음 설교와 가르침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고 서로 권면했다. 그 뒤 그들은 간단한 찬송을 부르고 기도로 마쳤다. 때로는 주의 만찬을 기념했는데, 이는 단순하게 빵과 포도즙(포도주)을 나누는 것이었다.

넷째, 그들은 교황의 권위를 부정했다.

왈도파는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주장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은 이렇게 논증했다. "만약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주교였다면 왜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을 기록

하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베드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다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더 중요하게, 그들은 교황청의 현실을 보았다. 교황들은 부유했고 교황들은 전쟁을 일으켰으며 교황들은 왕들과 권력을 다투었고 교황들은 면죄부를 팔았다. 이것이 어떻게 가난하고 온유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후계자일 수 있는가?

왈도파는 교황청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섯째, 그들은 경건한 삶을 강조했다.

왈도파는 단순히 교리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실천하려 했다. 그들은 거짓 맹세를 거부했다. 성경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마 5:34)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다. 중세 사회에서 맹세는 법적 체계의 일부였다. 재판에서 증언하려면 맹세해야 했다. 봉신이 되려면 영주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 했다. 왈도파가 맹세를 거부한 것은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살인을 거부했다. 이것도 성경적 확신에서 나왔다. "살인하지 말라."(출 20:13)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는 그들을 비애국자로 낙인찍히게 만들었다.

그들은 청빈한 삶을 실천했다. 왈도파 전도자들은 자기 손으로 일하며 겸손하게 살며 사치를 피했다. 그들은 정직하게 장사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설교를 증명했다.

교회의 반응 – 박해의 시작

로마 카톨릭교회의 반응은 처음에는 다소 모호했다.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왈도와 그의 동료들은 교황 알렉산더 3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허락을 구했다. 교황은 그들의 청빈 서약은 칭찬했지만 설교에 대해서는 지역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옹의 대주교는 허락을 거부했다. 왈도파는 주교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행 5:29).

1184년 베로나 공의회에서 교황 루키우스 3세는 왈도파를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 결과 왈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파문되었다. 이는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한다는 의미였다. 파문당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될 수 있었다. 그들을 해치거나 죽여도 범죄가 아니었다.

박해가 시작되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에서 왈도파 사냥이 벌어졌다. 종교 재판소가 설립되어 왈도파를 색출하기 시작했고 체포된 왈도파 신자들은 고문을 받았다. 그들은 회개하고 동료들을 밀고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며,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은 화형당했다.

수백 명이 화형대에서 죽어갔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죽었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죽었다.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알프스로 도피함

생존자들은 도망쳐야 했고 많은 왈도파 신자들이 알프스 산맥의 깊은 계곡으로 피신했고 특히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의 계곡들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이 계곡들은 접근하기 어려웠고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추적자들이 찾기 힘들었다.

그곳에서 왈도파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간단한 공예품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여전히 성경을 필사했고 여전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으며 여전히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동굴들이 그들의 교회가 되었다. 그들은 밤에 모였다. 낮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작은 소리로 찬송했다. 멀리서 들릴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촛불 하나만 켜고 성경을 읽었다.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갈까 봐 조심했기 때문이다.

왈도파는 또한 비밀 네트워크를 유지했다. 그들은 박해가 약한 지역으로 전도자들을 계속 파송했다. 이 전도자들은 상인으로 위장하거나, 행상인으로 위장하거나, 일꾼으로 위장했다. 그들은 왈도파 신자들의 집을 방문했고 비밀 표시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았으며 성경을 전달했고 소식을 나누었다.

왈도파의 지속과 확산

놀랍게도 천주교의 박해는 왈도파를 없애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은 더 널리 퍼져 나갔다. 피난민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왈도파의 가르침도 함께 전파되었다.

프랑스 남부, 특히 프로방스와 도핀 지역에 왈도파 공동체들이 형성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피에몬테 계곡들 외에도 롬바르디아, 칼라브리아 지역에도 왈도파가 있었다.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에도 왈도파가 퍼졌다. 보헤미아(현재 체코)에도 왈도파가 전파되어 나중에 얀 후스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심지어 스페인과 폴란드에도 왈도파 신자들이 있었다.

왈도파는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았다. 그들은 13세기, 14세기, 15세기를 거쳐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까지 계속 존재했다. 박해는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특히 1655년 '피에몬테의 부활절 학살'은 끔찍했다. 사보이 공작의 군대가 피에몬테 계곡의 왈도파 마을들을 공격하여 수천 명을 학살했는데, 이때 여자들과 어린이들까지 무자비하게 살해되었다.

그러나 왈도파는 살아남았다.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왈도파는 개신교 개혁자들과 연합했다. 그들은 마침내 숨어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칼빈과 접촉했고 개혁 신학을 받아들였으며 개신교의 일부가 되었다.

오늘날까지 이탈리아에는 왈도파 교회가 존재한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

들은 8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박해와 학살을 견디고 살아남은 증인들이다.

왈도파와 침례교의 연결

왈도파는 침례교와 놀라울 만큼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1. **성경 중심**: 왈도파는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고 믿었다. 이는 침례교의 핵심 원리이다.
2. **일반 성도의 권리:** 왈도파는 안수받지 않은 일반 성도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다. 침례교도 전 성도 제사장을 믿는다.
3. **단순한 예배:** 왈도파는 화려한 의식을 거부하고 단순한 예배를 드렸다. 침례교도 의식주의를 거부한다.
4. **교황권 거부:** 왈도파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침례교도 교회 위에 교황이나 다른 인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5. **정교분리 정신:** 왈도파는 교회가 세속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비록 완전한 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침례교는 정교분리를 명확히 주장한다.

물론 왈도파는 침례교와 완전히 같지 않았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고 회중 정치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들의 조직은 순회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나 그들의 핵심 원리들, 특히 성경의 권위, 모든 성도의 제사장직, 단순한 교회에 대한 강조는 후에 침례교가 주장하게 될 원리들과 일치했다.

일부 침례교 역사가들은 왈도파를 침례교의 직접적인 선조로 보았으며, 이를 계승설이라 불렀다. 이 관점은 사도 시대부터 침례교와 유사한 교회들이 끊임없이 존재해 왔고, 왈도파가 그 흐름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직접적인 계승 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왈도파는 신약 교회의 원리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

고, 침례교 역시 독립적으로 같은 원리로 돌아가려 한 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결국 두 집단이 비슷한 결론에 이른 이유는 동일한 성경을 읽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왈도파는 침례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은 종교 개혁 이전에 신약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려 했던 가장 중요한 운동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박해 속에서 겪은 고난은 후대 침례교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존 위클리프(1320-1384) - 영국의 '종교 개혁 새벽별'

14세기 영국은 격동의 시대였다. 1348-1349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고 영국 인구의 약 삼분의 일이 죽었다. 이 재앙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노동력 부족으로 농노들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봉건 제도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동시에 교회의 부패는 절정에 달했다. 14세기는 교황이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 아비뇽에 '포로'로 잡혀 있던 시기였다(아비뇽 유수라고 함).[2] 교황청은 프랑스 왕의 영향 아래 있었고 정치적 도구가 되어 있었다. 영국 사람들은 교황청이 프랑스 편을 든다고 느꼈고 따라서 교황권에 대한 반감이 컸다. 게다가 영국 교회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 토지의 약 사분의 일

2. 아비뇽 유수(Avignon Captivity)는 1309-1377년, 약 70년 동안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옮겨가 머물렀던 시기를 말한다. 아비뇽 유수가 일어난 이유는 주로 프랑스 왕권의 정치적 압력과 교황권의 약화 때문이며 대표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의 갈등 이후,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교황청을 자국의 영향권 안에 두려 했고, 결국 클레멘스 5세를 아비뇽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했다. (2) 당시 로마는 내부 분쟁과 폭력 사태가 심해 교황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통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3) 중세 말 교황권은 유럽 국가들의 힘이 커지면서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강대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교황청은 약 70년 동안 프랑스 왕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이를 '교황권의 유수', 즉 포로 상태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교회 소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교들과 수도원장들은 세속 영주들만큼 부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청빈과 검소를 설교하는 것은 위선으로 보였다. 이러한 시대에 존 위클리프가 등장했다.

존 위클리프 – 학자에서 개혁자로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c.1320–1384)는 잉글랜드 요크셔에서 태어났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뛰어난 학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철학, 신학, 법학에 정통했다. 그는 발리올 칼리지의 학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 교수 중 한 명이 되었다.

처음에 위클리프는 정통 카톨릭 신학자였다. 그러나 점차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게 되었고 성경 연구를 통해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용감하게 자신의 확신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했다.

위클리프의 혁명적 주장들

위클리프의 주장들은 당시로서는 극도로 급진적이었다. 그가 주장한 핵심 원리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그는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그의 모든 개혁 사상의 기초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교황도, 공의회도, 성인들도, 교회의 전통도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였는데 위클리프는 마르틴 루터보다 150년 앞서 이 원리를 주장한 것이다. 그는 성경과 충돌하는 모든 교리와 관습을 거부했다. 만약 어떤 것이 성경에 없다면 그것은 필수적이지 않

고, 만약 어떤 것이 성경에 반대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둘째, 그는 교황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위클리프는 교황의 세속적 권력이 성경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교황이 어떻게 세속 군주처럼 영토를 다스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위클리프는 교황의 영적 권위도 의문시했다.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주장이 성경에 없다고 했고 더 나아가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교황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와 반대로 행동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이단이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셋째, 그는 화체설을 부정했다. 화체설은 카톨릭 신학의 핵심으로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면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였다. 이는 사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고 사제 계급의 권위를 정당화했다.

위클리프는 이것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눅 22:19)고 하셨다. '기억하는 것'은 상징을 의미하며, 따라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클리프는 이렇게 논증했다. "만약 빵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면, 왜 여전히 빵처럼 보이고, 빵처럼 맛이 나고, 빵처럼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속이신다는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만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

화체설을 부정한 것은 카톨릭 신학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화

체설이 무너지면 미사의 의미가 바뀌고 사제의 필요성이 약화되며 성례전 중심의 구원론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넷째, 그는 사제 계급을 비판했다. 위클리프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가르쳤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2:9). 만약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면 특별한 사제 계급이 왜 필요한가?

위클리프는 신약 성경에 사제 계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초대 교회에는 장로들과 감독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특별한 계급이 아니었다. 그들은 회중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었고 다른 신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위클리프는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사제는 단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할 뿐이지 실제로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다섯째, 그는 교회의 재산과 세속적 권력을 비판했다. 위클리프는 교회가 땅과 부를 소유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가난했고 초대 교회는 재산을 서로 나누었다. 그런데 중세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큰 지주가 되었다.

위클리프는 이렇게 논증했다. "교회는 영적 사명을 가진 조직이다. 교회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씀이다. 교회의 보화는 금이 아니라 복음이다. 만약 교회가 세속적 부와 권력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교회의 재산을 몰수할 권리가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만약 교회가 부패하고 사명을 저버렸다면, 국가는 그 재산을 가져다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고 많은 세속 권력자들이 위클리프를 지지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

여섯째, 그는 국가 교회 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위클리프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참된 교회는 건물이

나 조직이 아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보이지 않는 공동체이다.

위클리프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했다. 보이는 교회는 지상의 조직된 교회로서 여기에는 참된 신자들도 있지만 가짜 신자들도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진정한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이는 국가 교회 개념을 약화시켰다. 만약 참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지상의 어떤 조직도 '참된 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교황도, 공의회도, 국가 교회도 보이지 않는 교회와 동일시될 수 없다.

위클리프의 가장 위대한 공헌 – 성경 번역

그러나 위클리프의 가장 위대하고 지속적인 공헌은 성경 번역이었다. 위클리프는 일반 성도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며 사제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숨겨져서는 안 된다."

위클리프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을 라틴어 불가타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방대한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 영어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고 신학 용어들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인쇄술이 아직 발명되기 전이었으므로 모든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야 했다.

1382년경, 신약 성경의 영어 번역이 완성되었다. 1388년경, 구약 성경도 완성되어 최초의 완전한 영어 성경이 탄생했다.[3]

위클리프 성경은 빠르게 퍼져 나갔다. 비록 손으로 베껴야 했기 때문에 매우

3. 이는 영국 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위클리프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서방 교회에서 통용되던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Vulgate)를 기반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 중세 시대 서유럽에서는 원어 성경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학문적 환경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라틴어 불가타를 성경의 표준 텍스트로 사용했다. 따라서 위클리프의 번역은 불가타를 영어로 옮긴 것이지만, 그 목적은 평범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비쌌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 한 권의 성경을 사기 위해 농부가 헛간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부유한 사람은 한 권을 소유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모아 한 권을 사서 돌려 읽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일부만이라도 소유하려고 개별 책들을 구입했다.

사람들은 위클리프 성경을 열정적으로 읽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촛불 아래서 성경을 읽었다. 이웃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들을 암기했다. 처음으로 영국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 1:1)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를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교회는 이를 큰 위협으로 보았다. 1408년 옥스퍼드 공의회는 주교의 허락 없이 영어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을 금지했다. 영어 성경은 압수되어 불태워졌고 영어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고발되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성경은 이미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 영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롤라드 – '가난한 설교자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롤라드'(Lollards)라고 불렸다. 이 이름의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네덜란드어 'lollen'(중얼거리다)에서 왔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이 영어로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조롱하여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lolium'(가라지)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들을 가라지, 즉 나쁜 씨앗으로 본 것이다.

위클리프와 롤라드

롤라드는 위클리프

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실천했다. 그들 중 일부는 '가난한 설교자들'로 알려진 순회 전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위클리프의 제자들로 옥스퍼드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검소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맨발이나 간단한 샌들을 신고 영국 전역을 다니며 설교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서 설교하고 시장에서 가르쳤고 가정을 방문했다. 그들은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 성경을 읽어 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암기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교황권을 비판하고 사제들의 부패를 폭로했으며 단순한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롤라드는 영어 성경을 베껴서 널리 배포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경을 필사했는데 한 사람이 읽으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받아 적기도 했다. 그들은 완성된 사본들을 비밀리에 운반하여 각지에 있는 롤라드 신자들에게 전달했다.

롤라드의 신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그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었다. 성경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성경이 침묵하면 그것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했다.

둘째, 그들은 교황권을 거부했다. 많은 롤라드는 위클리프를 따라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믿었다.

셋째, 그들은 화체설을 부정했다. 주의 만찬은 기념 의식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반복해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넷째, 그들은 일반 성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성경은 사제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섯째, 그들은 화려한 예배 의식과 성상을 거부하고 단순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했다.

여섯째, 그들은 사제의 독신 제도를 비판했다. 성경은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울은 감독(주교)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곱째, 그들은 전쟁과 사형을 반대했다. 이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고 그들을 위험한 사회 전복자로 보이게 만들었다.

박해와 생존

위클리프는 1384년 12월 31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러터워스의 교구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며칠 후 숨을 거두었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 화형을 당하지는 않았다. 이는 여러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옥스퍼드의 존경받는 학자였고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곤트의 존(John of Gaunt) 공작이 그를 보호했고 영국 왕실은 교황권에 대항하기 위해 위클리프의 주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 후 상황이 바뀌었다. 1401년 잉글랜드 의회는 '이단자 화형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단으로 정죄된 자를 화형에 처하는 것을 법제화한 것으로 롤라드가 주요 표적이었다. 박해가 시작되자 롤라드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회개를 강요당했으며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회개했지만 많은 이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1410년 배드비라는 이름의 재단공이 화체설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했는데 그는 화형대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지 않았다. 1414년 올드캐슬 경이 롤라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1417년에 화형당했다. 1428년에는 위클리프의 유골이 파헤쳐져 불태워지고 재는 스위프트 강에 뿌려졌는데, 이는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의 명령을 나중에 집행한 것이다.

그러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롤라드 운동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지하로 들어갔고 비밀리에 모였으며 밤에 숲속에서 예배드렸다. 그들은 계속 영어 성경을 읽었고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했다. 롤라드 운동은 15세기 내내 계속되었다. 그들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롤라드는 개신교 운동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100년 이상을 기다려 온 개혁이 마침내 왔다고 환영했다.

위클리프의 유산

위클리프는 '종교 개혁의 새벽별'로 불린다. 그는 루터보다 150년 앞서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들을 발견했고 그의 영향은 영국을 넘어 유럽 대륙으로도 퍼져 나갔다. 특히 그의 저작들은 보헤미아의 얀 후스에게 전해져 큰 영향을 주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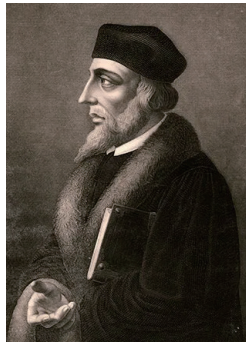
위클리프 성경은 영국 종교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비록 나중에 이루어진 틴데일의 번역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긴 했지만 위클리프가 먼저 문을 열었다. 그는 성경이 일반 성도의 손에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고 이 원칙은 영국 종교 개혁의 토대가 되었다.

위클리프와 롤라드는 침례교의 많은 원리들을 먼저 성취했다. 성경의 권위, 일반 성도의 권리, 단순한 예배, 교황권 거부 등은 모두 후에 침례교가 강조하게 될 원리들이다.

얀 후스(c.1369-1415) - 보헤미아의 순교자

보헤미아(현재 체코 공화국의 일부)는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독특한 상황에 있었다. 이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였지만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보헤미아 사람들은 체코어를 사용했고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했다. 당시 프라하는 보헤미아의 수도이자 당시 유럽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4세(Charles IV, 재위 1346–1378)가 프라하를 제국의 수도로 만들었다. 그는 1348년 프라하 대학을 설립했는데, 이는 중부 유럽 최초의 대학이었다.

그러나 교회의 부패는 보헤미아에서도 심각했다. 사제들은 부유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교회는 막대한 토지를 소유했고 면죄부가 공공연히 팔렸다. 보헤미아 사람들은 교회 개혁을 간절히 원했다.


얀 후스

얀 후스 – 설교자이자 개혁자

얀 후스(Jan Hus, c.1369–1415)는 보헤미아 남부의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총명했고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뛰어난 학생

이었고 1396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프라하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1409년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그러나 후스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설교였다. 1402년 그는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의 설교자로 임명되었다. 이 교회는 특별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라틴어가 아니라 체코어로 설교하도록 만들어진 교회였기 때문이다.

후스는 강력하고 감동적인 설교자였다. 그는 체코어로 설교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 수천 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베들레헴 교회로 몰려들었다. 교회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매번 가득 찼고 후스의 명성은 보헤미아 전역에 퍼졌다.

위클리프의 영향

프라하 대학에서 후스는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접하게 되었다. 어떻게 위클리프의 책들이 보헤미아에 왔을까? 이는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1382년 영국 왕 리처드 2세는 보헤미아 왕 바츨라프 4세의 누이 안네와 결혼했다. 안네 왕비는 경건한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시종들 중 일부가 롤라드였다고 한다. 그녀를 따라 보헤미아 학자들이 영국을 방문했고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보헤미아로 가져왔다. 후스는 위클리프의 책들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위클리프의 많은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체코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설교와 강의에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가르쳤다. 그러나 후스는 위클리프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위클리프보다 더 나아가는 부분도 있었다.

후스의 주장들

후스의 핵심 주장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그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 후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성경의 진리가 나의 유일한 권위이다. 나는 성경을 따를 것이다. 성경이 나를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것이다.”

그는 교황도 성경을 어길 수 없으며 성경에 어긋나는 교황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는 교황의 무오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둘째, 그는 교황청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후스는 설교단에서 두려움 없이 교회의 죄악을 폭로했고 특히 그는 면죄부 판매를 신랄하게 공격했다. 1411년, 대립 교황 중 한 명인 교황 요한 23세가 나폴리의 라디슬라오 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다.[4] 교황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 면죄부를 사는 자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연옥에서의 벌을 면제받을 것이다."

후스는 분노했고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교황이 종이쪽지를 팔아서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용서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후스는 면죄부를 공개적으로 불태웠는데, 이는 매우 대담한 행동이었다.

셋째, 그는 사제들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했다. 후스는 이렇게 물었다. "사제가 죄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사제가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청빈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가?"

그는 사제의 도덕성이 그의 사역의 유효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부도덕한 사제가 집행하는 성례전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한 이 주장은 카톨릭 신학과 충돌했다. 카톨릭은 성례전의 유효성이 사제의 도덕성과 무관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넷째, 그는 교회의 정화를 주장했다. 후스는 교회를 떠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으며 교회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참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

4. 대립 교황(antipope)은 정통 교황이 존재하는데도 정치적·교회적 분열로 인해 경쟁적으로 교황직을 주장한 인물을 말한다. 중세에는 교황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했고, 특히 서방 교회의 대분열(1378–1417) 동안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다른 교황이 선출되었으며, 피사 공의회에서는 세 번째 교황까지 나타나는 혼란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요한 23세는 피사 공의회에서 선출되었으나 로마와 아비뇽 양측 모두에서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립 교황으로 분류된다.

다섯째, 그는 일반 성도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모두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당시 카톨릭교회의 관습은 일반 성도에게는 빵만 주고 포도주는 사제들만 마시는 것이었다. 교회는 포도주를 흘릴 위험이 있다, 포도주가 비싸다, 일반 성도들은 빵만으로도 충분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댔다.

그러나 후스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마 26:27)고 하셨는데 이 말은 제자들 전부, 즉 모든 신자가 마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제만 포도주를 마시고 일반 성도는 못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후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빵과 포도주 둘 다를 먹고 마시는 '양종 성찬'을 주장했다.[5] 이는 후스파의 상징이 되었고 후스파의 깃발에는 성찬 잔이 그려져 있었다.

박해의 시작

후스의 인기와 영향력이 커지자 로마 교회는 위협을 느꼈다. 1410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2세(Gregory XII, 재임 1406-1415)는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불태우라고 명령했고 후스가 위클리프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지만 후스는 거부했다.

1411년 교황은 후스를 파문했지만, 후스는 파문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설교하며 가르쳤다. 그러자 교회는 1412년 프라하 시 전체에 '종교 금지령'(interdict)을 내렸다. 이는 후스가 프라하에 있는 한, 프라하에서는 어떤 성례전도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결혼식도, 장례식도, 미사도 할 수 없었고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압력이었다.

후스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라하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보헤미아 남부의 시골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그는 저술 활동을 계속했고 자신의 가장 중

5. 양종 성찬(Communion in both kinds)은 신자들이 빵과 잔(bread and the cup), 즉 두 종류(both kinds) 모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요한 저작인 「교회론」을 완성했다. 이 책에서 그는 참된 교회의 본질, 교황권의 한계, 성경의 권위 등을 논증했다.

콘스탄츠 공의회와 배신

1414년 콘스탄츠에서 공의회가 소집되었는데 이 공의회의 목적은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당시 세 명의 교황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었다(대분열 시대). 공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이단 문제도 다루기로 했는데 후스와 위클리프가 주요 표적이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Sigismund, 1368–1437)는 후스에게 편지를 보내 후스에게 안전 통행증을 주며 공의회에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안전 통행증은 후스가 콘스탄츠에 가고 돌아오는 동안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문서였다.

후스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의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권하며 그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후스는 공의회에 출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를 진리를 변호할 기회라고 생각했고 공의회 앞에서 성경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1414년 11월 3일 후스는 콘스탄츠에 도착했고 처음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 28일 그는 갑자기 체포되어 도미니크회 수도원의 감옥에 갇혔고 안전 통행증은 무시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단자에게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

후스는 열악한 감옥에서 몇 달을 보내면서 병이 들었다. 그는 친구들과의 접촉이 차단되었고 변호사를 만날 수도 없었다.

재판과 순교

1415년 6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후스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심문이었다. 공의회는 이미 후스가 유죄이고 처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공의회는 후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30

개의 주장이 나열되었고 후스는 이것들을 철회해야 했다. 그러나 그 주장들 중 일부는 후스가 실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일부는 왜곡된 것이었다.

후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주신다면, 기꺼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받는다면, 나는 거부합니다."

이 말은 106년 후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한 말과 거의 똑같다.

공의회는 후스에게 무조건 철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여러 사람들이 그를 방문하여 설득했다. 어떤 이들은 친절하게 어떤 이들은 위협하며 말했다. "철회하십시오. 그러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거부하면 화형당할 것입니다."

후스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나는 내가 가르친 것들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거짓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부정한다면, 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1415년 7월 6일 공의회는 얀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그는 세속 권력에 넘겨져 화형당하게 되었다.

그날, 후스는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그에게 주교의 제의를 입혔다 벗기는 의식을 수행했는데, 이는 그가 사제직에서 파면된다는 것을 상징했다. 그의 머리에는 종이로 만든 모자가 씌워졌는데 거기에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후스는 처형장까지 걸어갔다. 군중이 그를 조롱했지만 후스는 평온했다.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으며 주변 사람들을 용서했다. 처형장에서 그는 기둥에 묶였다. 그의 주위에 장작이 쌓인 뒤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 "철회하겠는가?" 그러나 후스는 고개를 저었다.

불이 붙여졌고 후스는 불길 속에서 찬송을 불렀다.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계속 기도했다. "제가 지금 겪는 이 두려운 죽음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저를 받아 주소서."

후스는 연기에 질식했거나 불에 타서 죽었고 그의 재는 모아져서 라인 강에 뿌려졌다. 로마 교회는 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 했다. 그러나 후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얀 후스의 최후

후스파 운동의 폭발

후스의 순교 소식이 보헤미아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분노했다. 그들의 영웅이, 그들이 사랑하는 설교자가, 안전 통행증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고 화형당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보헤미아 귀족 452명이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그들은 후스를 변호하고 그의 죽음을 비난했으며 후스의 가르침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교황권과 결별하는 선언이었다.

후스파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보헤미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후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양종 성찬'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일반 성도들도 빵과 포도주를 모두 받았다. 그들은 체코어로 예배를 드렸고 체코어 성경을 읽었다.

로마 교회는 후스파를 진압하려 했고 교황은 십자군 원정을 선포했다. 1420년부터 143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십자군이 보헤미아를 침공했지만 후스파는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은 얀 지슈카라는 탁월한 장군의 지휘 아래 십자군을 여러 번 물리쳤다. 그때부터 후스파는 거의 1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된 상태를 유지했고 보헤미아는 사실상 개신교 국가가 되었

는데, 이는 16세기 종교 개혁보다 100년 앞선 일이었다.

보헤미아 형제단

후스파 중에서 더 급진적인 그룹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1457년경에 조직되어 '보헤미아 형제단'이라고 불렸다. 보헤미아 형제단은 더욱 철저하게 신약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들은 사제 계급을 거부했고 회중이 스스로 목회자를 선출했다. 그들은 단순한 생활을 실천하고 화려한 건물, 의식, 성상을 모두 버렸다. 그들은 전쟁을 거부하고 맹세도 거부했으며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보급했다.

보헤미아 형제단은 후에 모라비안 형제단으로 계승되었는데 18세기에 진젠도르프 백작(Count Nicolaus L. von Zinzendorf, 1700–1760)의 보호 아래 모라비안 형제단은 위대한 선교 운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영국의 웨슬리가 모라비안 형제단을 통해 회심했다.

보헤미아 형제단의 원리들은 침례교의 원리들과 매우 유사했다. 성경 중심, 모든 성도의 제사장직, 회중 정치, 단순한 예배, 평화주의 등은 모두 침례교가 후에 강조하게 될 원리들이다.

후스의 유산

얀 후스는 종교 개혁의 순교자였다. 그는 루터보다 102년 앞서 죽었지만 루터가 주장하게 될 원리들을 이미 발견하고 선포했다. 루터 자신도 후스의 영향을 인정했다. 루터는 후스의 저작들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후스파였다는 것을."

후스의 순교는 보헤미아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들은 후스를 민족 영웅으로, 순교자로, 진리의 증인으로 기억했다. 오늘날 체코 공화국에서 7월 6일은 얀 후스의 날로 기념된다.

후스파 운동은 종교 개혁의 선구자였다. 후스파는 루터보다 100년 앞서 로마 카톨릭교회로부터 독립했다. 그들은 체코어 예배, 양종 성찬, 성경 중심 등의 원리를 확립했다. 이 모든 것이 16세기 종교 개혁의 토대가 되었다.

사보나롤라와 기타 선구자들

사보나롤라(1452–1498) – 피렌체의 불타는 대언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15세기 말에 사보나롤라(Savonarola, 1452–1498)라는 도미니크회 수도사가 교회의 부패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1452년 이탈리아 페라라에서 태어났는데 의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도미니크회 수도사가 되었다. 1490년 그는 피렌체로 와서 산 마르코 수도원에 거주하며 설교하기 시작했다.

사보나롤라

사보나롤라는 탁월한 설교자였으므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피렌체 대성당이 가득 찼다. 1만 명 이상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다고 한다. 그는 구약의 대언자들처럼 열정적으로 설교했다. 그는 무엇을 설교했을까?

첫째, 그는 교황청의 부패를 신랄하게 공격했다. 특히 교황 알렉산더 6세(보르자 가문 출신, 재임 1492–1503)를 맹렬히 비난했다. 알렉산더 6세는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황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여러 명의 정부를 두었고 많은 사생아를 두었으며 권력과 부를 탐했고 독살과 암살을 서슴지 않았다.

사보나롤라는 설교단에서 이렇게 외쳤다. "로마는 바빌론이 되었습니다! 교황청은 부패의 온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둘째, 그는 성직자들의 음행과 탐욕을 폭로했다.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교회는 세속화의 극치에 달했다. 많은 성직자들이 첩을 두었고 사치스럽게 살았으며 성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

셋째,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세속주의를 비판했다. 당시 피렌체는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였고 예술, 문학, 철학이 번성했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이러한 세속 문화가 영적 타락을 가져온다고 보았고 그래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외쳤다.

넷째, 그는 예언적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패한 교회와 도시 위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의 설교는 종말론적 긴박감으로 가득했다.

사보나롤라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한때 피렌체는 사실상 그의 지도 아래 놓이게 되었다. 1494년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피렌체의 통치자 메디치 가문이 도망쳤다. 그러자 정치적 공백이 생겼고 사보나롤라가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사보나롤라는 피렌체에서 도덕적 개혁을 시도했다. 그는 도박을 금지하고 사치를 규제했으며 성매매를 단속했다. 그는 '허영의 화형식'을 주도했다. 1497년과 1498년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보나롤라의 추종자들은 피렌체 시민들에게 세속적이고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모으도록 독려했다. 화장품, 거울, 화려한 옷, 세속 음악, 예술 작품, 도박 도구, 외설적인 책 등이 모아졌고 이 물건들은 피렌체 광장에 쌓여 불태워졌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너무 강력한 적들을 만들었다.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사보나롤라를 침묵시키려 했다. 1495년 교황은 사보나롤라를 로마로 소환했으나 사보나롤라가 병을 이유로 거부하자 1497년에 교황은 사보나롤라를 파문했다. 동시에 피렌체 내부에서도 반대 세력이 커졌다. 메디치 가문의 지지자들, 도덕적 규제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도미니크회의 경쟁자)이 사보나롤라에 대항했다. 1498년에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사보나롤라는 체포되었다. 사보나롤라는 고문을 받았고 고문관들은 그가 자신의 예언과 가르침을 철회하도록 강요했다. 고문 아래서 사보나롤라는 일부 진술서에 서명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철회했다.

1498년 5월 23일, 사보나롤라는 두 명의 동료 수도사와 함께 피렌체 광장에서 처형되었다. 그들은 먼저 교수형에 처해진 후 시신이 불태워졌다. 그의 재는 아르노 강에 뿌려졌고 로마 교회는 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 했다.

사보나롤라는 완전한 개혁자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카톨릭 신학의 틀 안에 있었고 성례전을 믿었고 마리아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부패를 두려움 없이 비난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했고 회개와 거룩함을 외쳤다. 그는 종교 개혁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다.

기타 선구자들

이 외에도 중세 말에는 많은 개혁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그들 모두를 다룰 수는 없지만 몇 명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 **브레시아의 아놀드**(Arnold of Brescia, 1090–1155)는 이탈리아의 수도사로 교회의 세속적 재산 소유를 비판했다. 그는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1155년 교수형에 처해졌다.
- **마르실리우스**(Marsilius of Padua, 1275–1342)는 이탈리아의 철학자로 교황의 세속 권력을 부정하는 책을 썼다. 그는 국가가 교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 **퍼비**(John Purvey, 1354–1428)는 위클리프의 제자로 위클리프 성경을 개정하여 더 읽기 쉽게 만들었다. 그는 롤라드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교회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대가를 치렀다. 많은 이들이 파문당하고 추방당했으며 투옥되고 순교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결론 - 선구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와 침례교와의 연결

일관된 외침

왈도파, 롤라드, 후스파, 그리고 기타 수많은 개혁 운동 참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놀랍도록 일관되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진리는 같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외쳤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교황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성경만이 최종 권위이다. 성경에 없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고, 성경에 반대되는 것은 거짓이다.

"교회는 권력의 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세속적 부와 권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이지 칼을 드는 조직이 아니다.

"구원은 성례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성례전과 선행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특별한 사제 계급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라!" 신앙은 강제될 수 없다.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권리가 있다.

이들의 외침은 침례교가 주장하게 될 핵심 원리들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들은 국가 교회 체제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았고 강제된 종교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고 외쳤으며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여야 한다고 믿었다.

침례교와의 연결

이들이 침례교의 직접적인 조상일까?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계승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왈도파가 재침례교로 이어지고, 재침례교가 침례교로 이어졌다는 식의 명확한 계보를 그리기는 힘들다. 그러나 영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들은 침례교의 선조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하고 실천한 원리들이 침례교가 주장하게 될 원리들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왈도파, 롤라드, 후스파, 그리고 침례교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뿌리는 신약 성경이다. 그들은 모두 신약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려 했고 모두 초대 교회의 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래서 비록 서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종교 개혁을 준비하다

이 선구자들이 없었다면 16세기 종교 개혁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종교 개혁의 열매를 맺게 했다.

위클리프는 '오직 성경' 원리를 확립했고 루터는 이를 계승했다. 후스는 교황권에 도전하고 순교했으며 그의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왈도파는 일반 성도의 권리를 주장했고, 이는 전 성도 제사장직 교리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

이들 모두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고, 이는 종교 개혁의 토대가 되었다.

이들 모두가 순교했거나 박해받았지만 그들의 피가 종교 개혁의 씨앗이 되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유명한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다.

침례교를 위한 교훈

이 선구자들의 이야기가 침례교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도 당신의 증인들을 남겨 두신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중세 천 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왈도, 위클리프, 후스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들을 가지고 계신다.

둘째, 진리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진리는 박해받고 억압받고 땅에 묻힐 수 있지만 진리는 다시 일어난다. 성경이 금지될 수 있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개혁자들은 화형당했지만 그들의 외침은 지금까지 메아리치고 있다.

셋째, 개혁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왈도파, 롤라드, 후스파는 모두 성경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부패를 볼 수 있었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개혁을 외칠 수 있었다. 침례교도 같은 원리를 따른다.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넷째, 진리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왈도는 재산을 버렸고 위클리프는 명예를 잃었으며 후스는 목숨을 바쳤다. 수많은 롤라드파와 왈도파 신자

들이 화형당했다. 진리는 공짜가 아니지만 진리는 모든 희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 왈도는 1170년대에 시작했지만 종교 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다. 거의 350년의 시간이 걸렸다. 위클리프는 1380년대에 활동했고 루터는 130년 후에 나타났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선구자들이 뿌린 씨앗이 있었기에 종교 개혁의 추수가 가능했다.

기억하자

이 선구자들을 기억하자. 왈도, 위클리프, 후스,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순교자들을.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혔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증언했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이다. 그들의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시작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신약 교회의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히 12:1–2)

선구자들이 증인이다. 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에게 말한다. "달리라! 포기하지 말라! 진리를 지켜라!" 그리고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향한다. 그분은 우리의 본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다. 그분을 위해 선구자들이 살았고 죽었다. 그분을 위해 우리도 살고 죽을 것이다.

Check Point

어둠 속의 등불, 선구자들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진정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이 실제로 내 판단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대가를 치르는 신앙을 준비하고 있는가?

신앙 때문에 손해·손실·불이익이 온다면 기꺼이 감당할 마음이 있는지 솔직히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교회의 부패와 잘못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과 책임을 이유로 해야 할 책망을 회피하며 소극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4. 나는 일반 성도로서 나의 제사장적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성경 연구·기도·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나는 신앙의 본질보다 화려한 형식에 더 끌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당 규모, 음향, 프로그램에 좌우되며 말씀과 진실한 예배의 본질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하나님의 긴 시간표를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가?

즉각적 변화가 없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장기적 역사 방식을 잊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7. 나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다수의 분위기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소수라도 진리 편에 설 용기가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Chapter 7

16세기 종교 개혁
좋은 시작, 미완의 개혁

AD 1517-1564

16세기 종교 개혁은 유럽의 어둠을 깨운 거대한 사건이었다.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는 성경의 권위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회복했고 복음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종교 개혁을 '완전한 회복'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개혁자들은 구원의 교리 면에서는 중세 카톨릭주의를 떠났지만 교회 제도와 국가 교회 체제 면에서는 여전히 카톨릭주의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왜 유아 세례가 계속 남았는가?

왜 국가가 종교를 결정하는 체제가 유지되었는가?

왜 재침례교인들은 카톨릭뿐 아니라 루터파와 칼빈주의자에게도 박해를 받아야 했는가?

이 장은 종교 개혁이 회복한 진리와 남겨 둔 한계를 함께 살피며,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의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교회론과 양심의 자유 문제에서 왜 끝까지 나아가지 못했는지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미완의 개혁이 어떻게 재

침례교 운동과 침례교 전통의 등장을 불러오게 되었는지도 설명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루터가 문을 두드린 그날, 즉 종교 개혁의 시작점이다.

서론 - 새벽이 밝아 오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가 보니, 문에 한 장의 라틴어 문서가 게시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95개조 논제였다. 문서의 작성자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 마르틴 루터였다.[1]

그날 루터는 자신이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학문적 토론을 제안하려 했을 뿐이지만 그 문서는 유럽을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천 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 온 로마 카톨릭교회의 독점을 깨뜨리는 시작이었다. 즉, 그것은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다.

종교 개혁은 위대한 운동이었다. 복음이 다시 선포되었고 구원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진리가 회복되었다. 성경이 일반 성도의 손에 들어갔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이 미신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침례교의 관점에서 종교 개혁은 완전하지 않았다.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는 "무엇을 믿느냐?"(구원론)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갔지만, "교회란 무엇인가?"(교회론)에서는 중세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유지했고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했으며, 성경을 더 문자적으로 이해한 재침례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했다.

따라서 종교 개혁의 위대한 공헌과 분명한 한계를 모두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개혁자들을 존경하지만 우상화하지 않는다. 그들이 회복한

1.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흔히 '반박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학문적 토론을 열기 위해 제시한 논제(theses)였다. 원래 제목도 '면죄부의 효력을 밝히기 위한 토론을 위한 논제'라는 토론용 문서였고 당시 대학 관행에 따라 논제를 게시해 신학적 문제를 논의하려는 목적이었다. 내용은 면죄부를 강하게 비판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고발문이 아니라 토론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

진리에 감사하지만, 회복하지 못한 진리 역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침례교는 바로 그 '회복되지 못한 진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등장한 신학적·역사적 운동으로, 초대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는 지속적 흐름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1483-1546) - 종교 개혁의 시작

루터의 초기 삶과 영적 투쟁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부였지만 나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루터는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어린 루터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였다.

루터는 총명한 학생이었다. 그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공부했고 1505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버지는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했고 루터도 그 길을 가려 했다. 그러나 1505년 7월 2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루터는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는데 번개가 그의 바로 옆에 떨어졌다. 공포에 질린 루터는 "성 안나시여! 저를 구해 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성 안나는 광부들의 수호성인이었고 루터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서원을 한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후 루터는 자신의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1505년 7월 17일 에르푸르트의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루터는 돌아서지 않았다.

루터는 모범적인 수도사가 되려고 노력했고 엄격하게 수도원의 규율을 지켰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시간마다 고해 성사에 갔다. 때로는 여섯 시간 동안 죄를 고백했다고 한다. 그의 고해 신부가 지쳐서 말했다. "루터, 하나님께서는 자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신다네. 오히려 지금 자네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

그러나 루터는 평안을 찾을 수 없었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충분히 회개했는가?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고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졌다.

1507년에 루터는 사제 서품을 받았고 1508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1512년에 그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성경 교수가 되었고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했다.

탑에서의 경험 – 복음의 발견

루터의 영적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한 구절에 걸려 넘어졌다.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ness of God)라는 말이 루터를 괴롭혔다. 그는 이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벌하신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계속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는 1518년이나 1519년경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 방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이를 '탑에서의 경험'이라고 부른다). 루터는 깨달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루터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문맥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로, 즉 믿음으로 사는 그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수동적 의로, 즉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때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열린 문들을 통해 낙원 자체로 들어간 것 같았다."

이것이 루터의 회심이었고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신학적 기초였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얻는 것이다. 이것이 '칭의'(Justification)이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칭의(Justification)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신학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칭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imputation)를 포함하며, 구원 교리의 핵심을 이룬다.

95개조 논제 – 면죄부 논쟁

1517년 루터는 면죄부 판매의 남용에 분노했다. 테첼(Johann Tetzel, 1465–1519)이라는 도미니크회 수도사가 독일 전역을 다니며 면죄부를 팔고 있었다. 테첼은 이렇게 외쳤다.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 짤랑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이 그 자리에서 풀려나 곧바로 천국으로 날아갑니다!"

면죄부는 교황이 발행하는 문서로 그들은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의 벌이 감면된다고 주장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했다. 테첼은 유능한 판매원이었고 가난한 농부들까지 마지막 돈을 털어 면죄부를 샀다.

루터는 이것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죄의 용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값이 치러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회개는 내적 변화이지 외적 의식이나 금전 거래가 아니다.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모든 성인 대축일) 전날, 루터는 '95개조 논제'를 작성했다. 이는 면죄부와 관련된 95개 주장으로 학문적 토론을 위해 제안된 것이었다. 전통에 따르면 루터는 이를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게시했다.

95개조 논제의 핵심 주장들을 보겠다.

제1조: "우리의 주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제27조: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이 곧바로 하늘로 날아간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제36조: "참되게 회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면죄부가 없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받는다."

제62조: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담긴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95개조 논제는 놀라운 속도로 퍼져 나갔다. 인쇄술 덕분에 몇 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몇 달 만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마침내 누군가 교회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에 환호했다.

로마와의 대결

로마 교회의 반응은 신속했다. 처음에는 루터를 단순히 말썽꾸러기 수도사로 여겼고 교황 레오 10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루터는 술 취한 독일인이

다. 술이 깨면 생각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다. 1518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교황 특사 카예탄 추기경과 만났을 때 루터는 철회를 거부했다. 이어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에서는 로마 측 대표 요한 에크(Johann Eck, 1486–1543)와 공개 토론을 벌이며 교황의 무오성과 공의회 권위가 절대적일 수 없으며 교황과 공의회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1520년 교황 레오 10세는 교황 교서 '주여 일어나소서!'를 발표했는데 이 교서는 루터의 41개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60일 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루터의 대응은 극적이었다. 1520년 12월 10일, 비텐베르크 성문 밖에서 루터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황 교서를 불태웠는데, 이는 로마 교회와의 완전한 결별을 상징했다.

드디어 1521년 1월 3일, 교황은 마침내 루터에게 공식적인 파문을 선언했다. 그러나 루터는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강력한 후원자인 작센의 선제후인 현자 프리드리히(Frederick the Wise, 1463–1525)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끝까지 루터를 보호하며 위험한 순간마다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선제후(Elector)는 중세·근세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선출할 법적 권한을 가진 제후를 의미한다. 이들은 제국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통치자들로 정치·군사·종교 문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프리드리히는 작센(Saxony)의 선제후로 루터를 직접 지지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법적 절차와 독일의 자주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루터를 보호한 통치자였다.

보름스 제국 의회

1521년 4월, 루터는 보름스에서 열린 신성 로마 제국 의회에 소환되었고 황제 카를 5세는 루터에게 안전 통행증을 주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 여행하면서 영웅처럼 환영받았다. 도시마다 군중이 그를 보러 모였다.

4월 17일, 루터는 의회 앞에 섰고 황제, 제후들, 주교들, 귀족들이 그를 둘러쌌다. 탁자 위에는 루터가 쓴 책들이 쌓여 있었고, 황제 카를 5세를 대신한 공

식 대변인 요하네스 폰 데어 에켄(Johannes von der Ecken)이 질문을 던졌다. "이 책들이 당신이 쓴 것인가?" 루터는 "예."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책들의 내용을 철회하겠는가?"

루터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저술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엇을 철회하고 무엇을 지킬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이 문제를 씨름했고 다음 날인 4월 18일 다시 의회 앞에 서서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의 저술을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신앙의 기본 진리를 다룬 책들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둘째, 교황청의 폭정과 부패를 비판한 글들이다. 셋째, 특정 인물들을 비판한 책들로, 어조가 지나쳤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루터는 내용 자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지었다.

"나는 성경과 분명한 이성에 의해 확신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황들과 공의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잘못을 범했고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에 황제 카를 5세는 격분했고 곧 루터를 제국의 법 밖에 둔다는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누구든 루터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를 살렸다.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길에 선제후의 부하들이 루터를 '납치'했는데, 이는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작전이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옮겨져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었다.

바르트부르크 성 – 성경 번역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루터는 '융커 요르크'(Junker J rg, 기사 조지)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그는 수염을 기르고 기사의 옷을 입었으며 거의 10개월 동

안 그곳에 머물렀다.

루터는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는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사용했다.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1516년 그리스어 신약은 이후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의 기초가 되어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본을 비교하면서 천주교가 선호하던 알렉산드리아 계열 소수 사본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 사본들이 당시 교회가 널리 사용하던 비잔틴 다수 사본 전통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 사본에는 축약과 생략 등 편집의 흔적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여러 지역에서 일관되게 보존된 다수 사본은 원본의 신뢰할 만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본문은 다수 본문 계열을 따르게 되었고 이는 종교 개혁의 성경 번역 운동을 이끄는 토대가 되었다.

놀랍게도 루터는 단 11주 만에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했다.

루터의 번역은 단순한 직역이 아니었다. 그는 독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했다. 그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어린이들의 말을 관찰했다. 그는 생동감 있고 이해하기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1522년 9월,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이 성경은 흔히 '9월 신약'(September Testament)이라 불리며, 초판 3,000부가 몇 달 만에 모두 팔려 나갔다. 이어서 재판이 계속 나왔고 독일 전역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독일 사람들은 마침내 자기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루터의 번역은 독일어 자체의 표준화를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루터는 신약 번역 이후 곧바로 구약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는 신약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히브리어는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고, 당대에 원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히브리어 학자들과 랍비 문헌을 연구하며 원어의 뉘앙스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긴 협력과 세밀한 교정 과정을 거쳐 1534년 루터 성경전서(독일어 완역 성경)가 마침내 출판되었고, 이는 독일어의 표준화를 이끌고 유럽 종교 개혁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종교 개혁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루터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독일어 자체의 표준화에 기여했다. 당시 독일은 많은 방언들로 나뉘어 있었는데 루터의 성경이 표준 독일어의 기초가 되었다. 셋째, 독일 문화와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루터의 신학적 기여

루터의 신학은 몇 가지 핵심 원리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들은 나중에 '종교 개혁의 다섯 솔라'로 정리되었다.

1.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최종 권위이며 교황도, 공의회도, 전통도, 이성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성경에 명백히 가르쳐지지 않은 것은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
2. **오직 믿음(Sola Fide):**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으며 선행, 성례전, 고행, 순례 등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받는다.
3. **오직 은혜(Sola Gratia):**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
4.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마리아도, 성인들도, 사제들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5.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구원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은 죄인들일 뿐이며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루터는 또한 전 성도 제사장직을 강하게 강조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며 누구나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제 계급은 필요하지 않고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진리를 분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루터의 한계

그러나 루터의 개혁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었다. 침례교의 관점에서 볼 때 루터는 구원론 교리는 개혁했지만 교회론은 개혁하지 못했다.

첫째, 루터는 유아 세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그의 논증은 이러했다. 루터는 유아에게도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께서 유아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고 세례가 그 믿음을 확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소 억지스러운 논증이었다. 루터는 또한 대부모의 믿음이나 교회의 믿음이 유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경은 대리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믿어야 한다.

루터가 유아 세례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이유는 전통의 무게였다. 유아 세례는 천 년 이상 교회의 관습이었고 루터는 성경에 명백히 금지되지 않은 한 전통을 유지하려 했다.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필요성이었다. 중세 사회에서 유아 세례는 출생 등록이자 시민권을 부여받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그는 유아 세례가 폐지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루터가 교회를 여전히 지역 공동체 전체와 동일시했다는 것이다. 루터는 '보이지 않는 교회'(참된 신자들)와 '보이는 교회'(외적 조직)를 구분했지만 보이는 교회는 여전히 한 지역의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둘째, 루터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제후들의 도움으로 개혁을 진행했고 결국 제후들이 교회를 통제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루터는 '두 왕국 교리'를 가르쳤는데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통치 방식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영적 왕국으로, 그것은 복음과 성

령을 통해 다스린다. 다른 하나는 세속 왕국으로 그것은 법과 칼을 통해 다스린다. 교회는 영적 왕국에 속하고 국가는 세속 왕국에 속한다.

이 교리는 교회와 국가의 기능을 구분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오히려 루터는 세속 권력자들이 교회의 외적 질서를 유지하고 개혁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각 지역에서 제후가 종교를 결정했다. 제후가 루터파를 선택하면 그 지역 백성들도 루터파가 되어야 했다. 이는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강제였다. 단지 누가 강제하는가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후로는 교황이 아니라 제후가 강제하게 된 것이다.

셋째, 루터는 재침례교인들을 가혹하게 비판했고 그들에 대한 박해를 지지했다.

재침례교인들은 신자 침례를 주장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는데 이것들은 루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루터는 재침례교인들이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고 보았다. 그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법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루터는 재침례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을 지지했다. 이는 루터의 가장 큰 오점 중 하나이다. 그 자신이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다른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는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넷째, 루터는 1524–1525년 독일 농민 전쟁에서 영주들의 강경 진압을 지지했다.

당시 농민들은 오랫동안 억압받아 왔고 종교 개혁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해방의 희망을 주었다. 만약 영적으로 모든 신자가 평등하다면 사회적으로도 평등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부 급진적 개혁자들 중 특히 뮌처(Thomas Müntzer, 1489–1525)가 농민들을 지지하고 심지어 반란을 선동했다. 농민들은 '12개조 요구 사항'을 발표

했는데 과도한 세금 반대, 사냥과 낚시 권리 등 일부는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반란은 점차 폭력적이 되었고, 귀족들의 성을 약탈하고 수도원을 파괴했다.

루터는 처음에 농민들에게 동정적이었다. 그는 귀족들이 농민들을 억압한 것을 비판했지만 반란이 폭력적으로 변하자 입장이 바뀌었다.

1525년 농민전쟁이 격화되던 때, 루터는 「살인하고 약탈하는 농민 무리에 대항하여」라는 소책자를 출판했다. 처음에는 양쪽 모두에게 절제를 요구했지만 농민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자 그는 태도를 바꾸어 제후들과 영주들에게 강경 진압을 촉구했다. 루터는 글에서 "찌르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자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했고, 농민들의 폭동을 '미친 개의 광기'에 비유하며 "미친 개는 죽여야 한다."고 적었다.

이 소책자는 루터의 가장 논란 많은 저술 가운데 하나로, 그의 격렬한 표현은 이후 농민 학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영주들은 농민들을 잔인하게 진압했고 약 10만 명의 농민들이 살해되었으며 뮌처도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루터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는 폭력적 반란이 복음을 훼손한다고 보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의 언어는 너무 가혹했고 그의 입장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부족했다.

이 사건은 루터가 기득권 세력의 편에 섰다는 인상을 주었다. 루터파 교회는 제후들의 교회가 되었고 농민들과 평민들은 소외감을 느꼈다.

다섯째, 루터는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을 교회에 있다고 보며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말년으로 갈수록 태도가 극단적으로 변했다. 1543년에 그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같은 글에서 유대 회당을 불태우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금지하며 유대인들을 독일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격렬한 반유대 발언은 후대에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더욱이 나치 시대에 악용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과 교회들은 루터 말년의 반유대 사상을 분명하게 문제시하며 그의 사상 전체 중에서도 반드시 구분해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평가한다.

루터의 유산

루터의 유산은 대단히 복잡하다. 긍정적 측면에서 루터는 복음을 회복했다. 그는 구원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다시 선포했고 성경을 일반 성도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독점을 깨뜨렸고 양심에 따라 서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부정적 측면에서 루터는 교회론 측면에서 중세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국가 교회를 유지했고 유아 세례를 유지했으며 성경 신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박해했다. 그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하지 못했고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지 못했으며 반유대인 정책을 지지하였다.

침례교의 관점에서 루터는 위대한 개혁자였지만 불완전한 개혁자였다. 그는 반쯤 개혁했다. 그는 "무엇을 믿느냐?"는 개혁했지만 "교회란 무엇인가?"는 전혀 개혁하지 못했다. 침례교는 루터가 시작한 일을 완성하려고 한다.

울리히 츠빙글리(1484-1531) - 스위스 개혁

울리히 츠빙글리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는 루터와 거의 동시에 스위스에서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1484년 1월 1일 스위스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비엔나와 바젤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고 뛰어난 학자가 되었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배웠다.

1506년 츠빙글리는 사제 서품을 받았고 글라루스와 아인지델른에서 사제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사용하여 바울의 서신들을 암기했다.

1519년 1월 1일, 츠빙글리는 취리히의 그로스뮌스터 교회의 설교자가 되었고 즉시 혁신적인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전통적인 미사 본문 대신 성경을 연속적

으로, 즉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했다.

츠빙글리의 설교는 강력했다. 그는 성경을 명확하게 설명했고 교회의 부패를 비판했으며 복음의 순수성을 외쳤다. 취리히 시민들은 그의 설교에 매료되었다. 츠빙글리와 루터는 서로 독립적으로 개혁을 시작했다. 츠빙글리는 루터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가였다. 일부 측면에서 츠빙글리는 루터보다 더 급진적이었다.

취리히의 개혁

츠빙글리의 영향 아래 취리히는 점진적으로 개혁되었다. 1523년 1월, 취리히 시 의회는 공개 논쟁을 주최했다. 츠빙글리는 67개조 논제를 제시했고 이를 성경으로 변호했지만 카톨릭 측은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시 의회는 츠빙글리의 편을 들었고 개혁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1524년 취리히에서 성상들이 제거되면서 교회의 조각상, 그림, 장식들이 모두 철거되었다. 츠빙글리는 이것들이 우상 숭배를 조장한다고 보았다.

1525년 미사가 폐지되고 간단한 성찬 예식으로 대체되었다. 예배는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드려졌고 화려한 제의와 의식이 사라지고 단순한 예배가 자리를 잡았다. 수도원들이 해산되었고 사제들의 독신 제도가 폐지되었다. 츠빙글리 자신도 1522년 몰래 결혼했고 1524년에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츠빙글리의 신학

츠빙글리는 루터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둘 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했지만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주의 만찬에 대한 이해였다. 루터는 '실제 임재설'을 믿었다. 비록 카톨릭의 화체설은 거부했지만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믿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주의 만찬을 상징으로 보았다.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주의 만찬은 기념 의식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죽음

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1529년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루터와 츠빙글리가 만나 교리적 일치를 시도했다. 필립 헤센 방백이 주선한 이 회담에서 두 사람은 14개 조항에서 합의했지만 주의 만찬 문제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마 26:26)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츠빙글리는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로 이해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했다. 이는 개신교 진영의 분열을 가져왔고 루터파와 개혁파(츠빙글리-칼빈 전통)의 갈라짐으로 이어졌다.

츠빙글리의 한계

츠빙글리도 루터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츠빙글리는 유아 세례를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는 유아 세례를 구약의 할례와 동일시했다. 할례가 구약 백성을 언약 공동체에 포함시켰듯이, 유아 세례는 신약 백성을 교회 공동체에 포함시킨다고 주장했다.

츠빙글리는 신자 침례를 주장하는 재침례교인들과 격렬하게 논쟁했다. 그의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신자 침례를 주장하며 나갔을 때 츠빙글리는 그들을 강하게 반대했다.

둘째, 츠빙글리는 취리히 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교회 개혁은 시 의회의 결정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교회와 국가가 여전히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취리히에서는 모든 시민이 개혁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개인의 선택권은 없었고 유아 세례는 의무였으며 거부하는 부모는 처벌받았다.

1526년 3월, 취리히 시 의회는 재침례교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재침례를 받거나 주는 자는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것이었다(아이러니하게도 침례의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다).

1527년 1월 5일, 펠릭스 만츠(Felix Manz)라는 재침례교인이 취리히에서 처형되었는데 그들은 그를 취리히의 리마트 강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만츠는 개

신교에 의해 순교한 최초의 재침례교인이었다. 만츠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노래하며 죽었다.

츠빙글리는 이 처형을 지지했다. 그는 재침례교인들이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고 보았고 그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츠빙글리의 가장 큰 오점이다. 그 자신이 종교 개혁을 위해 싸웠지만 정작 다른 개혁자들은 박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츠빙글리의 죽음

츠빙글리는 전쟁터에서 죽었다. 스위스는 캔톤(canton)이라고 불리는 여러 주로 나뉘어 있었다. 그중 일부는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일부는 카톨릭을 유지했으므로 종교적 긴장이 군사적 충돌로 번졌다.

1531년 10월 11일, 제2차 카펠 전투가 벌어지면서 취리히의 개신교 연합군과 카톨릭 연합군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츠빙글리는 군대의 종군 목사로 전장에 있었고, 전투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쓰러졌다. 카톨릭 군인들은 부상당한 츠빙글리를 발견한 뒤 그의 신앙 고백을 요구했으나 츠빙글리가 이를 거부하자 현장에서 즉시 처형했다.

그의 죽음 이후 시신은 모욕을 당했다. 카톨릭 군대는 츠빙글리의 시신을 사지를 찢고, 심장을 도려내고, 몸을 불태우는 등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훼손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재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도록 내버려졌다. 이는 츠빙글리와 그의 영향력을 완전히 지워 없애려는 상징적 조치였다.

츠빙글리는 47세에 죽었다. 그의 개혁은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가 계승했고 나중에 존 칼빈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츠빙글리의 유산

츠빙글리는 스위스 독일어권 지역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고 그의 개혁은 취리히, 베른, 바젤 등의 도시로 확산되었다. 그의 신학은 개혁교회 전통의 기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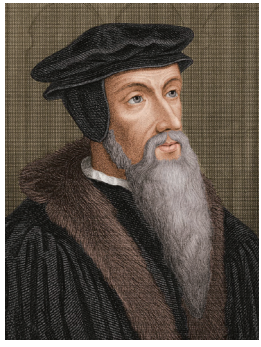
츠빙글리는 루터보다 일부 측면에서 더 급진적이었다. 그는 예배에서 성경에

없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 했고 결국 성상, 음악, 화려한 의식을 모두 없앴다. 이러한 단순함은 개혁교회의 특징이 되었다.

그러나 츠빙글리도 교회론에서는 중세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역시 국가 교회를 유지했고 유아 세례를 옹호했으며 재침례교인을 박해했다. 침례교의 관점에서 츠빙글리는 불완전한 개혁자였다.

존 칼빈(1509-1564) -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의 초기 삶과 회심


존 칼빈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누아용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대성당의 행정관이었고 상류층과 연결되어 있어서 칼빈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칼빈은 처음에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 그는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나 아버지가 법학이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여 칼빈을 오를레앙과 부르주로 보내 법학을 공부하게 했다. 칼빈은 뛰어난 학생이었고 1532년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칼빈의 진정한 관심은 인문학과 신학이었다. 그는 고전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배웠고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다. 1532년 그는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저작에 대한 주석서를 출판했다.

1533년경 칼빈은 회심을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시기와 방법은 알 수 없다. 칼빈 자신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썼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내 마음을 복종시키셨다.”

칼빈은 루터의 저작들을 읽었고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였으며 결국 로마 카톨릭과 결별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칼빈은 1534년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로 갔다.

「기독교 강요」 출판

1536년 칼빈은 26세에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출판했다. 이 책은 개신교 개혁 신학의 체계적인 설명이었다.

초판은 비교적 작았다(6장). 그러나 칼빈은 평생 동안 이 책을 계속 확장하고 개정했고 최종판(1559)은 4권 80장의 방대한 저작이 되었다.

「기독교 강요」는 개혁 신학의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가 되었다. 칼빈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설명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죄, 구원, 교회, 성례전, 기독교인의 삶 등을 다루었다.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했고 이것이 나중에 '칼빈주의'의 특징이 되었다.

제네바에서의 사역

1536년 칼빈은 제네바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단지 하룻밤만 머물 계획이었으나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이라는 개혁자가 칼빈을 만나 제네바에 머물면서 개혁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파렐은 매우 열정적으로 요청했고 칼빈이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칼빈을 저주하실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칼빈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는 조용히 학문 연구를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에서 엄격한 개혁을 시도했다. 그들은 교회 규율을 확립하려 했고 도덕적 기준을 높이려 했다. 그러나 제네바 시민들은 이를 너무 엄격하다고 느꼈고 1538년에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프랑스 난민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설교하고 가르치고, 주석과 변증서를 집필하며 비교적 평안한 시기를 보냈다.

1540년, 그는 이델레트 드 뷔르(Idelette de Bure)와 결혼했다. 이델레트는 재침례교 지도자였던 첫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데리고 살던 과부였으며 남편과 함께 한때 재침례교 운동과 연관된 삶을 살았다. 그녀는 첫 남편이 죽은 뒤

재침례교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었고 칼빈과 결혼한 후에는 개혁파 신앙을 따랐다. 그러나 1541년 제네바 시 의회가 칼빈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자 칼빈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1541년 9월 13일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왔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제네바의 개혁

칼빈은 제네바를 기독교 모범 도시로 만들려 했다. 그는 교회와 시 정부가 협력하는 체제를 확립했다. 교회는 영적 사안을 담당하고 시 정부는 세속 사안을 담당했지만 둘은 긴밀하게 협력했다.

칼빈은 '교회 규례'를 작성했는데, 이는 교회의 조직, 직분, 규율을 정한 문서였다. 칼빈은 네 가지 직분을 확립했다. 목사(말씀을 설교함), 교사(교리를 가르침), 장로(규율을 감독함), 집사(가난한 자를 돌봄).

칼빈은 '당회'도 조직했고, 이는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기구로 교회 규율을 담당했다. 당회는 매주 모여 시민들의 도덕적 행동을 조사했는데 여기에는 술 취함, 도박, 춤, 연극, 간음, 이단 등이 포함되었다. 잘못이 발견되면 경고, 견책, 성찬 정지, 파문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칼빈의 제네바 개혁은 매우 엄격했다.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야 했고 술집 출입이 규제되었다. 아이들의 이름은 성경적이어야 했고 음악, 춤, 연극이 제한되었으며 의복도 규제되었다.

이러한 엄격함은 많은 반발을 일으켰다. 일부 제네바 시민들은 칼빈의 '독재'를 싫어했고 특히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그룹이 칼빈을 반대했다. 그들은 칼빈이 외국인(프랑스인)이면서 제네바를 통제하려 한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칼빈은 점차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많은 개신교 난민들이 제네바로 왔고 그들은 칼빈을 지지했다. 1555년 칼빈의 반대자들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면서 칼빈의 입지가 확고해졌다.

칼빈의 신학

칼빈의 신학은 몇 가지 핵심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다.

1. 하나님의 주권: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 심지어 마귀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2. 예정론: 칼빈은 이중 예정을 가르쳤는데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고(선택), 어떤 사람들은 멸망하도록 예정하셨다(유기)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공로나 의지와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른 것이다.

이 교리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칼빈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었고 로마서 9장과 에베소서 1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칼빈은 이 교리가 인간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3. 전적 타락: 칼빈은 인간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가르쳤다. 즉, 인간은 타고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참된 선을 행할 수도, 구원에 어떤 공로를 더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은혜로 완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때때로 "인간의 부패가 곧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다."라는 방식으로 오해되곤 한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인간의 도덕적, 영적 부패를 가리키지 인간이 의지나 선택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까지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의롭거나 구원받게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며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존재로 제시한다.

따라서 타락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하지, 인간의 책임과 반응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가르쳤다(이는 나중에 '제한 속죄'로 알려졌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성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요 3:16, 고후 5:15; 히 2:9; 요일 2:2; 딤전 2:4–6).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 믿는 자에게 적용된다고 가르칠 뿐, 그 죽음의 범위 자체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화평 헌물이 되셨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분명히 선언한다. 그러므로 제한 속죄는 성경이 밝히 말하는 명백한 진리, 곧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 사역'이라는 선언과 충돌한다.

5. 성화: 칼빈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칭의(의롭다 인정받음)와 성화(거룩하게 됨)는 분리될 수 없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낳는다. 이는 칼빈이 경건한 삶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칼빈의 추종자들은 그의 신학을 'TULIP'이라는 다섯 가지 요점으로 정리했다.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다.

칼빈의 한계

칼빈도 루터나 츠빙글리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칼빈은 유아 세례를 강력하게 옹호했고 언약 신학을 발전시켜 유아 세례를 정당화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구약에서 언약의 표시가 할례였다면 신약에서는 침례가 언약의 표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유아가 할례를 받았듯이 신약 시대에도 신자의 유아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증은 정교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다. 신약 성경은 언약 공동체를 다르게 정의한다. 신약의 언약 백성은 육적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갈 3:7).

둘째, 칼빈은 제네바에서 교회와 국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었고 결국 모든 제네바 시민은 개혁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유아 세례는 의무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의무였으며 개인의 선택권은 없었다.

칼빈은 이론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기능을 구분하면서 교회는 영적 사안을 다루고 국가는 세속 사안을 다룬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둘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당회가 도덕적 잘못을 발견하면 시 정부가 처벌했고 시 정부가 교회의 결정을 집행했다.

이는 정교분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교 협력이었고 사실상 정교 결합이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셋째, 칼빈의 가장 큰 오점은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1511–1553)의 처형이다. 세르베투스는 스페인 출신의 학자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창조물이라고 주장했다(이는 4세기 아리우스의 이단과 유사하다).

세르베투스는 1553년 제네바로 왔는데 칼빈은 그를 체포하도록 했다. 세르베투스는 재판을 받았고 이단으로 정죄되었으며 제네바 시 의회는 그를 화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칼빈과 세르베투스

칼빈은 세르베투스의 처형을 지지했다. 칼빈은 세르베투스에게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라고 권했지만 세르베투스는 거부했다. 칼빈은 세르베투스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으므로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유일하게 화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요청했으나(이것이 더 인도적이라고 생각했다) 시 의회는 화형을 고집했다.

1553년 10월 27일, 세르베투스는 제네바에서 화형당했다. 그는 불길 속에서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 (만약 그가 "아들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즉 단어 순서를 바꾸어 말했다면 그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신념을 끝까지 고집했다).

세르베투스의 처형은 칼빈에게 큰 비판을 가져왔고 심지어 일부 개신교인들도 칼빈을 비판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돌아온 직후 제네바에서 함께 일하던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 1515–1563)는 '이단을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2]

그러나 칼빈은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다. 그는 이단이 영혼을 죽이는 것이므로 이단을 처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신명기 13장(거짓 대언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칼빈의 가장 큰 실수였다. 세르베투스의 신학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는 삼위일체를 부정했고, 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진리는 칼로 강요할 수 없고 사랑과 설득으로 전해져야 한다.

세르베투스 사건은 침례교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이는 국가가 종교적 잘못을 처벌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가 국가 권력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정교분리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필수적인 원칙이다.

넷째, 칼빈도 재침례교인들을 박해했다. 그는 재침례교인들이 교회와 사회를 파괴한다고 보았다. 그는 그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언약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고 기독교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재침례교도들을 '미친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교리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재침례교 운동이 질서와 국가 권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보았고 그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제네바에서도 재침례교도들은 여러 차례 체포되거나 추방되었으며 칼빈은 이러한 조치들을 신학적으로 지지했다. 비록 재침례교도 처형은 제네바보다는 다른 스위스 도시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지만, 칼빈의 사상은 당시 재침례교 탄압 분위기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

2. 제네바의 신정국가 체제 아래에서 형성된 칼빈의 강압적 질서에 맞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오의 경험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바오 출판사, 2009)에서 강렬한 대비와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다.

칼빈의 유산

칼빈의 영향은 매우 컸다. 그의 「기독교 강요」는 개신교 개혁 신학의 표준 교과서가 되었고, 그의 성경 주석은 신약의 거의 전체와 구약의 많은 부분을 다루며 오늘날까지 연구되고 있다. 또한 수천 편에 이르는 그의 설교는 강력하고 실제적이며, 개혁교회의 신학과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칼빈은 제네바를 '개신교의 로마'로 만들었다. 유럽 전역에서 개신교 학생들이 제네바로 와서 칼빈 아래서 공부했고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개혁을 전파했다. 프랑스의 위그노,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영국의 청교도들이 모두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

칼빈의 신학은 '개혁 신학' 또는 '칼빈주의'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루터파와 구별되는 개신교의 한 흐름이 되었다. 오늘날 장로교, 개혁교회, 회중교회, 일부 침례교회가 칼빈주의 신학을 따른다.

그러나 칼빈도 교회론에서는 중세의 틀을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국가교회를 유지했고 유아 세례를 옹호했으며 이단을 박해했다. 침례교의 관점에서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였지만 불완전한 개혁자였다.

기타 개혁자들

멜란히톤 필립 멜란히톤(Philip Melanchthon, 1497–1560)은 루터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다. 그는 뛰어난 학자이자 교육자였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Augsburg Confession, 1530)을 작성했는데, 이는 루터파의 핵심 신앙고백이 되었다. 멜란히톤은 루터보다 온건했고 카톨릭과의 화해를 모색했다. 그는 루터가 죽은 후 루터파 신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부처 마르틴 부처(Martin Bucer, 1491–1551)는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였고 루터파와 츠빙글리파 사이를 중재하려 했다. 그는 교회 규율과 목회 돌봄을 강조했고 나중에 영국으로 가서 영국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불링거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츠빙글리가 죽은 후 취리히 개혁을 이끌었고 44년 동안 취리히의 지도자로 지냈다. 그는 많은 저술을 남겼고 유럽 전역의 개혁자들과 서신을 교환했다. 그는 '제2차 헬베틱 신앙 고백'(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6)을 작성했는데, 이는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다.

녹스 존 녹스(John Knox, 1514–1572)는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 제네바에서 칼빈과 교류하며 칼빈주의 신학과 제네바의 교회 정치 모델을 배웠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장로교 체제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녹스는 용감하고 타협하지 않는 설교자로, 로마 카톨릭 신앙을 지킨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말했다.

종교 개혁의 공과 - 위대한 회복과 명백한 한계

위대한 회복

종교 개혁은 위대한 운동이었다. 개혁자들이 회복한 진리들을 정리해 본다.

1. **오직 성경**: 성경만이 최종 권위이다. 교황도, 전통도, 이성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혁명적인 원칙이었다. 이는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판단할 권리를 주었다.
2.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는 복음의 핵심이며 사람들을 미신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켰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례전과 선행으로 구원을 사려 하지 않아도 되었다.
3.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 이는 인간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높이다.

4.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마리아도, 성인들도, 사제들도 필요하지 않다. 이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강조한다.

5. 전 성도 제사장직: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며 특별한 사제 계급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6. 성경의 자국어 번역: 루터의 독일어 성경, 틴데일의 영어 성경 등이 출판되었다.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7. 교황권의 독점 타파: 로마 카톨릭의 독점이 깨지고 더 이상 교황만이 기독교를 정의하지 않았다. 다양한 개신교 교회들이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진보였다. 복음이 다시 선포되었고 수백만 명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명백한 한계

그러나 침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 개혁은 완전하지 않았다. 개혁자들이 회복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다.

1. 유아 세례 유지: 모든 주요 개혁자들이 유아 세례를 유지했다. 이는 신약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은 신자 침례만을 가르친다. 유아 세례를 유지함으로써 개혁자들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 국가 교회 체제의 유지: 개혁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유지했다. 루터는 제후들에게 의존했고 칼빈은 제네바 시 정부와 협력했으며 츠빙글리는 취리히 시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시민권과 교회 회원권은 여전히 동일했다. 이는 신약 성경의 자발적 교회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정교분리의 부재: 개혁자들은 정교분리를 확립하지 못했다. 교회는 여전히 국가 권력을 사용했고 국가는 여전히 종교를 강제로 주입했다.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강제였다.

4. 양심의 자유 부정: 개혁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위해 싸웠지만 다른 사람들의 양심은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단을 박해했다. 루터는 재침례교인과 유대인들을 박해했고 츠빙글리는 재침례교인을 처형했으며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다.

5. 교회 규율의 국가 집행: 개혁자들은 교회 규율을 국가가 집행하도록 했다. 교회가 이단이나 도덕적 잘못을 판결하면 국가가 처벌했는데, 이는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이다.

6. 회중 정치의 부재: 칼빈은 장로 제도를 발전시켰지만 진정한 회중 정치는 확립되지 않았다. 일반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에서 제한된 역할만 했고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회중의 자치는 회복되지 못했다.

결론 - 불완전한 개혁과 침례교의 부름

종교 개혁은 위대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개혁자들은 "무엇을 믿느냐?"(교리)에서는 크게 진전했지만, "교회란 무엇인가?"(교회론)에서는 중세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루터, 칼빈, 츠빙글리는 모두 복음의 핵심을 회복했다. 그들은 구원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재발견했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했으며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강조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개혁자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그들은 신약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국가 교회를 유지했고 유아 세례를 고수했으며 이단을 박해하고 양심의 자유를 부정했다. 그들은 교회를 지역 공동체 전체와 동일시했고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로 보지 못했다.

왜 개혁자들은 더 나아가지 못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전통의 무게였다. 천 년 이상 지속된 관습을 바꾸는 것은 어려웠고 유아 세례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둘째, 사회적 현실이었다. 당시 사회에서 교회와 국가를 분리한다는 것은 상

상하기 어려웠다. 유아 세례는 출생 등록이었고 시민권 부여였으므로 이를 없앤다는 것은 사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다.

셋째, 정치적 필요성이었다. 개혁자들은 제후들과 시 정부의 보호가 필요했다. 카톨릭의 박해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세속 권력의 지지가 필수적이었으므로 그들은 타협했다.

넷째, 신학적 확신이었다.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성경적이라고 진정으로 믿었다. 그들은 언약 신학으로 유아 세례를 정당화했고 구약의 신정 정치를 근거로 교회와 국가의 협력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명백하다. 종교 개혁은 반쯤만 이루어졌다. 교리는 개혁되었지만 교회론은 개혁되지 못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다. 루터가 문을 열었고 재침례교인들이 그 문을 통해 더 나아갔고 침례교가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신약 교회의 완전한 회복이다. 성경만을 따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은혜만을 자랑하는 교회이다.

개혁자들은 증인들이며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었지만 그들도 완전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회복한 진리에 감사하면서도 그들이 회복하지 못한 진리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눈은 개혁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 그분만이 완전하시다. 그분만이 교회의 참된 머리이시므로 그분을 따라 우리는 계속 전진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 12:1–2)

Check Point

16세기 종교 개혁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종교 개혁의 정신을 잃고 자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며 자신을 점검하는 지속적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2. 나는 개혁된 교리에는 만족하면서도 개혁되지 못한 교회론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경적 원리로 재점검하려는 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나는 진리를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앙 때문에 불이익·손실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설 결단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4. 나는 내가 거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양심의 자유만 주장하고 타인의 양심의 자유는 억누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5. 나는 국가 권력에 의존하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특권을 추구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경계해야 한다.

6. 나는 전통의 관성에 빠져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전통이나 교단 체계보다 성경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명령을 우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나는 '반쯤 개혁된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신약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부분적 개혁에 안주하지 않고 신약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려는 소명을 붙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History of The New Testament Church

Baptist Church and Religious Liberty

Part 2

신약 교회 회복 운동으로서의 침례교

신약 교회 원리의 부흥 500년의 신실한 증언

제2부는 "침례교가 어떻게 신약 교회의 원형을 회복했는가?"를 다루며, 16세기 재침례교에서 출발한 500년의 흐름을 추적한다. 종교 개혁이 부분적 개혁에 머물러 있을 때, 스위스의 재침례교인들은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양심의 자유, 정교분리라는 신약 교회의 원리를 실제로 회복했다. 이 운동은 순교로 시작되었고, 이후 영국 분리주의 속에서 스마이스와 헬위스를 통해 최초의 영국 침례교회가 조직되었다.

17세기 신대륙에서는 청교도 신정 국가와 달리 윌리엄스가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를 세워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보장된 종교 자유를 확립했다. 이어 18세기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제퍼슨과 매디슨에게 깊은 영향을 주어, 버지니아 종교 자유 법안과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미국의 침례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 권리인 영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속에서 급성장했고, 케리와 저드슨 등의 선교로 전 세계에 확장되었다. 21세기에 이르러 침례교는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를 제외한 기독교계 최대 교파로 성장했다.

침례교가 지키려 했던 신약 성경의 다섯 기둥은 모든 시대에 유효한 신약 교회의 원리이며, 그 승리의 증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Chapter 8

스위스 재침례교회

신앙의 자유를 향한 여정의 출발

AD 1525-1530

재침례교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뮌스터의 광신적 폭동, 과격한 종말론, 사회 질서 파괴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정말 재침례교인들이 그렇게 위험한 집단이었는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 침례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들은 카톨릭뿐 아니라 루터파와 츠빙글리에게까지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물에 끌려가 수장되어 죽어야 했는가? '오직 성경'을 외치던 개혁의 한복판에서 왜 바로 그 성경대로 믿고 교회를 세우려 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단으로 정죄되었는가?

이 장에서는 스위스 취리히 개혁의 중심에서 재침례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최초의 신자 침례와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이 어떤 핵심 원리들을 세웠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그들이 왜 유아 세례와 국가 교회 체제, 그리고 강제된 신앙을 거부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혹독한 박해와 순교를 겪었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재침례교가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정교분리, 양심의 자

유라는 원리를 통해 후대 침례교와 근대 자유 사회에 어떤 출발점을 제공했는지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

개혁의 불길이 알프스를 넘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95개조 논제를 게시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종교 개혁의 불길은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독일에서 시작된 개혁 운동은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에도 도달했는데 당시 스위스는 독일과는 다른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강력한 황제나 제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치적인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었으며 각 도시는 시 의회가 다스렸고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권을 누렸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종교 개혁에 독특한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는 제후들이 종교 개혁을 지지하거나 반대했지만 스위스에서는 각 도시의 시 의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 개혁은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될 수 있었다.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스위스 종교 개혁의 중심지는 취리히였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리마트 강이 흐르는 곳에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으며 지적 활동이 활발했다. 이곳에서 개혁이 시작되었고 또한 이곳에서 개혁보다 더 급진적인 운동이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재침례교 운동이었다.

울리히 츠빙글리 - 스위스의 개혁자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는 1484년 1월 1일, 스위스의 빌트하우스라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뛰어난 학생이었고 바젤 대학교와 빈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배웠으며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1506년에 사제로 서

품을 받은 후 여러 곳에서 사역했고 1519년 1월 1일 취리히의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 교회의 사제로 부임했다.

취리히에 도착한 츠빙글리는 혁신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전통적인 미사 본문을 따라 설교하는 대신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강해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한 구절씩, 한 장씩 설명해 나갔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접근이었다. 중세 교회에서 설교는 교회력에 따라 정해진 본문을 다루는 것이었고 사제의 개인적 해석보다는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달랐다. 그는 성경 본문 자체를 깊이 파고들었고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빛으로 검토했다. 그의 설교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듣게 되었다.

취리히 개혁의 진행

츠빙글리는 개혁을 점진적으로 진행했다. 1522년 그는 사순절 금식 규정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그의 지지자들이 사순절 기간에 소시지를 먹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큰 논쟁이 촉발되었고, 츠빙글리는 금식은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의 전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523년 1월, 취리히 시 의회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츠빙글리는 67개조 논제를 제시했고 이를 성경으로 변호했지만 카톨릭 측은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시 의회는 츠빙글리의 편을 들었고 개혁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취리히 종교 개혁의 공식적인 시작이었다.

그 후 츠빙글리는 여러 개혁을 단행했다. 교회에서 성상들을 제거했고 화려한 미사 의식을 단순화했으며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폐지했다(그 자신도 1524년에 결혼했다). 뿐만 아니라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다. 그는 '오직 성경'의 원리를 선포했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츠빙글리는 많은 면에서 루터보다 더 급진적이었다. 그는 주의 만찬에 대해 루터와 다른 견해를 가졌다. 루터는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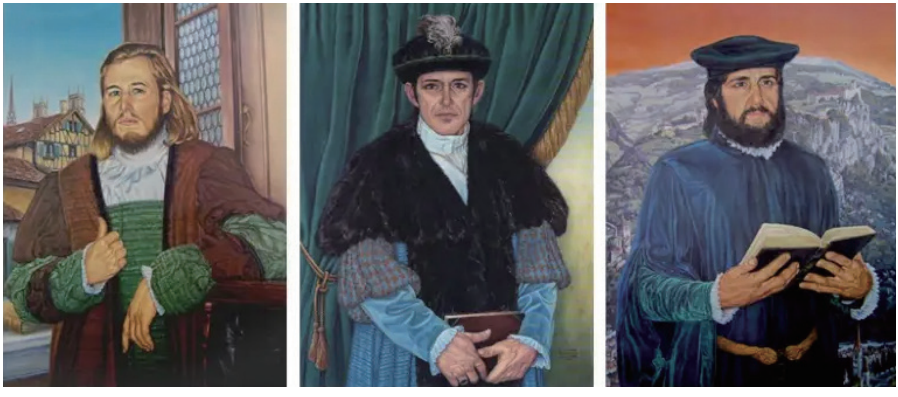
도의 몸과 피가 있다고 믿었지만 츠빙글리는 주의 만찬이 단순히 기념 의식이라고 보았다. 그는 교회에서 음악도 제거했고 오르간도 찬송도 없이 오직 설교와 기도만으로 예배를 드렸다.

젊은 급진파들 -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츠빙글리의 개혁에 열정적으로 동참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했고 토론했고 개혁을 지지했다. 그중에 몇몇은 츠빙글리의 가장 열렬한 제자들이자 협력자들이 되었다. 콘라트 그레벨(Conrad Grebel, c.1498–1526), 펠릭스 만츠(Felix Manz, c.1498–1527), 게오르그 블라우록(Georg Blaurock, c.1491–1529)이 그들이었다.

그레벨은 취리히의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빈 대학교와 파리 대학교에서 공부한 지식인이었다. 그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에 능통했고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다. 처음에 그는 세속적 삶을 살았지만 츠빙글리의 설교를 듣고 깊은 영적 변화를 경험했다. 그는 츠빙글리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만츠도 교육받은 가정 출신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취리히 대성당의 참사회원이었다. 만츠는 탁월한 성경학자였고 특히 히브리어에 능통해서 구약 성경



왼쪽부터 펠릭스 만츠, 콘라트 그레벨, 게오르그 블라우록

을 원어로 읽고 연구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확고함을 가지고 있었다.

블라우록은 앞의 두 사람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원래 카톨릭 사제였다. 그는 결혼했는데, 이는 당시 카톨릭 사제에게는 금지된 일이었다(그의 별명은 '파란 외투'였는데, 그가 사제복 대신 평민의 파란 외투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열정적이고 대담한 성격이었다. 그는 뛰어난 설교자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다.

성경 연구와 급진적 발견

이 세 사람과 다른 여러 젊은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성경을 공부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원어로 읽었고 초대 교회의 모습을 연구했으며 그것을 당시 교회와 비교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급진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바는 다음과 같았다.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교회와 16세기 교회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다. 신약 교회는 자발적이고 회심한 신자들로 구성되었지만 16세기 교회는 강제적이고 전체 인구를 포함했다. 신약 성경에서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16세기에는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주어졌다.

신약 교회는 국가와 독립적이었지만 16세기 교회는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그들을 고민에 빠뜨렸다.

"만약 신약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라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만약 '오직 성경'이 우리의 원리라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왜 하고 있는가?"

그들은 츠빙글리에게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왜 유아 세례를 계속하는가?"

"왜 교회가 여전히 시 의회의 통제 아래 있는가?"

"왜 개혁이 정치적으로 편리한 속도로만 진행되는가?"

그들은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주장했다.

츠빙글리와의 간극

츠빙글리는 점점 불편해졌다. 그는 이 젊은이들이 너무 성급하고 비현실적이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개혁이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급진적 변화는 혼란을 초래하고 개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그룹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다. 츠빙글리에게 개혁은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 개혁이었지만 젊은 급진파들에게 개혁은 성경적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 츠빙글리에게 현실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한했지만 젊은 급진파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령했다. 충돌은 불가피했다.

유아 세례 논쟁 - 갈등의 폭발

갈등이 폭발한 지점은 유아 세례 문제였다. 이는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고 교회론, 국가론, 사회 구조 전체와 연결된 폭발적인 이슈였다.

중세 이래로 유아 세례는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출생 등록이었고 시민권 부여였으며 사회 편입이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내에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 의식을 통해 아기는 다음의 것들을 얻었다.

- 교회의 회원이 됨
- 기독교 세계의 일원이 됨
- 시민으로 등록됨
- 법적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정받음
- 세금 납부 의무자가 됨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종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의미했다. 세례

를 받지 않은 아이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상속권도 없었으며 기독교인 묘지에 묻힐 수도 없었다.

더 나아가 유아 세례는 국가 교회 체제의 핵심이었다. 유아 세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와 사회는 동일한 범위를 가졌다. 취리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취리히 교회의 일원이었으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곧 사회를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급진파들의 성경적 발견

그레벨, 만츠, 그리고 동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신약 성경은 유아 세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찾은 모든 침례 사례는 다음의 순서를 따랐다.

① 복음 선포 ② 듣고 믿음 ③ 회개 ④ 침례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행 8:37–38)

항상 믿음이 먼저이고 침례가 그다음이었다.

그들은 또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다. 교회는 한 지역의 모든 주민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클레시아)의 공동체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교회이다.

만약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유아 세례는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요소이다. 유아 세례를 통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한 지역의 모든 주민'으로 변질되고 만다.

츠빙글리와의 격렬한 논쟁

그레벨 일행은 츠빙글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들은 여러 차례 만나 토론했다. 1523년부터 1524년에 걸쳐 긴장은 고조되었다. 츠빙글리는 처음에는 유아 세례가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했으나 실천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츠빙글리의 논리는 이러했다.

"유아 세례를 폐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시민이 아니게 된다.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더 나아가 시 의회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강요하면 시 의회는 개혁 전체를 중단시킬 것이고 우리는 이미 얻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젊은 급진파들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레벨은 이렇게 대답했다.

"형제여, 당신은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 그리고 시 의회의 승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시 의회가 금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시 의회의 개입과 최후통첩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1524년 여름과 가을 동안 여러 공개 토론회가 열렸으나 츠빙글리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고 젊은 급진파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1524년 10월, 취리히 시 의회가 개입했고 의회는 모든 주민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자는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1525년 1월 18일, 시 의회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레벨, 만츠, 그리고 다른 반대자들은 취리히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만약 떠나지 않으면 투옥된다고 통보했다. 더 나아가 모든 부모는 8일 이내에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명령했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추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명령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젊은 개혁자들은 "시 의회에 순종하고 자신들의 확신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과를 감수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해야 했다.

1525년 1월 21일 - 재침례교의 탄생

역사적인 밤

1525년 1월 21일 저녁, 취리히의 한 집에서 소규모 모임이 있었다. 정확한 장소는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도 만츠의 어머니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곳에 그레벨, 만츠, 블라우록,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사흘 전에 시 의회의 명령이 내려졌고 그들은 취리히를 떠나야 했다.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들을 설득하려 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라. 타협하라. 시간을 가지라. 지금 싸우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의견 차이가 아니었고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가족, 그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만약 그들이 시 의회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범죄자가 될 것이다. 재산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쫓겨 다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다.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들은 성경을 펼치고 함께 기도했다. 그들은 초대 교회의 사례들을 다시 읽었다.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행 5:29)

그들은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비록 그것이 고난을 의미하든, 박해를 의미하든, 심지어 죽음을 의미하든지 간에.

최초의 신자 침례

그때 블라우록이 일어서서 그레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레벨 형제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청하오니 나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주시오."

이 순간은 매우 중요했다. 블라우록은 이미 유아일 때 세례를 받았고 카톨릭 사제로 서품을 받을 때에도 세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이 성경적 침례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으로서 성경대로 침례를 받기를 원했다.

그레벨도 긴장되었을 것이다. 블라우록에게 침례를 주는 순간 그는 취리히 시의회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며 반역자가 된다. 그러나 그레벨도 결단했다. 그레벨은 물 한 그릇을 가져와서 블라우록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레벨은 블라우록의 머리에 물을 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다."[1]

그 순간부터 재침례교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신

1. 재침례교 운동의 첫 침례는 한겨울에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이나 호수에서 침수(immersion)로 시행할 수 없었다. 그날 모였던 그레벨, 블라우록, 만츠 등은 방 안에서 관수(affusion,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로 침례를 받았고, 이후 계절이 풀리고 안전한 장소가 확보되자 강이나 흐르는 물에서 신약 성경의 침수 침례를 행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개인의 신앙 고백 이후에 다시 성인 침례를 받았다는 점이며 이것이 재침례교 운동의 출발을 결정지은 본질적 사건이었다.

약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는 역사적 결단이었다. 블라우록은 침례를 받은 뒤 다시 일어나 그레벨과 만츠,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던 이들에게 차례로 침례를 주었다. 그날 밤, 그 작은 방에서는 중세 이후 처음으로 신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교회가 탄생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곧 닥칠 고난에 대비해 마음을 굳게 다졌다.

최초의 재침례 장면

새로운 원리들의 확립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단순히 침례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었고 교회론 전체의 혁명이었다. 그 작은 모임에서 여러 가지 혁명적 원리들이 확립되었다.

1. **신자 침례:**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아기는 아직 믿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없다. 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2. **자발적 교회:** 교회는 출생이나 국적으로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으로 가입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더 이상 사회 전체와 동일하지 않으며 교회는 사회 안의 구별된 공동체이다.
3. **정교분리:** 이는 아마도 가장 혁명적인 원리였을 것이다. 만약 교회가 믿는 자들의 자발적 공동체라면 국가는 교회를 강제할 수 없고 반대로 교회도 국가 권력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원리는 천 년 이상 지속되어 온 기독교계의 국가교회 개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다.
4. **양심의 자유:**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믿을 권리가 있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강제할 수 없다.

5. 회중 정치: 각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율적 공동체이며 교황도, 주교도, 시노드[2]도 지역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재침례교의 신학과 실천 -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

1525년 1월 21일의 침례 사건 이후 재침례교 운동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레벨, 만츠, 블라우록은 취리히 주변 지역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재침례를 받았고 작은 공동체들이 형성되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신학적 정리의 필요성이 생겼다. 재침례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그들의 실천은 무엇인가?

슐라이트하임 모임

1527년 2월 24일, 스위스와 독일 국경 근처의 슐라이트하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재침례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사틀러(Michael Sattler, 1490–1527)였다. 사틀러는 원래 베네딕트 수도회 수도사였다가 개혁 운동에 합류했고 재침례교인이 되었다. 이 모임에서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재침례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초기 문서 중 하나이며 후대 침례교 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 7개 조항

제1조: 침례 "침례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고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2. 노회(Presbytery)는 한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 이루는 기본 단위의 회의체이다. 반면에 시노드(Synod)는 여러 노회가 함께 모여 구성하는 더 상위 단계의 회의로 지역 전체의 교리·행정 문제를 다루는 광역 회의체이다.

유아 세례는 명백히 거부되었다. 침례는 '믿음의 서약'이고 믿을 수 없는 유아에게는 주어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언했다. 이는 재침례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였다.

제2조: 파문(출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한다. 만약 누군가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권면하고 경고해야 한다. 만약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사람을 교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마 18:15–17). 이는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재침례교는 교회가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공동체'이기를 원했다.

제3조: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오직 침례를 받은 신자들만 참여할 수 있고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상징하므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 주의 만찬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표현하는 것이다.

제4조: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사는 체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오락,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이는 문화적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별을 의미한다. 재침례교인들은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다.

제5조: 목회자 각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하며 목회자는 교회가 선택해야 하고 외부 권위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의 역할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의 만찬 및 침례 같은 규례를 집행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다. 목회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다. 이는 회중 정치의 원리를 확립한 것이다.

제6조: 칼 이는 가장 논쟁적인 조항이었다. 재침례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칼', 즉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인은 군인이 될 수 없고 치안 판사가 될 수 없고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마 26:52)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는 재침례교인들이 철저한 평화주의자들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비폭력을 실천했고 원수를 사랑했으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다. 이것이 그들

이 국가 권력과 결합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였다. 국가는 칼을 사용하지만 교회는 칼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맹세 그리스도인은 맹세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마 5:34). 그 결과 재침례교인들은 법정에서 맹세를 거부했고 충성 서약을 거부했다. 그들의 '예'는 '예'이고, '아니요'는 '아니요'였다. 이것만으로 충분해야 한다. 이는 당시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의 의의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은 재침례교 운동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한 문서였다. 이 신조에 담긴 원칙들은 재침례교를 다른 개신교 그룹과 뚜렷하게 구별시켰다. 루터파와 개혁파는 여전히 국가 교회 체제를 유지했고 유아 세례를 시행했으며 그리스도인이 군 복무나 치안 직무를 맡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침례교인들은 이러한 모든 관행을 거부했다.

이 신앙 고백은 후대의 침례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침례교는 비록 평화주의(제6조)나 법정에서의 맹세 반대(제7조)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신자 침례, 교회의 순수성, 회중 정치, 그리고 세상과의 구별과 같은 핵심 원리들은 침례교 신학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박해의 시작과 확산

당국의 두려움

취리히 시 당국은 재침례교인들을 매우 위험한 집단으로 보았다. 왜 그들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재침례교인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정부를 전복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조용하게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평화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당국이 보기에 재침례교의 원리들은 사회 전체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 출생 등록 체계가 무너진다. 교회를 자발적으로

만들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할 수 없다. 국교 체제가 무너지면 사회 통합이 약화되고 정치적 권위가 위협받게 된다.

당국은 재침례교를 단순한 종교적 이단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위협으로 보았고 재침례교가 확산되면 사회 질서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또한 재침례교는 기존 개혁자들에게도 위협이었다. 츠빙글리는 재침례교가 자신의 개혁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만약 재침례교가 옳다면 츠빙글리의 개혁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된다.

박해의 법적 근거

1525년 3월 7일, 취리히 시 의회는 재침례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재침례를 주거나 받는 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재침례교인들은 멈추지 않았고 비밀리에 모였으며 계속 침례를 주었다.

1526년 3월, 시 의회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재침례를 주는 자는 투옥된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여러 명의 재침례교인들이 체포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추방되었으나 운동은 계속 자라났다.

1526년 11월, 슈파이어 제국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는 재침례에 관한 제국법이 통과되었다. 그들은 재침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선언했고 법령은 명확했다. "재침례를 받거나 주는 모든 남녀는 화형, 참수, 익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 없이 처형될 수 있다."

이 법령은 로마법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근거했는데, 이는 6세기에 도나투스파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다. 그 법이 무려 1,000년이나 지난 뒤에 재침례교인들에게 적용되면서 역사는 반복되었다.

펠릭스 만츠의 순교

1527년 1월 5일, 취리히 리마트 강변에서 펠릭스 만츠가 처형되면서 그는 재침례교 운동의 첫 번째 순교자 중 한 명이 되었다.

만츠는 1526년에 체포되어 투옥되었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계속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재침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당국은 그를 설득하려 했

리마트 강의 펠릭스 만츠 순교 기념비

고 츠빙글리 자신도 감옥을 방문하여 만츠에게 회개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만츠는 거부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성경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1527년 1월 5일, 시 의회는 만츠의 사형을 결정했는데 처형 방법은 수장형이었다. 이는 일종의 잔인한 조롱이었다. "그가 물로 침례를 주었으니, 물로 죽게 하자."

그날 오후, 만츠는 리마트 강변으로 끌려갔고 군중이 모였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신실하라고 외치며 격려했다. 그러나 만츠는 평안했다. 그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계속 기도했다. 그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처형관들은 만츠의 손과 발을 묶었다. 그들은 그를 배에 태웠고 배를 강 한가운데로 저어 갔다. 거기서 그들은 만츠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고 만츠는 가라앉았다 다시 떠올랐다.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다시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번에는 그가 떠오르지 않았다.

만츠는 29세의 나이에 순교했다. 그는 성경을 믿은 죄로, 신약 성경의 교리를 따른 죄로, 신자 침례를 실천한 죄로 죽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기록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틀러의 순교

1527년 5월,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을 이끌었던 사틀러는 아내 마르가레타와 함께 체포되어 독일 로텐부르크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침례교 신앙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판결문에는 "그의 혀를 자르고 뜨거운 쇠로 몸을 일곱 번 지진 뒤 그를 불태워 재로 만들라."는 끔찍한 형벌이 기록되었다.

5월 21일, 이 형벌이 집행되었다. 사틀러는 고문 속에서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화형장 기둥에 묶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증인이 되십시오. 내가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을 보십시오!"라고 외쳤다. 불길이 타오르자 그는 "아버지여,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며 순교했다. 그의 아내 마르가레타 역시 며칠 뒤 근처 강가에서 수장형을 당했다.

박해의 확산

1527년 만츠와 사틀러의 처형은 시작에 불과했다. 재침례교 박해는 곧 스위스 전역으로 번졌고 이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취리히에서 추방된 블라우록은 티롤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침례를 베풀었으나 1529년 9월 6일 체포되어 화형을 당했다. 그는 기둥에 묶인 채 불길 속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기록된다.

그레벨은 1526년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으나 탈옥에 성공했다. 그러나 곧 병에 걸려 같은 해 여름, 아마도 흑사병으로 약 스물여덟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순교로 죽지는 않았지만 재침례교 운동의 신학적, 실천적 기초를 놓은 핵심 인물이었다.

1529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는 약 90명의 재침례교도들이 처형되었고, 1536

년 암스테르담에서도 수십 명이 화형을 당했다. 재침례교인들의 피는 유럽 곳곳에 흘렀고 초기 재침례교 운동은 혹독한 박해 속에서 확산되어 갔다.

생존자들과 운동의 확산

모든 재침례교인들이 순교한 것은 아니었고 많은 이들이 도망쳐 숨었다. 그들은 산속으로, 숲속으로, 외딴 마을로 피신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 밤에 예배를 드렸고 조심스럽게 신앙을 전했다.

일부는 모라비아(현재 체코의 일부)로 갔는데 모라비아의 일부 귀족들이 재침례교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거기서 재침례교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후터(Jakob Hutter, 1500–1536)가 이끄는 그룹은 공동 소유 제도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를 본받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바로 후터파이다. 후터 자신은 1536년 오스트리아에서 화형당했지만 그의 공동체는 살아남았다. 후터파는 유럽에서 지속적인 박해를 받자 19세기 후반 북미로 이주하여 캐나다와 미국 중북부 지역에 정착했고,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공동체(콜로니)를 유지하며 생활·노동·신앙을 함께하는 독특한 공동체적 삶을 이어 가고 있다.

메노 시몬스와 네덜란드 재침례교

네덜란드에서는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c.1496–1561)가 재침례교 운동을 조직하고 가르쳤다. 메노는 원래 카톨릭 사제였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카톨릭의 많은 가르침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화체설을 의심하게 되었다.

1531년 메노는 자신의 형제 피터가 재침례교인으로 체포되어 처형되는 것을 목격했고 이 사건은 메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재침례교인들의 신앙

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메노 시몬스

1536년, 메노는 카톨릭을 떠나 재침례교인이 되었고 즉시 지도자가 되었다. 메노는 뛰어난 지도자였다. 그는 박해받고 흩어진 재침례교인들을 조직하고 가르치며 격려했다. 그는 많은 책과 팸플릿을 썼고 재침례교 신학을 체계화하고 변호했다.

메노는 평생 도망다니며 살았다. 그에게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으므로 그는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사역했고 1561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침례교 운동에 헌신했다.

메노의 추종자들은 '메노나이트'(메노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약 200만 명의 메노나이트가 있다. 그들은 메노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평화주의, 단순한 생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스위스 형제단

스위스의 재침례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 알프스 산맥의 깊은 계곡으로 숨어들었는데, 베른 지역의 에멘탈 계곡이 그들의 주요 피신처 가운데 하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신앙을 지켜나갔다. 사람들은 이들을 스위스 형제단이라 불렀고, 그들은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의 원칙을 지키며 신자 침례, 평화주의, 단순한 삶, 세상과의 구별을 철저히 실천했다.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들 중 일부는 계속되는 박해를 피해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여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와 캐나다 등에 정착했다. 그들 가운데 한 분파는 지도자 암만(Jakob Ammann, 1644–1730)을 따라 더욱 엄격한 분리주의를 추구하게 되었고, 바로 아미쉬가 되었다. 아미쉬는 현대 기술을 거부하며 단순하고 분리된 공동체 생활을 유지했고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에 약 35만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1525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신자 침례의 원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 준다.

뮌스터의 비극 - 재침례교의 오명

재침례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뮌스터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재침례교 운동 전체에 씻기 어려운 오명을 남겼고 유럽 전역의 박해를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534년부터 1535년까지 독일의 뮌스터 시에서는 일부 급진적 재침례교도들이 도시를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의 지도자는 네덜란드 출신의 열광적 인물인 반 라이덴(Jan van Leiden, 1509–1536)이었다. 그는 자신을 '새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선언하며 재산 공유를 강요하고 일부다처제를 도입했으며 반대자들을 처형했다. 그는 천년 왕국이 뮌스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주변의 카톨릭과 루터파 제후들이 연합해 뮌스터를 포위했고, 1535년 6월 마침내 도시는 함락되었다. 반 라이덴과 지도자들은 끔찍한 고문 끝에 처형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철장에 넣어져 성 람베르트 교회 탑에 매달렸다. 그 철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어 당시의 비극을 전한다.

뮌스터 사건은 재침례교 전체에 큰 타격이었다. 이 사건 이후 당국은 모든 재침례교도들을 광신적 혁명가나 위험한 과격파로 간주했고 박해는 더욱 잔혹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수많은 평화로운 재침례교 신자들이 뮌스터와 아무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명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뮌스터 사건은 결코 재침례교 운동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스위스 재침례교도들, 메노나이트들, 그리고 대부분의 재침례교 신자들은 이 사건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메노 시몬스는 분명히 선언했다. "뮌스터의 사람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들은 재침례교의 원리를 배신했다. 우리는 평화를 믿고 비폭력을 실천하며 세상의 권력을 거부한다."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이 무력 사용을 명확히 거부한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급진적 운동과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었다. 주류 재침례교는 뮌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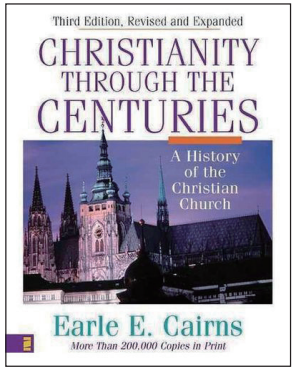
식 폭력 혁명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불공평하다.

뮌스터에서 벌어진 광신과 폭력은 오랫동안 재침례교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했고 '재침례교인'이라는 이름은 '위험한 과격파'라는 의미로 오해되었다. 그 결과 아무 잘못도 없는 수많은 온건하고 평화로운 재침례교 신자들이 뮌스터의 그림자 아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다.

케언스의 재침례교 분류와 그 역사적 의미

재침례교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어 온 오류는, 이 운동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단순화해 온 개신교 교회사의 관점에 있다. 종교 개혁 이후 형성된 주류 교회사 서술은 대체로 루터파와 개혁파, 곧 국가교회 전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 교회 전통을 벗어난 재침례교'는 그 내부에 존재하던 다양한 흐름이 충분히 구분되지 못한 채 교회사 서술의 주요 흐름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재침례교는 서로 다른 신학과 태도를 가진 여러 집단의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일반화되어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재침례교는 종종 무질서나 극단주의, 나아가 이단성과까지 동일시되었고, 이는 침례교 역사 전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사학자 케언스(Earle E. Cairns, 1920–2008)가 그의 저서 「시대를 관통하는 기독교」(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에서 제시한 재침례교 분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케언스는 휘튼 대학교에서 교회사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그의 저서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신학 대학과 신학 대학원에서 표준 교과서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구분은 개인적 신념이나 특정 교단을 옹호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료와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한 학문적 정리로 이해해야 한다.

케언스는 재침례교 운동을 '성경적 재침례교', '극단적 재침례교', '이단적 재침례교'라는 세 부류로 구분한다. 이 구분의 기준은 단순한 행동 양식이나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 성경관, 교회 이해, 그리고 신학적 일관성에 있다.

먼저 '성경적인 재침례교도들'(Biblical Anabaptists)은 재침례교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흐름을 이룬 집단이다.

이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했지만, 이는 기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급진적 행동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다. 이들은 성경을 신앙과 실천의 최종 권위로 인정했으며,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함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무장 봉기나 폭력 혁명을 거부했고 강제 개종이나 종말론적 선동과도 거리를 두었다. 케언스는 이러한 흐름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오늘날의 침례교회들로 이어졌다고 보며 이들을 재침례교 운동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계보로 평가한다.

반면 '극단적인 재침례교도들'(Extreme Anabaptists)은 재침례라는 외형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에서 균형을 상실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개인적 계시와 환상, 종말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성경 위에 두었고 그 결과 사회 질서와 교회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뮌스터 사건은 이러한 극단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종말의 시기를 단정하고 신정 국가 수립을 시도하며 폭력과 강압을 정당화했다.

케언스는 이 집단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재침례교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역사적 왜곡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성경적인 재침례교도들은 이러한 극단적 흐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자신들과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세 번째 부류인 '이단적인 재침례교도들'(Heretical Anabaptists)은 재침례

운동의 틀을 빌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집단들이다. 이들은 성경 외의 추가 계시를 주장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으며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재해석했다. 케언스는 이러한 이단적 경향이 단순히 종교 개혁 내부의 변형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한 새로운 종교 체계로 발전했다고 보았고 그 예로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을 언급한다. 이는 모든 재침례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주장이 아니라, 재침례라는 형식이 반드시 성경적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케언스의 구분은 재침례교 운동을 미화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그 내부에 존재했던 실제 차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종교 개혁 이후 형성된 개신교 교회사 서술이 국교회 체제와 유아 세례를 정당화하는 틀 속에서 이러한 구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침례교는 종종 극단주의나 이단성이라는 이미지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었고 성경적 재침례교 전통은 역사 속에서 가려졌다.

따라서 케언스의 분류를 인정하는 것은 특정 교단을 옹호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재침례교와 침례교의 역사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구분 없이 재침례교를 논할 경우, 침례교의 기원과 정체성,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 교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재침례교가 침례교에 남긴 유산

재침례교와 후대 침례교의 관계는 오랫동안 침례교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였다. 과연 두 운동 사이에 직접적인 조직적 연속성이 있는가? 아니면 영적, 신학적 계승 관계인가?

일부 침례교 역사가들은 '계승론'을 주장하며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부터

침례교와 동일한 원리를 지닌 교회들이 끊이지 않고 존재해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충분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이에 반해 또 다른 학자들은 '영국 기원론'을 주장한다. 즉, 침례교는 17세기 초 영국에서 독립적으로 시작된 운동이며 재침례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더 균형 잡힌 그림을 제시한다. 비록 두 운동 사이에 직접적인 조직적 계승 관계는 없지만 영향과 연결은 분명히 존재했다.

17세기 초 영국 침례교를 이끌었던 초기 지도자들은 네덜란드에서 활동했으며 그곳에서 메노나이트들과 교류했다. 특히 스마이스(John Smyth)는 메노나이트 공동체와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신학과 실천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이해는 이것이다. 침례교는 재침례교의 직접적 조직적 후예는 아니지만 재침례교가 남긴 신학적, 영적 유산을 계승한 후대의 열매라는 점에서 분명한 연속성이 있다. 재침례교가 박해 속에서 피로 확증한 원리들을 침례교가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세계적 운동으로 성장시킨 것이다.

7가지 핵심 유산

스위스 재침례교가 후대 침례교에 남긴 유산을 살펴보자.

1. 신자 침례: 재침례교는 침례가 믿는 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켰고 이는 침례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었다. '침례교도'(Baptist)라는 이름 자체가 이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신자 침례는 단순히 침례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구원론의 문제이고 교회론의 문제이고 자유의 문제이다.

2. 성경의 절대 권위: 재침례교인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따랐다. 그들은 전통이나 교회 권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였다. 이는 침례교의 핵심 원리가 되었다.

3. 자발적 교회: 재침례교는 교회를 자발적 공동체로 이해했다. 사람은 자기

결정으로 교회에 가입하며, 이는 침례교회론의 토대이다. 침례교는 국가 교회를 거부하고 지방 정부가 지정하는 교회 역시 거부한다.

4. 정교분리: 재침례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그룹 중 하나였다. 이는 침례교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가 되었다. 침례교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정교분리가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고 국가를 폭정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다.

5. 양심의 자유: 재침례교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믿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침례교는 이 원리를 계승하여 종교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6. 회중 정치: 재침례교는 각 지역 교회가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믿었고 침례교는 이 원리를 발전시켰다. 침례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다.

7. 순교의 정신: 재침례교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펠릭스 만츠, 미카엘 사틀러, 게오르그 블라우록, 그리고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피가 재침례교 운동의 토대가 되었고 침례교는 이 순교의 정신을 계승했다.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재침례교의 영향은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영국으로,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이어지며 폭넓게 확산되었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영국에서도 국가 교회 체제에 만족하지 못한 분리주의자들이 등장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메노나이트들과 접촉하며 재침례교 전통의 신학과 실천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존 스마이스와 토마스 헬위스 같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영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탄생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곧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이어졌다. 로저 윌리엄스는 재침례교 전통에서 강조해 온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실천하며 로드아일랜드를 세웠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식민지를 만들었다.

이후 이러한 원리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까지 반영되면서 국가 체제

의 기초가 되었다.[3]

이처럼 1525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신앙과 자유의 원리는 영국을 거쳐 미국에까지 전해져, 결국 한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1525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정교분리의 원리는 266년 후 미국 헌법의 근간이 되었다. 만츠가 리마트 강에서 수장형을 당했을 때, 그리고 사틀러가 화형당했을 때 그들의 원리가 훗날 한 나라의 헌법적 기초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결론 - 취리히의 유산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작은 방에서 시작된 거대한 운동

1525년 1월 21일 저녁, 취리히의 한 작은 방에서 일어난 일은 세계사를 바꾸었다. 그날 밤 몇 명의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혁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혁명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부를 전복하거나 권력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학적 혁명이었다. 그들은 천 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교회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국가 교회 체제에 도전했고 유아 세례를 거부했으며 자발적 교회를 주장했다.

그들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신자 침례 — 이 모든 것이 16세기에는 혁명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었다. 이를 주장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다.

---

3.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흔히 한국어로 '수정 헌법 1조'라고 불리지만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해 부정확하다. 미국에는 하나의 헌법만 존재하며, '수정 조항(Amendment)'은 그 헌법을 개정·보완하여 추가된 조항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다. 본서는 의미의 정확성을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한다.

그 작은 방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작하는 일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리가 수백 년 후 한 나라의 헌법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리라고도 꿈꾸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성경에 순종하려 했을 뿐이다. 그들은 단지 진리를 따르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을 사용하셨다. 그들의 피가 씨앗이 되었고 그들의 고난이 토대가 되었으며 그들의 용기가 후대에 영감을 주었다.

침례교 역사에서 재침례교가 갖는 의미

재침례교는 침례교의 영적 뿌리이다. 조직적으로는 직접 연결되지 않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재침례교가 처음 선언한 원리들의 다수는 침례교가 계승한 원리들이다.

재침례교는 침례교에게 순교의 정신을 물려주었다. 침례교 역사도 고난의 역사이다. 침례교인들도 박해받았고 투옥되었고 추방당했지만 재침례교 순교자들의 본을 따라 굴복하지 않았다.

재침례교는 침례교에게 비전을 주었다. 신약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전. 성경의 순수한 원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비전. 국가 권력에 의존하거나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 이 비전이 침례교를 움직여 왔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취리히의 재침례교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성경에 대한 순종은 대가를 치른다. 재침례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 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성경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둘째, 타협은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한다. 츠빙글리는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점진적 개혁을 믿었고 정치적으로 가능한 것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절반에 그쳤다. 반대로 재침례교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순수함을 지켰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단기적 고난은 진리를 타협함으로써 얻는 장기적 안락보다 낫다는 것을.

셋째, 소수가 옳을 수 있다. 1525년 취리히에서 재침례교인들은 극소수였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반대했지만 역사는 재침례교인들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옳지는 않으며 인기 있는 주장이 항상 진리는 아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 재침례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운동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사용하셨다.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했듯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다. 박해는 재침례교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정화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침례교의 정체성

스위스 재침례교의 이야기는 침례교가 무엇인지, 침례교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침례교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교파가 아니며 권력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침례교는 다수의 인기를 얻으려는 운동이 아니며 성경의 순수한 원리를 회복하고 지키려는 운동이다. 침례교는 타협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고난을 의미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소수로 남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침례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실천하려 한다.

이 모든 원리는 1525년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확립되었다. 그날 밤 몇 명의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침례교의 DNA를 형성했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확신, 그들의 순교가 침례교를 만들었다.

우리의 책임

오늘날 우리가 침례교인이라고 자처한다면 우리는 그 유산을 계승한 것이

다. 우리는 펠릭스 만츠의 후예이다. 우리는 미카엘 사틀러의 후계자이다. 우리는 콘라트 그레벨의 영적 자녀들이다. 그들의 피가 우리의 토대이고 그들의 고난이 우리의 유산이며 그들의 원리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걸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 타협하지 않는 길, 성경에 순종하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 이는 쉬운 길이 아니며 인기 있는 길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침례교의 길이다. 이 길이 취리히에서 시작된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다.

1525년 1월 21일 밤,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촛불이 켜졌지만 그 촛불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500년 가까이 계속 타오르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다.

취리히의 유산은 우리의 유산이고 재침례교의 원리는 우리의 원리이며 그들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펠릭스 만츠가 리마트 강에서 죽어 가면서 암송한 시편 23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 주님께서 함께하신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 주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취리히에서 시작된 그 길을, 수많은 순교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침례교의 길을.

Check Point

스위스 재침례교 운동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진정한 신앙을 위해 안락함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앙 때문에 손해와 불편을 감수할 결단이 실제로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2. 나는 전통의 무게에 눌려 성경의 명확한 명령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단 전통이나 관습을 이유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3. 나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신앙의 순수성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원칙보다 유익을 앞세우며 세상의 인정과 편의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4. 나는 소수라는 이유로 나의 신앙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진리의 가치를 흔들리게 두지 않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가 '전체 사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 공동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정교분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국가 권력이 신앙을 규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7. 나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신앙의 책임을 깨닫고 있는가?

순교자들이 지킨 성경적 원칙을 오늘 내 삶에서 실제로 붙잡고 있는지 진지하게 확인해야 한다.

Chapter 9

영국 침례교의 탄생 및 확산

분리주의에서 침례교로

AD 1534-1689

영국 침례교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청교도 나라 영국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보수적 복음주의 전통' 정도로 막연히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16~17세기 영국 교회는 국왕이 머리이고 유아 세례가 시민 등록이며 주일 예배 출석이 법으로 강제되는 전형적인 국가 교회 체제였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회심한 신자들의 자발적 교회, 신자 침례,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침례교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헨리 8세의 정치적 종교 개혁과 '엘리자베스 타협', 그 안에서 몸부림치던 청교도와 분리주의자들, 그리고 감옥과 화형터로 끌려가던 소수 침례교인들의 길은 서로 어떻게 이어졌는가?

이 장에서는 헨리 8세의 종교 개혁과 영국 국교회 체제가 가진 문제를 먼저 짚어 보고, 그 안에서 청교도와 분리주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 침례교의 토양을 만들었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스마이스와 헬위스, 일반 침례교와 특수 침례교의 형성과 신학적 특징, 왕정복고 이후의 박해와 1689년 관용법에 이르기까

지의 과정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영국 침례교가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라는 원리를 통해 후대 침례교와 근대 자유의 역사에 어떤 출발점을 제공했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은 헨리 8세의 이른바 '영국 종교 개혁'이었다.

헨리 8세의 종교 개혁 - 권력의 이동, 복음의 회복은 아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은 대륙의 종교 개혁과는 매우 달랐다. 마르틴 루터는 신학적 확신으로 교회를 개혁했다.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등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싸웠다. 츠빙글리도, 칼빈도 성경 연구에서 나온 신학적 확신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영국의 종교 개혁은 다른 이유로 시작되었다. 헨리 8세(Henry VIII, 재위 1509–1547)는 신학자가 아니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었다. 그는 실용적인 정치가였고 그의 종교 개혁은 매우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이야기는 15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헨리 8세는 아라곤의 캐서린(Catherine of Aragon)과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지만 아들이 없었고 딸 메리만 있었을 뿐이다. 헨리는 왕조의 계승을 걱정했고 새로운 결혼을 원했다. 그는 교황에게 혼인 무효를 요청했지만 교황 클레멘트 7세는 거부했다. 캐서린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이모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교황은 헨리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헨리는 분노했고 1534년에 의회를 통해 '수장령'(Act of Supremacy)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영국 왕을 '영국 교회의 유일한 최고 수장'으로 선언했고 그 결과 교황의 권위는 영국에서 완전히 부정되었다. 헨리는 교황과 결별하고 앤 볼린과 결혼했다.

이것이 영국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는 신학적 개혁이 아니라 권

력의 이동이었다.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던 권위가 영국 국왕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교황에서 국왕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윌리엄 틴데일

헨리 8세 치하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 수도원들이 해체되었고 그 재산은 왕실과 귀족들에게 분배되었다.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 교회에 비치되었는데, 이는 틴데일(William Tyndale, c.1494–1536)의 순교적 번역 작업의 결실이었다. 미사가 영어로 드려지기 시작했고 성직자의 결혼이 허용되었다(비록 헨리 자신은 이를 반대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고 교리는 여전히 카톨릭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헨리는 1539년에 이른바 '6개조법'(The Act of Six Articles)을 제정해 화체설, 고해 성사, 사제 독신제 등 핵심적인 카톨릭 교리를 그대로 유지했고 누구든지 이를 어기면 즉시 이단으로 처벌받았다. 교회 구조 역시 종전과 다를 바 없었는데, 대주교, 주교, 사제, 부제로 이어지는 위계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예배 역시 전례 중심의 형식을 유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여전히 국가의 기관으로 존재했다는 점이다. 단지 통제권이 로마에서 런던으로 넘어갔을 뿐, 본질적으로는 정치권력 아래 놓여 있는 국가 교회 체제가 계속된 것이다. 이는 콘스탄티누스 시대 이후 이어져 온 국가 교회의 전통이 잉글랜드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었음을 보여 준다.

에드워드 6세와 메리 1세 - 종교 개혁의 진전과 후퇴

헨리 8세가 1547년에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Edward VI, 재위 1547–1553)가 왕위에 올랐다. 에드워드는 겨우 아홉 살이었지만 그를 보좌한 섭정들은 개신교 성향이었으므로 에드워드 치하에서 영국 교회는 더 개신교 색채를 띠게 되었다.

1549년, 크랜머 대주교가 작성한 '공동기도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영어로 된 예배서였고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도록 법으로 강제되었다. 1552년에는 더 개신교적인 개정판이 나왔다. 미사는 '성찬식'으로 바뀌었고 제단은 '성찬대'가 되었으며 사제의 의복도 단순화되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1553년, 불과 열다섯 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죽었고 그의 이복누이인 메리 1세(Mary I, 재위 1553–1558)가 왕위를 계승했다. 메리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딸이었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으므로 영국을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리려 했다.

메리는 교황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에드워드 시대의 개신교 개혁을 모두 뒤집었다. 공동기도서를 금지하고 라틴어 미사를 부활시켰으며 개신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1555년부터 1558년 사이에 약 280명의 개신교인들이 화형당했다. 그들 중에는 크랜머 대주교, 래티머 주교, 리들리 주교 같은 저명한 지도자들도 있었다. 이에 수백 명이 대륙으로 망명했고 메리는 '블러디 메리'(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메리의 박해는 역효과를 낳았다. 순교자들의 피는 개신교 신앙을 더욱 강화시켰다. 폭스(John Foxe, 1516–1587)가 쓴 「순교자 열전」(「Book of Martyrs」, 1563)은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했고 이 책은 수백 년 동안 영국 개신교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엘리자베스 1세와 영국 국교회의 확립

메리는 1558년에 죽었고 그녀의 이복동생인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 재위 1558–1603)가 왕위에 올랐다.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딸이었다.[1] 그녀는 메리 치하에서 위험한 시기를 보냈고 종교 문제가 얼

1. 헨리 8세는 총 여섯 명의 아내를 맞이했다. 그 가운데 세 명의 아내를 통해 세 명의 자녀, 즉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에드워드 6세를 두었다. 각각 다른 종교적·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 세 군주는 영국의 종교 개혁 방향을 결정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마나 폭발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중도적 절충을 추구했다. 그녀는 영국을 다시 개신교 국가로 세우되 카톨릭 신자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1559년에 통과된 '수장령'과 '통일령'은 이러한 방향성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으로 이 두 법은 영국 국교회(성공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기초가 되었다.

'엘리자베스 타협'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적, 제도적 안정 체계 확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국왕이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규정되어 교황의 권위가 배제되었다.

둘째, 교리는 개신교적 방향을 따르지만 예배 형식과 주교 제도는 카톨릭적 요소를 그대로 유지했다.

셋째, 1563년에 제정된 39개 신조가 교리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는 온건한 개신교 신학을 담고 있다.

넷째, 1559년판 공동기도서가 모든 예배의 공통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엘리자베스는 "사람들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는 창문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 국가가 정한 예배와 규범을 따르면 개인의 내적 신념까지 국가가 나서서 조일 생각은 없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안정과 화합을 가져왔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한 타협이었다.

국가 교회 체제의 문제점

'엘리자베스 타협'으로 확립된 영국 국교회 체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들이 나중에 청교도 운동과 분리주의 운동, 그리고 결국 침례교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첫째, 국왕이 교회의 머리였다. 이는 성경적이지 않았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엡 5:23). 국왕은 주교들을 임명했고 교회법을 승인했으며 예배 형식을 결정했다. 만약 국왕이 경건하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국왕의 신앙과 상관없이 국왕이 교회를 지배했다.

엘리자베스 1세

둘째, 교회 출석이 법적 의무였다. 1559년 통일령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일요일마다 자기 지역 교회에 출석해야 했고 만일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신앙을 강제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법 때문에 교회에 갔다.

셋째, 교구 체제가 유지되었다. 영국은 교구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교구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었다. 그 교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그 교회의 일원이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그 지역 교회가 그 사람의 교회였다.

넷째, 유아 세례가 시민 등록 제도였다. 중세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출생 등록이었고 시민권 부여였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법적 권리를 완전히 가질 수 없었으므로 유아 세례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사회 제도였다.

다섯째, 회심이 불필요해 보였다. 국가 교회 체제에서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었다.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 다시 태어남,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 같은 개념들은 강조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결국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청교도의 등장 - 안에서 개혁하려는 시도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 뒤를 이은 군주들의 치하에서 '청교도'(Puritans)라 불리는 그룹이 등장했다. '청교도'라는 이름은 애초에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 붙여진 별칭이었다. 그들이 교회를 더 "순수하게 정화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비꼬아 부른 것이다.[2]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 교회를 개혁하려 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그들은 예배를 더 단순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들은 공동기도서가 여전히 카톨릭 색채를 많이 띠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사제의 의복, 제단의 장식, 무릎 꿇기, 십자가 표시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싶었다. 그들은 예배가 말씀 중심이 되기를 원했다.

둘째, 그들은 설교를 강조했다. 그들은 공동기도서의 정해진 기도문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며, 잘 교육을 받고 경건한 목회자들을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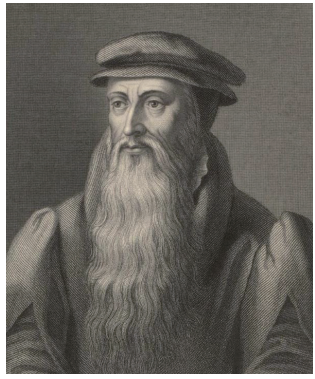
셋째, 그들은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자 했다. 그들은 일요일을 신약시대의 안식일로 이해했으며 그날은 철저히 휴식과 예배에 전념하는 날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일요일에는 세속적 활동을 삼가야 한다고 믿었다.

넷째, 그들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경건을 강조했고 개인기도, 성경 읽기, 가정 예배를 중시했다.

다섯째, 일부 청교도들은 더 나아가 교회 정치 구조도 바꾸고 싶어 했으며

2. 청교도는 16세기 후반 영국 국교회의 개혁이 미완성이라고 판단하여, 교회를 성경대로 더 '순수하게'(purify) 만들고자 한 신앙인들로 대개 강한 칼빈주의 성향을 지녔다. 그들은 주교(감독)제와 국가 교회 체제를 거부하고 회중교회(자치 교회)와 경건한 삶,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다. 영국에서 점점 심한 탄압을 받자 그들의 일부는 네덜란드로, 또 일부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 미국 초기의 종교·정치 문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장로 제도로 바꾸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들을 '장로교적 청교도'라고 부른다.


존 낙스

청교도들은 의회와 대학, 교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를 배출했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지도자 존 낙스(John Knox, c.1514–1572)를 비롯해, 청교도 신학의 거장 존 오웬(John Owen, 1616–1683), 목회적 권면의 대가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 깊은 영성을 전한 리처드 십스(Richard Sibbes, 1577–1635), 그리고 청교도 신학을 체계화한 토머스 굿윈(Thomas Goodwin, 1600–1680) 등이 청교도 전통을 대표하는 거장들이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근본적인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들은 국교회를 개혁하고 싶어 했지만 국교회는 국가가 통제했다. 그들이 원하는 변화는 국왕과 의회가 허락해야만 가능했는데 국왕과 의회는 종종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고 따라서 청교도들은 정치적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분리주의의 등장 - 밖으로 나가는 선택

16세기 말, 일부 급진적인 개혁자들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국교회는 개혁될 수 없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한 참된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교회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독립적인 회중을 세워야 한다."

이들이 바로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이었다. 그들은 청교도들과 많은 신학적 확신을 공유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청교도들은 국교

회 안에 남아 개혁을 추구했지만 분리주의자들은 국교회를 떠났다.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은 명확했다.

첫째, 참된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여야 하며 한 지역의 모든 주민이 자동으로 교회 회원인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는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므로 국왕이나 의회가 교회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에만 복종해야 한다.

셋째, 각 지역 교회는 자율적이어야 하므로 주교나 대주교가 교회들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각 회중은 스스로 목회자를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

넷째, 예배와 교회 생활의 모든 면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인간의 전통이나 교회의 관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위험했고 분리주의는 불법이었다.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지역 교회에 출석해야 했고 국교회를 떠나 독립적인 회중을 세우는 것은 반역으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분리주의자들은 체포되고 투옥되고 일부는 처형되었다.

1593년, 배로(Henry Barrow)와 그린우드(John Greenwood)라는 두 명의 분리주의 지도자가 런던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들의 죄목은 '여왕 폐하의 권위를 부정하고 국교회를 비방하며 반란을 선동한 죄'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한 일은 성경에 따라 독립적인 교회를 세운 것뿐이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분리주의 운동은 계속되었다.

노팅엄셔의 스크루비라는 작은 마을과 링컨셔의 게인즈버러에서 분리주의 회중들이 형성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플리머스 식민지를 세우게 된다. 그리고 이 분리주의 운동 속에서 침례교가 탄생하게 된다.

존 스마이스 - 진리를 찾는 순례자

존 스마이스(John Smyth, c.1570–1612)는 영국 링컨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공부했고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는 1594년에 학사 학위를, 1598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영국 국교회의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1600년경, 스마이스는 링컨 시의 공식 설교자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명예로운 직책이었다. 그는 성경을 강해하는 강력한 설교자로 알려졌으나 그의 설교는 점점 더 국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스마이스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국교회의 많은 관행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공동기도서의 정해진 기도문, 사제의 의복, 십자가 표시, 무릎 꿇기. 더 근본적으로, 국왕이 교회를 통제하는 것, 유아 세례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약 성경의 교회 모습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1602년, 스마이스는 그의 설교가 상당히 논쟁적이라는 이유로 링컨 시로부터 해임되었고 이에 게인즈버러로 이주했으며 거기서 분리주의 회중에 합류했다. 이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국교회를 떠나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경력을, 안전을,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게인즈버러 회중은 비밀리에 모였다. 그들은 개인 가정에서 만났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스마이스는 곧 이 회중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의 학식과 설교 능력은 회중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그러나 1606–1607년경,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고 국교회에서 분리한 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려는 시도가 강화되었다. 분리주의자들은 '영국에 남아 박해를 견딜 것인가, 아니면 망명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

결국 스마이스와 그의 회중은 망명을 선택했고 1607–1608년에 몰래 네덜란드로 탈출했다. 목적지는 암스테르담이었다.

암스테르담 - 자유의 도시

암스테르담은 17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관용적인 도시 중 하나였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 네덜란드인들 자신이 카톨릭 스페인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 망명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에는 이미 다양한 종교 집단들이 있었다. 칼빈주의 개혁교회가 주류였지만 루터파, 메노나이트, 카톨릭, 유대인, 그리고 영국에서 온 분리주의자들도 있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완전한 자유를 가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칼빈주의 개혁교회만이 공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집단들은 개인 가정이나 창고 같은 곳에서 조용히 모여야 했다. 그러나 당국은 대체로 관용적이었고 다른 종교 집단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지 않았다.

스마이스와 그의 회중이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거기 있던 다른 영국 분리주의 회중을 만났는데 이 회중은 존슨(Francis Johnson)과 에인스워스(Henry Ainsworth)가 이끌고 있었다. 처음에는 두 회중이 협력했지만 곧 신학적 의견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암스테르담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스마이스에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기회를 주었다. 그는 영국에서 박해와 생존의 위협 때문에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암스테르담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글을 쓸 수 있었다.

메노나이트와의 만남

암스테르담에는 상당히 큰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메노나이트는 16세기 재침례교 운동의 후예들로서 신자 침례, 평화주의, 정교분리, 단순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었다.

스마이스는 메노나이트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는 그들의 예배에 참석했고 그들의 지도자들과 대화했으며 그들의 책들을 읽었다. 특히 메노 시몬스의 글들이 스마이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메노는 신자 침례의 성경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고 자발적 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다.

존 스마이스

시간이 갈수록, 스마이스는 당시 교회의 관행이 비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신약 성경의 모든 침례 사례를 보면 순서가 명확하다. 복음 선포, 믿음, 회개, 그리고 침례. 따라서 유아는 아직 믿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으므로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침례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 확신은 스마이스에게 큰 딜레마를 안겨 주었다. 만약 유아 세례가 무효라면 그 자신도 참된 침례를 받지 못한 것이며 그의 회중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모두 유아일 때 국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성경적 침례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된 침례를 받아야만 한다면 누가 그 침례를 줄 수 있는가?

메노나이트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스마이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그는 곧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했다. 메노나이트의 침례는 과연 유효한가? 그들의 침례는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카톨릭이나 국가 교회의 침례에 닿게 되지 않는가?

스마이스는 침례의 정당성과 기원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참된 침례는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만약 모든 기존 교회의 침례가 무효라면 어떻게 처음 침례를 시작할 수 있는가?

1609년 - 자기 침례와 최초의 침례교회

1609년에 스마이스는 대담한 결론에 도달했다.

"신약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도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외적 계승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스마이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침례의 권위는 사람의 계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나온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명령을 따라 신자에게 침례를 준다면, 그것은 유효한 침례다. 누가 그 침례를 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1609년 어느 날 스마이스는 자신의 회중들 앞에서 놀라운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에게 스스로 침례를 주었다. 바로 '자기 침례'였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물을 부으며 침례를 베풀었다.

이는 매우 논란이 된 행동이었고 지금도 역사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며 침례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스마이스의 논리를 이해한다. 만약 모든 기존 침례가 무효라면 누군가는 처음을 시작해야 했고 스마이스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어쨌든 스마이스는 자기 침례 후 즉시 회중의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했다. 헬위스(Thomas Helwys)가 침례를 받았고 회중의 다른 사람들, 약 40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스마이스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것이 최초의 영국 침례교회의 탄생이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1609년 초로 추정되며 장소는 암스테르담의 한 빵집 뒤쪽에 있던 작은 집이었다. 스마이스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글을 썼다.

그는 자신들이 '유아 세례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신약 성경의 질서'로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스마이스의 신학 - '일반 침례교'의 기초

스마이스와 그의 회중은 신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은 나중에 '일반 침례교'(General Baptists)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일반'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핵심은 구원론, 특히 속죄론에 있었다. 17세기 초 개신교 신학은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사이의 논쟁으로 뜨거웠다. 이 논쟁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였다.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 또는 '특정 속죄', 즉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속죄를 주장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이다. 즉, 그분의 죽음은 목적과 효력에 있어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일반 속죄' 또는 '보편 속죄'를 주장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이다. 그분의 죽음은 충분하고 진실하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이스는 일반 속죄를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것 때문에 스마이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일반 침례교'라고 불리게 되었다.

일반 침례교의 다른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신자 침례:** 이것이 가장 명확한 특징이었다.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성인에게만 주어진다.
2. **자발적 교회:**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출생이나 거주지로 자동으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3. **회중 정치:** 각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자율적이다. 주교나 상급 권위가 지역 교회를 통제하지 않으며 회중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목회자를 선

택하고 함께 교회를 운영한다.

4.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는 교회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양심의 자유: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믿을 권리가 있다. 신앙은 강제될 수 없다.

6.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최종 권위이다. 전통이나 교회 권위가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7. 단순한 예배: 예배는 성경 읽기, 설교, 기도, 찬송으로 이루어지며 화려한 의식이나 전례는 필요 없다.

이 원칙들은 스위스 재침례교가 주장했던 것들과 매우 유사했다. 스마이스는 메노나이트를 통해 재침례교의 신학을 접했고 그것을 영국적 맥락에서 발전시켰다.

스마이스와 헬위스의 분리

그러나 스마이스의 이야기는 복잡하게 전개된다. 1610년경, 스마이스는 자신의 자기 침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메노나이트의 침례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그 결과 자신과 회중이 메노나이트로부터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중 내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켰다. 헬위스와 다른 사람들은 스마이스의 새로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헬위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가 받은 침례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다른 침례가 필요하지 않다."

더 나아가 헬위스는 스마이스가 메노나이트의 일부 교리를 받아들이려 한다고 우려했다. 메노나이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고 마리아

를 통과하여 오셨다고 믿었다(이는 메노 시몬스가 가르친 것이었다). 이는 정통 기독론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므로 헬위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1610–1611년경, 회중은 둘로 나뉘었다. 스마이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메노나이트와 합류하려 했고 헬위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독립을 유지하기로 했다.

스마이스는 1612년 8월경 42세의 나이로 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의 짧은 생애는 진리를 찾는 순례로 가득했다. 국교회에서 분리주의로, 분리주의에서 침례교로, 침례교에서 메노나이트로. 그는 완전함을 찾아 계속 나아갔지만 어쩌면 너무 불안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공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최초의 영국 침례교회를 세웠고 신자 침례의 원리를 회복했으며 후대 침례교의 토대를 놓았다.

토마스 헬위스 - 영국 땅에 침례교를 심다

토마스 헬위스(Thomas Helwys, 1575–1616)는 노팅엄셔의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스마이스와 달리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지적이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스마이스의 분리주의 회중에 합류했고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했고 1609년 스마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스마이스와 의견이 갈라진 후 헬위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암스테르담에 머물러 안전하게 지내는 것보다 위험하더라도 영국에 가서 침례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1611년이나 1612년 초, 헬위스와 약 10–12명의 동료들이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런던 외곽의 스피털필즈(Spitalfields) 지역에 정착했고 거기서 헬위스는 자신의 집에 작은 회중을 모았다. 이것이 영국 땅에 세워진 최초의 침례교회였다.[3] 이 교회는 초기 십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규모였고 그들은 비

3. 스피털필즈는 영국 런던 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늘날 타워 햄릿(Tower Hamlets) 자치구에 속한다. 17세기에는 종교적 난민들과 장인·직조업자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초기 영국 침례교회가 자리 잡고 성장한 중요한 역사적 장소였다.

밀리에 모였다. 분리주의는 여전히 불법이었고 침례교는 더욱 급진적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조용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으며 새로운 신자들이 합류하면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헬위스는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는 당대 교육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여러 권의 책과 팸플릿을 썼고 침례교 신앙을 변호하며 국교회의 오류를 폭로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다.

"왕은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 - 헬위스의 대담한 선언

1612년, 헬위스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책을 출판했는데 제목은 「불법의 신비에 대한 짧은 선언」이었다. 이 책은 약 200페이지 분량으로 로마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의 오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책의 가장 혁명적인 부분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선언이었다. 헬위스는 이렇게 썼다.

"왕은 필멸의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왕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권력이 없으며, 영혼을 위해 법을 만들 수도 없고, 영혼을 다스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 왕은 영혼과 양심을 지배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단자든, 터키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그것은 땅의 왕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 헬위스는 국왕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교회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헬위스는 종교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키인'(무슬림), 유대인, 이단자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17세기 초에 극도로 급진적인 주장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해야 하고 이단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카톨릭도, 루터파도, 칼빈주의자도, 성공회도 모두 국가 교회

체제를 지지했고 오직 재침례교와 침례교만이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주장했다. 헬위스는 이 책을 제임스 1세 왕에게 직접 보냈고, 겉장에는 왕을 향한 헌정사를 손수 적어 넣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왕은 필멸의 인간일 뿐이니 불멸의 영혼 위에는 주 하나님 외에 어떤 권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 헬위스는 왕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제한했고 왕에게 당신이 영혼을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헬위스의 순교

헬위스의 대담한 선언은 결국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1613년경, 그는 체포되어 런던의 뉴게이트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그에 대한 혐의는 분리주의, 침례교 신앙, 그리고 왕의 권위에 대한 반역적 글쓰기였다.

헬위스는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다. 정확한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613년부터 1616년까지로 추정된다. 뉴게이트 감옥은 런던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 중 하나였고 그곳은 어둡고 습하고 비위생적이고 질병이 만연했다. 수감자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고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었고 학대를 받았다.

헬위스는 1616년경 감옥에서 죽었다.

그의 정확한 사망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 그는 약 41세였다. 그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감옥 밖의 공동묘지에 이름 없이 묻혔을 것이다.

헬위스는 순교자였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정교분리를 위해, 침례교의 원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고 암스테르담에 남아 안전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 또는 영국에서 조용히 살면서 국교회에 순응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진리를 타협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고 그 순종의 대가를 치렀다.

헬위스 이후 - 영국 일반 침례교의 성장

헬위스가 죽은 뒤에도 그가 세운 스피털필즈 교회는 계속 존속했고 머턴(John Murton, 1580–1626)이 교회를 이끌었다. 머턴도 헬위스와 함께 암스테르담에서 침례를 받았고 영국으로 돌아온 초기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고 여러 책을 저술했다.

1620년대와 1630년대를 지나면서 영국의 일반 침례교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했다. 런던에는 몇 개의 교회가 추가로 세워졌고 지방 곳곳 — 켄트, 링컨셔, 요크셔 등지 — 에도 작은 침례교 공동체들이 형성되었다. 이 교회들은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되었고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다. 성도들은 비밀리에 모이고 조심스럽게 활동했지만, 때로는 구성원들이 체포되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 갔다.

1624년, 영국 일반 침례교는 최초의 신앙 고백을 출판했는데, 이는 '표준 신앙 고백' 또는 '1624년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서는 일반 침례교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일반 속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 신자 침례: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만 준다
- 자발적 교회: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 회중 정치: 각 교회는 자율적이다
-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 양심의 자유: 모든 사람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 신앙 고백은 영국 일반 침례교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명히 했다.

특수 침례교의 등장

1630년대에 영국에서 또 다른 종류의 침례교가 나타났는데 이들은 '특수 침례교'라고 불렸다. 왜 '특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4]

특수 침례교는 칼빈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기에 '제한 속죄' 또는 '특정 속죄'를 믿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 침례교와의 주요 차이점이었다.

특수 침례교의 기원은 런던의 한 독립교회에서 비롯되었다. 이 교회는 원래 회중교회였으며 유아 세례를 실천했다. 그러나 1630년대에 이 교회의 일부 멤버들이 유아 세례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자 침례만이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638년경, 이들 중 일부가 교회를 떠나 독립적인 침례교 회중을 형성했고 이것이 최초의 특수 침례교회였다. 그들은 네덜란드로 사람을 보내 거기서 침례를 받게 했고 그가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특수 침례교는 빠르게 성장했다. 1640년대 영국 내전 기간 동안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종교적 통제가 약화되었다. 이 기회에 특수 침례교는 크게 확장되었다. 1644년, 런던의 일곱 개 특수 침례교회가 함께 모여 '제1차 런던 신앙 고백'을 발표했다.

이 신앙 고백은 5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특수 침례교의 신학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를 결합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침례교는 두 주요 갈래인 일반 침례교(아르미니우스주의)와 특수 침례교(칼빈주의)로 발전했다. 이 두 그룹은 구원론에서는 달랐지만 침례, 교회론, 정교분리에서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

4. 'Particular Baptists'의 'particular'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특정하게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칼빈주의 속죄관을 가리킨다. 원래 particular는 '특정한·한정된'이라는 뜻이 가장 정확하지만, 한국 신학계에서는 이미 관용적으로 '특수 속죄', '특수 침례교회'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통용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관례적 표현을 그대로 따른다.

혼란의 시대, 기회의 시대

1640년대 영국은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다. 찰스 1세(Charles I, 재위 1625–1649)와 의회 사이의 긴장이 폭발하여 내전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혁명 또는 영국 내전이다(English Civil War, 1642–1651).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했고 종교적 논쟁이 정치적 갈등과 뒤엉켰으며 영국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는 재앙이었다. 수만 명이 죽었고 가족들이 분열되었으며 경제가 파괴되었다. 1649년에는 찰스 1세가 재판을 받고 참수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일어났다. 군주가 신민들에 의해 처형된 것은 유럽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침례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1640년 무렵 영국에는 침례교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1660년 무렵에는 영국 전역에 수백 개의 침례교회가 퍼져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을까?

국교 체제의 약화

첫째, 국교 체제가 약화되는 사회적 배경이 형성되었다. 내전 이전에 영국 성공회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성공회 대주교 로드(William Laud, 1573–1645)는 예배의 통일성을 강제하려 했고 국교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혹하게 박해했으며 귀를 자르고, 코를 찢고, 낙인을 찍는 형벌이 자행되었다. 분리주의자들과 침례교인들은 숨어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의회파가 승리하면서 성공회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었고 1645년에 로드는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주교 제도가 폐지되고 공동기도서 사용이 금지되면서 국교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침례교에게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서 모일

필요가 없었고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며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이었다.

종교적 다양성의 확대

둘째, 종교적 다양성이 점차 허용되기 시작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내전 동안 의회파 진영 내에는 다양한 종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장로교인들, 독립교회주의자들, 침례교인들, 그리고 더 급진적인 그룹들까지 모두 왕당파에 맞서 싸웠다. 이들은 신학적으로는 서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출발점 하나에서는 뜻을 같이했다. 로마 카톨릭의 단일 국교 체제를 모든 사람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방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장로교인들은 개혁된 장로교를 새로운 국교로 세우기를 원했고, 독립교회주의자들은 각 교회의 자율성을 주장했으며, 침례교인들은 그 어떤 국교 체제도 거부하고 완전한 정교분리를 외쳤다.

그 이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이 의회파의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상황은 개선되었다. 크롬웰은 독립교회주의자였고 종교적 관용을 지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예배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그의 관용에도 한계는 있었다. 그는 카톨릭과 극단적 분파들을 용납하지는 않았지만 청교도, 장로교, 독립교회, 침례교 같은 개신교 그룹들에게는 상당한 자유를 허용했다.

크롬웰의 신형 군대에는 많은 침례교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감한 군인들이었고 크롬웰은 그들을 신뢰했다. 크롬웰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유능한 군인을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보았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무엇을 믿는지보다 어떻게 싸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침례교는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일반 침례교의 부흥과 확산

이 시기에 특히 눈부신 성장을 보인 것은 일반 침례교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일반 침례교는 존 스마이스와 토마스 헬위스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일반 속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구원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신학을 믿었다.

일반 침례교의 신학은 대중에게 큰 호소력이 있었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메시지는 희망을 주었다. "당신이 선택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전도하기 쉬웠다.

일반 침례교 지도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는 램(Thomas Lamb, 1590–1673)이었다. 그는 런던에서 활동했고 탁월한 설교자였으며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의 교회는 수백 명의 회중을 가진 큰 교회로 성장했고 램은 침례교의 원리들을 명확하게 가르쳤다: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일반 침례교는 일반 성도 설교를 강조하면서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설교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역시 교회가 빠르게 확산되도록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일반 성도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었으므로 목회자가 부족하여 교회 개척이 지연되는 일이 없었다. 일반 침례교는 또한 사회적으로 더 포용적이었고 그들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 장인들, 상인들, 평범한 노동자들이 많았다. 귀족이나 학자들은 드물었지만 일반 대중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동체였다. 예배는 단순했고 언어는 평이했으며 분위기는 따뜻했다.

1650년대 무렵, 일반 침례교는 영국 전역에 수십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다. 런던에만 여러 개의 큰 교회가 있었고 지방 도시들에도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협의회를 열었고 신앙 고백을 작성했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했다.

1651년, 일반 침례교는 '표준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을 발표했다. 이는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일반 침례교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고백서는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부활, 재림 같은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들을 확증했다. 동시에 침례교의 독특한 원리들 —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 — 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성경 중심과 단순한 예배의 힘

침례교가 이 시기에 성장한 또 다른 이유는 성경 중심의 접근과 단순한 예배였다. 영국 성공회는 화려한 예배 의식, 복잡한 전례, 정교한 성직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들은 오랜 전통의 산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형식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침례교 예배는 완전히 달랐다. 교회 건물은 단순했고 화려한 제단도, 성상도, 스테인드글라스도 없었다. 성직자는 화려한 제의를 입지 않았고 예배의 중심은 설교였다. 설교자는 성경을 펼치고 본문을 설명하고 적용했다.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와서 따라 읽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하려 했다.

침례교는 또한 회중 참여를 강조했다. 예배는 성직자만의 공연이 아니었다. 회중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간증을 했다. 교회 업무는 회중이 함께 결정했다.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도,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권징을 시행하는 것도 모두 회중의 일이었다.

이러한 참여적 모델에 사람들은 큰 매력을 느꼈다. 회중들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느꼈다. 이는 강한 소속감과 헌신을 만들어 냈다.

침례교는 또한 회심을 강조했다. 침례교인이 되려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야 했다. 단순히 영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믿고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강조는 진정성을 만들어 냈다. 침례교회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상은 명확했다. 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성이 혼란의 시대에 영적 갈증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전쟁과 혼란 속의 안정

역설적이게도 전쟁과 혼란의 시기가 침례교회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것을 찾았고 정치적 권위가 흔들릴 때 영적 권위를 찾았다. 외적 구조가 무너질 때 내적 확신을 갈망했다.

침례교는 이러한 필요에 응답할 수 있었다. 침례교는 국가 권력에 의존하지 않았기에 왕이 누구든, 의회가 누구를 지배하든 상관없었다. 침례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였고, 권위는 성경이었으며, 힘은 성령님이었다. 이것들은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침례교는 또한 공동체를 제공했다. 전쟁은 사람들을 분리시켰고 가족들을 흩어놓았으며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파괴했지만 침례교회는 새로운 종류의 가족을 제공했다.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 가족,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공동체였다. 침례교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으며 병든 사람을 방문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1660년 - 왕정복고와 새로운 시련

1658년 올리버 크롬웰이 죽고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후계자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이 없었다. 정부는 혼란에 빠졌고 군부는 분열했으며 의회는 기능을 잃었다. 영국은 다시 무정부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

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왕정 복귀를 결정했다. 1660년 찰스 2세(Charles II, 재위 1660–1685)가 프랑스 망명에서 돌아와 왕위에 올랐는데, 이것이 왕정복고이다. 영국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전과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가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침례교회에 왕정복고는 재앙이었다. 찰스 2세는 국교 체제를 복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성공회를 다시 국교로 만들고 모든 반대자들을 억압하기로 했다. 주교 제도가 복구되었고 공동기도서가 다시 도입되었으며 국교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의회는 일련의 법률을 통과시켜 국교를 따르지 않는 비국교도들을 억압했다. 이러한 법들은 당시 수상이었던 클래런던 백작의 이름을 따서 '클래런던 법전'이라 불렸다.

박해의 법률들

1661년에는 '지방 자치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모든 지방 공직자가 성공회의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이는 침례교인들이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의미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시장도, 시의원도, 치안 판사도 될 수 없었다.

1662년에는 통일령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모든 성직자가 공동기도서를 사용해야 하고, 주교로부터 안수를 받아야 하며, 국왕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거부하는 성직자는 교회에서 쫓겨났고 결과적으로 약 2,000명의 청교도와 비국교도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야 했다. 이 사건은 '대추방'이라고 불린다.

1664년에는 '콘벤티클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5명 이상이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위반자는 처음에는 벌금형, 두 번째는 더 큰 벌금이나 투옥, 세 번째는 추방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 법은 침례교회를 직접 겨냥한 것이었다. 침례교는 성공회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고 자체 건

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서 모였는데 이제 그것마저 불법이 된 것이다.

1665년에는 '5마일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통일령을 거부한 목회자들이 도시, 자치구, 또는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교구에서 5마일(약 8km) 이내에 거주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그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금지했다. 이는 비국교도 목회자들을 경제적으로 파괴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려는 조치였다.

감옥과 순교

이 법률들의 결과는 가혹했고 수백 명의 침례교인들이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감옥 환경은 끔찍했다. 어둡고 추웠으며 습하고 비위생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병들어 죽었다. 가족은 파산했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다.

가장 유명한 침례교 죄수는 번연(John Bunyan, 1628–1688)이었다. 번연은 가난한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영적 갈망이 깊었다. 그는 회심한 후 침례교인이 되었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교는 강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다.

1660년 왕정복고 직후 번연은 체포되었다. 그의 죄명은 '허가 없이 설교한 죄'였다. 재판관은 그에게 제안했다. "설교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면 석방해 주겠소." 번연은 거부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지 않는 한, 사람이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존 번연

번연은 12년 동안 베드퍼드 감옥에 갇혔다(1660–1672). 그는 아내와 네 명의 어린 자녀를 남겨 두고

구속되었는데 그중 맏딸 메리는 시력을 잃은 맹인이었다. 번연은 감옥에서 자녀 생각에 가슴 아파하며, "내 딸 메리의 형편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게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오, 그런 생각들은 내가 겪는 고통보다 수천 배나 더 나를 아프게 했다!" 라고 썼다.

그러나 번연은 감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어두운 감방에서 영어 문학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가 탄생했다. 그것은 바로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이다.

「천로역정」은 1678년에 출판되었고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 책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린 알레고리이다. 그는 여정에서 절망의 늪, 의심의 성,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등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 그러나 그는 계속 전진하고 마침내 천성에 도달한다. 「천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 되었다.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백만 부가 판매되었다. 번연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책은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박해조차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다.

번연 외에도 수많은 침례교인들이 투옥되었다. 어떤 이들은 몇 주, 어떤 이들은 몇 달, 어떤 이들은 몇 년 동안 갇혀 있었다. 일부는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했고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지하 교회

많은 침례교회들은 지하로 들어갔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였다. 한밤중에 숲속 혹은 동굴에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집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다. 파수꾼을 세워 관리들이 오는지 감시했고 만약 위험이 닥치면 빨리 흩어졌다.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이동했다. 매번 다른 장소에서 모여 당국이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 어떤 교회는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곳에서 모였다가 가끔 안전할 때 함께 모였다. 설교자들은 변장을 하고 다녔다. 목회자라는 것을 들키면 즉시 체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인이나 농부처럼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이동했으며 밤에 설교했다.

이는 초대 교회의 상황과 비슷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지하 묘지)에서 모였던 것처럼, 17세기 영국의 침례교인들도 숨어서 모였다. 그리고 초대 교회처럼 박해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정화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박해 속의 성장

역설적이게도 박해는 침례교를 멈추지 못했고 오히려 일부 면에서는 침례교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박해는 명목상의 신자들을 걸러냈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떠났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들은 남았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다. 박해는 또한 침례교의 핵심 원리를 확증했다. 정교분리가 왜 중요한가? 바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면 국가는 언제든지 진리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가 왜 필수적인가? 바로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투옥되고 처형되기 때문이다.

침례교인들은 고난을 견디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개신교의 한 분파가 아니고 신약 교회를 회복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들은 권력이나 특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원했을 뿐이다.

1672년, 찰스 2세는 '관용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비국교도들에게 일부 자유를 허용하는 조치였다. 공개 예배가 다시 허용되었고 많은 죄수들이 석방되었다. 존 번연도 이때 풀려났다.

그러나 이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의회가 반대했기에 결국 왕은 그 선언을

철회해야 했다.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이미 침례교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모이기를 멈추지 않았고 끊임없이 성장했다.

1689년 - 관용법과 새로운 시대

1685년 찰스 2세가 죽고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 제임스는 카톨릭 신자였고 카톨릭을 복구하려 했는데, 이는 개신교 영국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1688년, 의회는 제임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딸 메리와 사위 윌리엄을 공동 군주로 초청했는데 이것이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이다.[5]

1689년, 새 정부는 '관용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삼위일체를 믿는 모든 개신교도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용했다. 물론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다. 비국교도들은 여전히 공직에서 배제되었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으며 여러 제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어, 투옥되거나 처형당할 염려 없이 모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침례교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공개적으로 예배당을 세울 수 있었고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었으며 합법적으로 교회를 조직할 수 있었다. 물론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있었지만 법적 박해는 끝났다.

결론 - 대서양을 향하여

17세기를 거치면서 영국 침례교는 견고한 기초를 세웠다. 1609년 암스테르

5. '명예혁명'이라 불리는 이유는 제임스 2세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폐위되고, 의회가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군주로 맞아들이는 방식으로 권력이 평화롭게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왕권이 제한되고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는 점이 '명예로운 변화'로 평가된다.

담에서 존 스마이스가 자기 침례를 행했을 때 그것은 작지만 논쟁적인 시작이었다. 1612년 토마스 헬위스가 영국으로 돌아와 스피털필즈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것은 십여 명의 작은 모임이었다.

그러나 80년 후인 1689년, 침례교는 영국 전역에 수백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박해를 견뎌냈고 순교자들을 배출했으며 신학을 체계화하고 신앙 고백을 작성했다. 그들은 일반 침례교와 특수 침례교라는 두 흐름으로 발전했지만 신자 침례, 자발적 교회,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성경 권위, 회중 정치 등 핵심 원리에서는 하나였다.

영국 침례교가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그들은 신자 침례를 회복했다. 종교 개혁은 교리를 개혁했지만 교회론은 중세에 머물렀다. 이제 침례교는 교회론도 성경으로 돌렸다.

둘째, 그들은 양심의 자유를 선언했다. 헬위스가 1612년에 쓴 "왕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원칙은 침례교의 DNA가 되었다. 이 원리는 혁명적이었고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그들은 정교분리를 실천했다. 영국 침례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영국 내 그룹이었다. 청교도들도 국교회를 비판했지만, 여전히 국가가 참된 종교를 지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침례교만이 완전한 정교분리를 주장했다.

넷째, 그들은 회중 정치를 확립했다. 침례교는 각 지역 교회가 자율적이라고 믿었다. 이는 카톨릭의 교황 체제나 성공회의 주교 체제나 장로교의 노회 체제와 달랐다.

다섯째, 그들은 박해 속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법적 보호가 없었고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헬위스의 순교, 번연의 투옥, 수많은 멤버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침례교를 정화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17세기 말, 영국 침례교의 원리들은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다. 영국 이주민

들이 북미로 갔는데 그들 중 일부는 침례교인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침례교회를 세웠고 침례교 원리를 전파했다.

미국에서 침례교는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침례교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정교분리를 주장했으며 양심의 자유를 옹호했다. 로저 윌리엄스, 존 릴랜드, 아이작 백커스 같은 침례교 지도자들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미국 헌법의 종교 조항 형성에 기여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된 씨앗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영국에 심어졌고 그것이 다시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거대한 나무로 자랐다. 1525년 작은 방에서 몇 명이 서로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일이 전 세계로 확산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나오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며 소수의 신실함이 다수의 타협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재침례교의 순교자들, 영국 분리주의자들, 그리고 박해받은 침례교인들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피가 씨앗이 되어 전 세계에 침례교회들이 세워졌다.

침례교 역사는 권력이 아니라 원리의 승리이다. 침례교는 왕의 후원도, 국가의 지원도, 군대의 힘도 없이 성장했다. 침례교가 가진 것은 오직 성경의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확신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리는 결국 승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느니라."(히 4:12)는 말씀이 재침례교의 기반이 되었고, 영국 침례교를 형성했으며, 전 세계 침례교를 세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앞으로도 침례교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능력은 쇠하지 않기 때문이다.

1609년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횃불이 영국 전역을 밝혔고 이제 그 불빛은 대서양 너머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침례교가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미국 사회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Check Point

영국 침례교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신앙을 위해 안전한 망명지를 떠나 위험한 조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있는가?

편안함보다 진리를 우선하며 위험과 손해를 감수할 결단이 실제로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2. 나는 전통적 권위자들의 견해에 도전할 수 있는가?

전문가, 전통, 권위에 기대지 않고 성경을 직접 읽고 판단하려는 용기와 분별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3. 나는 사회적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신앙 때문에 손해, 불이익, 비난을 받더라도 변함없이 진리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4. 나는 불완전한 개혁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겉모습만 바뀐 개혁에 안주하지 않고 성경이 요구하는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나는 "왕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헬위스의 선언을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권력도 내 양심을 지배할 수 없다는 성경적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외적 보호나 제도적 지지가 없어도 견고히 지속될 만큼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7. 나는 박해의 역사 속 순교자들의 소망을 기념하며 계승하고 있는가?

순교자들이 지킨 원칙과 믿음을 오늘 나의 삶과 사역 속에서 실제로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Chapter 10

신대륙의 청교도 신정 국가
광야에서 피어난 자유

AD 1620-1707

미국 하면 우리는 흔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를 떠올린다. 그런데 정작 그 출발점이 된 청교도 식민지, 매사추세츠에는 왜 종교의 자유가 거의 없었는가?

영국의 박해를 피해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이, 왜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추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교수형까지 집행했는가? 그렇다면 미국에서 침례교가 말하는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 국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교회라는 이상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비로소 역사 속에 모습을 드러냈는가?

이 장에서는 청교도들의 신대륙 이주와 매사추세츠 신정 국가의 구조 및 한계를 먼저 살펴본다. 그다음 로저 윌리엄스가 로드아일랜드에서 시작한 종교 자유 실험이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로 이어지는 과정, 나아가 이것이 미국 침례교 확산과 미국적 자유 개념 형성에 어떤 토대를 마련했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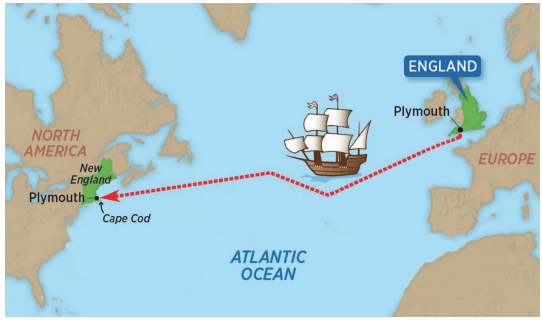
청교도들의 이주 - 또 다른 탈출

17세기 초 영국은 분리주의자들과 청교도들에게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다. 제임스 1세(재위 1603–1625)는 국교 체제를 강화했고 반대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는 1604년 햄프턴 코트 회의에서 청교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나에게 순응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쫓겨났고 일부는 네덜란드로 갔지만 네덜란드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다. 언어가 달랐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자녀들이 네덜란드 문화에 동화되어 영국인의 정체성을 잃을까 우려했다.

그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신대륙 아메리카였다. 대서양 건너편에는 광활한 미개척지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영국 왕의 손길이 닿지 않았고 대주교의 명령이 미치지 않았다. 국교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그곳에서라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620년 9월,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났는데 그들은 '순례자들'(Pilgrims)이라고 불린다. 66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그들은 현재의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했다.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 간 메이플라워호의 경로

그들은 첫 겨울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 102명 중 거의 절반이 추위, 굶주림, 질병으로 죽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착지를 건설하고 농사를 짓고 공동체를 만들었다.

1630년에는 더 큰 이주 물결이 있었다. 약 1,000명의 청교도들이 11척의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만에 도착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존 윈스럽(John

Winthrop, 1588–1649)이었다. 윈스럽은 배 위에서 유명한 설교를 했다.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눈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는 매사추세츠를 '새 예루살렘', 즉 신정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1630년대 동안 약 2만 명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로 이주했는데 이는 '대이주'라고 불린다. 그들은 보스턴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을 세웠다. 교회들이 세워졌고 학교들이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조직되었다.

매사추세츠는 빠르게 번영하는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세운 매사추세츠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영국에서 박해받았던 것을 기억했지만 정작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은 박해를 가했다.

매사추세츠의 신정 국가

청교도들이 세운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교회와 국가가 긴밀하게 결합된 체제였다. 그들은 사실상 또 다른 국교 체제를 세웠다. 영국 성공회 대신 청교도 교회가 지배했을 뿐 본질은 같았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라 불렸으며, 교회는 회중이 스스로 다스리는 구조였다. 그러나 식민지의 국가 운영이 청교도 교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 교회'로 기능하게 되었다.

투표권은 교회 회원들에게만 주어졌다. 교회 회원이 되려면 회심 경험을 공개적으로 증언해야 했고 교회는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해야 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할 수 없었고 공직을 가질 수도 없었다. 사실상 정치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 체제는 수많은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떤 남성은 20년 동안 식민지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땅을 일구었지만 교회가 그의 회심 간증을 의심스럽게 여겨 회원 자격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그는 평생 정치적 권리 없이 이등 시민으로 살았다. 그의 아들들도 똑같은 운명을 물려받았다. 아버지가 교회

회원이 아니면 아들들도 차별받았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 참석은 법적 의무였으므로 모든 주민은 주일에 교회에 가야 했다. 불참하면 벌금을 물어야 했는데 가난한 가정에 이 벌금은 큰 부담이었다. 한 과부는 병든 아이를 돌보느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가 벌금을 물었다. 그녀는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다.

주일에 일하거나 여행하거나 오락을 즐기는 것은 불법이었다. 한 농부는 추수철에 비가 오기 전에 급히 곡식을 거두다가 주일 노동으로 고발되었다. 그는 벌금을 물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다. 또 다른 남성은 주일에 아픈 말을 돌보다가 안식일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안식일 법은 자비 없이 집행되었다.

신학적 의견의 차이는 용납되지 않았다. 청교도 교리를 의심하거나 비판하면 처벌받았다.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고 투옥되고 추방될 수 있었다. 심한 경우 사형까지 가능했다.

1656-1661년 사이에 4명의 퀘이커교도들이 매사추세츠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첫 희생자는 로빈슨(William Robinson)과 스티븐슨(Marmaduke Stephenson)이었다. 그들은 1659년 10월 27일 보스턴 커먼에서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들의 죄는 퀘이커 신앙을 가진 것과 추방 후 다시 매사추세츠로 돌아온 것이었다.

메리 다이어의 교수형

그날 메리 다이어(Mary Dyer)라는 여성도 함께 교수대에 올라갔다. 그녀는 두 남성이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목에도 올가미가 걸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아들이 총독에게 간청하여 사면을 얻어냈다. 48시간 내에 매사추세츠를 떠나는 조건이었다. 메리는 바로 떠나기는 했지만 1660년 5월에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불의한 법에 항거하려고 했으나 다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1660년 6월 1일, 메리 다이어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교수대에 올라가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여섯 자녀를 남기고 죽었으며 그녀의 가족은 평생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다.

1661년에는 윌리엄 레드라(William Leddra)가 처형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기쁘게 죽습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구현한 '종교의 자유'의 실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자유를 원했지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같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믿었다. 오류는 용납될 수 없었고 이단은 제거되어야 했다.

매사추세츠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워드(Nathaniel Ward)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이단과 잘못된 신앙과 분파들에게 무제한의 관용을 허용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셈이다."

존 코튼(John Cotton) 목사는 더 직설적이었다. "이단자를 관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로저 윌리엄스 - 다른 목소리

바로 이러한 매사추세츠에 1631년 2월, 한 젊은 목회자가 도착했는데 그의 이름은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 c.1603–1683)였다. 그는 곧 매사추세츠 청교도들과 깊은 갈등을 빚게 되며, 결국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 중 하나를 확립하는 인물이 되었다.

로저 윌리엄스는 1603년경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중산층이었지만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젊은 윌리엄스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그는 속기술에 능했고 이 재능 덕분에 유명한 법률가 에드워드 코크 경의 눈에 띄었다.

코크는 윌리엄스를 후원하여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윌리엄스는 케임

브리지 대학의 펨브로크 칼리지에 입학했고 거기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를 배웠다. 그는 나중에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도 여러 개 배울 정도로 언어에 재능이 있었다.

윌리엄스는 신학을 공부했고 성공회 성직자로 서품을 받았으나 대학 시절 청교도 사상에 끌렸다.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영국 국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점점 더 급진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단순히 교회를 개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교회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629년, 윌리엄스는 제인 왈리(Jane Whalley)와 결혼했고 제인은 그의 평생 동반자가 되어 모든 고난을 함께 견뎠다. 결혼 후 윌리엄스는 영국에서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견해는 너무 급진적이었고 박해가 임박해 있었기에 그는 아메리카에 가기로 결정했다.

1631년 2월, 윌리엄스와 제인이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그는 28세였다. 매사추세츠 청교도들은 처음에는 그를 환영했다.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교육받은 학자였고 능력 있는 설교자였으며 열정적인 청교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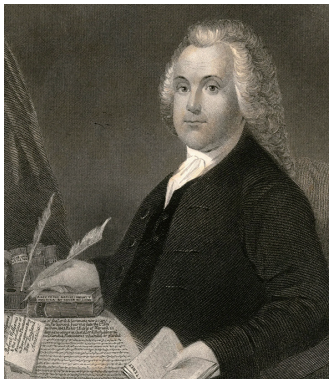
보스턴 교회가 윌리엄스에게 목사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오히려 그는 보스턴 교회가 여전히 영국 국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스턴 교회가 '분리되지 않은 교회'라고도 했는데 이 발언 역시 보스턴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 젊은이는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윌리엄스는 보스턴을 떠나 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목회자로 섬겼으나 곧 그의 급진적 견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윌리엄스의 위험한 생각들

윌리엄스는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들은 매사추세츠 청교도 지도자들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첫째, 국가는 종교를 강제할 수 없다. 윌리엄스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첫 네 명령, 하나님과의 관계)과 두 번째 돌판(나머지 여섯 명령, 사람들과의 관계)을 구별했다. 그는 국가가 두 번째 돌판, 즉 사람 사이의 관계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같은 죄들은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


로저 윌리엄스

그러나 첫 번째 돌판,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배는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강제된 예배는 하나님의 코에 역겨운 냄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예배를 원하십니다. 칼로 위협받아 드리는 예배는 위선일 뿐입니다."

이는 매사추세츠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만약 국가가 예배를 강제할 수 없다면 주일 예배 의무법은 무효가 된다. 만약 국가가 교리를 집행할 수 없다면 이단 처벌법도 무효가 된다.

둘째, 교회는 순수해야 한다. 윌리엄스는 매사추세츠 교회들이 여전히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권이 교회 회원에게만 주어진다고 해도 많은 교회 회원들이 진정한 회심 없이 형식적으로 가입했다. 윌리엄스는 교회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의 공동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교회가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다. 교회는 설득과 가르침, 기도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며, 칼을 빌리는 순간 타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셋째, 영국 왕은 원주민의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 이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다.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영국 왕으로부터 인가서를 받아 설립되었으므로 왕이 그들에게 땅을 준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물었다. "왕이 어떻게 자기 것이 아닌 땅을 줄 수 있습니까?"

윌리엄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땅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영

국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원주민들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야 한다. 왕의 인가서는 무효이다. 왕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식민지의 법적 기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만약 왕의 인가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면 매사추세츠 정부는 어떤 권위로 존재하는가? 윌리엄스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역자로 비쳐졌다.

넷째, 윌리엄스는 각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그 사람이 잘못 믿는다 하더라도 그의 양심은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고 사람이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는 "나는 세상의 모든 양심을 위해 자유를 요구한다. 카톨릭의 양심도, 유대인의 양심도, 터키인(무슬림)의 양심도, 이교도의 양심도 마찬가지다. 나는 단지 내 양심의 자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시로서는 극도로 급진적인 주장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류에는 어떤 권리도 없다고 믿었다. 진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거짓은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양심의 자유는 진리뿐 아니라 오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과 추방

매사추세츠 당국은 윌리엄스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635년 10월, 그는 총회 앞에 소환되었는데 총회는 입법부이자 최고 법원이었다. 존 윈스럽 총독과 다른 지도자들이 그를 심문했고 그들은 윌리엄스를 설득하려 했다.

"당신의 견해를 철회하시오. 당신은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위험합니다."

윈스럽은 개인적으로 윌리엄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거부했다.

"나는 내 양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음을 성경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면, 나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총회는 윌리엄스에게 '새롭고 위험한 의견들을 퍼뜨리고, 정부와 교회의 권위를 거스른 죄'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추방했다. 그는 6주의 유예 기간을 받았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선택해야 했다.

처음에 당국은 윌리엄스에게 봄까지 머물도록 허락했다.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한겨울에 떠나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견해를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 계속 가르치고 토론했다. 곧 소문이 퍼졌고, 당국은 그가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려 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결국 그를 체포해 영국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1636년 1월, 관리들이 윌리엄스를 체포하러 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떠난 뒤였다. 친구들이 미리 경고해 준 덕분이었다. 윌리엄스는 한겨울의 폭풍 속으로 도망쳐 숲으로 숨어 들어갔다.

광야에서의 14주

이후에 윌리엄스가 겪은 14주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고난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 "혹독한 겨울 속에서 14주를 쫓겨 다녔습니다. 집도, 침대도, 빵도 없었습니다."

1월의 뉴잉글랜드, 즉 미국 동북부의 겨울은 잔혹하다. 눈은 깊이 쌓여 있고 바람은 살을 에듯 불어오며 기온은 연일 영하로 떨어진다.

윌리엄스는 숲속을 헤매며 지냈다. 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했고, 얼어붙은 개울의 얼음을 깨서 물을 마셨으며, 손에 쥔 얼마 안 되는 식량으로 버텨야 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윌리엄스는 영국에서도, 매사추세츠에서도 원주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했다. 이제 그들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윔파노아그 족과 나라간셋 족의 추장들은 윌리엄스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피난처를 제공하며,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윌리엄스는 그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며 오랜 우정을 쌓았다.

이 은혜는 그의 평생에 깊이 새겨졌다. 윌리엄스는 원주민들을 단순히 '야만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존중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후에는 원주민 언어 사전까지 편찬하여 그들의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프로비던스 - 하나님의 섭리

1636년 봄, 윌리엄스는 마침내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라간셋 부족의 추장들에게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 그리고 그 땅을 '프로비던스'(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름 지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이끄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곧 그의 아내 제인과 두 딸이 합류했고 살렘에서 많은 가족들이 뒤따라왔다. 그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당시의 어떤 정착지와도 달랐다. 프로비던스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최초의 정착지였다.

윌리엄스는 공동체의 원칙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언했다. 프로비던스의 정부는 오직 '세속적 문제들'만 다루며, 종교적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을까?

- 예배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 누구에게도 시나 국가가 특정 교리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 투표권은 신앙과 무관하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재산을 가진 남성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 공직 진출에 종교적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 교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 각 교회가 스스로 재정을 마련한다.
- 정부는 교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모두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원칙이었다. 유럽 어디에도 이러한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매사추세츠 역시 신정 정치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다. 프로비던스는 그와는 전혀 다른 실험이었다.

물론 프로비던스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다. 노예제는 여전히 존재했고(비록 윌리엄스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여성은 투표권을 가지지 못했으며, 원주민들 역시 여러 면에서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한, 프로비던스는 시대를 몇 세기나 앞서간 곳이었다.

1638년 -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

프로비던스에 정착한 뒤에도 윌리엄스는 계속 성경 연구에 몰두했다. 특히 그는 교회론과 침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영국에서 재침례교와 침례교에 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주장을 다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638년경, 그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라고 가르치는데 유아는 아직 믿을 수 없으므로 유아 세례는 무효라는 판단이었다.

윌리엄스는 자신이 유아 때 받은 세례도 무효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그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프로비던스에는 성경적 침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윌리엄스는 일시적으로 스스로 침례를 주는 '자기 침례'(self baptism)도 고려했지만 결국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같은 신념을 가진 동료 홀리만(Ezekiel Holliman)에게 자신에게 침례를 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홀리만 역시 유아 세례가 무효라고 확신한 사람이었다. 홀리만은 윌리엄스에게 침례를 주었고 이어서 윌리엄스는 홀리만을 포함한 약 10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1638년에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프로비던스에 세워졌다. 이 교회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며 '프로비던스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in America)로 불린다.[1]

이 교회는 초창기부터 침례교의 핵심 원리를 실천했다.

"신자 침례만 인정하고 회중 정치를 따르며 정부와 완전히 분리되고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삼고 각 개인의 양심 자유를 존중한다."

흥미롭게도 윌리엄스는 이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약 4개월 만에 그는 교회를 떠났는데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사도적 계승 문제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추정한다. 진정한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연속성이 단절된 것처럼 느껴져 확신을 잃었다는 해석이다.

윌리엄스는 자신을 '진리를 찾는 사람'(seeker)이라고 불렀다. 그는 완전한 진리를 아직 다 찾지 못했다고 겸손히 고백하며 어떤 특정 교파에도 속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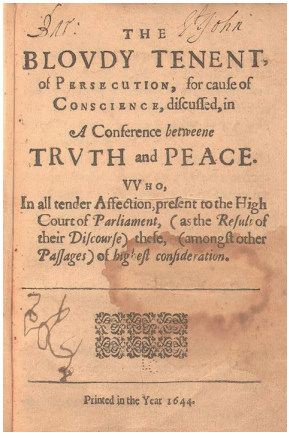
1. 이 교회는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중심부에 위치하며, 18세기 후반에 현재의 회중 예배당 건물이 세워졌다(1775–1776). 초기에는 작은 목조 예배처에서 시작했으나 이후 미국 식민지 시대 건축의 대표적 침례교 예배당으로 발전해 오늘날까지 역사적 랜드마크로 보존되고 있다.

았지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기꺼이 교제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에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목회를 이어갔고 많은 이들이 회원으로 합류하면서 교회는 번영하였다. 이 교회가 훗날 미국 침례교 운동의 씨앗이 되었다.

「피로 물든 박해의 교리」 - 윌리엄스의 대작

1644년, 윌리엄스는 런던에 가서 한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그것의 제목은 「피로 물든 박해의 교리」(The Bloudy Tenent of Persecution)였다. 이 책은 종교적 박해를 정당화하는 모든 논리를 공격하는 강력한 저술이었다.


THE
BLOVDY TENENT,
of PERSECUTION, for cause of
CONSCIENCE, discussed, in
A Conference betweene
TRVTH and PEACE.
VVHO,
In all tender Affection, present to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as the Results of
their Discourse) these, (amongst other
Passages) of highest consideration.
Printed in the Year 1644.

「피로 물든 박해의 교리」

이 책은 진리와 평화라는 두 인물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된 독특한 구조였다. 진리는 윌리엄스의 견해를 대변하고 평화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다가 결국 평화도 진리의 논증에 설득된다는 내용이었다.

책의 핵심 주장들은 이렇다.

첫째, 양심의 강제는 양심의 강간이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썼다. "영혼에 대한 강제는 일종의 강간이다. 영혼의 강간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으므로 양심은 하나님과 각 개인 사이의 것이다. 이러한 양심에 정부나 교회가 폭력을 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둘째, 박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를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칼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는가?

셋째, 박해는 역효과를 낸다. 강제로 만들어진 신자는 위선자일 뿐이다. 진

정한 신앙은 마음에서 나온다. 두려움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박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넷째, 잡초의 비유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인용하여 박해를 정당화한다. 그들은 "가라지를 뽑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마 13:30)고 하셨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다섯째, 역사가 박해의 결과를 보여 준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교회가 더 성장했다. 카톨릭교회가 개신교인들을 박해했다. 그 결과는 종교 개혁의 확산이었다. 박해는 진리를 막을 수 없다.

여섯째, 진정한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이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썼다. "어린양의 참된 교회는 박해하지 않는다. 교회는 박해를 받는다." 박해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이 책은 영국에서 곧바로 금서로 지정되었다. 그의 사상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의회는 책을 불태우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계속 유통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몰래 읽으며 그의 사상은 점차 확산되었다.

로드아일랜드 - 피난처가 된 식민지

프로비던스가 성공하자 다른 추방자들과 박해받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1638년, 허친슨(Anne Hutchinson)이라는 여성이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되어 왔다. 그녀는 신학 토론에 참여했다가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그녀와 그녀의 추종자들은 로드아일랜드 섬에 정착지를 세웠다.

1639년, 코딩턴(William Coddington)은 조력자들과 함께 포츠머스

(Portsmouth)를 세웠다.

1639년, 뉴포트(Newport)가 세워졌다.

1642년, 워릭(Warwick)이 세워졌다.

이 네 개의 정착지가 합쳐져 로드아일랜드 식민지가 되었다.

1644년, 윌리엄스는 영국에 가서 영국 의회로부터 로드아일랜드 개척지에 대한 허가서를 얻었는데 이 허가서는 로드아일랜드의 독특한 원칙, 즉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자치권을 보장했다.

로드아일랜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식민지가 되었다. 로드아일랜드는 17세기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었다. 그러자 침례교인들과 퀘이커교도들이 왔다(그들은 매사추세츠에서 처형당했다). 또 유대인들이 왔고 1658년에는 뉴포트에 북미 최초의 유대교 회당이 세워졌다.

여러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했지만 다른 식민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로드아일랜드를 경멸했다. 그들은 로드아일랜드를 '뉴잉글랜드의 하수구', '온갖 오류의 쓰레기장'이라고 불렀다.

매사추세츠의 청교도들은 로드아일랜드가 이단들의 소굴이라고 비난했지만 로드아일랜드는 번영했다. 종교의 자유는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그곳은 박해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다. 뉴포트는 중요한 무역 항구가 되었다.

중요한 점은 로드아일랜드가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종교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도 사회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양한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윌리엄스의 유산

윌리엄스는 1683년 약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고 권력도 없었으며 명성도 크지 않았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했고 그의 무덤조차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산은 막대했다. 그는 몇 가지 혁명적인 원리를 확립했다.

첫째,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적 문제를 다루고, 교회는 영적 문제를 다룬다. 둘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양심의 자유: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셋째, 종교의 자유: 정부는 종교를 강제할 수 없다. 예배 참석을 의무화할 수 없고 교리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단을 처벌할 수 없다.
넷째, 신자 침례: 침례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
다섯째, 원주민의 권리: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들의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럽인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이 원리들은 처음에는 극소수만 받아들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인식하게 되었고 100년 후 이 원리들은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미국 침례교의 확산

윌리엄스가 세운 침례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에 더 많은 침례교회들이 뉴잉글랜드에 세워졌다. 1665년, 보스턴에 침례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윌리엄스를 추방했던 바로 그 도시였다.
보스턴 침례교회는 처음에 많은 박해를 받았다. 교회 건물이 파괴되고, 목사가 투옥되고, 회중들이 벌금을 물었으나 교회는 살아남았고 성장했다.
1707년, 필라델피아에서 여러 침례교회들이 모여 협의회를 조직했는데, 이는 미국 최초의 침례교 협의회였다. 협의회는 각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협력과 상호 지원을 제공했다.

18세기에 일어난 대각성 운동은 영적 부흥 운동이었다. 휫필드(George Whitefield)와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같은 설교자들이 운동을 이끌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교회들이 성장했다. 침례교는 대각성 운동의 큰 수혜자였다. 침례교의 신자 침례 강조와 회심에 대한 강조는 부흥 운동의 정신과 잘 맞았기 때문에 침례교회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18세기 말 무렵 침례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파 중 하나가 되었다.

침례교는 특히 남부에서 강했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침례교가 빠르게 성장했다. 침례교는 농부, 노동자, 노예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침례교 예배가 단순하고 설교가 명확하며 메시지가 희망적이었기 때문이다.

Check Point

신대륙 청교도 신정 국가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박해받는 사람이 되면 자동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믿는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겸손과 절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박해받았던 과거를 면죄부로 삼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양심을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스스로 판단한 '이단'을 마음속에서 제거하려는 위험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정교분리가 종교를 약화시키는지, 아니면 더 순수하게 지키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국가의 지원과 결합이 교회를 강화하는지, 아니면 타락과 박해의 길로 이끄는지를 성경적 시각으로 성찰해야 한다.

4. 나는 다른 신앙과 비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의 양심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가?

내 신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낮게 보거나 억누르려는 마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5. 나는 권력을 얻으면 나의 신앙적 원칙을 버릴 위험이 있지는 않은가?

자유를 외치던 사람이 권력을 잡는 순간 남의 자유를 억압했던 청교도들의 실수를 나도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불의한 법을 거역할 용기가 있는가?

양심의 명령이 국가의 명령과 충돌할 때, 진리를 따라 법을 거스르는 책임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7. 나는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성경적이라는 윌리엄스의 원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기독교 국가'라는 이상보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영역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Chapter 11

버지니아에서의 자유 투쟁

세계 최초의 정교분리 성취

AD 1760-1791

신대륙의 북쪽 끝, 작은 로드아일랜드에서 로저 윌리엄스가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외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위험한 공상이라고 여겼다. 로드아일랜드는 작았고 가난했고 다른 식민지들 눈에는 그저 '이단들의 하수구'에 불과했다. 정교분리는 하나의 실험일 뿐 대세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부유하고 영국 국교 체제가 가장 단단했던 버지니아에서 바로 그 로저 윌리엄스의 사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교인 성공회가 사회 질서를 떠받치는 기둥이었고 교회세와 법과 관습이 서로를 단단히 지탱하던 곳, 그야말로 '정교 결합의 본진'에서 자유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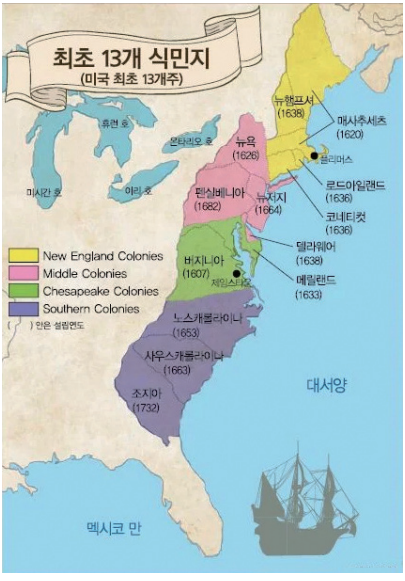
아이러니하게도 이 변화는 계몽주의 지식인들만의 작품도 아니었고 위에서 내려온 개혁도 아니었다. 감옥에 갇힌 시골 침례교 목사들, 채찍에 맞으면서도 설교를 멈추지 않던 무명의 설교자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고

민하던 젊은 제임스 매디슨과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 낸 기적이었다. 어떻게 버지니아 같은 '국교의 철옹성'에서 세계 최초로 정교분리가 법으로 선포되었을까? 어떻게 감옥 창문에서 들려오던 침례교 설교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라는 위대한 결과로 연결되었을까?

이 장에서는 18세기 버지니아를 배경으로, 국교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던 침례교인들의 투쟁, 제퍼슨과 매디슨의 사상,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초로 법제화된 정교분리의 과정을 함께 알아보려 한다. 먼저 우리는 먼저 그 시대의 모순된 풍경부터 살펴보자.

신대륙의 아이러니

먼저 18세기 중반 미국 식민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매우 아이러니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유럽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이 세운 땅,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곳에서 여전히 종교적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청교도들이 자신들만의 신정 국가를 세우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퀘이커교도들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로저 윌리엄스는 추방당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버지니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억압적이었다. 매사추세츠가 청교도 국교를 세웠다면 버지니아는 영국 성공회를 그대로 이식했다. 초기 13개 식민지 중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국교 체제를 유지했다. 코네티컷, 뉴햄프셔, 매사추세츠는

회중교회(청교도)를 사실상 국교로 삼았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성공회를 국교로 정했다.

일부 중부 식민지들은 좀 더 관대했다. 펜실베이니아는 퀘이커교도인 윌리엄 펜(William Penn, 1644–1718)이 세웠고 상대적으로 종교적 관용이 있었다. 뉴욕에도 여러 종교들이 공존했지만 완전한 종교의 자유는 없었다. 여전히 제한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으며 특혜가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곳은 오직 로드아일랜드뿐이었다. 로저 윌리엄스가 세운 그 작은 식민지만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허락했다. 그러나 로드아일랜드는 작고 가난했으며 다른 식민지들로부터 경멸받았다. 그 당시에는 로드아일랜드의 모델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로 버지니아에서였다. 13개 식민지 중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버지니아. 국교 체제가 가장 강력했던 그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승리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중심에는 침례교가 있었다.

버지니아 - 식민지의 거인

버지니아(Virginia)는 1607년 제임스타운(Jamestown)에서 시작된 영국의 첫 번째 성공적인 식민지였다.[1]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면서 버지니아는 가장

1. 버지니아라는 이름은 16세기 후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여왕'으로 불렸기 때문에, 북아메리카에 대한 초기 영국 탐험가들과 정착 시도자들은 새 땅을 '처녀 땅' 즉 버지니아라 명명하였다. 이후 이 명칭은 영국의 첫 성공적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이 자리 잡은 광범위한 지역의 공식 이름이 되었다. 제임스타운은 1607년 영국이 북아메리카에 세운 최초의 영구적 식민지 정착지로 오늘날 버지니아에 위치한다. 이 정착지는 당시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버지니아 회사(Virginia Company)가 설립을 추진했다. 이곳은 열악한 환경, 기근, 질병, 원주민 갈등 속에서도 생존에 성공하여 이후 영국 식민지 확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번영하는 식민지가 되었다. 담배 농장이 막대한 부를 창출했고 노예 노동이 경제를 지탱했으며 대농장주들이 사회를 지배했다.

버지니아는 귀족 사회였다. 소수의 부유한 가문들이 거대한 농장을 소유했고 정치를 장악했으며 문화를 주도했다. 워싱턴, 제퍼슨, 매디슨, 먼로 등 초기 미국 대통령 4명 중 3명이 버지니아 출신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버지니아는 식민지 미국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버지니아의 귀족 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영국 성공회였다. 성공회는 단순히 종교 기관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일부였고 정치 체제의 연장이었으며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다.

버지니아의 국교 체제

버지니아의 국교 체제는 철저하고 포괄적이었다. 1619년부터 법으로 확립된 이 체제는 다음과 같이 작동했다.

첫째, 모든 주민은 자동으로 성공회 교구에 속했다. 버지니아 전체가 여러 교구로 나뉘어 있었고 각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교구에 속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고 태어나면 누구나 자동으로 교구민이 되었다.

둘째, 교회세는 강제적으로 부과되었다. 모든 주민은 성공회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했다. 본인이 성공회 신자인지 아닌지, 혹은 예배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관없었다. 성공회가 버지니아의 공식 교회이므로 모든 주민이 재정적으로 교회를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

이 세금은 담배나 현금으로 납부되었고 거부하면 재산이 압류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지도 않는 교회를 위해, 자신이 다니지도 않는 예배를 위해, 자신이 존경하지도 않는 성직자를 위해 세금을 내야 했다.

셋째, 성직자 임명은 교구 위원회가 했는데 이 위원회는 지역 귀족들로 구성되었다. 평범한 교인들은 자기 목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교구 위원회가

결정했고 총독이 승인했다. 이는 철저히 하향식 구조였다.

넷째, 성공회 예배 참석은 법적 의무였기에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했다. 물론 이 법이 항상 엄격하게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처벌될 가능성은 있었다.

다섯째, 다른 종교 집단의 예배는 허가가 필요했다. 성공회가 아닌 집단이 모여 예배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 없이 예배하면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다.

여섯째, 공직은 성공회 신자들에게만 열려 있었다. 하원 의원, 치안 판사, 민병대 장교 등 공직을 맡으려면 성공회 신자여야 했다. 더 정확히는 성공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이는 비성공회 신자들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러한 법규들이 결합하여 강력한 통제 체계가 이루어졌다. 성공회는 단순히 하나의 교파가 아니라 버지니아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였다. 성공회에 도전하는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회 질서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대각성 운동 - 변화의 바람

18세기 중반, 대각성 운동(Great Awakening)이라고 불리는 영적 부흥이 미국 식민지들을 휩쓸었다. 1730년대와 1740년대에 절정에 달한 이 운동은 조지 휫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길버트 테넌트 같은 강력한 설교자들이 이끌었다.

대각성 운동은 개인의 회심 경험을 강조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야 했다. 설교자들은 열정적으로 외쳤다.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메시지는 기존 교회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국교 체제에서는 사람이 태

어나면 자동으로 교인이 되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나 대각성 운동은 그러한 형식적 종교를 거부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가르쳤다. 버지니아에 대각성 운동이 도달한 것은 1740년대였다. 처음에는 장로교 목사들이 이 부흥을 이끌었다. 데이비스(Samuel Davies, 1723–1761) 같은 설교자들이 버지니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 그러나 1750년대와 1760년대에 더 급진적인 그룹이 등장했다. 바로 침례교였다. 침례교는 단순히 회심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론 전체를 재구성했다.

침례교의 등장 - 뿌리부터 다른 교회

버지니아에 침례교가 처음 나타난 것은 1750년대였다. 처음에는 북부 식민지에서 온 소수의 침례교인들만 있었으나 1760년대에 침례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버지니아 침례교는 주로 '세퍼레이트 침례교'(Separate Baptists) 또는 '정규 침례교'(Regular Baptists)였다. 세퍼레이트 침례교는 뉴잉글랜드 대각성 운동에서 나온 그룹으로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예배를 특징으로 했다. 정규 침례교는 좀 더 절제되고 칼빈주의적이었다.[2] 그러나 두 그룹 모두 핵심 침례교 원리들을 공유했다.

침례교가 버지니아에서 빠르게 성장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2. 그들은 1689년 런던 신앙 고백(혹은 1742년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 같은 체계적이고 정통적인 칼빈주의 신앙 고백을 따랐다. 그래서 '정규 침례교', 즉 '정해진 규범을 따르는 침례교'라고 불린 것이다.

첫째, 침례교 메시지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이었다. 반면 성공회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었다. 기도문을 낭독하고 정해진 순서를 따르며 고상한 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성공회 예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반면 침례교 설교는 생생했다. 설교자들은 지옥의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했으며, 회개의 긴급함을 열정적으로 외쳤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청중은 울었고, 소리쳤고, 기뻐했다.

둘째, 침례교는 신자 침례를 실천했다. 이는 단순히 예식의 차이가 아니었고 교회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였다. 침례교에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진지한 일이었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했고 침례를 받아야 했다.

침례 의식 자체가 강력한 증거였다. 강이나 개울에서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는 극적이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 수백 명이 강변에 모여 침례를 지켜보았다. 이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고 세상과의 결별이었으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셋째, 침례교는 평등을 강조했다. 성공회는 계급적이었다. 부유한 농장주들은 교회 앞좌석에 앉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뒷좌석에 앉았으며 노예들은 발코니나 별도 공간에 격리되었다. 성직자들은 흔히 부자들의 친구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했다.

침례교는 달랐다. 침례교회에서는 농장주와 소작농이 나란히 앉았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똑같은 회원이었다. 심지어 노예들도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사회적 평등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영적으로는 동등하다고 인정되었다.

침례교 목사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농부였고 장인이었고 평범한 노동자였다. 그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신학 학위가 없었으며 귀족층과 친분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사람들을 사랑했다.

넷째,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실천했다. 성공회에서 일반 성도는 교회 결정에

거의 관여하지 못했다. 성직자와 교구 위원회(부유한 귀족들)가 모든 것을 결정했고 평범한 교인들은 단지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모든 회원이 교회 업무에 참여했다. 목사를 선택하는 것도, 새 회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권징을 시행하는 것도, 정책을 정하는 것도 모두 회중이 함께 결정했다. 이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이었다.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느꼈다.[3]

다섯째, 침례교는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예배를 드렸다. 성공회 예배는 절제되고 격식이 있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손을 들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졌다. 반면에 침례교 예배는 자유로웠다.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외쳤고 "할렐루야!"라고 소리쳤으며 기쁨으로 울었다. 긴 기도 시간이 있었고 간증 시간이 있었으며 찬송이 넘쳤다. 이러한 예배는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주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침례교는 버지니아에서 급속히 성장했다. 1760년대 초에는 침례교회가 거의 없었으나 1770년대 초에는 수십 개의 교회가 있었고 수천 명의 회원이 있었다. 성장은 계속되었다.

버지니아 지배층의 공포

침례교의 급속한 성장은 버지니아 지배층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침례교는 단순히 또 하나의 종파가 아니었다. 침례교는 버지니아 사회 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성공회 성직자들은 침례교를 '광신자들', '열광주의자들', '무지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침례교의 감정적 예배를 조롱했고 일반 성

3. 미국의 침례교회는 교회를 창립하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헌법·신앙 고백·운영 원칙을 직접 제정하며, 외부 상위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모든 권한은 회중에게 있고 중요한 결정은 회중 투표로 이루어진다. 반면 한국 교회 대부분은 교단 헌법과 총회 규정이 존재하여, 개교회가 독자적으로 모든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교단의 기준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담임목사 청빙, 안수 방식, 재정 보고 형식, 권징 절차 등도 상당 부분 교단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즉, 미국 침례교회는 완전한 자치 교회 모델이고,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단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연결된 교회 모델을 따른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도 설교를 경멸했으며, 침례 의식을 미신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침례교를 정치적·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위협으로 보았다. 침례교는 기존 권위 구조를 위협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가르침은 사회적 계급 질서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회중 정치의 실천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나아가 국교 체제 거부는 정부 권위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결국 지배층은 침례교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았다. 그들은 침례교가 질서를 파괴하고 전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믿었다. 그들은 침례교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박해의 시작 – 법의 이름으로

버지니아 당국은 침례교를 억압하기 위해 법을 사용했다. 주된 수단은 '허가법'(Licensing Law)이었다. 1662년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버지니아에도 적용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성공회가 아닌 집단이 예배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론적으로는 침례교도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예배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신청 절차가 복잡했고 요건이 까다로웠으며 승인이 자주 거부되었다. 설령 허가를 받더라도 많은 제한이 따랐다. 특정 장소에서만 모일 수 있고 특정 시간에만 예배할 수 있으며 순회 설교는 금지되었다. 많은 침례교인들은 허가 제도 자체를 거부했다. 그들은 예배할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다. 정부가 그것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허가 없이 예배했고 위법으로 간주되어 체포되었다.

감옥에 갇힌 목사들

1768년부터 1776년까지 약 8년 동안 최소 30명 이상의 침례교 목사들이 버지니아에서 투옥되었는데 실제 숫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모든 사건이 기

록으로 남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는 '무허가 설교'였다. 그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 설교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었다.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말했다. "설교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면 석방해 주겠소." 그러나 대부분은 거부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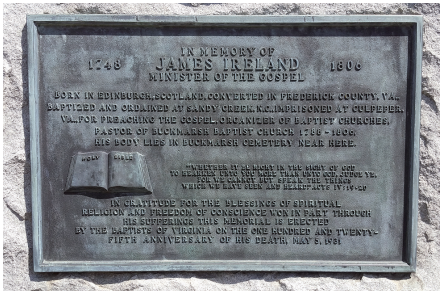
18세기 감옥은 어둡고 춥고 습했으며 더러워서 끔찍했다. 쥐들이 들끓었고 벼룩과 이가 만연했으며 각종 질병이 퍼졌다. 음식은 형편없었고 침대는 없었으며 위생 시설도 거의 없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많은 죄수들이 감옥에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 목사들은 감옥에서도 설교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 창문을 통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소문이 퍼지자 군중이 모였다. 수백 명이 감옥 밖에 모여 설교를 들었다. 어떤 때는 교회의 일반 예배보다 감옥 설교를 듣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큰 집회가 되기도 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다.

제임스 아일랜드 – 독극물 공격을 견디다

아일랜드(James Ireland, 1748–1806)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젊은 목사였다. 그는 열정적인 설교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회심했다. 1769년 그는 컬페퍼 카운티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아일랜드는 감옥 창문을 통해 밖에 모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 사실은 성공회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침묵시키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감옥으로 온 폭도들이 유황과 인도 고추를 불에 태우며 독한 연기를 만들어 감옥 창문을 통해 불어넣었다. 아일랜드를 질식시키거나 병들게 해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아일랜드는 나중에 이렇



제임스 아일랜드의 묘비명

게 썼다. "독한 연기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내 눈이 타는 것 같았고, 내 목구멍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

아일랜드는 살아남았고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설교하기 시작했다. 박해는 그를 멈출 수 없었다.

존 월러 – '채찍질당한 존'

월러(John Waller, 1741–1802)는 원래 성공회 신자였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침례교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 중 하나였지만 침례교 설교를 듣고 극적으로 회심했다. 그는 침례를 받고 목사가 되었으며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1771년, 월러가 야외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공회 지지자들이 나타나 그를 공격했다. 그들은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채찍으로 때렸다. 월러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군중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그러나 월러는 등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계속 설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조금 고통받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 월러는 '채찍질당한 존'(Whipped John)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별명은 조롱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였다.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받는 그의 용기를 존경했다.

크레이그 형제

루이스 크레이그(Lewis Craig)와 그의 형 일라이저 크레이그(Elijah Craig)는 둘 다 침례교 목사였다. 1768년, 그들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함께 체포되어 수개월 동안 투옥되었다. 감옥에서 형제들은 서로를 격려했고 함께 기도했으며 창문을 통해 설교했다. 그들의 어머니가 감옥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울면서 아들들을 보았다. 루이스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어머니, 우리를 위해 슬퍼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라이저 크레이그는 석방된 뒤 켄터키로 이주했으며 거기서 침례교회들을 세웠고 학교를 설립하였다.

창문 밖 예배 – 박해가 만든 부흥

감옥에 갇힌 목사들이 창문을 통해 설교하는 광경은 버지니아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는 기묘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침례교를 억압하려고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나 감옥이 오히려 설교단이 되었다.

사람들은 '감옥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왔다. 감옥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보는 것은 특이한 구경거리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진지한 구도자였다. 그들은 감옥에 갇힐 정도로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감옥 창문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일반 교회 예배보다 더 강력했다. 목사의 고난이 그의 메시지에 권위를 더했다. 그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리를 믿는다는 증거였다.

한 침례교 목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있을 때보다 감옥 안에서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는 침례교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켰다. 테르툴리아누스가 2세기에 했던 말이 18세기 버지니아에서도 사실로 입증되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폭력과 모욕 – 법 밖의 박해

감옥형만이 침례교인들이 겪은 고난의 전부가 아니었다. 많은 경우 폭도들이 침례교 집회를 직접 공격했는데 이러한 공격은 종종 당국의 묵인 아래 일어났고 때로는 지역 귀족들이 조직했다.

침례교인들이 야외에서 침례를 행할 때 공격이 자주 일어났다. 침례는 보통

강이나 개울에서 이루어졌고 많은 군중이 모였다. 이는 공개적이고 극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성공회 지지자들을 자극했다.

폭도들은 침례 의식을 방해하려고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위협했으며 소리를 질러 방해했다. 어떤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 목사를 공격하기도 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을 물 밖으로 끌어내려 하기도 했다. 한 기록은 이렇게 전한다. "목사가 한 여성에게 침례를 주려 할 때, 몇 명의 남성들이 달려들어 그 여성을 끌어내려 했다. 그러나 침례교 남성들이 그들을 막았고 침례가 완료될 때까지 그들을 저지했다. 이때에는 그 일이 거의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

실내 예배도 안전하지 않았다. 폭도들이 예배 중에 건물에 침입하기도 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예배를 중단시키려 했다.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파괴하기도 했다.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고, 벽을 허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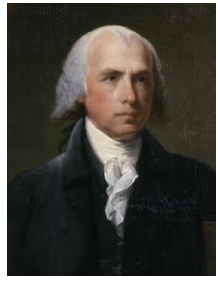
여성들도 모욕을 당했다. 침례교 여성들이 길을 갈 때 조롱을 받았다. "광신자!", "위선자!", "이단!" 같은 소리를 들었다. 때로는 진흙이나 오물을 던지기도 해서 여성들에게 큰 수치를 주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

침례교 목사들은 폭행도 당했다. 길에서 기습 공격을 받았고 집에서 끌려 나와 구타당했으며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했다. 존 월러의 경우처럼 설교 중에 공격받는 일도 있었다. 한 침례교 목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숲에서 매복해 있던 자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땅에 쓰러뜨리고 발로 찼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내 모습은 피투성이였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폭력과 모욕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침례교인들을 두렵게 만들어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침례교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침례교인이 되면 당신도 이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효과는 정반대였다. 폭력은 사람들에게 침례교의 진정성을 확신시켰다.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킨다면 그들이 가진 것은 진짜임이 틀림없다." 박해는 침례교의 성장을 막는 대신 오히려 가속화시켰다.

제임스 매디슨 - 22세 청년의 각성


제임스 매디슨

이러한 박해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이었는데 그는 버지니아의 유명한 가문 출신으로 프린스턴 대학(당시에는 뉴저지 칼리지)에서 교육받았으며 뛰어난 지성과 깊은 사색으로 알려진 청년이었다.

1768년, 당시에 17세였던 매디슨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가족 농장 몬트펠리어에서 살고 있었다. 바로 그 카운티에서 여러 명의 침례교 목사들이 체포되어 투옥되었는데 매디슨은 이 사건들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다.

매디슨은 감옥에 갇힌 목사들이 창문을 통해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고 폭도들이 침례교 집회를 공격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그는 평화롭고 선량한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예배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는 현실을 보았다. 이러한 장면은 매디슨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계몽주의 사상을 공부했고 자연권을 믿었으며 정부 권한의 제한을 지지해 왔다. 그러한 그가 자유가 억압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이 자신의 고향이자 자신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774년 1월, 매디슨은 대학 친구 브래드퍼드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서 그는 버지니아의 종교적 박해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여기 버지니아에서는 지옥 같은 원칙이 여전히 만연해 있네. 다섯 명 또는 여섯 명의 정직한 침례교 목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그들의 죄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설교한 것뿐이라네. 이러한 악마적이고 잔인한 광경을 보니 내 영혼에 분노와 치욕이 가득 차 버렸지. 자유와 권리에 관해 그토록 많이 말하고 글을 쓰면서도, 우리 이웃의 양심을 이렇게 짓밟는다니! 이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피가 끓어오른다네!"

이 편지는 젊은 매디슨의 열정과 확신을 보여 준다. 그는 단순히 지적으로만

자유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유를 사랑했다.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경험은 매디슨의 평생 사상을 형성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기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만약 정부가 사람의 종교를 통제할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다. 만약 양심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떤 권리도 안전하지 않다. 매디슨은 나중에 이렇게 썼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다. 양심은 정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빼앗을 수도 없다. 양심은 창조자께서 각 개인에게 직접 주신 선물이다."

독립 전쟁과 일시적 자유

1775년,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전쟁은 침례교에게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주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국교 체제를 엄격하게 집행할 여유가 없어졌다. 정부는 영국과 싸우느라 바빴고 침례교를 박해할 시간이 없었다.

더 중요한 점은 침례교인들이 애국자 편에 섰다는 사실이다. 침례교인들은 영국의 폭정에 반대하며 대의를 위해 싸웠고 민병대에 가입했으며 전쟁 노력을 지원했다. 많은 침례교 목사들이 군종 목사가 되었고 침례교 청년들이 전투에 참여했다.

버지니아 정부는 침례교의 지원을 환영했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다. 정부는 침례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했고 일부 수감자들을 석방했으며 침례교가 더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락했다.

침례교는 이 기회를 활용했다. 그들은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더 공개적으로 활동했다. 전쟁 기간 동안 침례교는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침례교는 단순히 일시적 자유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구적인 종교의 자유를 원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국교 체제가 다시 강화될까? 박해가 다시 시작될까? 침례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청원의 폭풍 - 침례교의 정치적 투쟁

1776년, 버지니아는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고 있었다. 독립을 선언한 이상, 식민지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했는데, 이는 침례교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새로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들의 투쟁은 영구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다.

침례교는 조직적인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버지니아 곳곳의 침례교회들이 청원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들은 명확한 요구를 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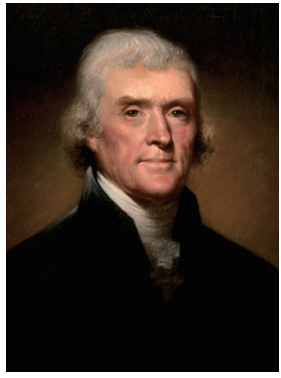
- 국교 체제를 폐지하라. 어떤 교회도 법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교회세를 폐지하라. 아무도 자기가 믿지 않는 교회를 지원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 모든 교파에 평등한 권리를 주어라.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퀘이커, 모두가 법 앞에 동등해야 한다.
-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각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다.
- 종교적 이유로 처벌하지 마라. 아무도 자기 종교 때문에 벌금, 투옥, 또는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청원서들에 서명한 사람은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달했다. 침례교뿐 아니라 다른 비국교도들도 서명했다.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퀘이커교도들도 침례교의 요구를 지지했다.

버지니아 의회는 이 청원서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독립 전쟁을 지지하는 애국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했다.

제퍼슨 - 이성의 빛으로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다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은 이미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명성이 높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자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그 유명한 문장이 그의 펜에서 나왔다.

제퍼슨은 계몽주의 사상가였다. 그는 이성을 신뢰했고 미신을 혐오했으며 종교적 강제를 폭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의 종교관은 복잡했다. 그는 기독교의 도덕적 가르침을 존중했지만 많은 교리를 의심했다.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교사로 보았을 뿐이며 그분의 신성을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는 제퍼슨의 입장이 명확했다. "정부는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믿을 권리가 있다. 강제된 신앙은 위선을 낳을 뿐이고, 박해는 사회를 분열시킬 뿐이다."

제퍼슨은 침례교와는 신학적으로 매우 달랐다. 침례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했으며 복음주의적이었으나, 제퍼슨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었고 기적을 회의적으로 보았으며 이성주의적이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그들은 완전히 일치했다. 제퍼슨은 침례교가 박해받는 것을 보며 분노했고 침례교는 제퍼슨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며 감사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했으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했다.

제퍼슨은 나중에 이렇게 썼다.

"나와 침례교인들은 많은 신학적 문제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라는 위대한 원칙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버지니아 권리 장전 - 첫 번째 승리

1776년 6월, 버지니아는 새로운 헌법과 함께 '버지니아 권리 장전'을 채택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권리 장전이었고 후에 연방 권리 장전의 모델이 되었다.[4]

제임스 매디슨은 이 권리 장전의 종교 조항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원래 초안은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이 작성했으며 "모든 사람은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충분한 관용을 누려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디슨은 '관용'(toleration)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다. 관용은 정부가 베푸는 은혜를 암시한다. 마치 정부가 종교를 통제할 권리가 있지만 친절하게도 허락해 준다는 뉘앙스였기 때문에 그 단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종교의 자유는 정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다. 매디슨은 수정안을 제안했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확신의 명령에 따라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즉, 관용이 아니라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약간의 논쟁 끝에 최종 문구가 채택되어 제16조는 이렇게 선언했다.

"종교, 즉 우리가 창조자께 지는 의무와 그것을 이행하는 방식은 오직 이성과 확신에 의해서만 지도될 수 있으며 강제나 폭력으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는 중요한 승리였다. 버지니아가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침례교와 다른 비국교도들의 오랜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권리 장전은 종교의 자유를

4.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은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선언문이다. 표현·종교·집회의 자유, 적법 절차의 권리 등 핵심 자유를 명시하여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미국의 권리 장전은 현대 민주주의와 시민권 개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언했지만 국교 체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성공회는 여전히 법적으로 특혜를 누렸고 교회세는 여전히 징수되었다. 권리 장전은 원칙을 천명했지만 실제 제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10년의 투쟁 - 법을 바꾸기까지

1776년부터 1786년까지 10년 동안 버지니아에서는 종교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투쟁이 계속되었다. 한쪽에는 침례교, 장로교, 그리고 다른 비국교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국교 체제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했다. 다른 한쪽에는 성공회와 그 지지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교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하기를 원했다.

매디슨과 제퍼슨은 완전한 정교분리를 지지했다. 그러나 그들조차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버지니아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가 종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종교가 도덕의 기초이고 정부는 도덕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1736–1799) 같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모든 교파를 평등하게 대우하되 정부가 모든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자고 설득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파를 지정하여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일반 세금'이라고 불렀다.

성공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파가 지원을 받으므로 표면적으로 이 세금은 공평해 보였다. 그러나 매디슨과 침례교는 명확한 논리를 내세워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부가 종교를 지원하는 순간 정부는 종교를 통제할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재정 지원은 결국 정부 간섭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었다.

그들은 더 근본적으로 종교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교회는 신자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지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와 목사들은 신자들이 아니라 정부를 의식하게 되어 결국 타락한다고 여겼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를 따르게 된다

고 주장했다. 1785년, '일반 세금' 법안이 버지니아 의회에 제출되었다. 패트릭 헨리가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했고 많은 의원들이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매디슨의 '기념과 항의' – 결정적 반격

위기의 순간에 제임스 매디슨이 나섰다. 그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념과 항의'라는 익명의 팸플릿을 작성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료한 논증 중 하나가 되었다. 매디슨은 15개 항목으로 자신의 논증을 전개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는 창조자와 개인 사이의 문제이다.

"각 사람이 창조자께 지는 의무는 창조자께 대한 사람의 확신이 명령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다른 의무보다 선행하고, 어떤 시민 사회의 권위에도 복종할 수 없다." 정부는 시민들 사이의 계약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종교는 시민 사회 이전에 존재한다. 사람은 정부를 형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종교를 규제할 권리가 없다.

둘째, 종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수자를 억압한다.

"누가 다수가 될지, 누가 소수가 될지 누가 아는가?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종교를 지원할 권리를 갖는다면, 다수파가 소수파를 억압할 테고 이는 곧 폭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종교적 강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재앙이었다.

"15세기 동안 기독교의 법적 확립은 그것을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타락, 부패, 무관심, 교만, 잔인함을 낳았다." 매디슨은 역사를 인용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종교 재판소, 박해, 전쟁. 교회는 권력을 얻었지만 영혼을 잃었다.

넷째, 진정한 종교는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

"우리의 종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존재했고 번영했다. 아니,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번영했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성장했다. 그리

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다. 교회는 칼이 아니라 성령으로 전진한다.

다섯째, 종교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토대이다.

"종교의 자유를 사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른 자유들도 사라질 것이다." 만약 정부가 사람의 양심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파수꾼이다.

이 '기념과 항의' 팸플릿은 버지니아 전역에 배포되었다. 매디슨의 친구들과 침례교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퍼뜨렸고 사람들은 읽고 토론하고 서명했다. 수천 명의 서명이 모였다. 동시에 침례교 역시 자체적으로 청원 운동을 계속했다. 릴랜드(John Leland, 1754–1841)라는 침례교 목사는 특히 영향력이 있었다. 웅변가이자 조직가였으며 열정적인 자유의 옹호자였던 그는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를 오가며 침례교를 조직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릴랜드와 다른 침례교 지도자들은 회중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교회마다 청원서를 작성했고 회원들이 서명했으며 의회에 제출했다. 침례교의 목소리는 너무 강력해서 무시할 수 없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일반 세금' 법안을 지지했던 무리가 패배했다. 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결국 매디슨과 침례교의 연합 전선이 승리했다.

1786년 - 버지니아 종교의 자유법

'일반 세금' 법안이 패배한 직후 매디슨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7년 전에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법안을 꺼냈다. '버지니아 종교의 자유법'이었다. 제퍼슨이 이 법안을 작성했던 1779년 당시에는 반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당시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독립 전쟁이 끝났고 침례교가 성장했으며 여론이 변했기 때문에 매디슨은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했다.

1786년 1월, 버지니아 의회는 제퍼슨의 법안을 심의할 때에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보수파는 이 법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반대했다. 종교에 대한 모든 정부 지원을 없애면 종교가 쇠퇴하고 사회가 타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매디슨은 침례교와 다른 비국교도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그들은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었고 여론을 동원했으며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마침내 1786년 1월 16일, 버지니아 의회는 종교의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정교분리를 법으로 확립한 최초의 입법이었기 때문이다. 법의 전문은 제퍼슨의 명료한 문체로 시작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신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다. 정신을 강제로 억누르려는 모든 시도는 폭정을 낳을 뿐이다. 위선적이고 비열한 자들에게 교회나 국가의 권력을 넘겨주면, 그들은 이 권력을 종교 자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법의 핵심 조항은 명확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적 예배나 모임, 사역에 참석하거나 이를 지원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이유로 몸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종교적 의견이나 신념 때문에 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 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세 폐지
2. 국교 체제 폐지
3. 종교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 금지
4 완전한 종교의 자유 보장

법은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보호 조항을 포함했다.

"우리는 이 법이 자연권을 선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미래의 의회가 이 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그런 행위는 자연권을 침해하는 시도로 간주될 것이다."

제퍼슨은 나중에 이 법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여겼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세 가지만 기록하라고 유언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 버지니아 종교의 자유법의 저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그는 자신이 대통령을 두 번 역임한 것(제3대 대통령, 1기와 2기 총 8년간)은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그만큼 그는 종교의 자유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침례교의 승리 - 150년 투쟁의 결실

버지니아 종교의 자유법은 침례교에게 역사적 승리였다. 1525년 취리히에서 재침례교가 처음 정교분리를 주장한 이래 261년이 지났다. 펠릭스 만츠가 리마트 강에서 수장형을 당한 이래 259년이 지났다. 로저 윌리엄스가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된 이래 150년이 지났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위해 고통받았다. 재침례교 순교자들, 영국 침례교 죄수들, 버지니아의 박해받은 목사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

버지니아 침례교 지도자들은 환호했다. 한 침례교 목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싸워 온 투쟁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박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억압 없이 양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릴랜드 목사는 제퍼슨과 매디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썼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이 위대한 업적에서 제퍼슨과 매디슨의 역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신학적으로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의 원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가의 표시입니다."

제퍼슨과 매디슨도 침례교에게 감사했다. 매디슨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버지니아에서 종교의 자유가 확립된 것은 침례교인들의 공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불의를 결코 잊지 않았고 그 불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끈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주들로의 확산

버지니아 종교의 자유법은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버지니아는 가장 큰 주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주였으며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고향이었다. 버지니아가 한 일은 다른 주들에게 모델이 되었다. 물론 다른 주들이 즉시 동조하지는 않았다. 매사추세츠는 1833년까지 회중교회를 사실상 국교로 유지했고, 코네티컷은 1818년까지 국교 체제를 폐지하지 않았으며, 뉴햄프셔도 1819년까지 기다렸다.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미국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침례교가 있었다. 매사추세츠에서, 코네티컷에서, 뉴햄프셔에서 침례교인들은 국교 체제에 저항했고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으며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침례교는 미국 전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섰다.

1787년 - 헌법 제정 회의

1787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제정 회의가 열려서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 새로운 연방 정부의 헌법을 작성했다.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헌법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나 원래 헌법 초안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었다. 헌법 제6조는 "어떤 종교적 자격도 연방 공직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요한 원칙이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 자체를 보장하는 조항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제정자들은 종교 문제를 각 주에 맡기려 했다. 연방 정부는 제

한된 권한만 가지고 종교는 각 주가 알아서 처리하게끔 한다는 생각이었다. 또한 그들은 헌법이 연방 정부에 종교를 규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으므로 명시적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느꼈다. 특히 침례교인들은 크게 우려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미래의 정부가 종교를 억압할 수 있지 않을까?", "명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침례교의 압력 - 권리 장전을 요구하다

헌법이 각 주에서 비준되어야 할 때 침례교는 조건을 제시했다. "헌법에 개인의 권리 장전을 추가하라. 그리고 그 권리 장전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라."

버지니아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중요했다. 버지니아는 큰 주였고 버지니아의 비준 없이는 헌법이 성공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버지니아에는 강력한 침례교 공동체가 있었다.

1788년 3월, 침례교 목사 릴랜드는 제임스 매디슨을 만났다. 매디슨은 헌법 비준을 위해 버지니아 대표로 선출되려 했으나 릴랜드도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를 고려하고 있었다. 만약 릴랜드가 출마하면 침례교 표가 분산되어 둘 다 패배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의 한 교회 근처에서 만났다.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릴랜드–매디슨 기념비'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릴랜드는 매디슨에게 말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헌법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만약 당신이 권리 장전을 추가하고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매디슨은 처음에는 권리 장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양피지 위의 장벽'이 실제로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우려했고 진정한 보호는 제도의

구조와 권력의 분산에서 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릴랜드와의 대화를 통해 매디슨은 마음을 바꾸었다. 권리 장전이 완벽한 보호 장치는 아닐지라도 중요한 상징적, 법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더 나아가 헌법 비준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권리 장전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매디슨은 릴랜드에게 약속했다. "만약 내가 선출되면 나는 권리 장전을 추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그 권리 장전의 첫 번째 조항이 될 것입니다."

릴랜드는 매디슨의 약속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출마를 철회하고 그를 지지했다. 결과적으로 침례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매디슨이 버지니아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버지니아는 헌법을 비준했다.

1789년 - 권리 장전 초안

1789년 봄, 제임스 매디슨은 새로 구성된 하원 의원이 되었다. 그는 즉시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했고 권리 장전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매디슨은 버지니아 권리 장전, 버지니아 종교의 자유법, 그리고 여러 주에서 제안한 수정안들 등 여러 출처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향은 자신이 직접 버지니아에서 침례교 박해를 목격한 경험,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운 경험, 침례교 지도자들과 협력한 경험 등이었다.

매디슨이 제안한 수정안 중 첫 번째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 원래 문구는 이러했다.

"시민의 양심권은 어떤 식으로든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국교도 세워져서는 안 되며 종교를 공언하거나 믿는 모든 사람의 완전하고 평등한 권리는 어떤 식으로든 축소되거나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의회는 이 문구를 논의하고 수정했는데 일부는 '국교'의 정의에 대해 논쟁했고 일부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우려했다.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최종 문구가 작성되었다.

1791년 -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1791년 12월 15일, 권리 장전이 비준되면서 12개 최종안 가운데 처음 10개 수정 조항이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그중 첫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 그리고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이 45개 단어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가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보장했다.

첫째, 국교 금지: "의회는 국교를 정할 수 없다." 연방 정부는 어떤 종교도 공식 종교로 세울 수 없고 어떤 교회도 법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종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종교적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종교적 가르침을 법으로 만들 수 없다.

둘째, 자유로운 종교 실천: "의회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각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종교를 믿고 실천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사람들의 예배를 금지할 수 없고 신앙을 억압할 수 없으며 양심을 강제할 수 없다.

이 두 조항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했다. 정부는 어떤 종교를 세울 수도 없고 어떤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막을 수도 없다. 정부는 종교 문제에서 철

저히 중립적이어야 하며 교회와 국가는 각자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1525년에서 1791년까지 - 266년의 여정

1525년 1월 21일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재침례교가 정교분리를 처음 주장한 후 266년이 지난 1791년, 그 원리가 마침내 한 나라의 최고법에 새겨졌다. 이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으며, 여러 세대에 걸친 투쟁의 결과였다.

펠릭스 만츠는 1527년 리마트 강에서 수장형을 당했다. 그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죄로 죽었다. 264년 후, 그의 주장이 미국 헌법에 포함되었다. 미카엘 사틀러는 1527년 화형당했다. 그는 "국가는 영혼을 강제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264년 후, 그의 가르침이 미국의 기본법이 되었다.

토마스 헬위스는 1612년경 감옥에서 죽었다. 그는 "국왕은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179년 후, 그의 선언이 헌법으로 확증되었다.

존 번연은 12년 동안 투옥되었다. 그는 "강제된 예배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다."라고 믿었다. 약 120년이 흐른 뒤, 그의 신념은 법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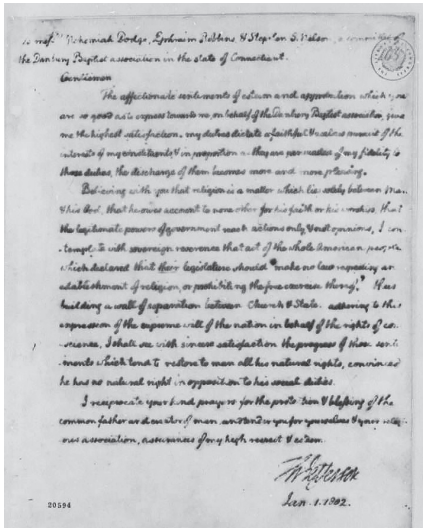
로저 윌리엄스는 1636년 혹한 속에서 추방되었다. 그는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다."라고 주장했다. 155년 후, 그의 주장은 헌법에 명시되었다. 버지니아의 침례교 목사들은 1760–1770년대에 감옥에 갇혔다. 그들은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20–30년 후, 그들의 외침은 제도적 응답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사람들과 고난, 그리고 투쟁은 마침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들의 용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유의 기초를 놓았다.

침례교의 공헌이 인정을 받다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통과된 후 침례교의 역할은 널리 인정받았다. 제퍼슨, 매디슨, 그리고 다른 건국의 아버지들은 침례교에 감사를 표했다.

1802년, 토마스 제퍼슨은 대통령으로서 코네티컷의 댄버리 침례교 협의회에게 편지를 썼다. 이 협의회는 코네티컷에 여전히 존재하는 국교 체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제퍼슨은 그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썼다.



댄버리 침례교 협의회에 보낸 제퍼슨의 편지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종교는 전적으로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종교에 관해 그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그의 예배 방식이나 교리 때문에 어떤 고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국민의 정당한 대표들이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웠습니다."

'분리의 벽'은 제퍼슨이 만든 표현이고, 후에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를 해석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침례교에게 보낸 편지에 처음 사용되었다. 제임스 매디슨도 침례교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1811년 침례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것은 침례교인들의 열정과 끈기 덕분입니다. 침례교는 이 원리를 위해 고통받았고 이 원리를 위해 싸웠으며 이 원리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공화국은 침례교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침례교의 성장 - 자유의 열매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통과된 후 침례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자 침례교는 더 이상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다.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목사들이 자유롭게 설교했으며 회원들이 급증했다.

18세기 말에는 침례교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교파였다. 당시에는 청교도들의 회중교회, 성공회, 장로교회의 규모가 더 컸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상황이 역전되었고 침례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파가 되었다.

이 성장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첫째, 침례교는 개척지에 잘 적응했다. 미국이 서쪽으로 팽창하면서 새로운 개척지들이 형성되었다. 침례교 목사들은 이 개척지들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침례교에는 일반 성도 설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았다. 그들은 정식 안수나 신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빨리 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침례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침례교회는 민주적이었고 회중 중심이었으며 계급이 없었다. 개척지의 농부들, 노동자들, 평범한 사람들은 침례교회에서 자신들이 환영받는다고 느꼈다.

셋째, 침례교는 부흥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19세기 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침례교는 그 운동의 선봉에 섰다. 침례교 설교자들이 부흥 집회를 이끌었고 수천 명이 회심하여 침례를 받았다.

1790년경 미국에는 약 5만 명의 침례교인이 있었지만 1820년경에는 약 20만 명이 되었고 1850년경에는 약 100만 명이 되었다. 19세기 말에는 침례교가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파 중 하나가 되었다.

침례교의 영향 - 미국 문화를 형성하다

침례교는 단순히 규모 면에서만 성장하지 않았다. 침례교는 미국 문화와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민주주의. 침례교의 회중 정치는 민주적 정치 문화를 촉진했다. 침례교회에서 회원들은 투표하고 토론하고 결정에 참여했다. 이러한 경험은 정치적 민주주의로 이어졌고 침례교회는 민주주의의 학교였다.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1830년대에 미국을 방문하여 관찰한 뒤, "미국의 민주주의는 타운홀(시청)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배운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특히 침례교와 같은 회중 정치 교회들이 평범한 시민들에게 자치와 참여의 경험을 제공했다.

둘째, 개인주의. 침례교는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강조는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셋째, 자발성. 침례교는 자발적 결사의 원리를 실천했다. 교회는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형성된다. 이 원리는 교회를 넘어 확산되었다. 미국 사회는 수많은 자발적 조직들 — 클럽, 협회, 자선 단체, 개혁 운동 — 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부분적으로 침례교에 의한 영향이다.

넷째, 교파의 다양성. 침례교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운 결과 미국은 교파적으로 다양함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다. 수백 개의 교단, 수천 개의 교회, 수많은 종교 전통들이 평화롭게 공존한다. 이는 세계 역사에서 드문 현상이고 침례교의 원리 덕분이다.

다섯째, 정교분리. 침례교가 확립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미국 정치 체제의 근본이 되었다. 정부는 종교를 지원하지 않고 종교는 정부를 통제하지 않는다. 이 분리가 역설적으로 종교와 정치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했다.

Check Point

버지니아 자유 투쟁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박해가 끝나면 자동으로 자유가 온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상황이 좋아졌다고 안주하지 않고, 원칙과 제도를 통해 자유를 영구적으로 확보하려는 태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나와 신학이 다른 사람과도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가?

교리의 차이를 이유로 관계를 끊지 말고, 더 큰 원칙을 위해 협력할 분별과 유연성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모든 교회를 평등하게 지원하자'는 절충안의 위험성을 이해하는가?

정부의 지원은 곧 통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겉보기 공평한 정책 뒤에 있는 함정을 분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나는 266년의 인내를 견딜 수 있는가?

내 생애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진리를 위해 꾸준히 싸울 인내와 긴 호흡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5. 나는 감옥마저도 설교단이 될 수 있음을 믿는가?

고난이 신앙의 증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고난을 회피만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6. 나는 22세의 매디슨처럼 불의를 보고 '피가 끓는'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가?

타인의 고통과 억압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감과 공감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7. 나는 정교분리가 종교를 약화시키는지, 아니면 강화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부에 대한 의존을 멀리하고, 오히려 자유 속에서 교회가 더 순수하고 강력해진다는 원리를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hapter 12

침례교 신학이 법이 되다
266년 투쟁의 완성

AD 1525-1791

오늘날 미국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부르지만, 처음부터 그러하지는 않았다. 18세기 중반까지도 대부분의 식민지에는 국교가 있었고 침례교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했다.

그런데 어떻게 유럽에서 가난하고 소수였던 침례교회의 신학이 결국 미국의 최고법이 되었을까?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이 어떻게 왕과 제후, 식민지 정부를 넘어 헌법의 언어가 되었을까?

그 과정은 단순한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266년에 걸친 눈물과 피, 순교와 투쟁의 결과였다.

이 장에서는 재침례교에서 시작된 정교분리의 신학이 영국과 신대륙을 지나 어떻게 제퍼슨과 매디슨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로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려 한다.

266년의 여정: 침례교 신학이 최고법이 되기까지

1791년 12월 15일,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되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모두 45개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인류 역사에서 전례 없는 혁명이었다. 이 문장이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266년이 걸렸다. 정교분리의 원리는 1525년,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되었다. 펠릭스 만츠와 콘라트 그레벨이 처음으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순간이었다.

1612년에는 런던의 감옥에서도 계속되었다. 토마스 헬위스가 "국왕은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썼다. 1636년에는 신대륙 뉴잉글랜드의 눈보라 속에서 실천되었다. 로저 윌리엄스가 프로비던스에서 완전한 정교분리를 세웠다.

1770년대에는 버지니아의 감옥에서 울려 퍼졌다. 침례교 목사들이 쇠창살을 붙잡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쳤다.

그리고 마침내 1791년, 그 외침이 미국의 최고법이 되었다.

이는 승리의 행진이 아니었다. 고난의 행진이었다. 수천 명이 물에 빠져 죽었고 수백 명이 화형당했으며 수만 명이 투옥되었다. 수십만 명이 추방되었고, 수백만 명이 차별을 겪었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원리가 전해졌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진리가 옮겨졌다.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미합중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1791년 12월 15일) 비문

한 순교자의 피는 다음 증인의 용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791년, 266년의 고난이 45개의 단어로 결실을 맺었다.

헌법 수정 조항 제1조 - 두 조항, 하나의 원리

많은 사람들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얼마나 혁명적인 조항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학에서는 이를 '국교 금지 조항'과 '종교의 자유 실천 조항'이라 부른다.

국교 금지 조항

"의회는 국교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정부는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지지할 수 없다. 모든 종교는 법 앞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종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교회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세금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으며, 공공 자금으로 성직자를 후원할 수도 없다.
셋째, 정부는 종교적 교리를 법으로 강요할 수 없다. 주일 예배 참석을 의무화하거나, 십일조를 법률로 요구하거나, 특정 신앙 고백을 공직 요건으로 만들 수도 없다.
넷째, 정부는 종교 기관을 통제할 수 없다. 목사를 임명하거나 교회 정책을 결정할 수 없고, 신학적 논쟁에 개입할 수도 없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침례교가 266년 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었다.
1525년, 재침례교는 선언했다. "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1612년, 토머스 헬위스는 외쳤다. "국왕은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
1636년, 로저 윌리엄스는 실천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1770년대, 버지니아 침례교는 절규했다. "정부는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1791년, 이 주장이 미국의 최고법이 되었다.

종교의 자유 실천 조항

"의회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국교 금지 조항의 또 다른 면이다. 정부가 종교를 '세울' 수 없다면, 정부는 또한 종교를 '금지'할 수도 없다. 이 조항은 다음의 자유를 보장한다.

첫째, 각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믿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그 선택에 간섭할 수 없다.

둘째, 각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할 권리가 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권리가 있다.

셋째, 각 사람은 종교적 확신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물론 무제한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신앙을 실천할 자유가 있다.

넷째, 각 사람은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공직에서 배제될 수 없고, 시민권이 제한될 수 없으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없다.

이 역시 침례교가 수백 년 동안 요구해 온 것이다.

재침례교는 박해 속에서 소리쳤다.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달라!"

영국 침례교는 감옥에서 간청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라!"

버지니아 침례교는 고난 중에서도 요구했다.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지 마라!"

그리고 1791년, 그 외침은 마침내 법이 되었다.

두 조항의 조화 - 완전한 정교분리

이 두 조항이 함께 작동하여 완전한 정교분리를 만든다. 정부는 종교를 확립할 수도 없고(국교 금지 조항), 금지할 수도 없다(자유 실천 조항).

"정부는 종교 문제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1]

이것이 침례교가 266년 동안 꿈꾸어 온 비전이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완전한 분리.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1802년 – '분리의 벽'

1801년 10월, 코네티컷의 댄버리 침례교 협의회는 새로 당선된 제퍼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제퍼슨의 당선을 축하했다. 제퍼슨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코네티컷은 여전히 청교도들의 회중교회를 사실상 국교로 유지하고 있었고 침례교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댄버리 침례교인들은 이렇게 썼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유명한 조상들의 감정과 일치합니다. 종교는 언제나 하나님과 각 개인 사이의 문제이며, 정부와는 무관합니다. 종교는 입법부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일부 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여전히 '특권'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가 베푸는 은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믿습니다."

제퍼슨은 이 편지를 받고 신중하게 답장을 작성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한

1. "정부는 종교 문제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거나 다수 종교의 기준을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 원칙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억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개인과 소수 집단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왜곡되어, 대형 교단이나 다수 종교가 자신들의 입장을 '중립'이나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소수 종교의 신앙 표현과 실천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국가 권력이 다수 종교의 논리를 대신 집행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 종교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교분리가 막고자 했던 바로 그 위험이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약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다. 따라서 정부의 중립성은 종교적 발언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앙이 강제나 불이익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극적 보호를 의미한다.

지역 침례교 협의회에 대한 답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는 종교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기회였다.

그는 여러 번 초안을 수정했고 심지어 법무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1802년 1월 1일, 제퍼슨은 답장을 보냈다.

"신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교는 오직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종교에 관해서 개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명할 책임이 없으며 예배 방식이나 교리에 관해 어떤 사람도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미국 국민 전체가 공표한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를 최고의 경외심으로 바라봅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들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wall of separation)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며 인간의 양심에 대한 모든 침해를 막는 주권적 장벽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분리의 벽' — 이 표현은 즉시 유명해졌다.

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벽은 경계이다. 두 영역을 나눈다. 한쪽은 교회의 영역이고 다른 쪽은 국가의 영역이다.

벽은 양방향이다. 국가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동시에 교회도 국가를 통제하지 못하게 막는다. 벽은 보호이다. 정부의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벽이다.

제퍼슨이 이 편지를 침례교인들에게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침례교인들이야말로 이 원리를 가장 오래, 가장 일관되게, 가장 용감하게 주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제퍼슨은 침례교인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며 지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세기에 미국 대법원이 정교분리 관련 사건들을 다룰 때, 제퍼슨의 '분리의 벽' 표현을 반복적으로 인용했다. 1947년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선언했다.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교회와 국가 사이에 벽을 세웠습니다. 그 벽은 높아야 하고 뚫을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벽에 구멍을 내는 것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후 여러 사안에서 '국가가 특정 종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기관을 직접 재정,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종교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기준이 세워졌다.

제퍼슨이 1802년에 댄버리 침례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표현이 145년 후 대법원 판결의 기초가 된 것이다.

침례교 - 정교분리의 창조자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침례교는 정교분리를 단순히 지지한 것을 넘어 그 개념을 형성하고 확립한 주역이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이다.

1525년 이전에는 정교분리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다. 중세 유럽에서 교회와 국가는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 카톨릭교회는 막대한 정치권력을 가졌고, 왕들은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종교 개혁도 처음에는 이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루터는 제후들의 보호를 받았고 결국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의 종교가 곧 그 땅의 종교이다."라는 원칙을 받아들였다.

칼빈은 제네바를 신정 도시로 만들었다. 영국 국교회는 왕이 교회의 머리였다. 심지어 청교도들도 매사추세츠에서 신정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1525년 재침례교가 처음으로 말했다.

"아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는 교회를 통제할 수 없고 교회는 국가 권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1,500년의 전통을 부정하는 혁명적 주장이었다. 재침례교는 이 주장 때문에 박해받았고 고문당했고 처형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영국 침례교가 이 원리를 이어받았다.

1612년 토마스 헬위스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짧은 선언」에서 이렇게 썼다.

"국왕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영적 주인이 아니다. 국왕의 권력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몸과 재산에 관한 것이다."

이는 영어로 쓰인 최초의 종교의 자유 선언이었다. 헬위스는 이 책을 제임스 1세에게 보냈다가 감옥에 갇혀 그곳에서 죽었다.

로저 윌리엄스가 이 원리를 아메리카에 가져왔다. 1636년 그가 세운 프로비던스는 완전한 정교분리를 실천한 최초의 정부였다.

버지니아 침례교가 이 원리를 위해 싸웠다. 1760-1770년대 그들은 투옥되고 폭행당하고 모욕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외쳤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매디슨과 제퍼슨이 이 원리를 헌법에 새겼다. 그들은 침례교로부터 배웠다. 그들은 침례교의 고난을 목격했고 침례교의 논리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침례교의 원리를 미국의 법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정교분리는 침례교 신학의 산물이다. 침례교가 없었다면, 정교분리도 없었을 것이다. 침례교가 없었다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도 없었을 것이다. 침례교가 없었다면, 미국은 종교의 자유의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침례교 신학에서 미국 헌법까지 - 명확한 경로

이제 우리는 정교분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명확히 볼 수 있다.

그 여정은 1525년, 재침례교가 신학적 원리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교회를 믿는 자들의 자발적 공동체로 규정했고 국가는 영혼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웠다.

1612년에는 토마스 헬위스가 이 신념을 더욱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국왕은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고 양심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강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636년에 이르러 로저 윌리엄스는 이 원리를 실제 정치에 적용했다. 그는 프로비던스에서 완전한 정교분리를 실현했고 종교의 자유를 정부 운영의 근본 원리로 세웠다. 그에게 양심의 자유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였다.

1644년, 윌리엄스는 「피로 물든 박해의 교리」를 통해 종교적 강제를 체계적으로 비판하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정당화를 제시했다. 이 책은 정교분리의 이론적 기초를 놓은 명저가 되었다.

1760–1770년대에는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의 고난이 이어졌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폭행을 당하고 수많은 박해를 겪었지만 이를 통해 정교분리의 필요성을 세상 앞에 입증했다. 이들의 청원과 저항은 제임스 매디슨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정치 철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1776년, 버지니아 권리 장전이 제정되며 종교의 자유는 처음으로 헌법적 권리로 선언되었다. 매디슨의 영향 아래, 이 문서에는 "모든 사람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어서 1779년, 제퍼슨은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 초안을 작성해 침례교 신학을 법률 언어로 번역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천명했다.

1785년에는 매디슨의 「기념과 항의」가 발표되었다. 이 문서는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15가지 논증을 제시하며 침례교 원리를 철학적으로 정리하였다.

1786년,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이 통과되자 국교 체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정교분리 입법이었다.

1788년에는 릴랜드와 매디슨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침례교인들은 권리 장전을 헌법에 추가하기로 한 약속을 전제로 헌법 제정을 지지했고 매디슨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

1789년, 매디슨은 권리 장전 초안을 제출하며 종교의 자유를 첫 번째 권리로 제안했다.

그리고 1791년,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되면서 침례교의 신학이 마침내

미국의 최고법이 되었다. 국교 금지와 종교의 자유 실천은 헌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보장되었다.

1802년, 제퍼슨은 댄버리 침례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를 설명하며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이 세워졌다고 명확히 해석했다. 정교분리는 미국의 공식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인과 관계로 이어진 흐름이다.

침례교 신학 → 침례교의 증언 → 침례교의 고난 → 건국자들의 각성 → 헌법적 확립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낳았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아는 종교 자유의 토대가 완성되었다.

침례교의 독특한 기여

침례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침례교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남긴 독특한 기여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많은 교파들이 종교 개혁에 참여했고, 교회의 개혁을 추구했으며, 성경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는 그들 모두와 다른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침례교는 처음부터, 그리고 일관되게, 타협 없이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해 왔다.

루터파는 제후들의 보호를 받았고 결국 국가 교회 체제를 수용했다. 개혁파(칼빈주의자들)도 제네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에서 국가의 지원을 기반으로 체제를 세웠다. 성공회는 말할 것도 없이 국왕이 교회의 머리였다. 심지어 종교적 열심으로 알려진 청교도들조차 매사추세츠에서 신정 국가를 만들었다.

그 가운데 오직 침례교만이 처음부터 국가 권력을 거부했다.

1525년 재침례교가 그러했고, 1610년대 영국 침례교가 그러했으며, 18세기

미국 침례교도 역시 그 원칙을 붙들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질 기회가 있을 때조차 거절했고, 어느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때로는 침례교가 약해 보이기도 했다. 국가의 후원이 없었기에 재정이 늘 부족했고, 정부의 보호가 없었기에 박해에 쉽게 노출되었다. 사회적 특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력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장기적으로 이것이 침례교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국가 권력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에 의해 타락하지 않았고, 국가 지원에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다.

침례교는 외적 강제가 아니라 내적 확신으로 성장한 교회였다.

침례교가 지켜 낸 이 원리는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교분리와 종교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침례교가 처음 주장하고 고난 가운데 증명하며, 끝까지 붙들어 온 원리였다.

침례교의 여정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진리의 길, 그리고 자유를 향한 오랜 투쟁과 승리의 역사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침례교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던진다.

첫째, 진리는 대가를 요구한다.

재침례교인들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고, 영국 침례교인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혔으며,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은 진리를 위해 고통을 감수했다. 오늘 우리에게 순교가 요구되지는 않을지라도, 진리를 붙드는 데는 언제나 비용이 따른다. 우리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

둘째, 소수가 옳을 수 있다.

재침례교는 말 그대로 극소수였다. 카톨릭, 루터파, 개혁파, 국가, 사회, 모두가 그들을 반대했다. 그러나 역사는 증언한다. 소수가 옳았다. 오늘날 우리도 다수가 항상 정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소수의 편에 서야 할 때가 있다.

셋째, 원칙은 타협될 수 없다.

침례교는 정교분리라는 원칙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 편리함을 위해서도, 안정과 세력을 위해서도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적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압력과 문화의 변화 속에서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넷째, 고난은 헛되지 않다.

재침례교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피는 씨앗이 되어 전 세계에 자유의 나무를 자라게 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희생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다섯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는 수백 년의 투쟁과 희생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싸우고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

침례교의 사명 - 어제, 오늘, 내일

침례교의 사명은 변하지 않았다. 1525년에도, 1791년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은 사명이다.

첫째, 복음을 전하라. 침례교는 언제나 전도하는 교파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둘째, 성경을 지키라. 침례교는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고백한다. 세상이 아무

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셋째, 자유를 옹호하라. 침례교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넷째,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라. 침례교는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를 실천한다. 이것들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원리이다.

다섯째, 섬기고 사랑하라. 침례교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섬기는 교회이며,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교회이다.

마지막으로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한 줄기 불꽃이 오늘날 전 세계를 밝히고 있다.

펠릭스 만츠가 리마트 강에서 생명을 바쳐 증거했던 진리는 수억 명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

로저 윌리엄스가 눈보라 속에서 꿈꾸었던 자유는 여러 나라의 헌법에 새겨졌고,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이 감옥에서 부르던 찬송은 오늘날 우리 입술의 찬송이 되었다.

침례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사용해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 소수의 신실함이 다수의 타협보다 더 깊고 먼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리고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확증한다. 우리는 이 거룩한 유산의 상속자들이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 자유롭게 예배할 특권, 두려움 없이 신앙을 고백할 특권, 억압 없이 복음을 전할 특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받은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이 말씀은 침례교 역사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진리이다. 진리가 재침례교인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들은 물속에서 죽어 갔으나,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웠다.

진리가 버지니아 침례교인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그리고 진리가 오늘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다. 이 진리를 지키고, 이 자유를 보호하며,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피로 확증했던 원리를 우리도 삶으로 증언해야 한다. 그들이 고난으로 얻어낸 자유를 우리도 신실함으로 지켜야 한다.

침례교 역사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바로 우리가 그다음 장을 쓰고 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용기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선조들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들이 지킨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증언하며, 그들이 사랑한 자유를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전 15:58)

아멘.

Check Point

266년의 결실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내가 누리는 자유가 수백 년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피와 눈물로 얻어진 특권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소수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다수의 반대 앞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내적 확신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원칙을 타협하기보다 고난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편리함보다 성경적 원칙을 우선하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결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나는 정교분리가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순수하게 지키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부 의존을 신앙의 안전장치로 착각하지 않고, 교회의 순수성은 오직 자유 속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5. 나는 '분리의 벽' 개념의 실제 기원을 알고 있는가?

정교분리 사상이 제퍼슨의 발명이 아니라 재침례교의 신학에서 시작되었다는 진실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내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등 침례교가 세운 핵심 원리들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나는 선조들의 유산을 단순히 누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지키고 전할 것인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유를 다음 세대에 전할 책임을 인식하며, 지금 내 삶으로 어떤 신앙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Chapter 13

자유의 열매

미국 침례교의 폭발적 성장

AD 1707-1890

정교분리가 법이 된 뒤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렇다면 침례교회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쟁취한 그 자유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역사 속에서 자유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었다. 박해가 교회를 단련하기도 했지만, 자유가 교회를 무너뜨린 경우도 많았다. 국교 체제가 무너진 뒤 급속히 세속화된 유럽의 교회들을 떠올려 보라. 특권을 잃은 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교회도 있었지만 편안함 속에서 힘을 잃고 문화의 한구석으로 밀려난 교회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를 세계 최초로 헌법에 새긴 나라,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박해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허가증 없이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했는가, 아니면 새롭게 타올랐는가?

놀랍게도 미국 침례교는 자유를 누리는 순간부터 급속히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례 없이 강해졌다. 국교의 지원도, 국가의 돈도, 법적 특권도 없었

는데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미국 종교 지형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자유가 가져온 변화

1791년 12월 15일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법적 문서가 아니었다. 이는 침례교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다. 처음으로 침례교는 완전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감옥에 갇힐 염려도 없었다.

이 자유는 곧 놀라운 성장으로 이어졌다. 18세기 말 침례교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교파였다. 성공회, 회중교회(청교도), 장로교회가 훨씬 더 컸고 더 영향력이 있었으며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침례교가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파가 되었다.

무엇이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침례교의 본질 자체가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와 완벽하게 맞았다는 사실이다. 침례교의 모든 원리들 —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성경 중심, 단순한 예배, 평등의 교리 — 이 미국의 개척 정신, 민주적 이상, 평등주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었다.

1707년 - 필라델피아 침례교 협의회

1707년, 필라델피아 지역의 여러 침례교회들이 모여 협의회(Association)를 조직했는데, 이는 미국 최초의 침례교 협의회였다. '필라델피아 침례교 협의회'라고 불리는 이 조직은 미국 침례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믿는다. 각 교회는 자율적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다른 교회나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협의회를 만들었을

까? 그 이유는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협력을 위해서였다. 협의회는 각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첫째, 교리를 가르치고 보호했다. 협의회는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건전한 교리를 전파하며 이단을 경계했다. 각 교회가 혼자서는 신학적 깊이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협의회가 도움을 제공했다.

둘째, 목회자를 훈련하고 지원했다. 18세기 초 미국에는 침례교 신학교가 없었다. 목회자들은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주로 경험 많은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을 도제식으로 가르쳤는데 협의회는 이러한 훈련을 조직하고 지원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목사들이 서로 배우고 격려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셋째, 선교 사역을 협력했다. 한 교회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선교 사역을 여러 교회가 함께 감당했다.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난한 지역을 돕는 일을 협의회가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

넷째, 문서를 출판하고 배포했다. 협의회는 신앙 고백, 교리 문답, 찬송가, 설교집을 출판했다. 개별 교회는 이러한 자원을 만들 능력이 없었지만 협의회는 가능했다.

다섯째, 교회 간 분쟁을 중재했다. 때로는 교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목사의 자격, 교리의 해석, 실천의 문제 등에서 갈등이 생겼다. 협의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혜와 성경적 원칙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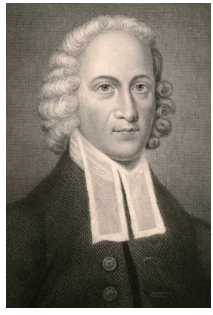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협의회는 모델이 되었고 곧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협의회들이 조직되었다. 찰스턴 협의회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워렌 협의회가 로드아일랜드에서, 샌디 크릭 협의회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만들어졌다. 이 협의회들은 각기 독립적이었지만 같은 원칙을 공유했고 서로 협력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침례교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침례교는 위계적 조직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교도 없고, 총회도 없으며, 중앙 권위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는 고립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침례교회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사역하며 자율성과 협력, 독립과 연합으로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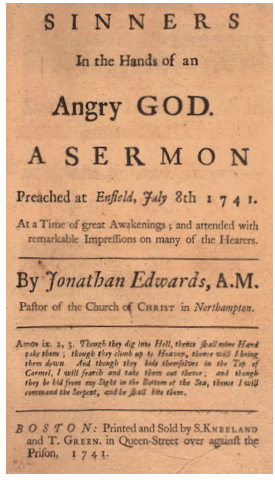
제1차 대각성 운동 - 침례교와 부흥의 만남

1730년대와 1740년대 미국 식민지 전역을 휩쓴 강력한 영적 부흥의 물결은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 불린다. 이 운동은 미국 종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고 침례교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각성 운동은 누가 시작했을까? 여러 사람이 기여했지만, 세 사람이 특히 중요했다.

1. 조너선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 그는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의 회중교회 목사로서 탁월한 지성과 깊은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1734–1735년 그의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으며 수백 명이 회심했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변했다. 에드워즈는 이 경험을 기록하고 출판했다.[1] 그의 설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1741)은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 중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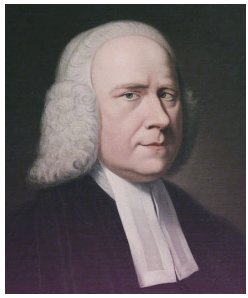


▲조너선 에드워즈
▶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A SERMON
Preached at *Enfield*, *July* 8th 1741.
At a Time of great Awakenings; and attended with remarkable Impressions on many of the Hearers.
By *Jonathan Edwards*, A.M.
Pastor of the Church of CHRIST in *Northampton*.
Amos ix. 2, 3. *Though they dig into Hell, thence shall mine Hand take them; though they climb up to Heaven, thence will I bring them down. And though they hide themselves in the Top of Carmel, I will search and take them out thence; and though they be hid from my Sight in the Bottom of the Sea, thence I will command the Serpent, and he shall bite them.*
BOSTON: Printed and Sold by S. KNEELAND and T. GREEN, in Queen-Street over against the Prison, 1741.

1. 에드워즈 뉴잉글랜드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지만 교회 안에 만연한 '형식적 신자', 곧 회심 없는 교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다가 결국 자신의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단순한 도덕성이나 가문이 아니라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샘프턴 교회를 수십 년간 이끌었던 외조부 솔로몬 스토다드(Solomon Stoddard, 1643–1729)로부터 이어진 '반쯤 교인 제도'(Half-Way Covenant)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스토다드는 주의 만찬을 회심을 돕는 수단으로 보아 회심의 확증이 없는 이들에게도 참여를 허용했지만, 에드워즈는 이것이 교회를 회심 없는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수의 교인들은 그의 입장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전통을 거스르는 것으로 여겼고, 결국 1750년 에드워즈는 자신이 23년간 목회하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해임되었다. 이 사건은 회심 중심 신앙과 제도화된 교회 문화 사이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 주며, 이후 미국 교회 역사에서 '회심 없는 교회 회원권'이 초래하는 영적 타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2.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 – 그는 영국 성공회 목사였지만 야외 설교의 선구자였다. 그는 극적인 설교 스타일로 유명했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수만 명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실험을 통해 휫필드의 목소리가 3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2] 휫필드는 1739년 미국에 처음 간 이후로 여러 번 방문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모였고 많은 사람이 회심했다.


조지 휫필드

3. 길버트 테넌트(Gilbert Tennent, 1703–1764) – 그는 장로교 목사였고 열정적인 부흥 설교자였다. 그는 형식적이고 생명 없는 종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설교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의 위험'(1740)은 큰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목회자 자신이 회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회심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각성 운동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개인적 회심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거나 유아 세례를 받거나 도덕적으로 살거나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요 3:7).

둘째, 회심은 극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다. 대각성 운동 이전의 예배는 대체로 격식 있고 절제되었다. 그러나 부흥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울고 소리치고 몸을 떨었으며 때로는 쓰러지기도 했다. 비판자들은 이를 '열광주의'라고 비난했으나 부흥 지도자들은 이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믿었다.

셋째, 성경이 최고 권위이다. 전통, 교회법,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

2. 계몽주의 철학자요 불신자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은 휫필드의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의 설교 능력과 진정성만큼은 높이 평가했다. 흄은 휫필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가 전하는 내용을 믿지는 않지만, 그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자 가운데 그는 가장 탁월한 인물이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라면 이십 마일을 여행할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말은 교리적 동의 여부를 넘어 설교자의 확신과 전달력이 청중에게 얼마나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의 권위이다. 설교자들은 성경을 열정적으로 선포했고 청중들은 성경 구절로 자신의 경험을 평가했다.

넷째, 변화된 삶이 그 증거이다. 진정한 회심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도둑이 정직해지고 분노한 사람이 온유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관대해진다. 이러한 변화가 회심의 진정성을 증명한다.

침례교와 대각성 운동 - 완벽한 조화

대각성 운동은 여러 교파에 영향을 미쳤다. 회중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모두 부흥을 경험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침례교가 가장 큰 수혜자였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침례교 신학은 대각성 운동의 메시지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대각성 운동은 개인의 회심을 강조했는데 침례교도 똑같이 강조했다. 침례교는 처음부터 신자 침례를 실천했고, 이는 회심 후에만 침례를 준다는 의미였다. 유아는 회심할 수 없으므로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오직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

대각성 운동 집회에서 수백 명이 회심했는데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었을까? 침례교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회심했으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교 목사들은 집회가 끝난 후 근처 강이나 개울로 가서 새로 회심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한 번에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는 강력한 증거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다른 교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회중교회와 장로교회는 여전히 유아 세례를 행했다. 그들의 신학에서 세례는 언약의 표시였고 믿는 부모의 자녀는 유아일 때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부흥 집회에서 회심한 성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그가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세례를 줄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신앙을 고백하고 교인이 될 뿐이었다. 그러나 이는 회심의 극적

경험과 비교하면 다소 평범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침례교는 달랐다. 회심한 사람이 받는 침례는 공개적이고 극적이며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수례는 시각적으로 강렬했다. 수백 명이 강변에 모여 지켜보았다. 이는 회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고 옛 삶과의 결별이었으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둘째, 침례교 예배는 단순하고 유연했다. 대각성 운동의 많은 집회가 야외에서 열렸다. 교회 건물이 없거나 건물이 너무 작아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들판에서, 숲속에서, 마을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침례교는 이러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했다. 침례교 예배는 복잡한 전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제단도, 성상도, 특별한 제의도 필요 없었다. 필요한 것은 성경, 설교자,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뿐이었다. 침례교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었다.

반면 성공회는 공동기도서를 사용했고 특정한 절차를 따라야 했으며 안수받은 성직자가 필요했다. 장로교도 상당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러한 교파들은 야외 집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셋째, 침례교는 일반 성도 지도력을 활용했다. 대각성 운동은 목회자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 수백 개의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는데 비해 훈련받은 목사가 충분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는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했다. 목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이러한 요건은 질을 보장했지만 수를 제한했다.

그러나 침례교는 다른 접근을 했다. 침례교는 정식 신학 교육을 선호했지만 필수로 여기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 지식, 그리고 경건한 삶이었다. 그래서 농부, 장인, 상인들이 목사가 되었다. 그들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설교했는데, 이는 '이중 직업 목회'라고 불린다.

이러한 접근은 빠른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새로운 정착지가 생기면 신앙이 깊은 일반 성도가 모임을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조직할 수 있었다. 몇 달 안에 새로운 침례교회가 세워졌다.

넷째,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실천했다. 미국은 민주적 이상이 성장하는 나라

였다. 사람들은 자치를 원했는데 침례교 회중 정치는 이 정신과 완벽하게 맞았다. 침례교회에서 회원들은 모든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다. 그들은 목사를 선택하고 새 회원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실시하고 교회 정책을 결정했다. 이는 민주주의 훈련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투표하고 책임을 지는 경험을 했다.

다른 교파들은 위계적이었다. 성공회는 주교가 통치했고 장로교회는 노회가 많은 권한을 가졌으므로 일반 성도의 역할은 더 제한적이었다.

침례교의 평등주의는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 특히 개척지의 농부들, 노동자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침례교는 그들의 교회처럼 느껴졌다.

남부에서의 폭발적 성장

18세기 후반, 침례교는 남부에서 특히 빠르게 성장했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수백 개의 침례교회가 세워졌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남부는 개척 지역이었다. 18세기 남부의 많은 지역이 여전히 미개척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부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정착지를 계속해서 만들었다. 이제 막 개척된 남부 지역에는 제대로 자리 잡은 교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침례교가 교회를 빠르게 세울 수 있었다.

둘째, 남부 사회는 계급적이었고 침례교는 평등을 제공했다. 남부는 대농장 중심 사회였다. 소수의 부유한 농장주들이 거대한 토지를 소유했고 노예들을 부렸으며 정치와 사회를 지배했다. 대부분의 백인들은 소농이거나 소작농이었고 사회적 계층에서 낮은 위치에 있었다.

성공회는 남부 귀족들의 교회였다. 농장주들이 교구 위원회를 장악했고 성직자들은 흔히 귀족 가문 출신이었으며 예배는 격식 있고 고상했다. 가난한 백인들은 성공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침례교는 완전히 달랐다. 침례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농장주와 소작농이 같은 자리에 앉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은 찬송을 불렀다. 교육받은 자와 문맹인 자가 같은 설교를 들었고 교회 회의에서 각 회원은 똑같이 한 표를 가졌다.

이 평등주의는 혁명적이었다. 한 역사가는 이에 대해 "침례교는 남부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셋째, 침례교는 감정적 표현을 허용했다. 남부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편이었다. 그들은 신앙도 그렇게 뜨겁고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했다. 침례교 예배는 그러한 분위기에 잘 맞았다. 예배는 자유로웠고 사람들은 "아멘!"을 외치며 손뼉을 치고, 울고, 기뻐했다. 설교는 강렬했고 찬송은 열정적이었으며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반면에 성공회 예배는 절제되고 품위 있었다. 공동기도서를 낭독하고 정해진 순서를 따르고 격식을 유지했는데, 이는 많은 남부 사람들에게 차갑고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

넷째, 침례교 설교자들은 평범한 언어를 사용했다. 성공회 성직자들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세련된 영어를 사용했으며 라틴어를 인용했다. 그들의 설교는 지적이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침례교 설교자들은 달랐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농부였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사람들의 언어로 말했다. 그들의 설교는 단순했지만 강력했고 학문적이지 않았지만 감동적이었다. 한 남부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회 목사님은 저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침례교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흑인들과 침례교 - 억압 속의 희망

침례교는 남부 흑인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이는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현상이었다. 노예제라는 가장 억압적인 체제 안에서 어떻게 복음이

퍼져 나갈 수 있었을까?

18세기와 19세기 초 남부에는 수백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와 인간 이하로 취급받았으며 가족과 분리되었고 교육을 받을 수 없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절망이었다.

침례교는 이 절망 속에 희망을 가져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첫째, 침례교의 평등 메시지는 흑인들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었다. 침례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주인도 종도, 백인도 흑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는 노예들에게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었다. 백인 주인이 그들을 재산으로 취급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보셨다. 사회가 그들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주셨다.

둘째, 침례교의 회심 강조가 흑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흑인 노예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기 몸도, 자기 시간도, 자기 가족도 통제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주인의 뜻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인도 통제할 수 없었다. 바로 영혼이었다. 노예는 자기 영혼의 주인이었다.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을지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가 가진 유일한 자유였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였다.

회심은 내적 해방이었다. 비록 몸은 여전히 노예였지만 영혼은 자유로웠다. 비록 지상에서는 억압받지만 천국에서는 해방될 것이었다(갈 5:1).

셋째, 침례교 예배는 흑인 문화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다. 아프리카 전통은 음악과 춤, 구전 문화가 풍부했는데, 침례교 예배는 이러한 요소들을 넉넉히 담아낼 수 있었다. 흑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성경 이야기를 결합해 영가를 만들어 불렀다.

"내 백성을 보내라"(Go Down, Moses),

"나는 때로 집 없는 나그네처럼 느낀다"(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스윙 로우, 스윗 채리엇"(Swing Low, Sweet Chariot).

이러한 노래들은 깊은 영적 갈망과 해방에 대한 소망을 담아냈으며 흑인 신앙 공동체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다.

침례교 설교도 아프리카 구전 전통과 맞았다. 설교자와 회중 사이의 호응, 반복, 리듬, 극적 표현, 이 모든 것이 흑인 예배 스타일이 되었다.

넷째, 침례교회는 흑인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노예들은 거의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교회는 그들의 것이었다. 교회에서 그들은 형제자매였고 지도자였으며 의미 있는 존재였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정체성의 원천이었으며 저항의 기반이었다.

많은 흑인 침례교회가 비밀리에 조직되었다. 주인들은 노예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종종 이들의 모임을 저지했지만 노예들은 밤에, 숲속에서, 조용히 모였다.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들었다. 그들은 이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불렀다.

일부 흑인 침례교회는 공개적으로 조직되었다. 1773년, 조지아 사바나에서 최초의 흑인 침례교회가 세워졌고 1788년, 버지니아 피터스버그에서 또 다른 교회가 조직되었다. 19세기 초까지 남부 전역에 수십 개의 흑인 침례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들에서 흑인 설교자들이 등장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노예였고 일부는 자유민이었다. 그들은 탁월한 설교자였고 강력한 지도자였으며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 흑인 침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해방된 노예들은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며, 교단을 조직해 나갔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흑인 교단들은 모두 침례교 교단이다.

- 전국 침례회(National Baptist Convention, 1895년 설립)
- 미국 전국 침례회(National Baptist Convention of America, 1915년 설립)
- 진보적 전국 침례회(Progressive National Baptist Convention, 1961년 설립)

이 교단들의 회원 수를 합치면 약 천만 명에 달한다.

침례교는 흑인 미국 역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노예제 시대에 희망을 주었고 재건 시대에 공동체를 조직했으며 민권 운동 시대에 저항을 이끌었다.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적 지도자인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는 침례교 목사였고 그의 운동은 침례교회들을 기반으로 했다.

서부 개척지로 - 침례교의 이동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미국인들은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애팔래치아 산맥을 넘어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 인디애나로 향했다. 그들은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찾았다.

침례교인들은 수많은 개척자들과 함께 서부로 이동했다. 동부에 살던 이들은 연방 정부가 판매하던 서부 변경지의 토지를 구입해 농장을 일구고 정착지를 세웠다.

서부 개척지는 침례교에게 이상적인 환경이었다.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서부에는 확립된 교회가 없었다. 동부에서는 성공회, 회중교회, 장로교회가 이미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교회 건물, 교육받은 성직자,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교파가 경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서부는 빈 캔버스였다. 누구도 우위를 차지하지 않았고 모든 교파가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침례교는 이 기회를 활용했다.

둘째, 서부의 정착지는 규모도 작고 매우 가난했다. 초기 정착지는 몇 가구가 전부였다. 사람들은 통나무집에서 지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일했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거의 없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고 목사에게 전임 사례비를 지급할 수도 없었으며 복잡한 교회 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침례교는 이러한 환경에 오히려 잘 맞았다. 침례교는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었다. 통나무집이든 헛간이든, 아니면 야외이든 어디든 교회가 되었다. 전임 목사도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 일반 성도 지도자나 생업을 겸하는 이중 직업 목사가 충분히 섬길 수 있었다. 복잡한 조직도 필요하지 않았다. 회중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며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서부 사람들은 독립적이었다. 개척자들은 자립적이고 자수성가하며 권위를 싫어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주교나 노회가 자신들의 교회를 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례교 회중 정치는 서부 개척 정신과 잘 맞았다. 각각의 침례교회는 자율적이었다. 외부 권위가 없었고 각 교회가 스스로 결정했으며 회중이 주인이었다. 이는 서부의 독립 정신을 반영했다.

넷째, 서부 지역에는 순회 목회자(circuit rider 혹은 itinerant preacher)가 꼭 필요했다.[3] 정착지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한 정착지의 규모만으로는 전임 목사를 부양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순회 목회자였다. 한 목사가 여러 정착지를 돌아다니며 설교하고 돌보는 방식이었다.

침례교와 감리교가 이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순회 목회자는 말을 타고 때로는 수백 마일을 여행하며 여러 교회를 섬겼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각 정착지를 방문했고 그 사이에 일반 성도 지도자들이 주일 예배를 인도했다.

이 목회자들은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위험한 여행을 감수했고,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견뎠으며, 매우 낮은 보수를 받는 데다 가족과도 오래 떨어져 지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

한 유명한 순회 목회자는 카트라이트(Peter Cartwright, 1785–1872)였다. 그는 감리교인이었지만 사역 방식은 침례교 순회 목회자들과 매우 비슷했다. 그는 50년 넘게 켄터키, 인디애나, 일리노이 지역을 넘나들며 설교했고, 약 만 명에게 세례(당시 감리교는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모두 시행했다)를 베풀었

3. 순회 설교자(Circuit rider)는 원래 감리교 전통에서 사용된 용어로 정해진 '순회 구역'(circuit)을 따라 말을 타고 여러 마을과 예배처를 돌며 설교한 목회자를 가리킨다. 18–19세기 미국 변경 지대에서 교회 조직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사역은 필수적이었다.

다. 또한 수백 개의 교회 개척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자서전은 서부 개척지의 거친 환경과 생생한 현실을 보여 주는 귀중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침례교 순회 목회자들도 비슷한 사역을 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서부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제2차 대각성 운동 - 침례교 성장의 가속화

1790년대 말부터 1840년대까지 미국은 또 다른 거대한 영적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린다. 이 운동은 제1차 대각성 운동보다 더 길고, 더 광범위하고, 더 다양했다. 그리고 침례교에게는 전례 없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뉴잉글랜드에서는 대학 캠퍼스들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예일 대학교 총장 드와이트(Timothy Dwight IV, 1752–1817)의 설교를 통해 수백 명의 학생들이 회심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부흥의 불길을 전국으로 퍼뜨렸다. 그러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진정한 중심지는 서부 개척지였다. 그곳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부흥 집회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캠프 미팅'이었다.

캠프 미팅 - 야외의 오순절

1801년 8월, 켄터키 케인 리지에서 역사상 가장 큰 부흥 집회 중 하나가 열렸고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모였다. 당시 켄터키 전체 인구가 약 22만 명이었으니 주민의 약 10분의 1이 한곳에 모인 것이다. 사람들은 수십 마일을 여행해서 왔다. 마차와 말을 타고 때로는 걸어서 왔다.

집회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야영을 했으며 낮과 밤으로 예배에 참석했다. 여러 설교자들이 동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설교했다. 한 관찰자는 "일곱 개의 강단이 동시에 사용되었다."고 기록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설교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집회의 분위기는 강렬했다. 사람들이 울고 소리치고 몸을 떨며 땅에 쓰러졌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신체적 운동'(bodily exercises)이라고 불렀다. 비평가들은 이를 광기라고 비난했으나 지지자들은 이것이 성령님의 강력한 일이라고 믿었다.[4] 케인 리지 집회는 모델이 되었고 곧 서부 전역에서 비슷한 캠프 미팅들이 열렸다.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 개척지마다 여름이면 캠프 미팅이 열렸다.

캠프 미팅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전형적인 캠프 미팅을 살펴보자.

1. 준비 단계: 여름 초에 날짜와 장소가 공지된다. 보통 숲속의 넓은 공터가 선택된다. 물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침례를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다. "8월 첫째 주에 오크 그로브에서 캠프 미팅이 있습니다!"

2. 도착: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마차에 음식, 침구, 천막을 싣고 온다. 가족 단위로 오고, 때로는 마을 전체가 함께 온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 천막을 치고 모닥불을 피우고 야영지를 만든다.

3. 예배: 금요일 저녁에 첫 예배가 시작된다. 중앙에 있는 큰 강단에 설교자가 올라가 설교한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앉아서 듣는다. 횃불과 모닥불이 밤을 밝힌다. 설교는 열정적이고 극적이다. 설교자는 지옥의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하며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한다.

4. 회심 촉구: 설교가 끝나면 '초청'이 있다. 설교자가 말한다. "그리스도를

4.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서부 캠프 미팅의 특징이었지만 이것이 모두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다. 조나단 에드워즈조차 이러한 현상을 '성령의 역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부흥의 증거는 감정적 현상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거룩한 열매'라고 가르쳤다.

믿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람들이 울면서 앞으로 나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고 격려한다. 그들은 이를 '통회의 자리' 또는 '구원을 갈망하는 자리'라고 불렀다.

5. 밤샘 기도: 예배는 밤늦게까지, 때로는 밤새도록 계속된다. 작은 그룹들이 천막 주변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한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 교제를 계속한다.

6. 토요일과 주일: 집회는 주말 내내 계속되며 하루에 여러 번 예배가 있다. 아침 예배, 오전 설교, 점심 후 집회, 오후 설교, 저녁 예배. 사람들은 먹고 쉬고 다시 모였다.

7. 침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 침례 의식이 거행된다. 침례교 목사들은 회심자들을 근처 강이나 개울로 인도하고 수백 명이 강변에 모여 지켜보게 된다. 목사가 각각의 회심자에게서 신앙 고백을 듣고 침례를 준다. 한 번에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침례를 받는다. 이는 강력한 시각적 증거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8. 귀가: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변

화되었다. 많은 이들이 회심했고 교회에 가입할 준비가 되었으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지역에서 부흥을 확산시킨다.

캠프 미팅과 침례교 - 완벽한 결합

캠프 미팅은 감리교가 가장 조직적으로 활용했지만 침례교도 큰 수혜자였다. 캠프 미팅의 모든 특징이 침례교의 강점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첫째, 캠프 미팅은 야외에서 열렸고 교회 건물이 필요 없었다. 침례교는 건물 없이도 예배할 수 있었으므로 캠프 미팅에 완벽하게 적합했다.

둘째, 캠프 미팅에는 일반 성도가 참여했다. 안수받은 성직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 설교자들도 활동했다. 침례교는 일반 성도 설교를 오랫동안 실천해 왔으므로 이러한 형태가 자연스러웠다.

셋째, 캠프 미팅은 회심을 강조했다. 캠프 미팅의 목표는 사람들을 회심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침례교의 신자 침례 신학은 이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회심한 사람은 즉시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

넷째, 캠프 미팅은 감정적 표현을 허용했다. 사람들이 울고 소리치고 기뻐하는 모습이 환영받았다. 침례교 예배는 이미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캠프 미팅은 평등을 실천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교육받은 자와 문맹인 자, 백인과 흑인이 함께 모였다. 물론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다(흑인들은 종종 별도 구역에 앉았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는 침례교의 평등 정신과 부합했다.

캠프 미팅의 결과는 놀라웠다. 한 번의 캠프 미팅에서 수백 명이 회심했고 그들 중 많은 이가 침례교회에 가입했다.

역사학자들은 제2차 대각성 운동 동안 수십만 명이 침례교인이 되었다고 추정한다.

침례교 확산의 숫자

숫자로 침례교의 성장을 살펴보면 그 규모가 더욱 분명해진다.

1790년에 미국에는 약 5만 명의 침례교인이 있었고 교회는 약 1,000개에 불과했다. 당시 침례교는 작은 교파였다.

그러나 1820년이 되자 침례교인은 약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30년 만에 4배로 성장한 것이다. 교회 수도 약 2,500개에 이르렀다.

1850년에는 침례교인이 약 100만 명에 달했다. 60년 사이에 무려 20배 증가한 셈이다. 교회는 약 9,000개로 늘어났고, 침례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860년에는 약 150만 명의 침례교인이 있었으며, 교회 수도 12,000개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만을 집계한 것이다. 침례교 예배에 참석하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이들, 침례교 가정의 어린이들, 침례교를 지지하지만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컸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1860년경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5–20%가 어떤 형태로든 침례교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추정한다.

지리적으로 보면 침례교는 남부와 서부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켄터키, 테네시 같은 지역에서는 침례교가 사실상 지배적 교파였으며 많은 카운티에서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침례교인이었다.

침례교가 미국 문화에 미친 영향

19세기 중반이 되면, 침례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교파가 아니라 미국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침례교는 여러 측면에서 미국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민주주의의 확산

침례교의 회중 정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민주적 참여 경험을 제공했다. 교회 회의에서 성도들은 발언하고 토론하고 투표하며 공동체의 결정을 함께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민주주의로 이어졌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침례교와 다른 회중 정치 전통의 교회들이 미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둘째, 교육의 촉진

침례교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고백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면 문해력이 필요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침례교회들은 주일 학교를 조직했을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평일 학교까지 운영했다. 또한 많은 대학을 설립했다. 브라운 대학교(1764), 콜게이트 대학교(1819),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1834), 리치몬드 대학교(1830) 등 여러 명문 대학들이 침례교에 의해 세워졌다.

셋째, 사회 개혁 운동 참여

침례교인들은 다양한 사회 개혁 운동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금주 운동은 침례교가 특히 강력하게 지지한 운동이었다. 많은 침례교인들은 알코올 사용을 죄로 보았고 금주를 열정적으로 촉진했다. 일부 침례교인들은 노예제 폐지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물론 다른 침례교인들은 노예제를 지지했다. 이는 후에 침례교회의 남북 분열을 초래한다). 그 밖에도 교도소 개혁, 정신병원 개선, 빈민 구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침례교인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넷째, 선교 운동의 발전

침례교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모두에 열정적이었다. 1814년, 미국 침례교인들은 '해외 선교를 위한 침례교 총회'를 조직했다. 3년마다 모였기 때문에 '삼년 총회'라고 불렸다. 이 조직은 버마(현 미얀마)에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과 앤 저드슨(Ann Judson)을 선교사로 파송했으며 저드슨 부부의 사역은 미국 전역에 감동을 주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 헌금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미국적 정체성 강조

침례교는 특별히 '미국적'인 교파로 여겨졌다. 침례교의 원리 — 개인주의, 평등, 자유, 자치, 성경의 권위 — 는 미국의 이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유럽에서는 국교 체제가 지배적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자발적 교회들이 번성했고 그중에서도 침례교가 단연 돋보였다. 외국인 방문자들은 종종 '미국에서 침례교가 가진 힘과 영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침례교의 다양성과 분열의 씨앗

침례교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교파 내부의 다양성도 함께 증가했다. 모든 침례교인들이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라는 핵심 원리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여러 문제들에서는 견해가 서로 달랐다.

먼저 신학적 차이가 있었다. 영국에서부터 이어져 온 일반 침례교와 특수 침례교의 구분은 여전히 존재했다. 일반 침례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일반 속죄를 믿었고, 특수 침례교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제한 속죄를 믿었다. 19세기 미국의 침례교는 대체로 특수 침례교(칼빈주의)가 다수였으나 일반 속죄를 믿는 일반 침례교 전통도 계속 남아 있었다.[5]

또한 칼빈주의에 대한 태도도 다양했다. 어떤 침례교인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모두 받아들이는 극단적 칼빈주의자였고 어떤 이들은 몇 가지 교리만 받아들이는 온건한 칼빈주의자였다. 또 다른 이들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우스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실천적 차이도 컸다. 어떤 침례교회들은 침례를 받은 침례교 회원만 주의 만찬에 참여시키는 '닫힌 만찬'을 유지했지만, 다른 교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만찬을 열어 두는 '열린 만찬'을 실천했다.

그러나 침례교를 가장 깊이 갈라놓은 문제는 노예제였다. 남부의 침례교인

5. 현시대(20–21세기)에는 일반 침례교(General Baptist) 신학, 즉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일반 속죄를 믿는 침례교인이 훨씬 더 많다.

들은 대체로 노예제를 옹호하거나 최소한 용인했다. 그들은 성경이 노예제를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북부의 많은 침례교인들은 노예제를 도덕적 악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 갈등은 184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다. 1844년, 조지아의 한 침례교인이 해외 선교사로 임명되길 원했으나 그는 노예 소유자였다. '삼년 총회'의 선교 이사회는 그를 거부했고 이는 남부 침례교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결국 1845년 5월, 남부 침례교 대표들이 조지아의 어거스타(Augusta)에 모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남침례교 총회의 탄생이었다. 이는 미국 침례교의 공식적인 분열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부 침례교인들은 기존의 '미국 침례교 선교 연합'과 여러 조직들을 통해 계속 협력했다. 이후 1907년, 그들은 미국 북침례교 총회를 창립했으며, 이는 훗날 미국 침례교회들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분열은 침례교 역사에서 큰 비극이었지만 침례교의 성장을 막지는 못했다. 남침례교 총회는 남부 지역에서 지배적 교단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 미국 최대의 기독교 교단(약 1,300만 명)이 되었다. 북침례교 총회 역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침례교 - '미국적 기독교'의 상징

19세기 중반이 되면 침례교는 확고하게 미국 종교 풍경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파가 아니었다. 침례교는 주류가 되었고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며, 사회로부터 존경까지 받는 교파가 되었다.

침례교는 점점 '미국적 기독교'의 대표로 인식되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침례교의 핵심 원리들이 미국의 핵심 가치들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1. **개인의 자유:** 침례교는 각 사람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

쳤다. 이는 미국의 개인주의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2. 평등: 침례교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믿었다. 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미국 독립 정신과 일치했다.

3. 민주주의: 침례교의 회중 정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었다. 이는 미국의 정치 체제와 방향성을 같이했다.

4. 성경의 권위: 침례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았다. 이는 미국 헌법 중심의 사고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5. 정교분리: 침례교가 오래도록 외쳐 온 정교분리는 결국 미국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

6. 자발적 결사: 침례교회는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였다. 이는 미국 사회의 자발적 결사 구조와 동일했다.

7. 개척 정신: 침례교는 새로운 지역으로 끊임없이 나아갔다. 이 정신은 미국의 서부 개척 정신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모든 이유로 침례교는 가장 '미국적 성격을 지닌 교파'로 인식되었다. 외국인들이 미국 종교를 이해하려면 침례교를 먼저 이해해야 했다. 침례교는 미국 종교 문화의 중심부에 있었다.

결론 - 자유가 만든 성장

1791년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비준된 후 1860년에 이르기까지 약 70년 동안, 침례교는 5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성장했다. 무려 30배의 증가였다. 교회의 수도 1,000개에서 12,000개로 늘어났다. 미국 역사에서 이만큼 빠르고 지속적이며 폭발적인 교회 성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이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

핵심은 자유였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침례

교에게 마침내 '날개'를 달아 주었다. 더 이상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도, 설교나 예배를 위해 허가를 구할 필요도 없었다. 침례교는 억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침례교의 본질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와 딱 맞아떨어졌다. 단순한 구조, 평등주의, 회중 정치, 성경 중심주의, 개인의 회심 강조, 이 모든 요소들은 미국의 개척 사회, 민주주의 이상, 평등 문화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다. 침례교는 그야말로 미국적 토양에 가장 잘 뿌리내릴 수 있는 교파였다.

침례교의 성장은 또한 두 차례의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부흥 운동의 회심 중심 메시지는 침례교가 강조해 온 신자 침례 신학과 완벽하게 맞았다. 거대한 야외 집회와 캠프 미팅은 침례교의 단순하고 자유로운 예배 형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일반 성도 중심의 참여 방식 역시 침례교의 평등주의 정신과 어울렸다.

이 모든 요인이 결합하여, 침례교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파 중 하나로 우뚝 섰다. 수백만 명의 삶에 복음을 전했고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미국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전 세계 곳곳에도 선교사를 파송했다.

1525년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작디작은 움직임은, 266년 후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서 거대한 운동으로 꽃피었다. 리마트 강에서 순교한 펠릭스 만츠가 증언한 원리가, 이제는 미국 땅에서 수백만 명의 신앙 고백 속에 살아 있게 되었다. 박해받던 소수파가 존경받는 주류가 되었다.

그러나 침례교는 성공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았다. 규모는 커졌어도 원칙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았고, 여전히 신자 침례를 고수했으며, 여전히 정교분리를 지켰고, 여전히 회중 정치라는 침례교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외적 환경에는 적응하되 내적 본질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국 문화와 조화를 이루되 성경적 진리에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의 힘이었다.

오늘 우리가 침례교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여기에 있다.

"우리도 시대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지만 성경적 원칙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성장을 추구할 수 있지만 정체성은 잃어서는 안 된다."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침례교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준다. 266년 동안 침례교인들은 진리를 지키고 고난을 견디고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을 기쁘게 사용하셨다. 소수는 다수가 되었고 약한 자는 강해졌으며 박해받던 자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께 신실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신실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전 15:58)

Check Point

미국 침례교 역사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내가 누리는 자유가 수백 년 투쟁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피와 고난으로 얻어진 특권임을 매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소수가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다수의 반대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을 확신이 있는지, 소수의 외침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이라면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원칙을 타협하기보다 고난을 택할 신실함이 있는가?

압력과 편의의 유혹 속에서도 성경적 원칙을 지키며, 타협보다 고난을 선택할 신실한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나는 정교분리가 교회를 약하게 하는지, 아니면 더 순수하게 지키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부 의존이 교회를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외부의 도움 없이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신실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5. 나는 '분리의 벽'의 기원을 알고 있는가?

정교분리 사상이 제퍼슨의 사상이 아니라 재침례교 신학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며, 이 유산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등 침례교의 핵심 원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지킬 신실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나는 선조들의 유산을 단순히 받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지키고 전할 신실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는 책임이 있으며, 선조들이 피로 지킨 원리를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 후대에 남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Chapter 14

침례교 최대의 분열

남침례교 총회의 탄생

AD 1814-1845

정교분리의 벽이 세워지고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며 미국 침례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까지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생기겠지. 자유와 부흥, 선교와 성장의 황금기만 이어지겠지."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자유와 성장의 정점에서 침례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침례교 신앙 고백을 고백하던 형제들이 '노예제'라는 문제 앞에서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어떻게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리며 싸웠던 침례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자유를, 또 다른 이들에게는 노예제의 신학적 방패를 제공하는 교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설교하던 강단에서 흑인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설교가 동시에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장은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아픈 사건인 남침례교 총회의 탄생 뒤에 숨은 이야기, 곧 "복음적 교회가 시대의 죄와 부딪칠 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그 분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다.

이제 먼저, 겉으로는 부흥과 성공이 계속되던 시기였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균열이 자라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분열의 그림자

침례교는 19세기 초 미국에서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다.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수백 개 교회에서 수만 개 교회로 증가했다. 침례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파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주류 교파였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다. 침례교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남부와 북부 사이의 차이가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국 침례교 역사상 가장 아픈 분열로 이어졌다.

1845년 5월 8일, 조지아의 어거스타에서 남부 침례교 대표 293명이 모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고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가 탄생했다. 이는 침례교의 분열이었고 그 여파는 18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이 분열을 가져왔을까? 이제 그 배경과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다.

19세기 미국 - 두 개의 다른 세계

19세기 초중반 미국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남부와 북부에서 매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실상 두 개의 다른 나라가 하나의 국기 아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북부 – 산업화와 도시화

북부는 산업 혁명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공장들이 세워졌고 도시들이 성장했으며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몰려왔다. 경제는 제조업, 상업, 무역 중심이었다.

노동력은 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공장 노동자들, 상점 직원들, 장인들이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 이는 자유노동 체제였다. 노동자는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었고 직장을 옮길 수 있었으며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었다.

북부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졌다. 아일랜드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이민자들이 유입되었고 카톨릭 신자들이 증가하면서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이 일상이 되었다.

북부의 개신교도들은 사회 개혁에 관심이 많았다. 금주 운동(술을 금지하는 운동), 교도소 개혁, 정신병원 개선, 교육 확대, 노동 조건 개선 — 이러한 운동들이 북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북부 개신교도들이 노예제를 도덕적 악으로 보기 시작했다.

남부 – 플랜테이션과 노예제

남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남부 경제는 농업 중심이었다. 특히 목화, 담배, 쌀, 사탕수수 같은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경제의 핵심이었다. 플랜테이션 경제는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수백 에이커의 목화밭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했다. 남부는 이 노동력을 노예제로 해결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노예로 강제 노동을 했다.

노예제는 단순히 경제 제도가 아니라 남부 사회 전체의 기초였다. 정치, 사회, 문화, 가족 구조, 이 모든 것이 노예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소수의 대농장주들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고 그들은 남부 사회를 지배했다.

남부의 백인들 대부분은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농이었고 가난한 백인이었으며 자기 손으로 일했다. 그러나 그들도 노예제를 지지했다. 왜 그랬을까? 노예제가 그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난해

도 그들은 흑인 노예보다는 위였다. 노예제는 인종적 계급 구조를 만들었고 가난한 백인들도 그 구조에서 이익을 얻었다.

남부 사회는 보수적이었다. 전통을 중시했고 변화를 의심했으며 외부 간섭을 싫어했다. 남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두 세계의 충돌

1820년대와 1830년대에 이 두 세계 사이의 긴장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북부는 보호 관세, 즉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원했고 반면에 남부는 목화를 수출하고 유럽에서 제품을 수입했기 때문에 자유 무역을 원했다.

정치적 권력 투쟁도 있었다. 서부에 새로운 주들이 생길 때마다 논쟁이 일어났다. 그 주가 노예제를 금지하는 '자유 주'가 될 것인가, 노예제를 허용하는 '노예 주'가 될 것인가? 이는 의회에서 남부와 북부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점점 더 도덕적 논쟁도 커졌다. 북부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이 성장했고 폐지론자들은 노예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반대이며 미국의 자유와 평등 이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 사람들은 이러한 비판에 분노했다. 그들은 폐지론자들이 남부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려 한다고 느꼈다. 그들은 노예제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성경에 노예제가 나오고 바울이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며 예수님도 노예제를 직접 비난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교회들도 이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처음에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적 문제에서 거리를 두려 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정치나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예제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도덕적, 신학

적 문제였다. 교회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침례교 안의 긴장

침례교는 19세기 초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다. 북부에도, 남부에도, 서부 개척지에도 침례교회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기본 신앙을 공유했다.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성경 권위, 정교분리 — 이러한 원리들은 모든 침례교인들이 믿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예제 문제에서 그들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북부 침례교인들과 남부 침례교인들은 점점 더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북부 침례교인들의 견해

모든 북부 침례교인들이 즉각적인 노예제 폐지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일부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며 점진적 폐지를 선호했고, 노예 소유주들에게 보상을 지급한 뒤 해방된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이주시키는 식민화 계획을 지지했다.

그러나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점점 더 많은 북부 침례교인들이 노예제가 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마 7:12)

당신이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지 말라.

>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창 1:27)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흑인도 백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재산처럼 사고팔 수 있는가?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갈 3:28)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어떻게 주일에 같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월요일에는 형제를 노예로 부릴 수 있는가?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 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냐? (사 58:6)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다. 노예제는 억압의 극치인 제도이다.

북부 침례교인들은 또한 노예제의 실제 잔혹함을 지적했다. 가족의 분리(어머니와 자녀가 서로 다른 주인에게 팔림), 교육 금지(노예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 신체적 학대(채찍질, 고문), 성적 착취(여성 노예들에 대한 백인 주인들의 강간).

일부 북부 침례교 목사들은 노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설교했다. 그들은 노예 소유가 죄라고 선언했고 침례교인들이 노예제 폐지 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는 '지하 철도'(도망친 노예들을 '자유 주'나 캐나다로 탈출시키는 비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도 했다.

남부 침례교인들의 견해

남부 침례교인들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졌다. 그들 중 대부분은 노예제가 죄가 아니라고 믿었고 그들도 성경을 인용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골 3:22)

바울은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노예제가 죄라면 왜 바울은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했을까?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창 15:6)

아브라함은 종들을 가졌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노예 소유가 죄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었을까?

구약의 율법이 노예제를 인정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출 21:1–11). 만약 하나님께서 노예제를 완전히 반대하셨다면 왜 그것을 규제하는 법을 주셨겠느냐고 반문했다.

예수님께서 노예제에 대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노예제 폐지를 명령하지는 않으셨다.

남부 침례교인들은 또한 노예제가 실제로 흑인들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흑인들이 '열등한 인종'이며 백인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이는 명백히 인종 차별적이고 비성경적인 견해이다). 그들은 노예제가 아프리카의 '야만'에서 흑인들을 구출하여 '문명화'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일부 남부 침례교 목사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들은 노예 집회를 열고 노예들에게 설교하고 노예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천국에서의 보상을 기대하라고 가르쳤다.

남부 침례교인들은 북부의 폐지론을 정치적 공격으로 보았다. 그들은 "북부 사람들이 성경을 핑계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려 한다. 그들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재산을 빼앗고,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고 말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남부 침례교인들의 노예제 옹호는 잘못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곡해했고 문화적 편견과 경제적 이익이 성경 해석을 오염시키도록 허용했다.

성경은 노예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성경은 타락한 세상에 노예제가 존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었다.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자유, 평등, 정의, 사랑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고후 3:17)

노예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재산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는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폭력과 착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남부 침례교인들은 훗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1840년대에는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했다.

1844년 - 선교사 임명 논쟁

긴장은 1840년대 초에 절정에 달했는데 촉발점은 선교사 임명 문제였다. 당시 침례교인들은 선교 사업을 위해 협력하고 있었다. 1814년에 조직된 '삼년총회'(정식 명칭은 '미국 침례교인들의 외국 선교를 위한 총회')가 해외 선교를 담당했고 '국내 선교회'(1832년 설립)가 미국 내 선교와 교회 개척을 담당했다.

이 조직들은 남부와 북부 침례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적 기구였다. 남

부 교회들과 북부 교회들이 모두 헌금을 보냈고 함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함께 사역을 계획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러했다.

그러나 1840년대 초 노예제 논쟁이 이 협력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일부 북부 침례교인들은 노예 소유자를 선교사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예 소유가 죄라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남부 침례교인들은 이에 분노했다. 그들은 "노예 소유는 죄가 아니다. 우리도 선교사가 될 권리가 있다. 북부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려 한다."고 말했다.

1844년, 조지아의 침례교회들이 행동에 나섰다. 의도적으로 그들은 노예를 소유한 인물인 리브(James E. Reeve)를 선교사 후보로 지명했다. 조지아의 침례교인들은 국내 선교회에 물었다. "당신들은 그를 임명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이 일은 국내 선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려는 의도를 가진 시험대였고, 이로 인해 국내 선교회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남부 사람들과 북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몇 달 동안 논쟁이 있었고 마침내 1844년 말, 이사회는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는 리브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그가 노예를 소유했기 때문이었다. 이사회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노예 소유자를 선교사로 임명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노예제는 북부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노예를 소유한 선교사를 임명하면 북부 교회들의 지지를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회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예 소유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부 침례교인들은 이 결정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북부가 우리를 이등 시민으로 취급한다. 그들은 정치적 견해를 우리에게 강요한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의 동시에 유사한 사건이 외국 선교 이사회에서도 일어났다. 앨라배마 침례교회들이 이사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명확한 답을 요구했다.

"만약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선교사로 지원하면 당신들은 그를 다른 지원

자들과 똑같이 고려하겠습니까?"

외국 선교 이사회도 명확하게 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노예 소유자를 선교사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남부 침례교인들에게 이러한 명확한 거부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더 이상 북부와 함께 일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의 조직이 필요하다."

1845년 5월 - 어거스타 회의

1845년 봄, 남부 침례교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남부 전역의 침례교회들에 초대장을 보냈다. 5월 8일 조지아의 어거스타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니 대표들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5월 8일, 293명의 대표들이 어거스타의 제일침례교회에 모였다. 그들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그리고 다른 남부 주들에서 왔는데 일부는 수백 마일을 여행했다.

회의는 엄숙했다. 모두가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임을 알았다. 침례교가 분열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존슨(William B. Johnson) 목사가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존경받는 침례교 지도자였다. 그는 개회 연설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북부 형제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소유를 죄로 선언했고, 노예를 소유한 우리를 선교 사역에서 배제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대표들은 논의했다. 일부는 여전히 화해를 희망했다.

"분열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 북부와 대화를 계속할 수 없을까?"

그러나 대부분은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느꼈다.

조지아 주 어거스타의 랜드마크 침례교회. 과거 어거스타 제일침례교회로 남침례교 총회의 발상지

5월 10일, 대표들은 투표를 통해 압도적 다수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남침례교 총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새로운 조직의 헌장이 채택되었다. 그것은 남침례교 총회의 목적을 명시했다.

"남침례교 총회의 목적은 외국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그 밖에 침례교 교단의 이익을 증진하는 모든 사업을 위한 계획을 고안하고, 조직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분열의 원인이 신학적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부와 북부 침례교인들은 여전히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다. 신자 침례, 침수례, 회중 정치, 성경 권위, 정교분리 — 이 모든 것을 양측 모두 동일하게 믿었다. 분열은 노예제라는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문제 때문이었다.

존슨이 남침례교 총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두 개의 선교 이사회가 즉시 조직되었다. '외국 선교 이사회'는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 본부를 두었고 '국내 선교 이사회'는 앨라배마의 마리온에 본부를 두었다(후에 조지아 애틀랜타로 이전). 회의가 끝날 무렵, 대표들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분열이 '북부 형

제들의 행동'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침례교 신앙에 충실하며, 복음 전파에 헌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침례교는 이제 북부 침례교와 남부 침례교, 둘로 나뉘었다.

남침례교 총회 - 조직과 원칙

남침례교 총회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침례교의 회중 정치 원칙이 대규모 협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회중 정치의 핵심 원칙

먼저, 침례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각 지역 교회는 자율적이다. 각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완전한 교회이다. 어떤 외부 권위도 — 주교도, 노회도, 총회도, 교단도 — 지역 교회를 통제할 수 없다.

이는 침례교가 처음부터 지켜온 원칙이다. 1525년 재침례교가 이 원칙을 주장했고 1609년 스미스가 이를 실천했으며 1644년 런던 신앙 고백도 이를 명시했다.

침례교는 이러한 점에서 다른 교파들과 분명히 구별된다. 침례교에서는 교단(또는 총회, 협의회)이 지역 교회를 통제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1]

1.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많은 교단 구조와 상당히 다르다. 한국에서 교단은 종종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교단이 목사를 임명하고, 교회 정책을 결정하고, 심지어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다. 목사들은 교단에 소속되고, 교단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남침례교 총회의 본질

그렇다면 남침례교 총회는 무엇일까? 그것은 협력 기구이며 자발적 결사체이다. 지역 교회들이 공동의 목적 — 특히 선교 — 을 위해 함께 일하기로 선택한 조직이다. 남침례교 총회는 절대로 지역 교회를 지배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권한이 없다.

1. 목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는 각 지역 교회의 권한이다.
2. 개교회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각 교회가 스스로 결정한다.
3. 예산을 강요할 수 없다. 각 교회가 자발적으로 헌금한다.
4. 교리를 강제할 수 없다. 각 교회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채택한다.
5. 교회 회원을 받아들이거나 출교할 수 없다. 이는 각 회중의 권한이다.
6. 예배 방식을 지시할 수 없다. 각 교회가 스스로 예배를 계획한다.

그렇다면 남침례교 총회는 무엇을 하는가?

남침례교 총회가 하는 일

남침례교 총회는 개별 교회들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협력하여 수행한다.

첫째, 선교 사역. 이것이 남침례교 총회가 설립된 주된 이유였다. 개별 교회는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기 어렵다.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고 조직적 인프라가 필요하며 장기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천 개의 교회가 함께 협력하면 가능하다.

남침례교 총회는 국제 선교 이사회(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를

운영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선교 조직 중 하나이다. 2020년대 현재 약 3,6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다.

또한 북미 선교 이사회(North American Mission Board, NAMB)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교회 개척, 전도, 재난 구호 등을 담당한다.

둘째, 신학 교육. 남침례교 총회는 여섯 개의 신학교를 지원한다. 이 신학교들은 목회자, 선교사, 교회 사역자들을 훈련한다. 개별 교회가 신학교를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협력하면 가능하다.

셋째, 출판 및 자료 제공. 남침례교 총회의 라이프웨이(LifeWay, 현재는 독립 조직)는 성경 공부 자료, 교회 자원, 책들을 출판한다. 개별 교회들이 이러한 자료를 만들기는 어렵다.

넷째, 윤리 및 종교의 자유 옹호. 남침례교 총회의 윤리 및 종교의 자유 위원회는 공공 정책 문제에서 성경적 원칙을 대변한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생명 윤리를 옹호하며(낙태 반대 등) 정의를 추구한다.

다섯째, 재난 구호. 남침례교 재난 구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 재난 구호 조직 중 하나이다. 허리케인, 홍수, 지진 등이 발생하면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어 돕는다.

협력의 메커니즘

어떻게 이 협력이 작동할까? 지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남침례교 총회에 헌금을 보내는데, 이는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불린다.

각 교회는 얼마를 보낼지 스스로 결정한다. 어떤 교회는 예산의 10%를 '협력 프로그램'에 보내고, 어떤 교회는 20%를 보내며, 어떤 교회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다. 그것은 각 교회의 선택이며 남침례교 총회는 강요할 수 없다.

이 헌금은 선교, 신학 교육, 그리고 다른 협력 사업에 사용된다. 각 교회는 자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목사 안수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는 누가 하는가? 각 지역 교회가 한다. 교단이나 총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2]

전형적인 과정은 이렇다. 한 교회의 회원이 목회 소명을 느낀다. 그러면 교회는 그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돕는다. 그가 훈련을 마치면 교회는 '안수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위원회는 보통 그 교회의 목사와 집사들, 그리고 다른 침례교회들에서 초대된 목사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한다. 그의 회심 경험, 부르심, 신학적 믿음, 성품, 능력을 검토한다. 위원회가 만족하면 지역 교회 회중에게 추천하고 회중이 투표하여 승인하면 안수식이 거행된다.

목사 안수는 교단이 하지 않고 지역 교회가 한다. 남침례교 총회는 목사를 안수하지 않고 각 교회가 한다. 물론 남침례교 신학교들이 목회자를 훈련하고 남침례교 총회가 신학적 기준을 권장하며 다른 교회들의 목사들이 안수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과 실행은 지역 교회에 속한다.

독립침례교회들

여기에서 강조할 만한 매우 중요한 점이 있다. 미국에는 남침례교 총회나 다른 어떤 침례교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은 독립침례교회들이 매우 많다.

침례교의 회중 정치 원칙에 따라 각 교회는 어떤 연합에 가입할지 스스로 결

2. 목사 안수에서 '안수'는 영어로 ordination이며, 직분에 대한 공식적인 임명과 위임을 뜻한다. 임명식에서 흔히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가 동반되지만, 이는 '손을 얹는 것'(laying on of hands)이라는 상징적 의식일 뿐 임명 자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안수'라는 말이 손을 얹는 행위를 직접 연상하게 하다 보니, 임명과 손 얹음이 하나의 개념처럼 혼용되어 왔다. 그러나 성경적, 신학적으로 볼 때 본질은 임명이며, 손 얹음은 그 임명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수단적, 상징적 행위에 불과하다.

정한다. 어떤 교회는 남침례교 총회에 가입하고, 어떤 교회는 미국 침례교회들 회의에 가입하고, 어떤 교회는 다른 침례교 협의회나 친교 단체에 가입한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어떤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독립침례교회들은 "우리는 남침례교 총회나 다른 조직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결정한다. 이는 그들의 권리이며 침례교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

독립침례교회들 중에는 작은 교회도 있지만 매우 큰 교회들도 많다.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들 가운데 일부는 독립교회이다. 수천 명, 심지어 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교회들도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 댈러스의 제일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남침례교 총회 소속이었지만 매우 강한 독립성을 유지한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제일침례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대형 교회들은 아예 소속 교단이 없다.

그렇다면 독립침례교회들은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독립 선교 단체들과 협력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교회들과 임시로 협력한다. 그들은 자체 신학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목회자 후보들을 다양한 신학교들에 보낸다.[3]

이러한 형태는 침례교만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침례교는 획일적인 조직이 아니다. 침례교는 다양하다. 어떤 교회는 큰 협력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는 소규모 협의회에 속하기를 원하며 어떤 교회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한다. 모든 선택이 존중된다. 왜냐하면 각 교회가 자율적이기 때문이다.

남침례교 총회의 신학과 특징

남침례교 총회는 분열의 산물이었지만 그들은 침례교의 핵심 신앙을 충실히 유지해 왔다.

3. 16장은 독립침례교회가 생긴 배경과 목적 그리고 현황을 설명한다.

1. 신자 침례와 침수례: 남침례교는 오직 회심한 신자들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침례는 침수(온몸을 물에 담그는 방식)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회중 정치: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각 지역 교회는 자율적이다. 교회 회원들이 모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한다. 민주적 과정으로 목사를 선택하고 교회의 중요 사안과 정책을 결정한다.

3. 성경의 권위: 남침례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며 믿음과 실천의 최고 권위라고 믿는다. 2000년에 개정된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진리이며 오류가 없고 구원, 신앙, 그리고 기독교 생활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하며 권위 있는 계시이다."

4. 정교분리: 남침례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는 교회를 통제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정부 권력을 추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5. 선교 열정: 남침례교는 처음부터 선교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그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마 28:19-20)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한다.

6. 보수적 신학: 남침례교는 대체로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유지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감,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 대속적 속죄, 육체적 부활, 재림을 확고하게 믿는다.

노예제 정당화 - 어두운 그림자

남침례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 남침례교가 노예제를 옹호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침례교 설립자들은 노예제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더 나아가 노예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라고 말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고 인종 차별적 편견을 신학적 언어로 포장했으며 경제적 이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남침례교 목사들 중 일부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행동 자체는 선한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너의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라. 천국에서 보상을 기대하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음을 왜곡하여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남침례교는 남북 전쟁(1861–1865) 동안 남부 연합을 지지했는데 남부 연합은 노예제를 보존하기 위해 싸웠다. 남침례교 목사들은 남부 군인들에게 설교했고 전쟁을 '성스러운 대의'로 묘사했으며 하나님께서 남부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쟁이 끝나고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도 남침례교는 인종 차별을 계속했다. 흑인들은 남침례교회들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일부 교회는 흑인 회원을 별도로 앉게 하는 방식으로만 참여를 허용했다. 결국 흑인들은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워야 했다.

20세기 중반 민권 운동 동안 많은 남침례교 지도자들은 인종 통합에 반대했다. 그들은 인종 분리가 자연스럽고 심지어 성경적이라고 주장했고 일부는 민권 운동을 공산주의 음모로 묘사했다.[4]

물론 모든 남침례교인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 남침례교인들은 양심을 따라 인종 정의를 옹호했으나 그들은 소수였고 종종 자기 교회와 공동체로부터 비난받았다.

---

4. 민권 운동은 전체적으로는 흑인 교회 중심의 기독교적 평화 운동이었지만 그 내부에는 실제로 사회주의적·급진적 성향의 인물들과 단체들도 존재했다. 루터 킹 자신은 공산주의를 거부했으나 그의 측근 가운데 전(前) 공산당원들이 있었고 몇몇 민권 단체들은 좌파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남침례교 보수파의 "민권 운동이 좌파적이다."라는 비판은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만은 아니었다.

1995년 - 역사적 회개

1995년, 남침례교 총회는 창립 150주년을 맞았다. 그 해는 이를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해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많은 남침례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축하만 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고 믿었고 노예제 옹호라는 원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1995년 6월,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에서 열린 남침례교 총회 연례회의에서 '인종 화해에 관한 결의안'이라는 역사적인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이 결의안은 놀랍도록 솔직했는데 그 이유는 남침례교의 죄를 명확히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한다: 많은 남침례교인들이 우리 역사에서 인종 차별과 노예제를 옹호하고 지속시켰으며… 우리의 선조들 중 일부가 노예제를 옹호하고 변명했으며… 우리 교단의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억압하는 인종 차별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다: 우리 교단이 역사적으로 노예제와 체계적 인종 차별에 대해 취한 입장과 행동들을….

우리는 용서를 구한다: 우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고의적이고 무의식적인 인종 차별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한다: 우리 자신의 인종 차별과 우리 교단의 창립이 노예제에 대한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의안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다짐들을 했다. 남침례교는 인종 화해를 위해 일할 것이며 교회들이 인종적 편견 없이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격려할 것이며 인종 차별에 반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결의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수천 명의 대표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으며 많은 이들이 울었다. 그야말로 역사적 순간이었다.

NEWS

some people's sins are not covered is hypocritical. That's not an excuse to murder, but Jesus said if we are not willing to forgive, we place ourselves outside of God's forgiveness."

But renowned theologian Carl Henry says such an outlook "tends to subordinate the justice of God to the love of God." Henry favors the death penalty, citing Genesis 9:6, which states, "Whoever sheds the blood of a human, by a human shall that person's blood be shed" (NRSV). He also maintains that Peter, by cutting off Malchus's ear in an effort to prevent Christ's arrest (John 18:10), was most likely trying to kill the soldier. According to Henry, Christ's statement that those who kill by the sword are subject to die by the sword implicitly recognizes the government's right to exercise the death penalty.

Those who maintain that Scripture neither mandates nor prohibits capital punishment are most likely to focus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dministration of the death penalty is consistent with biblical principles and practices. Among these concerns are the requirement that witnesses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that the intent of the offender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at justice be administered without regard to social or economic status.

Charles Colson, who founded PFM in 1976 after serving a seven-month Watergate-related prison term, says he has grave reservations about the way in which capital punishment is administered. "I remain convinced that it is not a general deterrent," Colson says. "But I must say that my views have changed, and I now favor capital punishment, at least in principle, but only in extreme cases when no other punishment can satisfy the demands of justice." Colson says a visit he had with Illinois mass murderer John Wayne Gacy, who was executed last year for killing 33 young men and boys during the 1970s, pushed him over the edge to a pro-death penalty view.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Colson argues that "justice in God's eyes requires that the response to an offense . . . be proportionate."

Although the thief on the cross alongside Christ was included in Christ's merciful action, this criminal did not have "the consequences of his crime" eliminated, Colson asserts. "Nowhere does Jesus set aside the requirements of civil law."

Likewise, Colson favors the death penalty for the perpetrators of April's Oklahoma City bombing. "No other punishment [is] sufficient for the deliberate savagery of the crime."

EQUAL JUSTICE ISSUES: Many hold anti-death penalty views primarily out of a concern for fairness. According to one frequently cited study by researchers Hugo Bedau and Michael Radelet, 23 people have been executed in the United States this century whose guilt was later either clearly disproven or cast in doubt. Others—48 according to the DPIC—have been able to prove their innocence while still on death row, establishing the possibility of receiving the death penalty despite what many would consider reasonable doubt.

Rob Dunham, executive director of the Pennsylvania Post-Conviction Defender Organization in Philadelphia, says, "If we are going, as a matter of public policy, to have a death penalty, then we must, as a matter of public policy, ensure procedural fairness."

Dunham says that despite the clear conclusion five years ago of a joint federal and Pennsylvania court task force that the state does not provide adequate representation to indigent defendants, the legislature has enacted a law intended to hasten the rate at which death warrants are signed. "Legislators see the issue as a politically popular one," Dunham says, "and they are taking measures that enable them to claim they are tough on crime 'without regard for the actual legal or moral consequences.'"

McGeorge Law School professor Dressler adds, "The amount of money many states—especially in the South—give attorneys to take on postconviction appeals is laughable. Lawyers either have to work for $5 an hour or do a shoddy job." According to Dressler, not only do these conditions increase the risk that innocent people will be executed, but they also result in the failure to recognize mitigating circumstances under which those who are guilty of murder should by law be spared the death penalty.

Dressler maintains that a counterterrorism bill under consideration in Congress represents a greater interest in efficiency than in truth and administrative fairness. The proposed bill would limit most death row inmates to one federal court appeal.

Death penalty opponents have thoroughly documented a racial bias in the administration of capital punishment. Roughly half of all murder victims are black, but in executions, 85 percent of those they had murdered were white. "I think it is clear that the death penalty is reserved primarily for the poor and for people of color," Stevenson says. "As we say in our circles, 'Capital punishment means them without the capital get the punishment.'"

Stevenson believes that the death penalty has a subconscious attraction to the middle class "by symbolically communicating to poor people and racial minorities, 'We will not let you terrorize. We will strike back at you.'" He believes that if the death penalty were administered fairly, it would lose this symbolic value and as a result be abolished. "I don't believe our society is capable of making the judgment that the life of any person, even a guilty person, no longer has purpose or value."

Christians who favor the death penalty, however, believe the answer lies not in eliminating a punishment whose purpose is to recognize the value of human life, but in advocating legal remedies to ensure fair application.

Given the current mood of the country, laws supporting the death penalty are not likely to disappear anytime soon. Then again, neither will those committed to opposing those laws. CT

Only 12 states plus the District of Columbia do not have the death penalty

52 CHRISTIANITY TODAY: AUGUST 14, 1995

NEWS

SOUTHERN BAPTISTS

Racist No More? Black Leaders A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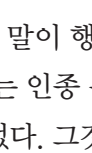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 meeting in Atlanta in June, chose its one-hundred-fiftieth anniversary to apologize for "condoning" racism and later on approved a sweeping reorganization of the nation's largest Protestant denomination.

The ink had barely dried on the convention's antiracism resolution when it came under criticism from some black leaders. Yet many others, including evangelist Billy Graham, who spoke at the convention, hailed the historic effort.

The SBC resolution in part states: "We apologize to all African Americans for condoning and/or perpetuating individual and systemic racism in our lifetime, and we genuinely repent of racism of which we have been guilty, whe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The SBC, which has 15 million members and 39,900 congregations nationwide, was formed in 1845 after a split in Baptist ranks over whether slaveholders could serve as ministers.

"On behalf of my black brothers and sisters, we accept your apology," Gary Frost, SBC second vice president and a black pastor, said at the Georgia Dome convention. "We pray that the genuineness of your repentance will be reflected in your attitudes and in your actions." In 1989, the SBC had approved a resolution against racism. But the 1995 resolution was the first ever to address blacks specifically in a way linked with the slavery issue.

SBC president James B. Henry said passage of the measure was "one of the



Prophet with honor: Graham is feted for 50 years of evangelism as "a model of integrity, exhibiting the humility, grace, and courage of our Lord Jesus Christ."

most moments in Southern Baptist life." Henry said he views the apology as "a huge statement to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of who we are and what we're about."

Graham, recovering from his collapse from intestinal bleeding at his Toronto crusade earlier in the month, told Southern Baptists, "Only when we individually and as a corporate group renounce racism in all of its forms and repent of all transgression will God choose to use us in the future to reach all people throughout the world."

Who's sorry now? SBC president James B. Henry, right, prays with Gary Frost, second vice president, following passage of the antiracism amendment.

At present, the SBC has 1,900 predominantly black congregations. Willie T. McPherson, director of the Black Church Extension Division, said racism in America remains alive and well.

"Today racism is subtle," McPherson said. "It's corporate, and it's very difficult to see it unless you are African American. I see it now in our convention in a lot of ways."

McPherson, while optimistic overall on race relations, admitted that the resolution was "just the beginning." He said, "We already know that God will not operate where there is sin. And racism is sin."

The momentum for the SBC antiracism resolution can be partially tied to the larger movement toward racial reconciliation among Christian groups. Within the past two years,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the nation's leading Pentecostal church bodies, and the Promise Keepers men's movement all have placed racial reconciliation near the top of their corporate agendas. They have held joint meetings that included foot washings and initiated cross-racial accountability groups in hopes of bridging the country's racial divide (CT, Feb. 6, 1995, p. 48).

SINCERITY QUESTIONED: Nevertheless, not all black Christian leaders are convinced of the SBC's sincerity. Less than a week after the convention concluded, critics faulted the action.

Amos C. Brown, pastor of Third Baptist Church in San Francisco, told CHRISTIANITY TODAY, "It's pretty late in the day for Southern Baptists to finally come around to admit that their forebears were wrong for supporting slavery." Brown said SBC leaders need to show "the fruits of repentance" before many black church leaders will trust them.

Meanwhile, Caesar A. W. Clark, president of the Baptist Missionary and Education Convention of Texas, observed, "Southern Baptists have been working overtime to win black National Baptists." Clark is pastor of Good Street Baptist Church in Dallas, affiliated with the National Baptist Convention, U.S.A., a predominantly African-American denomination. He said there is a widespread perception among some black Christians that the SBC is wooing existing black congregations into the SBC fold.

Tet, Frost, who also serves as pastor of Rising Star Baptist Church in Youngstown, Ohio, said that "lack of trust" among black Christians and a "lack of knowledge" among white Christians has contributed to the difficulty of reconciliation. "The black Christians have been deceived so many times, had so many false promises made to them, that they don't trust anymore. I would say to the black brethren . . . 'Let's see if we can work together. Give it a chance.'"

SBC REORGANIZATION: The convention's messengers, as local church representatives are known, approved a sweeping reorganization of the Nashville-based denomination's vast bureaucratic structure.

Among the many changes to "streamline" the SBC is to eliminate the Home Mission Board, the Brotherhood Commission, and the Radio and Television Commission. The three will be reformed into the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to be based in Atlanta (CT, April 3, 1995, p. 90).

Dellanna O'Brien, executive director of the Women's Missionary Union, with a membership of 1.1 million, had opposed the reorganization plan until the convention voted an amendment that recognized "the valued and historic relationship" of the women's group to the convention.

By Timothy C. Morgan in Atlanta, with reports from Associated Baptist Press.

CHRISTIANITY TODAY: AUGUST 14, 1995 53

남침례교의 인종 차별 회개 사건을 다룬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1995년 8월 14일 자

그러나 이 회개는 완벽하지 않았다. 말이 행동으로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남침례교는 인종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의 결의안은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그것은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한 출발점이었다.

미국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결의안을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 회개 중 하나로 평가한다. 대규모 교단이 자신의 역사적 죄를 이렇게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드문 일이었다.

남침례교의 성장 - 역설적 번영

역설적으로 남침례교 총회는 그 어두운 시작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단으로 성장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첫째, 지리적 위치. 남침례교는 남부에 집중되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남부는 인구가 빠르게 성장했다. 남침례교는 이 성장의 혜택을 받았다.

둘째, 농촌과 소도시 중심. 남침례교는 농촌 지역과 작은 마을에서 특히 강했다. 남부는 북부보다 덜 도시화되었고 농촌 인구가 많았다. 남침례교의 단순한 구조와 회중 정치는 이러한 환경에 잘 어울렸다.

셋째, 선교 열정. 남침례교는 교회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새로운 정착지가 생기면 남침례교 목사가 곧 나타나 교회를 세웠다. 남침례교는 또한 해외 선교에도 헌신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했다.

넷째, 신학교 시스템. 남침례교는 강력한 신학교 시스템을 개발했다. 여섯 개의 주요 신학교들이 매년 수천 명의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을 훈련시켰다. 이 시스템은 지속적인 지도자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다섯째, 협력 프로그램. 남침례교는 효율적인 재정 시스템을 개발했다.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수만 개의 교회들이 자원을 모아 대규모 선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여섯째, 보수적 신학. 20세기에 많은 주류 교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회원이 감소했으나 남침례교는 보수적 신학을 유지했고 복음주의 신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일곱째, 문화적 적합성. 남침례교는 남부 문화와 잘 맞았다. 그들의 예배 스타일, 설교 방식, 공동체 중심성이 남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웠다.

결과적으로 남침례교 총회는 거대한 교단이 되었다. 오늘날(2020년대 기준): 약 1,300만 명의 침례받은 회원, 약 47,000개 이상의 교회, 세계 최대의 개신교 선교 조직 중 하나 (약 3,600명의 해외 선교사), 연간 예산 수억 달러 등.

이는 분명 놀라운 성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상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성장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도 작용한다. 그리고 남침례교의 경우 그들의 초기 역사에 있는 노예제 옹호라는 깊은 죄는 아무리 큰 성장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부 침례교 - 다른 길

남침례교가 남부에서 성장하는 동안 북부 침례교도 계속 발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1845년 분열 후, 북부 침례교인들은 여러 선교 단체들을 통해 계속 협력을 이어 갔으나 남부와 같은 포괄적인 총회 구조는 없었다. 각 선교 단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20세기 초, 북부 침례교인들은 보다 통합된 구조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1907년, 그들은 '북침례교 총회'를 조직했고 그것은 1950년, 이름을 '미국 침례교 총회'(American Baptist Convention)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교단이 더 이상 지리적으로 '북부'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들이 서부는 물론 일부 남부 주에도 있었다.

그리고 1972년, 그것은 이름은 다시 '미국 침례교회들'(American Baptist Churches USA, 약칭 ABC-USA)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미국 침례교회들'(ABC-USA)은 남침례교단보다 규모가 작고 약 120만 명의 회원과 약 5,000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교단이다.

'미국 침례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남침례교보다 더 진보적이지만 그들도 침례교의 핵심 원칙들 —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성경 권위 — 을 유지한다.

다른 침례교 그룹들

남침례교 총회와 ABC-USA가 가장 큰 침례교 조직이지만 미국에는 다른 많은 침례교 그룹들도 있다. 또 앞에서 강조했듯이,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수많은 독립침례교회들이 있다. 이들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스스로를 단순히 '침례교회'라고 부른다.

이러한 다양성은 침례교의 회중 정치 원칙을 반영한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중앙 권위가 없기 때문에 각 교회와 각 지역 협의회는 자기 방식대로 조직할 수 있다.

분열의 교훈

1845년 분열은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아픈 사건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첫째, 교회도 시대의 죄에 물들 수 있다.

남침례교가 노예제를 옹호했던 이유는 성경보다 당시의 문화와 경제적 이익을 더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적 편견이 성경 해석을 왜곡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주는 경고이다. 우리 역시 문화의 압력에 눈이 멀 수 있기에 언제나 성경의 빛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둘째, 정직한 회개는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남침례교가 1995년에 공개적으로 회개한 일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라는 반발도 있었지만, 진정한 치유는 솔직한 인정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는다.

셋째, 성경적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될 수 없다.

노예제는 명백하게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은 죄이다.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압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성경의 진리는 결코 타협될 수 없다.

넷째, 분열은 언제나 비극이다.

1845년의 분열은 피할 수 있었을까? 만일 남부 침례교인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노예제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의 분열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한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조차 사용하실 수 있다.

남침례교는 잘못된 이유로 독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교 열정을 사

용하셨다.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들었고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 선한 영향은 남침례교의 죄를 덮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결론 - 분열을 넘어

1845년 5월 조지아의 어거스타에서 시작된 분열은 18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남침례교 총회(SBC)와 북침례교 총회에서 나온 '미국 침례교회들'(ABC-USA)은 여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한다. 역사 속에서 몇 차례 재결합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통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열이 곧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부와 북부의 침례교인들은 여전히 많은 것을 공유한다. 그들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같은 침례교 원리들을 실천한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재난 구호, 종교의 자유 옹호, 신학적 대화 등에서는 두 진영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교회 차원에서는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다. 목사들은 서로의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사역을 함께 진행하며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인다. 조직은 나뉘어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진정한 통일은 조직적 통일이 아니라 영적 통일이라는 사실이다.

>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고전 12:12-13)

교단이 다르고 전통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이다.

침례교의 회중 정치 원칙은 이러한 다양성을 허용한다. 모든 침례교회가 똑

같을 필요는 없고 모든 침례교인이 모든 문제에서 동일한 견해를 가질 필요도 없다. 우리는 핵심 진리 —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구원, 신자 침례, 교회의 자율성 — 에서는 하나이고 그 밖의 문제들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3)

우리가 조직적 통합을 이루지 못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의 하나 됨은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

1845년의 분열은 분명 비극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결국 화해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사명은 과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현재의 연합을 추구하며, 미래의 더 큰 화해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 벽을 허무시고 (엡 2:14)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이 이루신 하나 됨을 지키고 드러내는 일이다.

Check Point

침례교 최대의 분열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적 죄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가?

불편한 과거라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가 저지른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며 신실하게 직면할 용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경제적 이익이나 문화적 압력 때문에 성경을 왜곡할 위험이 없는가?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에도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편의나 압력 때문에 말씀을 재해석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정치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핑계로 도덕적 악에 침묵하지는 않는가?

사회적, 도덕적 악을 단순히 '정치적 문제'로 돌리며 회피하지 않고, 진리의 관점에서 분명히 말할 신실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나는 형제자매와의 분열을 최소화하려는 신실함을 지니고 있는가?

원칙을 지키되 상대를 존중하며, 가능하다면 분열을 피하고 화해의 길을 찾으려는 성숙한 신실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5. 나는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진리를 지킬 수 있는가?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다양성 안에서 성경의 본질적 진리를 온전히 고수할 균형 잡힌 신실함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할 때 실제로 회개할 용기가 있는가?

말뿐인 유감이 아니라 행동과 결단으로 드러나는 회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7. 나는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사람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소망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hapter 15

세계로 뻗어나간 침례교
선교 확장과 영적 부흥

AD 1870-현재

19세기가 끝날 무렵 침례교는 더 이상 영국과 미국의 변두리 흐름이 아니었다. 윌리엄 케리와 아도니람 저드슨이 뿌려 놓은 씨앗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태평양 섬들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1900년 당시 약 500만 명에 불과하던 침례교인이 100년 만에 1억 명을 넘어섰다. 박해받던 소수 운동이 어떻게 세계 복음주의의 핵심 세력이 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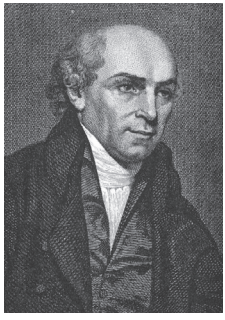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에는 기쁜 이야기만 있지는 않다. 서구 제국주의의 그늘 아래 들어간 선교, 서양 문화를 곧 기독교 문명으로 여겼던 태도, 양적 성장에 집착하며 얕은 회심을 양산한 부흥 운동의 그림자도 있었다. 20세기 침례교의 세계 확장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빛과 어둠을 함께 품고 있다.

이 장에서는 침례교가 어떻게 대륙을 넘어 퍼져 나갔는지, 어떻게 복음주의 운동의 심장부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신학적 선택과 실천이 있었는지, 또 어떤 실패와 교훈을 남겼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19세기 선구자들 - 선교의 씨앗들

20세기 침례교의 세계 선교는 19세기에 뿌려진 씨앗에서 자라난 열매였다. 몇몇 선구자들이 길을 열었고 그들의 헌신이 후대 선교의 토대가 되었다.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1–1834)


윌리엄 케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케리는 영국 침례교 선교사였다. 그는 1793년에 인도로 떠났지만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선교사들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선교 활동이 무역에 방해가 되리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리는 덴마크령 세람포르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다.

케리는 41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며 단 한 차례도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성경을 여러 인도 언어로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다. 또한 사회 개혁에도 헌신하여 '사티'(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 채로 태우는 힌두 관습)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고 결국 영국 정부가 이 관습을 금지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케리의 삶은 선교가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의 사역은 수백 명의 선교사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 1788–1850)

저드슨은 원래 미국 회중교회 선교사였으나 1812년 인도로 향하는 배 안에서 아내 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다가 침례 신학을 받아들였다. 인도에 도착한 직후 두 사람은 윌리엄 케리에게서 신자 침례를 받고 침례교인이 되었다.

그러자 그들을 파송한 회중교회 선교회가 더 이상 그들을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저드슨 부부는 미국 침례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이제 침례교인입니다. 우리를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미국 침례교는 기꺼이 응답했다. 1814년 그들은 '삼년 총회'를 조직해 저드슨 부부를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미국 침례교 해외 선교의 시작이었다.

저드슨의 버마(현 미얀마) 사역은 극도로 어려웠다. 언어를 익히는 데만 수년, 첫 회심자가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다. 버마-영국 전쟁 중에는 투옥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의 아내 앤은 1826년 열병으로 죽었고 두 번째 아내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저드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버마어 성경 전체를 번역했고 버마어-영어 사전을 만들었으며 교회들을 개척했다. 그가 생을 마쳤던 1850년 당시에 버마에는 약 100개의 교회와 7,000명의 침례교인이 있었다.

저드슨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퍼져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도록 불을 지폈다.

로티 문(Lottie Moon, 1840-1912)

로티 문은 중국 선교사였다. 그녀는 버지니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대학 교육을 받았고 1873년에 남침례교 선교사로 중국에 갔다.

당시 여성 선교사들에게 기대되던 역할은 교육과 의료였지만 로티 문은 더 넓은 사역을 감당했다. 그녀는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중국인 지도자들을 훈련했다. 그리고 중국 문화를 깊이 존중하며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중국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어를 유려하게 사용했다.

또한 그녀는 미국의 침례교 여성들에게 편지를 보내 선교의 필요를 호소했다. 그녀의 글은 선교의 현실을 생생하게 알려 주었고 기도와 헌신 헌금을 크게 일으켰다.

1912년 크리스마스이브에 로티 문은 중국에서 생을 마쳤다. 기근 중 중국인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다가 영양실조에 빠져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의 마지막 체중은 약 23kg에 불과했다.

그녀의 희생은 미국 침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18년 남침례교 여성 선

교회는 그녀의 이름을 딴 '로티 문 크리스마스 헌금'을 시작했고 이 헌금은 지금도 매년 수천만 달러가 모여 전 세계 선교를 지원하고 있다.

20세기 초 - 선교의 황금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개신교 선교의 '황금기'로 불린다.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아갔다. 침례교는 이 운동의 선봉에 섰다.

왜 이 시기에 선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 여러 요인이 있었다.

첫째, 교통과 통신의 발달

증기선이 대양 횡단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었고 전신이 본국과의 통신을 가능하게 했으며 철도가 내륙 지역으로의 접근을 열었다.

둘째, 서구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에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식민 지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선교사들에게 접근 기회를 제공했다. 선교사들은 종종 제국주의 확장의 뒤를 따랐다.

셋째, 부흥 운동의 영향

19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에서 여러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들은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이 세대에서 복음화하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헌신했다.

넷째, 교회의 재정적 여유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들도 재정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지원할 수 있었다.

다섯째, 침례교의 조직적 성숙

침례교는 19세기 동안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조직들을 발전시켰다. 남침례교의 외국 선교 이사회(1845년 설립, 후에 국제 선교 이사회 IMB로 개칭)와 북부 침례교의 해외 선교회가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1905년 - 세계침례교연맹의 탄생

침례교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 연결과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각 나라의 침례교인들이 서로를 알고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일할 방법이 필요했다.

1905년 7월, 런던에서 역사적인 모임이 열렸다. 23개국에서 약 3,000명의 대표들이 모였고 그들은 '세계침례교연맹'(Baptist World Alliance, BWA)을 조직했다. 개회식은 런던의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Metropolitan Tabernacle)에서 열렸는데 이 교회는 스펄전(Charles Spurgeon, 1834–1892)이 목회했던 곳이었다. 스펄전은 19세기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침례교 목사였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13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영국의 저명한 침례교 목사였던 맥클라렌(Alexander Maclaren, 1826–1910)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개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교단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계 구조를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 지역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전 세계 침례교인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교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계침례교연맹의 목적은 명확했다.

첫째, 친교(fellowship). 세계 각국의 침례교인들을 연결하고 서로를 알게 한다.

둘째, 증언(witness). 침례교의 원칙들 — 성경 권위,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 — 을 세계에 증언한다.

셋째, 협력(cooperation). 선교, 교육, 출판, 재난 구호 등에서 협력한다.

넷째, 옹호(advocacy).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한다. 박해받는 침례교인들을 지원한다.

세계침례교연맹은 5년마다 세계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들은 필라델피아(1911), 스톡홀름(1923), 토론토(1928), 베를린(1934), 애틀랜타(1939) 등 전 세계에서 열렸다.

세계침례교연맹은 침례교가 진정으로 세계적 운동이 되었음을 상징했다. 침례교는 더 이상 영국이나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다. 침례교는 모든 대륙, 모든 인종, 모든 언어의 사람들을 포함했다.

중요한 점은 세계침례교연맹이 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연합체 또는 친교 단체이다. 각 국가의 침례교 조직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남아 있고 세계침례교연맹은 그들에게 명령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연결하고 격려하고 협력을 촉진할 뿐이다.

오늘날 세계침례교연맹은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240개 이상의 침례교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이상의 침례교인들을 대표한다(물론 많은 침례교인들과 교회들이 세계침례교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독립적인 상태로 있다).

지역별 확산 - 침례교가 뿌리내린 곳들

20세기 동안 침례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각 지역의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아시아

아시아는 침례교 선교의 최전선이었다. 인도는 윌리엄 케리 덕분에 침례교가 가장 먼저 뿌리내린 곳이었다. 20세기 초까지 인도에는 수백 개의 침례교회와 수만 명의 침례교인이 있었다. 침례교 선교사들은 학교, 병원, 고아원을 운영했다. 그들은 또한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옹호했다.

버마(미얀마)는 아도니람 저드슨의 사역지였다. 버마 침례교는 특히 소수 민족들 사이에서 강했다. 카렌 족, 친 족, 카친 족 사이에서 침례교가 빠르게 성

장했다. 오늘날 미얀마는 침례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침례교 선교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로티 문과 다른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운영했다. 20세기 초 중국 침례교는 빠르게 성장했으나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후 모든 외국 선교사들이 추방되었고 교회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다. 많은 침례교 지도자들이 투옥되거나 순교했지만 교회는 살아남았다. 지하 교회로 계속 모였고 신앙을 지켰다. 1970년대 말 중국이 개방되기 시작했을 때 침례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에 침례교가 들어온 것은 1889년경이다. 초기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더 강했지만, 침례교도 착실히 성장했다. 20세기 후반 한국 침례교는 빠르게 확장되었다. 특히 한국 침례교는 선교 열정으로 유명해졌다. 한국 침례교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고 있다.

일본에서 침례교 선교는 1873년 시작되었다. 일본의 강한 전통 문화와 종교(신토, 불교) 때문에 선교가 어려웠으나 침례교는 꾸준히 성장했다. 특히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 선교사들이 대거 일본으로 갔고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었다.

필리핀에서는 20세기 초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게 되면서 침례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필리핀은 카톨릭이 지배적인 나라였지만 침례교와 다른 개신교들이 성장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20세기 동안 가장 극적인 기독교 성장을 경험한 대륙이었다. 1900년 아프리카 인구의 약 10%만이 기독교인이었으나 2000년이 되자 약 50%가 기독교인이었다. 침례교는 이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침례교 공동체를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19세기 말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나이지리아에 왔고 교회들을 개척했다. 20세기 동안 나이지리아 침례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오늘날 나이지리아 침례교 총회는 수백만 회원을 가지고 있다.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도 침례교가 크게 성장했다. 영국 침례교 선교사들이 19세기 말 콩고에 들어왔고 여러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웠다. 콩고 침례교 공동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침례교 조직 중 하나가 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전역에서 침례교가 성장했다. 침례교는 교육과 의료 사역을 통해 아프리카 사회에 큰 기여를 했고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침례교 학교에서 교육받았다.

남미

남미는 전통적으로 카톨릭이 지배적인 대륙이었으나 20세기에 개신교 특히 침례교가 빠르게 성장했다.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큰 침례교 공동체를 가진 나라이다.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1881년 브라질에 왔다. 초기에는 침례교의 성장이 느렸지만 20세기 중반부터 급속히 확장되었다. 오늘날 브라질 침례교 총회는 약 100만 명 이상의 회원과 수천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에서도 침례교가 성장했다. 남미 침례교는 회중 정치와 성경 중심 교리로 인해 매력적이었고 또한 침례교는 카톨릭의 성직주의와 전통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했다.

유럽

유럽에서 침례교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은 침례교의 고향 중 하나였고 20세기에도 강력한 침례교 공동체가 있었다. 찰스 스펄전의 유산이 계속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는 침례교가 19세기 중반부터 성장했으나 나치 시대(1933–1945)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침례교는 국교를 거부하고 정교분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나치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일부 침례교인들이 나치에 저항했고 일부는 순교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동유럽에서 침례교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성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 시대(1917–1991)

에 심한 박해를 받았다. 공산주의 정부들은 종교를 억압했고 침례교는 특히 의심을 받았다(미국과의 연결 때문에). 많은 침례교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고문받다가 순교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남았다. 비밀리에 모였고 신앙을 지켰으며 다음 세대에게 전했다. 1989–1991년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동유럽 침례교회들이 다시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졌고 신학교들이 재개되었다.

1920-1930년대 -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의 개신교는 심각한 신학적 논쟁에 휘말렸다. 흔히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이라 불리는 이 갈등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성경의 권위를 둘러싼 전면적인 충돌이었다. 이 논쟁은 교회들을 분열시켰고 교단들을 흔들었으며 이후 미국 개신교의 신학적·제도적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다.

논쟁의 한 축인 현대주의(또는 자유주의)는 19세기 유럽에서 발전한 신학적 흐름이었다. 계몽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그리고 독일 고등 비평의 영향을 받은 현대주의자들은 전통적 기독교 교리를 현대 사상에 맞추어 재해석하려 했다.[1]

그들은 성경을 초자연적 계시의 책으로 보기보다, 인간의 종교적 경험과 신앙 공동체의 역사적 산물로 이해했다.

---

1. 독일 자유주의 고등 비평은 18세기 계몽주의 이성주의에서 출발하여 19세기 후반에 정점을 찍었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 종교 문서로 취급함으로써 성경의 영감, 초자연적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체계적으로 해체했다. 이 사상은 20세기 초 독일 유학을 다녀온 학자들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프린스턴을 포함한 여러 신학교와 교단 안에 자유주의 신학을 확산시키는 결정적 뿌리가 되었다. 그 결과 성경의 무오성과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수호하려는 반작용으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는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현대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나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며, 오류와 모순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처녀 탄생, 기적, 육체적 부활 같은 초자연적 사건들은 문자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적 인물이자 도덕적 교사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넷째,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적 진술보다 사랑, 정의, 사회 개혁 같은 윤리적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근본주의(Fundamentalism)였다. 근본주의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낸 운동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려는 신앙적 저항이었다. 그 신학적 토대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나이아가라 성경 사경회'(Niagara Bible Conference)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 사경회는 성경의 문자적 영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몸의 부활, 재림, 그리고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는 자유주의 신학이 약화시키려 했던 초자연적 기독교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근본주의'라는 명칭은 1910년부터 1915년 사이에 출판된 소책자 시리즈 「근본 교리들」(The Fundamentals)에서 유래했다. 이 시리즈는 미국 전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지도자들에게 배포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옹호했다.
근본주의자들이 방어한 '근본' 교리들은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경의 무오성 — 성경은 원래 원본에서 오류가 없다.
둘째, 예수님의 처녀 탄생
셋째, 예수님의 대속의 속죄 —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다.

넷째, 예수님의 몸의 부활
다섯째, 예수님의 재림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이 논쟁은 신학적 차원을 넘어 교단 정치와 제도 문제로 확산되었다.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 침례교 등 거의 모든 주요 교단이 이 갈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자 그레셤 메이첸(Gresham Machen, 1881–1937)이다. 그는 1923년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출간하여,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한 형태가 아니라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라고 단언했다. 그의 주장은 논쟁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표현 방식이나 강조점의 차이가 아니라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교단 내부에서의 신학적 투쟁은 점차 한계를 드러냈다. 자유주의 신학은 교단 지도부와 신학교를 장악해 갔고, 언론과 학계는 근본주의를 반지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운동으로 묘사했다. 특히 1925년의 스코프스 재판(The Scopes Trial)[2] 이후, 근본주의는 대중문화 속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본주의자들은 교단 내부 개혁보다는 분리와 독립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스코프스 재판에서 각각 진화론과 창조론 진영을 대변한 법조인 대로우(왼쪽)와 브라이언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교단과 교회들이 등장했다. 장로교 진영에서는 메이첸과 뜻을 같이한 이들이 기존 교단을 떠나 성경 장로교회(Bible Presbyterian Church)를 형성했다. 이들은 성경의 무오성과 개혁주의 신학을 유지하면서

2. 1925년 테네시 주 데이턴에서 열린 스코프스 재판은 공립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것이 위법인지를 다룬 상징적 사건이었다. 재판은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로 끝났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근본주의가 반지성적 신앙으로 조롱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을 미국 사회 전체로 확산시켰다.

도 자유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감리교 진영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 자유주의 신학과 제도적 변화를 거부한 이들이 성경 감리교회(Bible Methodist Church)를 조직했다. 이 교회들은 감리교의 경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인물이 밥 존스 시니어(Bob Jones Sr., 1883–1968)이다. 그는 원래 감리교 목사였으나 감리교가 자유주의 신학과 제도적 타협을 받아들이자 교단을 떠났다. 그는 독립 사역의 길을 걸었고, 성경의 무오성과 근본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교육 기관으로 밥 존스 대학(Bob Jones University)을 설립했다. 이는 근본주의 운동이 교단 중심에서 독립교회와 독립 교육 기관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1920–1930년대의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은 단순한 과거의 신학 분쟁이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가지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이 시기를 거치며 미국 개신교는 명확히 갈라졌고, 오늘날 보수 복음주의, 독립침례교, 근본주의 전통의 신학적·제도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 논쟁은 지금도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되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다.

침례교의 관점에서 볼 때, 1920–1930년대의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신자의 양심의 문제였다. 침례교는 전통적으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 각 신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직접적 책임, 그리고 교회의 자치를 핵심 원리로 삼아 왔다. 이러한 침례교적 원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하고 교단 조직과 신학교를 통해 신앙을 획일화하려 할 때, 더욱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근본주의자들이 강조한 성경의 무오성,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 몸의 부활과 재림은 침례교 신앙의 부수적 교리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속한 본질적 문제였다. 침례교 입장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단순히 해석의 다양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객관적 내용과 구원의 기초를 허물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논쟁에서 중립은 불가능했으며 침례교는 본질적으로 성경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이 논쟁은 침례교의 교회 자치와 분리의 원리를 역사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많은 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통합'과 '포용'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침례교는 전통적으로 진리와 타협한 제도적 일치는 참된 일치가 아니라고 여겼다. 이 때문에 다수의 침례교회와 침례교 지도자들은 교단 중심의 개혁보다 지역 교회와 독립 사역을 통해 성경적 신앙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립침례교회(Independent Baptist Churches)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 교회들은 교단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각 지역 교회의 자치를 분명히 하면서 성경의 무오성과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독립침례교회는 제도적 통합보다 성경적 충성과 책임 있는 자율성을 선택한 침례교적 결단의 산물이었다.

결과적으로 침례교 관점에서 이 시기는 교훈과 경고를 동시에 남겼다. 근본주의는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객관적 진리를 지켜 낸 신앙적 투쟁이었지만 논쟁 과정에서 때로는 지나친 방어적 태도와 문화적 고립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침례교는 성경적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사람에 대한 정죄나 불필요한 적대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결국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은 침례교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교회는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가, 아니면 성경 계시에 충성해야 하는가? 침례교의 역사적 대답은 분명하다. 교회는 문화와 대화할 수 있지만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본질을 희생시키며 타협할 수는 없다. 이 원리는 20세기 초의 논쟁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고 오늘날에도 침례교 신앙과 사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남아 있다.

북부 침례교의 분열

이러한 시기를 거치며 북부 침례교(현재의 ABC–USA)는 특히 심하게 분열되었다. 북부 침례교 신학교들 중 일부, 특히 시카고 대학교와 연결된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일부 목사들과 교수들이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고 전통적 교리를 재해석했다.

이에 보수적 북부 침례교인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교단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느꼈고 이에 저항했으며 자유주의자들을 배제하려 했다.

그러나 북부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실천했기에 중앙 권위가 없었다. 누구도 특정 신학을 강제할 수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같은 교단 안에 공존하게 되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분리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1932년에 '일반 침례교 협의회'가 조직되었고 1947년에는 '보수 침례교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이 그룹들은 북부 침례교의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보수적 신학을 고수했다.

북부 침례교는 이 분열로 약해졌고 많은 보수 교회들과 회원들을 잃었다. 20세기 후반에 북부 침례교의 회원은 계속 감소했다.

남침례교의 보수성 유지

남침례교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의 영향을 덜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남부는 문화적으로 더 보수적이었다. 남부 사람들은 전통을 중시했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했다.

둘째, 남침례교 신학교들은 대체로 보수적이었다.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교수로 고용하지 않았다.

셋째, 남침례교는 선교에 집중했다. 그들에게 신학적 논쟁보다 복음 전파가 더 중요했다.

그러나 남침례교도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일부 신학교와 교회에서 자유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보수적 회복 운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1940-1950년대 - 복음주의의 형성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은 미국 개신교를 사실상 두 진영, 즉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과 인본주의 자유주의자들로 나누었다.

그러나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새로운 운동이 등장했다. '신복음주의' 또는 단순히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근본주의의 신학적 보수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본주의의 분리주의와 반지성주의를 거부했다.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지도자들로는 칼 헨리(Carl F. H. Henry, 1913–2003), 해롤드 오켕가(Harold John Ockenga, 1905–1985),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1918–2018) 등이 있다.

1942년,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전국 복음주의 협의회'를 조직했는데, 그 이유는 보수적 개신교인들이 자유주의자들(미국 교회 협의회에 속한)과 극단적 근본주의자들(분리주의적) 모두와 구별되는 조직을 만들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1956년, 칼 헨리는 '크리스채너티 투데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는데 이 잡지는 복음주의 신학을 학문적으로 옹호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했다. 이는 빠르게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주요 출판물이 되었다.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학적 보수성이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권위, 예수님의 신성, 대속의 속죄,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고하게 믿었다. 이 점에서 복음주의는 자유주의 신학과 분명히 선을 그었으며, 복음의 객관적 내용을 신앙의 중심에 두었다. 또한 복음주의자들은 개인적 회심 경험을 강하게 강조했다. 사람은 단순히 교회 문화 속에서 자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신념을 공유했다. 이로 인해 복음주의는 전도, 간증, 개인 신앙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겼다.

복음주의의 핵심 메시지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중심 진리는 설교와 사역의 핵심 내용이었다. 또한 복음주의자들은 대위임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강하게 인식했다. 이로 인해 선교와 전도는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근본주의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복음주의자들이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대학과 학문 세계에 참여했고 신학 연구를 지속했으며 예술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복음주의는 신앙을 지키면서도 문화와 대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복음주의는 특정 교단에 국한되지 않았다. 침례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오순절교인 등 다양한 교단의 신자들이 공통된 복음 신앙을 중심으로 복음주의자로 불릴 수 있었다. 복음주의는 교단 정체성보다 복음에 대한 공통 고백을 중심에 두는 초교단적 운동이었다.

그러나 복음주의 운동 역시 시간이 흐르며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복음주의 신학의 대표 기관으로 여겨졌던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는 초기에 성경의 권위와 복음 중심 신학을 강조했으나 점차 성경 무오성 입장을 포기하고 신학적 다원주의와 비평적 접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풀러는 더 이상 복음주의의 신학적 기준점이 아니라 복음주의 내부 타협의 상징으로 평가받게 되었다.[3]

복음주의의 또 다른 약점은 문화 참여가 때로 문화 동화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와 달리 문화와의 단절을 거부했지만, 그 과정에서 성경적 분별보다 대중성·접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복음주의 음악은 예배의 신학적 중심인 하나님 경배에서 점점 벗어나 세속 음

3. 풀러 신학교는 1947년 찰스 풀러(Charles E. Fuller, 1887–1968)를 중심으로 성경의 무오성과 복음주의 정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이르러 성경 무오성에 대한 입장을 점차 후퇴시키며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특히 1972년 성경 무오성 조항을 공식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성경을 절대적 권위가 아닌 비평과 재해석의 대상으로 다루는 방향을 제도화했다. 그 이후 풀러 신학교는 교회 성장학, 실용주의, 경험 중심 신학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존 윔버(John Wimber, 1934–1997)의 빈야드 운동이 풀러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은사주의가 제도권 신학 안으로 유입되었다. 더 나아가 C.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 1930–2016)는 이러한 흐름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며 사도·대언자 회복을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NAR)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풀러 계보의 신학은 점차 체험과 새로운 계시를 성경의 최종 권위 위에 두는 비성경적 흐름이 확산되는 통로로 작용하게 되었다.

악의 형식과 감정 중심적 표현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예배는 점차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경험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복음주의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가려 했던 문화 속에서, 오히려 세속 문화의 가치관과 미학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았다. 거룩함과 구별됨이라는 성경적 원리는 약화되었고 복음의 불편한 진리는 감추어진 채 '공감 가능한 메시지'와 '소비 가능한 신앙'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복음주의는 문화와 대화하려다 때로는 문화에 의해 재정의되는 위험에 빠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회사적으로 분명한 교훈이 남았다. 문화 참여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중심을 잃은 문화 참여는 결국 타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다. 근본주의의 고립이 경계되어야 하듯, 복음주의의 무분별한 동화 역시 반드시 비판적으로 성찰되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세상을 닮는 데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증언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근본주의를 단순히 반지성적이라거나 무지한 운동이라고 치부하는 평가는 역사적으로 부당하다. 근본주의는 성경과 복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신앙 운동이었다. 동시에 복음주의 역시 문화 참여라는 이름으로 신학적 타협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스스로 경계해야 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두 흐름은 대립보다는 긴장 속에서 상호 보완적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침례교와 복음주의 - 자연스러운 결합

침례교는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침례교 신학과 실천이 복음주의 원칙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1. 회심 강조: 침례교는 항상 회심을 강조했다. 신자 침례의 전제는 회심이다.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침례를 받는다. 이는 복음주의의 핵심 메시

지이다.

2. 성경 중심: 침례교는 성경을 최고 권위로 믿는다. 전통도, 교회법도, 교황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다. 이는 복음주의 운동의 기초이다.

3. 개인주의: 침례교는 각 사람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중보자가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으며, 각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 이는 복음주의의 개인주의와 맞다.

4. 전도 열정: 침례교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했다. 19세기와 20세기 침례교는 세계 선교의 선봉이었다. 이 점이 복음주의의 선교 열정과 일치한다.

5. 교단 초월적 협력: 침례교의 회중 정치는 유연성을 허용했다. 침례교회들은 다른 교단의 복음주의자들과 쉽게 협력할 수 있었다. 빌리 그래함의 전도 집회에 침례교회들이 적극 참여한 것이 그 예이다.

결과적으로 침례교는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었다.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침례교 배경을 가졌다. 빌리 그래함, 칼 헨리,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들이 침례교인이었거나 침례교 영향을 받았다.

빌리 그래함 - 20세기의 목소리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1918–2018)을 언급하지 않고 20세기 침례교와 복음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래함은 1918년 노스캐롤라이나의 농장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장로교였지만 그는 16세 때 침례교 부흥 집회에서 회심했다. 그는 플로리다 신학대학(침례교)과 휘튼 대학(비교단)에서 공부했고 1939년에 남침례교인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40년대 후반 그래함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4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의 전도 집회가 예정보다 훨씬 길어지며 8주 동안 계속되었는

데 수십만 명이 참석했고 수천 명이 회심을 결단했다. 언론이 이를 주목했고 그래함은 일약 유명해졌다.

그 후 60년 이상, 빌리 그래함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는 1947년부터 2005년까지 약 400회 이상의 전도 집회를 인도했으며,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의 집회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 이상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위성 중계를 통해 그의 설교는 수억 명, 나아가 누적 기준으로는 수십억 명에게 전달되었다. 그래함 전도 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그의 집회에서 수백만 명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결단을 표명했다.

그래함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그는 인간의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의 필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일관되게 선포했다. 그의 설교는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복잡한 신학 체계나 정치적 논쟁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는 본문을 읽고 설명하며, 성경이 말하는 복음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고 믿었다. 그의 메시지는 요약하면 이것이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는 설교자의 수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역사한다고 확신했다.

그의 집회는 특징적인 패턴을 가졌다. 찬송, 기도, 간증, 그리고 그래함의 설교. 설교가 끝나면 그래함은 '초청'을 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상담자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결단 카드를 작성했고 그들은 지역 교회들로 연결되었다.

그래함은 또한 인종적 화해를 추구했다. 1950년대 초부터 그는 인종 통합 집회를 열었다(당시 남부에서는 혁명적이었다). 그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앉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고집했다. 그는 인종 차별이 죄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래함은 여러 미국 대통령들과 개인적 친분을 맺었다. 그는 해리 트루먼부터 버락 오바마까지 12명의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그중 일부와는 오랜 기간

개인적 조언자이자 친구의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그는 국제적 전도 사역의 일환으로 영국 여왕, 로마 카톨릭 교황, 소련 지도자들, 중국 정부 관계자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접촉은 동시에 중대한 논쟁을 낳았다. 그래함은 정치적 당파성은 의도적으로 피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근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과 제도 종교에 지나치게 가까워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로마 카톨릭 교황들과의 공개적 교류와 카톨릭교회와의 협력적 태도는 많은 근본주의자들과 독립침례교인들로부터 교리적 타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함 자신은 이러한 행보를 복음 전도의 문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과의 교류나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협력, 그리고 말년에 공개 인터뷰들 — 특히 로버트 슐러와의 대화와 언론 인터뷰 — 에서 나타난 구원에 대한 모호한 발언들을 복음 전파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설명했다. 그는 이 인터뷰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일부에게 종교 다원주의적 혹은 보편 구원론적 경향으로 해석되었다. 그 결과 그의 사역은 복음의 단순성과 대중적 접근성은 유지한 반면, 교회적 분리의 원리와 교리적 경계선을 흐리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지점에서 그래함의 사역은 복음주의 운동이 지닌 전도적 열정과 동시에 타협의 위험을 함께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침례교의 유산 속에서 본 빌리 그래함

빌리 그래함이 침례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 단순하고 직설적인 설교 방식, 개인적 회심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모두 침례교 전통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복음을 교리적 체계보다 성경 본문과 양심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포했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도 사역의 중심에 두었다. 이러한 특징은 침례교 신앙의 핵심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함은 교단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넘어섰다. 그의 전도 집

빌리 그래함

회에는 침례교뿐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오순절 교회, 심지어 로마 카톨릭교회까지 참여했다. 이는 복음주의 운동의 초교단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 그래함은 특정 교단의 교리를 강조하기보다, 공통의 복음 메시지 — 죄, 십자가, 회개, 믿음 — 에 집중함으로써 광범위한 연합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접근은 분명 큰 장점을 지녔다. 그래함은 60년 이상 전 세계를 다니며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백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했다. 그는 2018년, 9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고 수백만 명이 방송을 통해 이를 지켜보았다. 미국 대통령들과 세계 지도자들이 조의를 표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름 없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나 침례교 관점에서 볼 때, 그래함의 유산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지닌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연합이라는 명분 아래 그는 교리적 분리의 원리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로마 카톨릭과의 협력, 말년에 공개 인터뷰에서 나타난 구원에 대한 모호한 표현들은 복음의 배타성과 성경적 경계선을 흐

리게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복음주의 운동 전체가 안고 있는 위험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 그래함은 침례교가 세계 기독교에 남긴 가장 강력한 흔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는 침례교적 복음 이해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았고, 개인 회심과 성경 중심 설교의 중요성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그의 사역은 침례교가 단지 한 교단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운동임을 보여 주었다. 동시에 그의 삶은 침례교와 복음주의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복음을 넓히려 할 때, 어디까지가 접근이고 어디서부터가 타협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빌리 그래함의 유산은 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1979년 이후 - 남침례교의 보수적 회복 운동

1970년대 후반, 남침례교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교단 내에서 신학적 긴장이 증가하고 있었다. 일부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이 자유주의적 견해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의심하고 일부 성경 이야기를 신화로 보고 전통적 교리를 재해석했다.

보수적 남침례교인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교단이 북부 침례교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남침례교는 보수적 교단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9년, 보수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목사이자 신학자인 패터슨(Paige Patterson, 1942–2021)과 판사로 남침례교인인 폴 프레슬러(Paul Pressler, 1930–2018)가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남침례교 총회의 연례회의에서 보수 성향의 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회장은 신학교 이사들과 다른 중요한 위원회 구성원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졌다. 보수 성향 회장들이 연속해서 선출되면 결국 신학교들과 기관들이 보

수적으로 바뀔 것이었다.

1979년 휴스턴에서 열린 남침례교 총회 연례회의에서 테네시의 멤피스에 있는 벨뷰 침례교 목사인 로저스(Adrian Rogers, 1931–2005)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강력한 보수주의자였다. 로저스의 당선은 '보수적 회복 운동' 또는 일부가 부르는 '근본주의 장악'의 시작이었다.

그 후 약 20년 동안 이 논쟁이 계속되었고 매년 연례회의는 전쟁터가 되었다. 수만 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투표했고 보수주의자들과 온건파들이 경쟁했다. 연설, 결의안, 선거 — 모든 것이 논쟁적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회장 선거에서 이겼다. 그들은 점진적으로 신학교 이사회들과 기관 지도부들을 보수주의자들로 교체했고 그 결과 자유주의적이거나 온건한 교수들과 지도자들은 사임하거나 해임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1990년대 중반이 되자 보수주의자들이 확고하게 승리했다. 남침례교의 여섯 개 신학교들이 이제 성경의 무오성을 명확히 가르쳤고 교단의 모든 기관들이 보수적 지도력을 가졌다.

2000년, 남침례교는 개정된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를 채택했는데, 남침례교의 신앙 고백이었다. 2000년판은 이전 판들(1925, 1963)보다 더 명확하게 보수적 입장을 표명했고 특히 성경의 무오성을 강조했다.

"성경은 진리이며 오류가 없고 따라서 구원, 신앙, 그리고 기독교 생활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하며 권위 있는 계시이다."

보수적 회복 운동은 논쟁적이었다. 많은 온건파와 자유주의자들이 상처받았다고 느꼈고 일부는 남침례교를 떠나 '협력 침례교 친교'와 같은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남침례교단을 구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남침례교는 북부 침례교처럼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지켰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남침례교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명확하게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단이 되었다. 그것은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운동의

주요 기둥 중 하나이다.

세계 선교의 거인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침례교는 세계 선교의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로 성장했다. 특히 남침례교 국제 선교 이사회(IMB)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선교 조직이 되었다.

2020년대 기준 IMB는 약 3,600명의 선교사를 130여 개국에 파송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단일 교단보다도 큰 규모이다. 남침례교회들은 매년 수억 달러를 해외 선교에 헌금하여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침례교 선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현지 교회 개척에 집중한다. 침례교 선교사들은 병원이나 학교 같은 기관 사역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최우선 순위는 항상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복음 전파 → 신자 침례 → 회중 조직이라는 침례교 원리대로 지역 교회를 개척하는 데 집중한다.

둘째, 현지 지도자를 양성한다. 회중 정치의 원리에 따라, 각 교회는 자체적인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선교사들은 현지인 지도자들을 훈련하여 목사, 교사로 세우고 선교사가 떠난 후에도 그 교회가 자립하고 자치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성경 번역을 중시한다. 윌리엄 케리와 아도니람 저드슨의 전통을 따라 침례교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과 배포에 계속 헌신해 왔다.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침례교 선교의 핵심 가치다.

넷째, 교육과 의료 사역을 펼친다. 침례교 선교는 학교 설립, 병원 운영, 문해 교육(읽고 쓰는 능력을 가르치는 기초 교육) 등 실제적 사역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섬긴다. 이러한 사역은 복음의 문을 열고 선교의 신뢰를 세우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다섯째, 정의와 인권을 옹호한다. 침례교 선교사들은 억압과 불의를 반대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다. 윌리엄 케리가 힌두교 사티 관습을 반대했던 것처럼 침례교 선교는 인권, 자유, 정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러한 선교의 열매는 매우 크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침례교회가 존재하며 전 세계 침례교인 수는 약 1억 7,000만 명으로 추정된다(많은 침례교회가 독립적이어서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침례교는 이제 개신교 안에서 가장 큰 전통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결론 - 신약 교회 운동의 세계적 확산

20세기 침례교의 확산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는지를 보게 된다.

1525년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운동이 이제 전 세계로 퍼졌다. 박해받던 소수파가 수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세계적 운동이 되었다. 유럽 변두리에서 태어난 원칙들이 이제 모든 대륙에서 실천되고 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양적 증가가 아니다. 이는 바로 신약 교회 원칙들의 세계적 확산이다.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성경 권위,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이 원리들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침례교의 성장은 복음주의 운동의 성장과도 맞물려 있었다. 침례교는 20세기 근본주의 및 복음주의 중심에 있었고, 이것들은 침례교의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회심, 십자가, 성경 권위는 근본주의 및 복음주의의 핵심이며 동시에 침례교의 핵심이다.

오늘날에도 침례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물론 서구의 세속화, 박해 지역의 압력, 신학적 논쟁, 급변하는 문화 등의 도전도 있다. 그러나 침례교는 500년 가까이 이러한 도전들을 견뎌 왔다.

박해도, 분열도, 논쟁도 침례교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고 침례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1. 진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
2. 작은 시작도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3. 결과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신실함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사용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전 15:58)

Check Point

세계로 뻗어나간 침례교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작은 시작이 세계적 운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작아 보이는 시작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큰 열매로 자랄 수 있음을 믿고, 사소함을 이유로 주저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내 신실함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가?

오늘의 신실함이 후대의 부흥과 선교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누군가의 믿음을 일깨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3. 나는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가?

환경과 문화에 적절히 들어가되,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신실함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나는 진리를 지키다가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박해와 손실의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5. 나는 신학적 싸움에서 진리를 수호할 신실함이 있는가?

시대의 오류와 타협을 분별하고,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6. 나는 교회의 성장과 순수성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성장을 이유로 정체성과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고, 숫자보다 신앙의 본질을 우선할 신실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나는 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지 알고 있는가?

현재의 선택과 신실함이 미래 세대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Chapter 16

독립침례교회의 도전과 응답
침례교 본래 정신의 회복

AD 1930-현재

20세기 중반 미국 침례교계에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수만 명씩 모이는 대형 침례교회들이 등장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남침례교나 북침례교 같은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침례교회들이었다. 실제로 1960-1970년대 미국 최대 규모 침례교회들 가운데는 독립침례교회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969년 타운스(Elmer Towns)가 출간한 「10대 주일 학교」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 주일 학교 규모 기준 상위 10개 교회 중 8곳이 독립침례교회, 1곳이 남침례교회, 1곳이 비침례 독립교회였다.

대표적으로 인디애나 주 해먼드의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Hammond)는 주일 학교 출석 인원이 20,000명을 넘었고, 테네시 주 채터누가의 하이랜드파크 침례교회(Highland Park Baptist Church)는 주일 예배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 어떻게 교단 조직이나 중앙 행정 없이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을까?

그러나 여기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다. 일부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경적

분리 원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하여 율법주의로 흐르기도 했고, 목회자 개인에게 과도한 권위가 집중되어 회중 정치가 유명무실해지기도 했다. 또 지적 훈련과 교육 수준이 부족하여 다음 세대를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성경적 분리를 세속과의 분리로 오해하여 아미쉬나 메노나이트처럼 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독립침례교회의 역사는 침례교 본래 원리를 회복하려는 열정과 그 실천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함께 품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독립침례교회가 왜 출현했는지, 그들이 지키려 한 신학적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재침례교회(아나뱁티스트)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지도자들과 기관들이 이 운동을 이끌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에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독립침례교회 운동의 배경 - 왜 교단을 떠났는가

침례교의 본래 모습 – 독립성의 전통

침례교 역사를 길게 바라보면, 침례교회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독립된 교회였다. 앞 장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1525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재침례파 운동, 1609년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한 영국 침례교회, 그리고 1638년 로드아일랜드에서 세워진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각 지역 교회가 외부 권위에 종속되지 않고 완전한 자치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1850년 이전의 미국과 영국 침례교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교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각 지역 교회는 스스로 목사를 청빙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사역 방향을 결정했다. 전국 조직이나 총회가 교회를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구조는 없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분명한 신학적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침례교인들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역 교회'라고 믿었

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등 이 모든 교회는 특정 지역의 독립된 회중을 가리켰다. 사도들 또한 교회 위에 군림하는 상급 기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들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서신을 보내 조언을 주었지만 각 교회의 결정권을 간섭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조차 명령이 아니라 권고를 전달했을 뿐이었다.

또한 침례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각 지역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고 확신했다. 교황도, 감독도, 총회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어떤 인간 조직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고 믿었다. 따라서 회중 정치는 단순한 민주적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신학적 고백이었다.

물론 협력은 존재했다. 선교와 교육을 위해 협의회와 선교회들이 조직되었고, 1792년 윌리엄 케리와 영국 침례교가 설립한 침례 선교회, 1814년 아도니람 저드슨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미국 침례교 삼년 총회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협력의 도구'였지 '지배 구조'가 아니었다. 교회들이 선교회를 활용한 것이지, 선교회가 교회를 통제하지는 않았다. 각 교회는 여전히 완전한 자치를 유지했고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 서 있었다.

1845년 남침례교단이 형성되었을 때에도 기본 구조는 같았다. 남침례교단은 노예제 문제로 인해 남부 교회들이 독자적인 선교 조직을 만들면서 탄생한 '협력체'였으며, 처음부터 '교단'이라기보다 지역 교회들의 연합체로 이해되었다. 헌법 역시 각 교회의 자치를 명확히 보장하며 어떤 중앙 조직도 교회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남침례교는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국적 조직, 신학교 네트워크, 대규모 선교 본부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놀라운 효율성과 확장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침례교 전통의 핵심인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완전한 자치'를 점차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자 일부 침례교인들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원래 어떤 교회였는가?"
"협력을 위해 교회의 자치를 희생해야 하는가?"
"효율성을 이유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희석시켜도 되는가?"

독립침례교회 운동은 바로 이 질문들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새로운 분파를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1850년 이전의 침례교가 지녔던 원형, 더 나아가 신약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남침례교 교단화와 긴장의 증가

20세기 전반 남침례교는 천주교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단체로 성장했다. 1900년 약 150만 명이던 회원 수는 1950년 700만 명을 넘어섰다. 수만 개의 교회, 전 세계에 파송된 수천 명의 선교사들, 여섯 개의 대형 신학교, 수십 개의 대학과 병원, 그리고 강력한 출판 사업은 남침례교를 미국 복음주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자연 증가가 아니라 조직적 역량의 결과였다. 남침례교는 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발전시켰다. 테네시 주 내슈빌에 본부를 둔 집행위원회가 교단 전체의 사업을 조율했고, 외국 선교 이사회(후에 국제선교이사회, IMB)와 국내 선교 이사회가 선교사 파송과 지원을 담당했다. 주일 학교 이사회는 교육 자료를 출판했고 각 주의 침례교 총회들은 지역 사역을 조직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조직이 커질수록 긴장도 커졌다. 전국적 차원에서 결의와 정책이 만들어지고 선교 전략과 예산이 중앙에서 기획되며, 신학교들이 특정 신학 노선을 강조하기 시작하자 지역 교회들은 점차 "큰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회중이 최고 의결 기구였지만 실제로는 교단 조직이 설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남침례교 선교 이사회를 거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지만, 선교 이사회가 자체 기준과 신학 검증 절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파송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파송

이 어려웠다. 이는 사실상 선교 이사회가 교회의 선교 결정을 제약하는 구조였다.

목회자 양성도 마찬가지였다. 남침례교 신학교들은 탁월한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었고 교단 헌금으로 학비가 낮았지만, 신학교가 채택한 신학 노선은 목회자 양성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가르치느냐가 결국 교회에서 어떤 설교가 이루어지는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보수적 침례교인들은 "교단이 교회를 평가하고 지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느꼈고, 이는 침례교의 자치 전통과 충돌했다.

더욱이 1920~1930년대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이 침례교에도 파급되었다. 북부 침례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허용하면서 크게 분열되었다. 시카고 대학교와 연계된 신학교들에서는 성경 비평학과 진화론이 가르쳐졌고, 일부 목사와 교수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며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육체적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했다.

보수적 북부 침례교인들이 저항했지만 북부 침례교의 회중 정치 구조상 자유주의자들을 배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결국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교단을 떠나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었다. 1932년 일반침례교협의회(GARBC), 1947년 보수침례교협의회(CBA)가 그 결과였다. 이들은 북부 침례교의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보수 신학을 지키려는 독립침례교회들의 연합체였다.

남침례교는 북부보다 보수성을 유지했다. 남부 지역의 보수적 문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강한 전통, 선교 중심의 실천적 태도는 자유주의의 침투를 어느 정도 막아 주었다. 그러나 남침례교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다. 1950~1970년대 일부 신학교와 지도자들에게서 자유주의 경향이 나타났고, 성경 비평학을 가르치거나 창세기를 신화로 해석하거나 전통 교리를 재해석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에 보수적 남침례교인들은 "남침례교도 결국 북부처럼 되는가?"라는 우려를 품기 시작했다. 이후 1979년부터 보수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많은 보수적 침례교인들은 교단을 떠나거나 교단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협력은 하되 교단화와 신학적 타협은 거부하겠다."는 선택을 한 이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바로 독립침례교회였다.

복음주의 협력과 분리의 문제

20세기 중반, 빌리 그래함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운동과 대형 전도 집회는 미국과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1949년 로스앤젤레스 집회를 시작으로 수십 년 동안 그래함의 전도 집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백만 명이 앞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결단했다. 침례교는 이 흐름의 중심에 있었고, 당시 미국 복음주의의 심장부로 평가되었다.

빌리 그래함도 남침례교인이었으며(1939년 남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음), 그의 설교 스타일과 신학은 전형적인 침례교적 정서를 반영했다. 회심의 필요, 개인적 결단, 침례와 교회 참여의 중요성 등은 모두 침례교 신학과 맞닿아 있었다. 실제로 그래함의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들도 침례교회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을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분리주의 전통을 가진 독립침례교인들은 이 복음주의 협력 구조 속에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고 보았다.

1. 협력 범위의 지나친 확대

그래함의 집회는 초교파적이었다. 침례교뿐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 성공회, 심지어 로마 카톨릭까지 후원자로 참여했다. 특히 1957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에서는 미국교회협의회(NCC)에 속한 자유주의 교회들과 로마 카톨릭 대표들이 공식 후원자로 등장했다.

이러한 협력은 독립침례교인들에게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NCC는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흐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중심지였고, 로마 카톨릭은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두며 성인 숭배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체계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과 어떻게 복음을 함께 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2. 회심자 관리 구조의 문제

그래함의 집회에서는 결신자 정보가 수집되었고 상담자들이 대화를 나눈 뒤 이들을 각 지역 교회로 연결하는 전달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나 결신자들 중 상당수가 로마 카톨릭이나 자유주의 교회들로 배정되었다.

어떤 사람이 집회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해도 그가 카톨릭이었으면 다시 카톨릭으로, 자유주의 장로교회 출신이면 그 교회로 돌려보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를 두고 "갓 태어난 영적 아기를 늑대 우리에 넣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회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회심자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또한 복음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교리적 중요성의 약화 우려

그래함은 핵심 복음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교파적 차이를 최소화했고 침례, 교회 정치, 종말론 같은 주제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이는 다양한 교단을 한자리에 모으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교리가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다. 핵심만 맞으면 된다."는 인상을 주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반문했다. "그렇다면 신자 침례는 부차적인가? 회중 정치는 사소한가? 재림 전 휴거는 선택 사항인가? 하나님의 계시인 교리를 누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가?"

4. 교단 중심 구조에 따른 자치 약화

남침례교를 비롯한 교단의 구조 안에서는 자원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얻기 위해 자연스럽게 교단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겼다. 협동 프로그램에 헌금을 많이 보내는 교회가 더 많은 발언권을 가졌고 교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목사가 더 빨리 지도자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교회의 자치와 양심보다는 '교단의 방향'이 우선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를 보며 말했다. "교회가 교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교단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

중요한 점은 독립침례교회가 복음주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회심, 십자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선교 열정이라는 복음주의의 핵

심을 누구보다 강하게 붙들었다. 그들은 협력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그 협력이 가져올 신학적 타협과 교회 자치의 약화를 문제 삼았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독립침례교의 우려는 '복음주의 반대'가 아니라 '복음주의 안에 스며든 교단주의와 에큐메니컬 종교 일치 협력·타협에 대한 분별'이었다.

독립침례교회의 신학과 원리

독립침례교회의 핵심 신학과 믿음

독립침례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독립침례교회는 단순히 '교단에 속하지 않은 침례교회'가 아니다. 그들은 명확한 신학적 입장과 성경적 확신을 가진 교회들이었다.

1. 성경의 완전 영감과 무오성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경의 완전 영감과 무오성을 확고히 믿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딤후 3:16) 원본에는 어떤 오류도 없다. 성경은 신앙과 실천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이며 전통도 교회법도 교황도 총회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이 확신은 자유주의 신학과의 근본적 차이가 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으로 보았다면, 독립침례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고백했다.[1]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면, 독립침례교인들은 성경의 모든 단어가 영감되었다고 믿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독립침례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1.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란 말은 성경 본문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일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성경관을 가리킨다. 이는 성경의 기록 과정에 인간의 사상, 시대적 문화, 오류 가능성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셨다고 믿었다.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고(마 1:23),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히 4:15),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벧전 2:24), 몸으로 부활하셨으며(고전 15:4), 승천하셨고(행 1:9), 다시 오실 것이다(행 1:11).

이 믿음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구별되는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나 '도덕적 모범' 정도로 보았다면 독립침례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했다.

3.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독립침례교회들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고 믿었다(엡 2:8-9).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선행, 침례, 교회 가입, 성례전은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 교리는 로마 카톨릭과의 근본적 차이점이었다. 카톨릭이 믿음과 행위 모두가 필요하다고 가르친다면, 독립침례교는 '오직 믿음'을 고수했다. 이는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고 500년 동안 침례교가 지켜 온 진리였다.

4. 신자 침례와 교회 회원

독립침례교회들은 침례가 믿는 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먼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막 16:16). 침례는 침수로 행해져야 하며 물을 뿌리거나 붓는 방식은 침례가 아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순종의 표현이며 동시에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는 문이다. 따라서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모여 지역 교회를 이룬다.

5. 지역 교회의 자율성과 회중 정치

독립침례교회들은 각 지역 교회가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믿었다. 어떤 회의, 노회, 총회, 교단도 교회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다(엡 5:23). 회중 정치는 교회 회원들이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목사 청빙, 규칙 제정, 징계 시행 등 주요 사안들을 회중이 결정한다. 목사와

집사들이 실질적 지도력을 발휘하더라도 중요한 의제의 최종 결정권은 항상 회중에게 있다.

6.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

독립침례교회들은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하며 국가는 교회를 지배할 수 없고 교회도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어떤 종교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 원리는 침례교가 박해받던 시절부터 지켜 온 것이었다. 16-17세기 유럽의 국교회 박해 속에서도, 18-19세기 미국 여러 주에서 침례교가 차별받던 시대에도 침례교인들은 '양심의 자유'를 외쳤고 그 투쟁의 결과가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로 이어졌다.

7. 재림 전 휴거와 천년 왕국

독립침례교회들은 성도들의 '환난 전 휴거'(Pre-tribulation Rapture)와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을 믿었다. 즉, 예수님께서는 7년 환난 전에 교회를 공중으로 데려가시고(살전 4:16-17), 7년 환난 후 땅에 재림하셔서 문자적 1,000년 왕국을 세우신다(계 20:4-6).

이 견해는 모든 침례교인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침례교회들 사이에서는 거의 보편적인 입장이었다. 그들은 천주교와 다수 개신교의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거부했다.

8. 영원한 천국과 지옥

독립침례교회들은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고(요 14:2-3)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불에서 형벌을 받는다(계 20:15). 지옥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이며 영원한 형벌이 존재한다. 이는 지옥을 부정하거나 상징화하는 자유주의 신학과의 또 다른 분기점이었다.

9. 성경적 분리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경적 분리를 실천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자유주의 신학, 로마 카톨릭, 에큐메니컬 운동과 협력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러한 세력들과 계속 협력하는 복음주의자들과도 거리를 두었다.

재침례교회(아나뱁티스트)와의 근본적 차이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한다. 독립침례교회와 재침례교회(아나뱁티스트, 아미쉬, 메노나이트 등)는 완전히 다른 전통이다. 이 둘을 혼동하면 독립침례교회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1. 역사적 기원의 차이

재침례교회(아나뱁티스트)는 1525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콘라드 그레벨과 펠릭스 만츠가 신자 침례를 실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츠빙글리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고 보고 더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 침례교의 직접적 기원은 17세기 영국이다. 1609년 존 스미스가 암스테르담에서 세운 교회, 1612년 토마스 헬위스가 런던에서 세운 교회가 영국 침례교의 시작이고 영국 침례교는 영국 분리주의 운동과 청교도 운동에서 나왔다.

물론 16세기 재침례파와 17세기 침례교 사이에 신자 침례, 교회와 국가 분리, 양심의 자유 등 같은 공통점이 있다. 일부 역사가들은 침례교가 재세례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연속성은 불분명하다. 많은 침례교 학자들은 침례교가 재침례교회로부터 영적인 주요 원리 면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전통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2. 신학적 차이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 차이다. 재침례교회(특히 아미쉬와 메노나이트)와 독립침례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리의 대상이 다르다. 아미쉬와 메노나이트는 '세상과의 완전 분리'를 강조한다. 즉, 그들은 현대 문명, 기술, 패션, 오락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대신 마차를 타고, 현대식 옷 대신 전통 복장을 입고, TV와 인터넷을 거부한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

반면 독립침례교회는 '거짓 교리와의 분리'를 강조한다. 그들이 분리하는 대상은 현대 기술이나 문화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 로마 카톨릭, 에큐메니컬

운동이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전기를 사용하고, 현대 의복을 입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한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요 17:15–18).

독립침례교회가 말하는 분리는 '물리적 격리나 고립'이 아니라 '신학적 순수성'이다.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고후 6:14)고 했을 때 그것은 세상에서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거짓 교리와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마 9:11). 그분은 세상에서 격리되지 않았지만 죄와 거짓에서는 분리되셨다.

둘째, 구원론이 다르다. 많은 아나뱁티스트 그룹(특히 메노나이트)은 구원에 있어서 행위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순종하는 삶, 평화주의 실천, 공동체 생활이 구원의 증거이자 요소라고 가르친다. 일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독립침례교는 구원이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엡 2:8–9)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다. 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요 10:28–29).

셋째, 사회 참여가 다르다. 아미쉬와 메노나이트는 정치 참여를 거부한다. 그들은 투표하지 않고 공직에 나가지 않으며 군 복무를 거부한다(평화주의). 그들은 세상 정부와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한다.

반면 독립침례교는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심지어 장려한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하지만 개인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 투표하고 공직에 출마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독립침례교인들이 보수 정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넷째, 전도 방식이 다르다. 아미쉬와 메노나이트는 적극적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물론 일부 메노나이트는 선교를 하지만 아미쉬는 거의 하지 않는다.

반면 독립침례교는 전도를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본다. 예수님의 대위임령(마 28:19–20)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 거리 전도, 가가호호 방문, 대형 부흥회, 해외 선교, 이 모든 것이 독립침례교회의 특징이다.

따라서 독립침례교회가 아미쉬나 메노나이트와 같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이다. 독립침례교회는 세상과 격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거짓 교리로부터 순수성을 지키는 전투적 복음주의 교회들이다.

성경적 분리의 원리

독립침례교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적 분리'(Biblical Separ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분리는 세속과의 분리가 아니라 거짓 교리와의 분리다. 독립침례교인들은 분리가 성경의 명령이라고 믿었다. 성경은 반복해서 거짓 교사들과 불신앙으로부터 떨어질 것을 명령한다.

>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고후 6:14–15)

>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요이 1:10–11)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독립침례교인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공식적 협력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믿었다.

1. 1차 분리

1차 분리는 자유주의 신학, 로마 카톨릭, 에큐메니컬 운동과 같이 복음의 본질을 부정하는 세력과의 분리를 의미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희석시키며 대속적 속죄를 재해석하고 육체적 부활을 상징으로 본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판

단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전통을 더하고, 구원에 행위를 섞고, 마리아와 성인을 숭배하고, 연옥을 가르치며,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한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것은 다른 복음'(갈 1:6-9)이라고 보았다.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운동(WCC, NCC 등)은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들'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교리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사회 정의와 세계 평화를 우선시한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 운동이 '진리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1차 분리는 이러한 세력들과 공식적 협력과 연합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나 자유주의자와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들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2차 분리

2차 분리는 더 논쟁적이었다. 이는 복음은 바르게 믿지만 1차 분리 대상들과 계속 협력하는 보수 복음주의자들과의 분리를 의미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개인적으로는 보수적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주의 교단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교회가 성경을 믿지만 NCC나 WCC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복음주의자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 카톨릭과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집회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독립침례교인들 중 많은 이들은 "그들과도 거리를 두고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자유주의나 카톨릭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빌리 그래함이 2차 분리의 주요 논쟁 대상이었다. 그래함은 개인적으로 보수적 복음주의자였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믿었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했으며 복음을 분명히 전했다. 그러나 그의 전도 집회에 자유주의자들과 카톨릭이 공식 후원자로 참여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그래함 형제는 좋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협력 방식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사역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차 분리는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어떤 이들은 2차 분리가 너무 지나치다고 보았다. "바른 신앙을 가진 형제를 왜 배척하는가?" 다른 이들은 2차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타협하는 형제와 함께하면 우리도 결국 타협하게 된다."

3. 분리의 한계와 남용

성경적 분리는 원칙적으로 옳지만 실천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어떤 경우에는 분리가 지나치게 좁게 적용되었다.

일부 독립침례교회들은 외형적 기준으로 분리를 확대했다. 음악 스타일(악기 사용, 리듬), 복장(바지를 입는 여성, 긴 머리를 기르는 남성), 오락(영화 관람, 스포츠 관람) 등이 분리의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었다. 성경적 분리의 핵심은 교리적 순수성이지 외형적 규칙이 아니다. 물론 생활 방식과 신앙이 무관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입느냐'와 '무엇을 믿느냐'를 같은 수준에 놓는 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 분리가 교만과 우월감으로 이어졌다. "우리만이 순수하다. 우리만이 바르다. 다른 모든 이들은 타협했다. 그래서 우리만 교회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원칙 자체는 옳았다. 거짓 교리와 타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은 목사들의 의무다. 문제는 원칙이 아니라 적용이었다. 독립침례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리를 포기하라."가 아니라 "분리를 성경적으로, 사랑으로, 지혜롭게 실천하라."는 것이다.

독립침례교회의 성장과 지도자들

선구자들

독립침례교회 운동은 몇몇 강력한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기관들을 통해 형성되고 확산되었다. 이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독립침례교의 역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1. 프랭크 노리스(J. Frank Norris, 1877–1952) – 전투적 근본주의자

노리스는 '독립침례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다. 그는 1909년부터 1952년까지 텍사스 주 포트워스의 제일침례교회에서 목회했다. 그의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라고 불렸다.

프랭크 노리스

그는 동시에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의 템플침례교회를 담임한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는 주말마다 야간열차를 타고 1,900킬로미터 떨어진 두 도시를 오가며 주일 강단에서 직접 설교했고, 당시 항공 교통이 불안정하던 시대에 장거리 철도 이동은 그의 목회 사역의 일상이 되었다. 남부와 북부의 대형 교회를 동시에 이끌며 그는 독립침례교회 내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두 교회 모두 그의 강단 중심 설교에 크게 의존했기에 이러한 이례적인 구조가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 노리스의 이 전무후무한 목회 방식은 이후 독립침례교회 역사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노리스는 전투적이어서 남침례교 안의 자유주의와 진화론 교육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는 남침례교 신학교들이 성경 비평학을 가르친다고 비난했고 남침례교 지도자들을 '현대주의자들'이라고 규탄했다. 그 결과 1924년 그의 교회는 남침례교에서 제명되었다. 그러나 노리스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우리는 교단이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선언했다. 그의 교회는 독립침례교회로서 계속 성장했다.

노리스는 또한 라디오 방송, 신문 발행, 대형 부흥회를 통해 전국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의 신문 '탐조등'(The Searchlight)은 수만 부가 발행되었고 그의 라디오 설교는 수백만 명이 들었다.

1935년 노리스는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성경 침례 신학원(Bible Baptist

Seminary)을 설립했는데 이 신학교는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노리스는 논쟁적인 인물이었다. 1926년, 포트워스 시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그에게 당시 시장의 친구가 찾아와 강한 항의를 제기했고 사무실에서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노리스는 그가 권총을 꺼내려 한다고 판단해 먼저 총을 발사했고 상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는 법정에서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실제로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에도 노리스는 포트워스 제일침례교회를 계속 목회하며 남침례교단 밖에서 독립침례교회 노선을 유지했다. 그는 교단 조직에 속하지 않고도 대형 교회와 전국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전투적 태도와 독단적 리더십으로 인해 그는 종종 비판을 받았으나 그의 영향력 자체는 분명했다. 그는 남침례교로부터의 독립이 실제로 가능하며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 준 인물이었다.

2. 존 라이스(John R. Rice, 1895–1980)

존 라이스

라이스는 20세기 중반 가장 영향력 있는 독립침례교회 지도자였다. 그는 텍사스 주에서 태어나 베일러 대학교와 시카고의 무디 성경 학교에서 공부했고 처음에는 남침례교 목사였으나 점차 독립침례교회 입장으로 옮겨 갔다.

1934년 라이스는 '주님의 검'(Sword of the Lord)이라는 신문을 창간했는데 이 신문은 독립침례교회들을 연결하는 핵심 매체가 되었다. 매주 발행되는 이 신문은 설교, 간증, 전도 이야기, 신학 논문, 교회 소식을 실었고 전성기에는 발행 부수가 25만 부를 넘었고 거의 모든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이 구독했다.

라이스는 또한 다작 저자였다. 그는 200권 이상의 책과 소책자를 썼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책은 「기도: 구하고 받음」(Prayer: Asking and Receiving)이다. 그의 책들은 수백만 부가 팔렸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라이스는 온건한 근본주의자였다. 그는 성경의 무오성, 창조론,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2차 분리에는 신중했다. 그는 빌리 그래함을 비판하지 않았고(적어도 초기에는) 다양한 독립침례교회 그룹들과 두루 교제했다. 이 때문에 일부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은 라이스를 '너무 타협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립침례교인들은 라이스를 존경했다. 그의 '주님의 검'은 독립침례교회 운동의 '목소리'였고 그의 책들은 수많은 목회자와 일반 성도를 교육했다. 테네시 주 머프리즈보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 신문은 현재까지도 계속 발행되고 있고(현재는 월간) 독립침례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성기 지도자들

1. 리 로버슨(Lee Roberson, 1909–2007)

리 로버슨은 1942년부터 1983년까지 테네시 주 채터누가의 하이랜드파크 침례교회(Highland Park Baptist Church)에서 목회했다. 그의 목회 기간 동안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 주일 출석은 수만 명에 이르렀고 교회는 수백 개의 선교 사역을 지원했다.

로버슨의 가장 큰 공헌은 교육이었다. 1946년에 그는 테네시 템플 대학(Tennessee Temple University)을 설립했는데 이 학교는 독립침례교회 목사들과 교사들을 양성하는 주요 기관이 되었다. 전성기에는 학생 수가 4,000명을 넘었고 졸업생들이 전 세계에서 목회하고 선교했다.

테네시 템플 대학은 성경 중심 교육, 엄격한 도덕 규칙, 전도 훈련으로 유명했고 학생들은 매주 거리 전도와 교도소 사역에 참여해야 했다. 학교의 모토는 '국내외 사역을 위한 기독교 일꾼 훈련'이었다.

로버슨은 또한 '하이랜드파크 침례교회'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그의 설교 스타일은 간결하고 실천적이었다. 그는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테네시 템플 대학은 재정 어려움으로 2015년 문을 닫았다. 그러나 60년 이상 이 학교가 배출한 수만 명의 졸업생들은 독립침례교회 운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잭 하일스(Jack Hyles, 1926-2001)

잭 하일스는 20세기 후반 가장 잘 알려진 독립침례교 목사 중 한 명이다. 그는 1959년부터 2001년까지 인디애나 주 해먼드 제일침례교회에서 목회했고 그의 목회 기간 동안 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일스의 전략은 공격적 전도였다. 교회는 수백 대의 버스를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교회로 데려왔고 주일 학교 교사들은 일주일 내내 가정 방문을 했다. 교회는 매주 수천 명의 방문자를 기록했고 1970년대에는 매주 평균 출석 인원이 14,000명에 달했고 1990년 당시에는 주일 학교 출석이 20,000명을 넘어섰다.

하일스는 또한 뛰어난 조직가였다. 그는 '교회 성장의 모든 측면을 시스템화'했다. 방문 프로그램, 교사 훈련, 버스 사역, 음악 사역, 청소년 사역, 이 모든 활동에 필요한 매뉴얼이 있었다.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해먼드 제일침례교회를 방문하여 하일스의 방법을 배웠다.

1972년 하일스는 하일스 앤더슨 대학(Hyles-Anderson College)을 설립했는데 이 학교는 '하일스 방식'의 교회 성장과 목회를 가르쳤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여 전국에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 하일스는 또한 매년 '목사 학교'(Pastors' School)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에는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일주일 동안 설교를 듣고 사역 방법을 배웠다. 하일스는 '전도, 전도, 전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하일스는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적 인물이기도 했다. 게다가 그의 죽음 이후 해먼드 제일침례교회 지도부를 계승한 인물들과 가족을 둘러싸고 심각한 도덕적 스캔들과 지도력 위기가 연이어 제기되었고, 이는 교회의 신뢰도와 규모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 결과 한때 미국 최대 규모의 침례교회로 불리던 이 교회는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오늘날 많은 독립침례교인들은 하일스의 전도 열정은 인정하지만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개인적 문제들을 비판한다.

3. 제리 폴웰 시니어(Jerry Falwell Sr., 1933-2007)

제리 폴웰 시니어는 1956년에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의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Thomas Road Baptist Church)를 35명으로 시작하여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는 독립침례교회 목사로서 강력한 설교와 텔레비전 방송 사역 '옛 복음 시간'(Old Time Gospel Hour)을 통해 전국적 영향력을 가졌다.

폴웰의 가장 큰 공헌은 1971년에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 처음 이름은 Lynchburg Baptist College)을 설립한 것이다. 이 대학은 독립침례교회 전통에서 시작했지만 보다 폭넓은 복음주의 학생들을 받아들였다. 오늘날 리버티 대학교는 온라인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10만 명 이상의 학생을 가진 세계 최대 기독교 대학 중 하나가 되었다.

폴웰은 또한 1979년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라는 보수 기독교 정치 운동 단체를 창립하여 보수 정치 운동에 깊이 관여했다. '도덕적 다수'는 미국 사회와 정치 전반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슈를 다뤘다: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가족 가치 수호, 공립 학교에서 기도 허용, 음란물·세속 문화 반대, 강한 국방, 반공(특히 냉전기). 또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기독교 유권자 수백만 명을 조직하여 로널드 레이건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는 전통적인 독립침례교회의 '정교분리' 입장과는 다른 접근이었고 일부 독립침례교인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폴웰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요 기관들

1. 성서침례교회 친교회(Bible Baptist Fellowship International, BBFI)

1950년경 약 100명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이 모여 성서침례교회 친교회를 조직했는데 이 모임의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빅 박사(George B. Vick, 1901–1975)였다. 그는 한때 노리스 목사의 측근이었지만 노리스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지도 방식에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보다 건강한 협력 구조와 안정된 목회자 훈련 체계를 세우고자 이 친교회 조직을

주도했다. 이후 빅은 디트로이트 템플 침례교회와 침례 성경 대학을 통해 독립 침례교회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

BBFI는 '친교'(fellowship)이지 '교단'(denomination)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각 교회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며 BBFI는 단지 같은 신학과 실천을 공유하는 교회들의 자발적 연합일 뿐이다.

BBFI의 본부는 미주리 주 스프링필드에 있다. BBFI는 현재 침례 성경 대학과 신학교(Baptist Bible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를 운영하며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한다. 또한 BBFI 선교 본부는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한다.

BBFI는 실천적이고 전도 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들은 복잡한 신학 논쟁보다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에 집중한다. "성경을 믿고, 침례를 실천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라."

오늘날 BBFI에는 약 3,000개의 교회가 가입되어 있고 약 100만 명의 회원을 대표한다. 이 조직은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연합체 중 하나다.[2]

2. 밥 존스 대학교(Bob Jones University)

1927년 밥 존스 시니어(Bob Jones Sr., 1883–1968)가 설립했다. 존스는 원래 남부 감리교 전도자였으나 근본주의 입장을 취했고 독립침례교회와 가까워졌다. 밥 존스 대학은 처음에 플로리다 주에 있었으나 1947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로 이전했다. 이 학교는 근본주의 기독교 교육의 요새가 되었고 성경의 무오성, 6일 창조, 전천년설, 성경적 분리를 가르쳤다.

밥 존스 대학교

밥 존스 대학은 학문적 우수성과 엄격한 도덕 규칙으로 유명했다. 학생들은 복장 규정

2. 대한민국의 성서침례교회는 1950–60년대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 BBFI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형성된 교회로 현재 200여 개의 지역 교회가 있다.

을 지켜야 했고 남녀 교제가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세속 음악과 춤이 금지되었다. 일부는 이를 율법주의라고 비판했지만 학교는 '거룩한 삶'을 강조했다.

학교는 또한 매우 보수적인 분리주의 입장을 취했고 2차 분리를 실천했으며 빌리 그래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1950년대 후반 빌리 그래함이 NCC와 협력하기 시작했을 때 밥 존스 시니어는 그래함을 '타협자'라고 규탄했다.

밥 존스 대학은 수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독립침례교회 목사, 선교사, 교사로 섬겼다. 학교는 오랫동안 비인가로 운영되었으나 2006년에 TRACS(기독교 특화 전국 인가 기구) 인가를 받았고, 2017년에는 SACSCOC(미국 남부 지역 대학 학력 인증 기구) 지역 인가를 취득했다.

오늘날 밥 존스 대학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만 과거보다 규모가 축소되었고, 일부 규칙들도 완화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보수적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는 밥 존스 대학 출판사(BJU Press)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목표로 한 교과서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재들은 미국 내 크리스천 스쿨뿐 아니라 전 세계 홈스쿨 네트워크에 폭넓게 사용되며 사실상 근본주의, 보수 복음주의 교육의 표준 교재가 되었다. 특히 성경적 창조론, 기독교 세계관, 역사·과학·문학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공교육과 구별되는 교육 철학을 원하는 부모들과 교회 학교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었다. 이 교재들은 미국, 캐나다, 한국, 필리핀,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기독교 학교에서 채택되었고 영어권 선교사 학교들에서도 표준 커리큘럼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BJU Press는 비디오 강의, 교사 매뉴얼, 학습 패키지를 제공하며 전 세계 수십만 가정의 홈스쿨링 시스템을 지원해 왔다. 결과적으로 BJU 교재는 밥 존스 대학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독립침례교회들과 근본주의 교회들의 차세대 교육을 형성하는 핵심적 도구가 되었다.

3.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Pensacola Christian College)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PCC)은 1974년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에서 호튼(Arlin Horton) 부부가 설립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교육 기관이다. 학교는 철저한 성경적 권위, 문자적 6일 창조, 보수적 생활 규범, 그리고 강력한 분

리주의 노선을 유지했으며,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독립침례교회 계열 고등 교육 기관으로 성장했다. PCC는 성경 강의와 모든 교과목에서 철저히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했으며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KJV)만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가르치는 것이 특징이었다. PCC는 KJV가 가장 신뢰할 본문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 역본의 비평 본문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이러한 입장은 독립침례교회 운동 전반의 성경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PCC는 1970년대 후반 자체 교재 체계인 '아베카북'(A Beka Book)을 개발하여 세계적 교육 출판사로 성장했다. '아베카북' 교재들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필리핀, 캐나다,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기독교 학교와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사용되었고 비디오 강의 시스템은 수십만 가정의 홈스쿨링을 지원했다. 오늘날 PCC는 규모 면에서도 근본주의 교육 기관 중 가장 큰 학교 중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KJV 중심 신학 교육과 '아베카북'을 통해 독립침례교회와 근본주의 교회들의 차세대 교육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4. 마라나타 침례대학(Maranatha Baptist University, 위스콘신 주 워터타운, 1968년 설립)

음악과 신학 교육으로 유명한 독립침례교 대학이다. 마라나타 대학은 초기부터 성경 중심 신학, 엄격한 생활 규범, 전통적 예배 음악을 강조하며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안정된 명성을 구축했다. 또한 여러 교회와 학교에 목회자, 교사, 음악인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독립 근본주의 침례교(IFB) 교육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5.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West Coast Baptist College, 캘리포니아 주 랭캐스터, 1995년 설립)

폴 채플(Paul Chappell) 목사가 랭캐스터 침례교회 사역의 확장으로 시작

한 학교로 전도 중심 철학과 실용적 목회 훈련에 강점을 둔 독립침례교 교육 기관이다. 이 학교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 지역 교회 중심 사역, 보수적 음악 기준을 강조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미국 서부 독립 근본주의 침례교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리더십 훈련 기관이 되었다. 또한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은 설교, 전도학, 청년 사역, 음악 사역 등 실천적 분야에서 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천 명의 졸업생을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로 배출해 독립침례교회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

이 모든 기관들은 교단 없이도 목회자 양성, 선교사 파송, 교회 개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독립침례교회는 '비조직적'이 아니라 기존 교단들과 '다르게 조직된' 교회였다. 교단의 위계 구조 대신 학교, 출판사, 친교 단체, 선교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있었다.

1950–1980년대 – 독립침례교의 전성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 번영과 함께 종교 부흥기를 맞아 교회 출석률이 높아지고 신생 교회들이 쏟아졌다. '베이비 붐' 세대가 태어났고 가족들이 교회를 찾았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독립침례교회들은 빠르게 성장했다.

1. 버스 사역의 폭발

독립침례교회들의 성장 비결 중 하나는 버스 사역이었다. 교회들은 수십 대, 심지어 수백 대의 버스를 구입하여 주일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교회로 데려왔다. 버스 사역의 논리는 간단했다. 많은 어린이들의 부모는 교회에 나오

지 않지만 어린이들은 기꺼이 온다. 버스가 그들을 데려오면 그들은 주일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에서 복음을 듣는다. 일부는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며 그들을 통해 부모들도 복음을 듣게 된다.

버스 사역은 엄청난 조직력이 필요했다. 버스 운전사, 버스 내 교사, 주일 학교 교사, 방문팀(주중에 가정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을 초대하는) 등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했다. 일부 교회는 버스 사역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다. 하이랜드파크 침례교회는 140대 이상의 버스를 운영했고 매주 10,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교회로 데려왔다. 해먼드 제일침례교회는 200대 이상의 버스를 가지고 있었다.

비판자들은 "이 사역은 숫자 게임이다. 진정한 회심보다 출석 교인 수에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독립침례교회들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되기 위해 경쟁했고 출석 통계를 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 이 어린이들 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반박했다.

버스 사역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절정에 달했고 그 후 점차 쇠퇴했다. 이러한 쇠퇴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보험 비용 증가, 안전 규정 강화, 사회 변화(부모들이 낯선 사람의 버스에 아이를 태우는 것을 꺼리게 됨), 그리고 일부 버스 사역 관련 스캔들 등이 있었다.

2. 주일 학교 운동

독립침례교회들은 주일 학교를 교회 성장의 핵심으로 보았고 "주일 학교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모토 아래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주일 학교는 연령별로 세밀하게 나뉘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 노년 등 각 연령대에 맞는 교과 과정이 있었다.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훈련받았고 새로운 교수법을 배웠다.

일부 대형 독립침례교회들의 주일 학교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수십 개의 교실, 수백 명의 교사, 정교한 출석 관리 시스템, 상급 제도(출석과 암송에 따른 상), 대형 행사들(주일 학교 피크닉,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이 있었다.

3. 강단 중심의 설교

독립침례교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강단 중심의 강력한 설교였다.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설교였고 목사는 보통 30-60분 동안 성경을 힘 있게 선포했다.

설교 스타일은 열정적이고 직설적이었다. 목사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강단을 두들기고 회중을 향해 직접 호소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설교가 초청으로 끝났다. 회중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목사와 상담하고 기도했다. 설교 주제는 주로 구원, 회심, 거룩한 생활, 전도, 재림이었다. 목사들은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술, 담배, 도박, 간음, 거짓말, 이 모든 것이 강단에서 규탄되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설교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지성적 깊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립침례교인들은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 복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대답했다.

4. 선교와 교회 개척

독립침례교회들은 선교와 교회 개척에 큰 헌신을 보였고 교단 선교부 없이도 수백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다.

독립침례교회 선교의 모델은 '신앙 선교'(faith mission)였다. 선교사들은 특정 교회들에서 개별적으로 후원을 받았다. 선교사 후보자는 1-2년 동안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자신의 비전을 나누고 후원을 요청했고 충분한 후원이 모이면(보통 월 생활비와 사역비) 선교지로 떠났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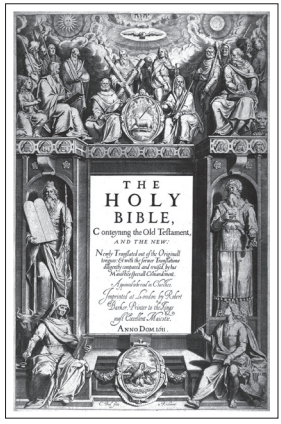
이 방식의 장점은 각 교회가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선교사는 정기적으로 후원 교회들에 편지를 보내고 안식년에는 그 교회들을 방문했다. 교회 회중은 선교사 가족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단점은 선교사들이 후원을 모으는 데 몇 년씩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선교지에서 후원이 줄어들면 선교사가 귀국해야 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방식으로 수백 명의 독립침례교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으며 그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태평양 섬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

---

3. 이러한 과정을 디퓨테이션(Deputation)이라고 부른다.

킹제임스 성경과 본문 보존 신앙



20세기 중반 이후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킹제임스 성경(KJV)을 영어권 성경의 표준으로 강력히 옹호하게 되었다.

실제로 1611년 KJV가 출간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약 37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영어권 교회에서 사용된 성경은 사실상 대부분 KJV였으며, 예배·가정·학교에서 KJV는 거의 유일한 성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개역성경(RV, 1885), 20세기 초에 미국 표준역(ASV, 1901)과 같은 현대 역본이 등장했지만, 이러한 역본들은 학문적 영역이나 제한된 교단 내부에서만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대부분의 교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천주교 계열 소수 사본들에 기반한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비평 본문이 보급되고 이 본문에서 나온 현대 역본들(ASV, RSV, 그리고 1978년 NIV)이 일반 교회로 점차 확산되면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공인 본문(Textus Receptus)과 비교할 때 이 역본들에 많은 구절의 생략과 변화가 있음이 드러났다. 신약 성경에서만 통째로 구절 전체가 삭제되고 '없음'으로 표기된 구절이 13구절이나 된다.

독립침례교회들은 이러한 변화를 성경 보존 교리의 훼손으로 보았고, 이 과정 속에서 '성경 보존'과 'KJV 우월성'은 독립침례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굳어졌다. 그 결과 설교·교육·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KJV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전통이 독립침례교회들 안에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또한 독립침례교회 계열 대학들, 특히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PCC)와 하일스 앤더슨 대학은 KJV만을 공식 성경으로 채택하고 목회자·선교사 훈련에서도 KJV 사용을 필수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 중 가장 큰 학교는 펜사콜

라 크리스천 칼리지(PCC)로 규모와 영향력에서 근본주의·독립침례교회 계열 대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대학들은 KJV 중심 신학 교육을 통해 수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미국과 전 세계 독립침례교회의 KJV 전통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성경 보존의 교리

독립침례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보존하셨다고 굳게 믿었다. 시편 12편 6-7절은 이렇게 말한다.

>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들은 성경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성경을 보존하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영감 교리는 무의미해진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후 사본들은 대체로 부정확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확신은 사실 1647년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밝힌 '원어 성경의 영감과 사본들의 섭리적 보존'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다수 사본들과 다수 본문

히브리어 구약의 경우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이 전통적으로 사용된 본문인데, 이는 유대인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세심하게 복사하고 보존한 본문이다.

그리스어 신약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하다. 수천 개의 그리스어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들 사이에는 차이들이 있다. 어떤 사본들이 정확한가?

독립침례교회는 다수 사본에 기반한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Received Text)을 지지했다. 이 본문은 신약 성경 사본의 압도적 다수 — 약

99%에 해당하는 비잔틴 계열 — 사본들과 일치하며 종교 개혁 시대 이후 루터와 칼빈 등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이 사용한 전통적 본문이었다.

16세기에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신약을 편집했고 그의 작업은 후대의 공인 본문 계열의 기초가 되었다. 이 본문을 토대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 틴데일의 영어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었으며, 이후 수백 년 동안 유럽과 미국의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이 본문을 사용해 왔다.

비평 본문의 문제

19세기 후반 웨스트코트(Brooke F. Westcott, 1825–1901)와 호르트(Fenton J. A. Hort, 1828–1892)라는 두 영국 학자가 기존의 공인 본문을 대신할 새로운 그리스어 신약 본문을 편집했다. 그들은 공인 본문을 신뢰하지 않고, 전체 사본의 1% 남짓에 불과한 소수 사본들, 특히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 같은 고대 사본들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이것이 '비평 본문'(Critical Text)의 출발점이 되었다.

20세기에 이 전통은 네슬레–알란트(Nestle–Aland) 비평 본문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역본(NIV, NASB, ESV 등)은 이 본문을 기초로 번역되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비평 본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비평 본문은 전체 사본의 약 1%에 해당하는 소수 사본을 99%의 다수 사본보다 우선시한다. 수천 개의 사본이 동일한 내용을 증언하는데 단 두세 개의 사본이 다른 이문(readings)을 제시한다면 어느 사본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독립침례교인들은 "다수의 증언을 따르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보았다.

둘째, 비평 본문의 핵심 사본들(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은 공교롭게도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집트는 초대 교회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이 사본들 또한 실제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기보다 도서관 등에 보존된 형태로 전해졌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사용되다가 닳아 없어질 만큼 널리 읽힌 사본이 더 신뢰할 만하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사본이 어떻게 더 정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셋째, 비평 본문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 네슬레-알란트 본문은 이미 28판까지 나왔으며 각 판마다 수백 곳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비평학자들 사이에서조차 본문 확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넷째, 비평 본문은 중요한 구절들을 삭제하거나 의문시한다. 마가복음 16:9-20, 요한복음 7:53-8:11, 요한일서 5:7-8과 같은 본문이 대표적이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를 '성경의 핵심 구절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시도'로 보았다.

다섯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신학적 성향 자체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들은 전통적 성경 무오성 교리에 회의적이었고, 진화론에 우호적이었으며, 로마 카톨릭에 대한 거부감도 약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러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편집한 본문을 어떻게 최종 권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출간된 이후 사실상 영어권 개신교회의 표준 성경이었다.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성경은 부흥 운동, 세계 선교, 교리 형성, 찬송가 작사, 설교와 교육의 중심에 자리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면에서 탁월하다고 보았다.

첫째, 올바른 본문에 기반한다.

구약은 전통적으로 보존된 마소라 본문에서, 신약은 개신교의 정통 본문인 공인 본문에서 번역되었다.

둘째, 번역이 정확하다.

번역 작업에는 54명의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참여했고 약 7년에 걸쳐 치밀한 검토를 거쳤다. 또한 '단어 대 단어'라는 형식적 일치 번역 방식을 채택해 본문의 의미를 충실히 옮기려 했다.

셋째, 언어가 아름답다.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장엄하고 시적이며, 세기가 바뀌어도 여전히 읽기 쉽고 암송하기 좋다. 이는 예배와 설교, 개인 묵상에서 특별한 힘을 발휘해 왔다.

넷째, 교리적으로 명확하다.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 처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재림, 지옥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사용하셨다는 점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수억 명이 복음을 들었고, 수십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에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았다.

오늘날에도 KJV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장되고 읽히는 영어 성경이다.

KJV-Only 입장

이러한 확신 속에서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들은 자연스럽게 'KJV-Only'라 불리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즉,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에 기초한 킹제임스 성경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비평 본문을 따른 현대 역본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입장은 하나의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여러 단계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뛰어난 번역'이라고 믿는 온건한 입장이었다. 이들은 현대 역본들도 불완전하지만 참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정확한 번역'이며, 비평 본문에서 나온 현대 역본들은 본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 공적 예배나 교리 교육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수의 극단적 KJV주의자들, 예를 들어 피터 럭크만(Peter Ruckman)과 그의 추종자들은 "영감은 원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 자체에도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영어 KJV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을 교정할 수 있다."는 난센스 발언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와 신학교는 럭크만 등의 이러한 극단적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 주류 독립침례교회의 이해는 '본문 보존'에 기초한 중간 입장이었다. 즉,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올바른 본문

(TR)에 기반한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현대 역본은 잘못된 비평 본문에 근거했으므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들은 한 번도 "KJV 영어 번역 자체가 새롭게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극히 소수 의견으로 간주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입장이 종종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고, 때로는 오해 속에서 이단적 주장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침례교 전통 안에서는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떤 성경 번역을 교회의 표준으로 삼을지 결정하는 것은 각 지역 교회의 양심의 자유이며 회중 자치의 고유한 권리이다. 독립침례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한 것은 신학적 판단과 교회 전통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지, 이단성을 띤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 보존에 대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며, 공인 본문의 계보를 존중하려는 신앙적 확신 속에서 KJV를 선택한 것이다.

현시대 독립침례교회의 현황과 과제

현재의 도전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독립침례교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 1960-70년대의 전성기는 지났고 여러 어려움이 나타났다.

1. 숫자의 감소

전반적으로 미국의 교회 출석이 감소하고 있다. 세속화, 상대주의, 무신론의 확산으로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독립침례교회들도 이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대형 독립침례교회들 중 많은 곳이 축소되었다. 해먼드 제일침례교회는 한때 20,000명 이상이 모였지만 지금은 수천 명으로 줄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교체, 스캔들, 세대 교체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

버스 사역은 거의 사라졌고 주일 학교 출석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젊은 세

대는 이전 세대만큼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다.

2. 신학교와 대학의 어려움

여러 독립침례교 대학들이 문을 닫았다. 테네시 템플 대학(2015년 폐교), 노쓰랜드 침례 성경 대학(Northland Baptist Bible College, 2015년 폐교) 등이 그 예다. 재정적 어려움, 학생 수 감소, 세대 변화가 원인이었다.

살아남은 학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 모집이 쉽지 않고 재정이 빠듯하며 교육 철학을 어떻게 현대화할지 고민하는 중이다.

3. 다음 세대의 이탈

독립침례교회에서 자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부는 독립침례교회의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에 반발한다. "복장 규정, 음악 제한, 엄격한 규칙들이 자유를 가로막는다."

둘째, 일부는 지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대학에서 진화론, 성경 비평학, 다른 종교들을 만났을 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일부는 더 '현대적'인 예배를 원한다. 현대 찬양, 캐주얼한 분위기, 멀티미디어 사용 등.

넷째, 일부는 독립침례교회가 너무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우리만 옳고 다른 모든 이들은 틀렸다는 태도에 지쳤다."

4. 스캔들과 권위주의의 유산

일부 독립침례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스캔들들이 운동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잭 하일스를 비롯한 몇몇 유명 목사들의 문제점들이 사후에 드러났다. 일부 교회에서 성적 학대와 이를 은폐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과도한 목회자 권위주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회중 정치가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목사가 거의 절대적 권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견제와 균형이 부족했고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웠다.

긍정적 발전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독립침례교회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랭캐스터 침례교회(Lancaster Baptist Church, 캘리포니아)는 현대 독립침례교회의 좋은 모델이다. 이 교회는 복음 중심, 전도 열정, 체계적 제자 훈련, 킹제임스 성경 사용, 분리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율법주의를 피하고 은혜를 강조한다. 교회는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을 운영하며 목회자들을 양성한다.

일부 독립침례교회들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있다. 더 투명한 재정 관리, 목회자에 대한 적절한 견제, 회중 정치의 실질적 실천, 은혜와 사랑의 강조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선교 사역은 여전히 강하다. 수백 명의 독립침례교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다.

독립침례교와 남침례교의 관계

흥미로운 점은 남침례교 안에도 실질적으로 독립침례교회와 다르지 않은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형식상 남침례교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남침례교 헌법은 각 교회의 자치를 보장한다. 어떤 상급 기관도 교회에 명령할 수 없다. 따라서 남침례교회는 원하는 만큼 독립적일 수 있다. 교단의 협동 프로그램에 헌금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교단 신학교에 학생을 보내지 않아도 되며, 교단 결의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많은 보수적 남침례교회들이 이렇게 운영된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독립침례교 대학에서 교육받은 목사를 청빙하고, 독립침례교 선교사를 직접 후원하며, 교단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이 남침례교에 남아 있는 이유는 때로 단순히 역사적 관계나 연금 문제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독립' 침례교회들은 실질적으로 특정 지도자나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독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명 목사나 특정 대학의 지시를 따른다.

따라서 진정한 독립의 기준은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가?"이다. 독립침례교회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만 복종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1979년 이후 남침례교의 보수적 회복 운동은 남침례교를 신학적으로 보수적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남침례교와 독립침례교 사이의 신학적 간격이 좁아졌다. 오늘날 두 그룹은 성경의 무오성, 보수적 교리, 전도와 선교 중심 사역에서 거의 일치한다. 조직 구조와 협력 범위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다.

독립침례교회 운동의 빛과 그림자

어떤 역사적 운동이든 빛만 있거나 그림자만 있지는 않다. 독립침례교회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양쪽을 다 봐야 한다.

독립침례교회가 밝힌 빛

첫째,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독립침례교회들은 전도를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확신했다. 거리 전도, 가가호호 방문, 버스 사역, 대형 부흥회를 통해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 교회에 연결되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열매였다.

둘째, 성경의 권위 수호.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 교단을 흔드는 상황에서도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을 확고히 지켰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교회'로 규정했고, 진화론·성경 비평·상징주의를 거부하며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일관되게 옹호했다.

셋째, 교회의 자치 실천. 독립침례교회들은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완전한 자치를 실제로 구현했다. 상회나 교단 본부의 지시 없이 오직 회중의 결정으로 교회를 운영했으며, 이는 침례교 전통의 핵심 원리를 그대로 지켜낸 것이었다.

넷째, 선교와 교회 개척. 교단 조직 없이도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천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이는 "조직보다 비전과 헌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한 사례였다.

다섯째, 킹제임스 성경과 본문 보존.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경 본문 논쟁에서 공인 본문 전통을 굳게 지켰다. 비평 본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교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사용되어 온 본문을 옹호했다.

여섯째, 거짓 교리로부터의 분리. 자유주의 신학, 로마 카톨릭, 에큐메니컬 운동과의 협력을 거부했다. 이는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진지한 시도였다.

독립침례교회가 맞닥뜨린 그림자들

첫째, 율법주의로의 경직성. 일부 교회에서는 '분리' 원리가 외형적 규칙주의로 변질되었다. 복장, 머리 길이, 음악, 오락 등에 세세한 기준이 생기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율법주의적 경향으로 복음의 자유와 은혜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

둘째, 권위주의와 회중 정치의 약화. 형식적으로는 회중이 최고 권위였지만 실제로는 목사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목사 의견에 대한 반대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는 회중 정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셋째, 교육과 지성적 준비 부족. 일부 독립침례교 교육 기관들은 학문적 깊이보다 '영적 열정'을 우선시했다. 그 결과 성경 변증, 교회사, 조직신학, 철학, 과학에 대한 균형 잡힌 훈련이 부족해 젊은 세대가 대학과 사회에서 마주하는 지적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겼다.

넷째, 고립과 협력 부족. 성경적 분리 원리가 지나치게 좁게 적용되면서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전통의 교회들과 교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고 다른 전통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잃었으며, "우리만 옳다."는 태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다섯째, 스캔들과 학대 은폐. 일부 교회들에서는 목회자의 도덕적 실패, 성적 학대, 재정 부정 사건이 일어났고 더 큰 문제는 이것들이 종종 은폐되었다는 점이다. '교회의 명예'를 이유로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는 심각한 죄악이며 독립침례교회의 치명적 약점이었다.

여섯째, 세대 교체 실패. 많은 대형 독립침례교회들이 창립 목사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이며,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과 승계 준비가 부족했던 탓이다.

이러한 그림자들은 독립침례교회가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빛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원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론 -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독립침례교 운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복종한다."

이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1525년 취리히의 재침례파, 1609년 암스테르담의 존 스미스, 1612년 런던의 토마스 헬위스, 1638년 로드아일랜드의 로저 윌리엄스 모두 동일한 진리를 외쳤다. 교황도, 감독도, 노회도, 총회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다.

침례교 역사를 넓게 조망하면, 1850년 이전의 침례교회는 본질적으로 독립된 교회들이었다. 협력은 있었지만 지배 구조는 없었으며 각 교회는 자치권을 가지고 회중이 스스로 결정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선교와 교육을 위해 전국 단위의 조직들이 등장하면서 남침례교와 북침례교 같은 교단들이 강력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여러 유익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역 교회의 자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도 낳았다.

20세기 중반 독립침례교 운동은 이러한 교단화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났다.

"우리는 원래 침례교였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협력은 하되 지배받지 않겠다. 조직을 사용하되 조직에 종속되지 않겠다."

이것이 그들의 선언이었다.

독립침례교회들은 명확한 신학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성경의 완전 영감과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신자 침례, 회중 정치, 정교분리, 환난 전 휴거, 전천년설, 영원한 천국과 지옥, 그리고 거짓 교리로부터의 분리 — 이러한 신학적 기둥이 독립침례교회를 지탱했다.

그들은 재침례파 전통(아나뱁티스트, 아미쉬, 메노나이트)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독립침례교회의 '분리'는 세상과의 물리적 격리가 아니라 거짓 교리로부터의 신학적 분리였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며 세상에 복음을 전했다.

독립침례교회 운동은 강력한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기관들의 후원 아래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노리스(J. Frank Norris), 라이스(John R. Rice), 로버슨(Lee Roberson), 하일스(Jack Hyles), 폴웰(Jerry Falwell)과 같은 목회자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세우며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주님의 검'(Sword of the Lord), 테네시 템플 대학(Tennessee Temple University), 밥 존스 대학(Bob Jones University),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Pensacola Christian College), 성서침례교회 친교회(Bible Baptist Fellowship International) 같은 기관들은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 노선을 견고하게 세우며 수많은 목회자, 교사, 선교사를 배출했다.

1950–1980년은 독립침례교의 전성기였다. 버스 사역, 주일 학교 운동, 강단 중심 설교, 선교와 교회 개척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 상당수가 독립침례교회였다.

킹제임스 성경은 독립침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그들은 KJV가 올바른 본문(공인 본문)에서 정확하게 번역되었다고 믿었고 비평 본문에 기초한 현대 역본들을 경계하며 거부했다.

21세기에 들어 독립침례교회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출석 감소, 세대 교체의 어려움, 지도자 스캔들의 후유증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건강한 독립침례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독립침례교회 운동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한다. 복음 전도, 성경 권위 수호, 교회 자치 실천은 분명한 공헌이었고, 율법주의, 권위주의, 교육의 부족, 고립은 솔직히 인정해야 할 약점이었다.

오늘날 교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인간 조직도 그리스도와 교

회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 협력은 유익하지만, 지배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둘째,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전통도, 교회법도, 총회 결의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성경이 말하면 순종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자유다. 이것이 성경적 교회의 기본 원리다.

셋째, 거룩한 분리는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실천되어야 한다. 거짓 교리와의 타협은 용납될 수 없지만, 외형적 기준으로 형제를 정죄해서도 안 된다. 순수성과 사랑, 진리와 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회중 정치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여야 한다. 회중이 진정한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목회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다. 교회 안에는 견제와 균형, 투명성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지성과 영성은 대립하지 않는다. 뜨거운 마음과 깨어 있는 정신이 함께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신앙과 더불어 지적 훈련도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핵심 사명이다. 안으로만 향하는 교회는 서서히 죽어 간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한다.

독립침례교의 목표는 결코 '우리끼리'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다. 그들의 궁극적 비전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다. 초대 교회가 그랬고, 종교 개혁자들이 추구했고, 침례교 선조들이 순교로 지켜낸 것도 바로 이 원리였다.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교단의 것도, 목사의 것도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총회도, 노회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만 복종한다. 이것이 독립침례교회가 붙들었던 진리였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 1:18)

Check Point

독립침례교회가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우리 교회가 실제로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는지 아는가?

형식상 그리스도를 머리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교단 정책, 유명 목사, 전통의 영향 아래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협력과 타협의 경계를 분별할 수 있는가?

복음의 핵심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분열을 만들지 않는 지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짓 교리와는 분리하되 형제에게는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한다.

3. 나는 외형적 규칙과 성경적 원리를 구분하는가?

거룩한 분리가 율법주의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은혜'를 핑계로 교리적 타협을 정당화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4. 나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교회의 자치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큰 조직과 풍부한 자원의 유혹 앞에서 지역 교회의 독립성과 회중의 결정권을 지킬 신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나는 목회자 권위와 회중 정치의 균형을 실천하고 있는가?

목사를 존경하되 우상화하지 않고, 지도력을 인정하되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성숙함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나는 다음 세대를 지적으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뜨거운 마음만큼 깨어 있는 정신도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왜 믿는가?"를 가르치는 신실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7. 나는 성경 본문과 교리 보존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시대의 학문적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역사적 교회가 지켜 온 본문을 붙들 양심의 확신이 있는지, 편리함보다 진리를 택할 용기가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Chapter 17

신약 교회의 회복과 침례교의 유산

사도행전에서 오늘날까지

AD 30-현재

신약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찾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2,000년 교회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사도행전의 단순하고 순수한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며 제도화되었고, 국가 권력과 결합하면서 본래의 신약 교회 구조는 흐려졌다.

종교 개혁은 많은 진리를 되찾았지만, 신약 교회 전체 모델을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 흐름 속에서 침례교 전통은 500년 동안 다음 두 가지를 붙들어 왔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 재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침례교의 대답은 신약 교회의 '다섯 기둥', 즉 성경의 절대적 권위,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교회, 신자 침례와 침수례,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자율성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 다섯 기둥은 한 교파의 전통이 아니라 1세기 신약 교회의 실제 구조이며, 침례교는 시대적 도전 속에서도 이 원리들을 가장 일관되게 지켜 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이 신약 원리들은 단지 교리 책 속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순종이 어떻게 세계적 운동이 되었는가?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이 원리들은 어떻게 보존되었는가?

그리고 21세기 오늘, 신약 교회는 과연 어디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가?

이 장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려 한다.

1. 신약 교회의 원리가 어떻게 침례교 신학의 기둥으로 세워졌는지
2. 그 원리들이 5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언되어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있는지

이 결론 장에서 우리는 단순히 역사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의 원리들이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원리들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한다.

침례교의 이야기는 결국 "신약 교회는 지금도 살아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생생한 기록이며, 그 증언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현재적 소명이다.

침례교를 세운 다섯 기둥

침례교 전통은 500년 동안 신약 교회의 핵심 원리를 붙들어 왔다. 그것은 흔히 '침례교의 다섯 기둥'이라 불리며 다음과 같다.

(1) 성경의 절대 권위
(2)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교회

(3) 신자 침례와 침수례
(4)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5)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자율성

이 다섯 원리는 1세기 신약 교회의 실제 구조로서 침례교의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지켜져 왔다. 이 원리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증언되었는지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침례교의 유산 - 500년의 증언

침례교 전통은 단순히 다섯 기둥을 정리한 신학 체계로 끝나지 않았다. 이 원리들은 지난 500년 동안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교회와 사회와 세계 선교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순종은 박해와 순교를 지나 영국과 미국을 거쳐 세계로 넓어졌고, 그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 정교분리, 회중 정치, 성경 중심주의, 신자 침례는 하나의 교파를 넘어 인류의 자유와 현시대의 질서를 형성한 유산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유산이 어떻게 전해졌으며, 현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질문이 남아 있다.

신약 교회는 오늘도 살아 있는가? 침례교는 그 증언을 실제로 이어 왔는가?

이에 대한 답이 결론의 핵심에 이르게 할 것이다.

신약 교회는 살아 있다

사도행전의 그 작은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2,000년이 지났다. 그리고 1525년 취리히의 한 방에서 다시 한번 신약 교회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지 500년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을 모두 지나 마지막 장 앞에 서 있다. 여기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신약 교회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있는가? 그리고 침례교는 그 신약 교회의 증언을 얼마나 지켜 왔는가?

초대 교회는 단순하고 순수했으나 4세기 이후 중세 시대를 지나며 교회는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었으며 국가와 결합되기까지 했다. 16세기 개혁자들은 많은 것을 바로잡았지만 완전히 신약 교회의 원리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525년 재침례교인들이 근본적 질문을 제기했다.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그리는가?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이후 500년의 침례교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 그러나 이 응답은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 수억 명의 신자를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전통으로 자리 잡은 침례교회, 전 세계에 확산된 교회 개척 운동,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회중 참여 구조,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교리의 산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신약 교회는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침례교의 유산은 여전히 성경적 원리를 증언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1세기에서 21세기까지 이어진 이 거대한 흐름을 다시 바라보려 한다. 신약 교회의 원리는 어떻게 전해졌으며, 침례교는 이 원리를 어떻게 지켜 왔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갖게 되었는가?

2,000년의 여정 - 초대 교회에서 침례교까지

1세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순수했다.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 사도들의 가르침, 성령님의 능력, 단순하고 진실한 예배가 특징이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행 2:42)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 2세기와 3세기에는 교회 조직이 복잡해졌다. 주교 중심의 위계 구조가 생기고 단순한 공동체였던 교회는 점차 제도화되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는 국가와 결합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고 이는 겉으로는 복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타락의 시작이었다. 교회는 권력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순수함을 잃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의식과 전통은 성경을 대체했고 교회는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권력 기구로 변했다. 미사는 라틴어로만 드려졌으며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다.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와 의식의 문제로 바뀌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진리를 회복했다. 그들의 사역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개혁자들도 끝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유아 세례를 여전히 인정했고, 국가 교회 체제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교회를 개혁했지만, 교회와 국가의 고리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1525년, 재침례교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들은 "신약 교회는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 고민했고 신약 성경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루터가 '오직 성경'을 외쳤다면, 재침례교인들은 '오직 신약 성경'을 외쳤다.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면 그들은 '믿는 자의 침례'를 강조했다.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려 했다면 그들은 '신약 교회'를 다시 세우려 했다.

타락한 전통을 넘어 신약으로 돌아가려는 여정, 이것이 침례교의 시작이었다.

취리히에서 세계로 -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다

1525년 1월 21일, 취리히의 작은 방에 몇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그들은 성경을 펼쳐 읽었고 함께 기도했고 마침내 대담한 결단을 내렸다. 그 자리에서 그레벨이 블라우록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날 밤 약 15명이 신자 침례를 받았

다. 그것은 역사적인 재침례 운동의 출발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 알았을까? 자신들의 순종이 500년 뒤까지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아마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성경에 충실하려 했을 뿐이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자."

그들의 소망은 단순했고 그들의 행동은 순수했으나 그 작은 순종의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랐다. 취리히에서 시작된 운동은 스위스 전역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그 방에 있던 15명의 신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 1억 7천만 명의 세계적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키셨고 그 진리를 붙든 사람들을 통해 그것을 자라게 하셨으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영국 - 신학적 명료성

영국에 다다른 침례교는 신학적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존 스마이스와 토마스 헬위스는 침례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그 핵심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신자 침례, 성경의 절대적 권위, 자발적 교회, 그리고 양심의 자유, 이 네 가지는 이후 침례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둥이 되었다.

특히 토마스 헬위스가 제임스 1세에게 보낸 대담한 선언은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우리의 주 왕이시여, 우리는 세상 권력에 관한 한 왕께 충성스럽게 순종하고자 하는 신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양심에 관한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인간의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왕은 필멸의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백성들의 육체에 대한 권세는 있으나 그들의 영원한 영혼에 대한 권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신학적 의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까지 1,5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기독교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혁명적 선언이었다.

왕과 국가가 인간의 영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 이 말은 영국의 감옥에서 조용히 기록되었지만 그 울림은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퍼져 나갔다.

헬위스의 문장은 간략하면서 명료한 씨앗이었다. 즉, 정교분리의 씨앗, 양심의 자유의 씨앗, 인권 사상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170년 후인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서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다. 영국의 한 감옥에서 남긴 작은 글이 결국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미국 - 자유의 실험

미국에서 침례교 원칙들이 국가의 토대가 되었다. 로저 윌리엄스가 프로비던스에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양심의 관용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이는 성공적이었다. 이 원칙들은 로드아일랜드를 넘어 확산되었고 점차 다른 식민지들이 더 많은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1770년대 침례교인들이 버지니아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마침내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채택되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취리히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운동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헌법에 명시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가!

세계로 - 복음의 확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침례교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윌리엄 케리는 인도로 갔고 아도니람 저드슨은 버마(미얀마)로 갔으며 로티 문은 중국으로 향했다. 그 뒤를 이어 수천 명의 침례교 선교사들이 지구의 가

장 먼 곳들까지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으며 성경을 번역했다.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운영하며 가난한 이웃을 섬겼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스승이자 의사이며, 번역가이자 개척자였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는 곳곳에서 자라났다. 아시아의 도시와 마을, 아프리카의 평원과 사막, 라틴 아메리카의 산지와 해안, 태평양의 작은 섬들, 어디를 가도 침례교회의 흔적이 보이게 되었다.

현지 지도자들이 일어났고 그들 스스로 교회를 이끌며 운동은 점점 자생적이고 토착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오늘날 침례교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운동이다. 모든 대륙, 수백 개의 나라, 수천 개의 언어, 침례교는 더 이상 유럽의 전통도, 미국의 운동도 아니다. 침례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 유산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적 교회 운동'이라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전통이 되었다.

다섯 기둥 - 변하지 않는 원칙

500년 동안 침례교는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 왔다.

첫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이 최종 권위이다. 전통도, 교회도, 국가도, 이성도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이 명령한 것은 지키고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강요하지 않는다."

둘째, 다시 태어난 신자들만의 교회

교회는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이다. 출생이나 국적이 아니라 믿음과 회심이 교회 회원권을 결정한다.

셋째, 신자 침례와 침수례

침례는 믿는 자의 순종의 표식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분의 죽음, 매장, 부활과의 연합을 상징한다.

넷째,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양심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문제이다. 국가는 간섭할 수 없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자율성

각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완전한 교회이다. 회중이 함께 교회를 다스리며 외부 권위가 교회를 통제할 수 없다.

이 다섯 기둥은 5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재침례교인들이 이 원칙을 믿었고 영국 침례교인들이 이 원칙을 믿었고 미국 침례교인들이 이 원칙을 믿었으며 오늘날 전 세계 침례교인들 역시 이 원칙을 믿는다.

이 원칙들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다섯 기둥은 단순한 유행이나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뿌리를 둔 원칙들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들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며 1세기 교회의 실천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다섯 기둥의 아름다움은 각 요소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성경의 권위에서 회심한 신자들만의 교회가 나온다. 신자들만의 교회에서 신자 침례가 나온다. 신자 침례에서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양심의 자유에서 정교분리가 나온다. 그리고 회중 정치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실천한다.

하나를 제거하면 전체 구조가 흔들린다. 그래서 침례교는 이 원칙들을 타협 없이 지켜 왔다.

피로 쓰인 역사

침례교의 역사는 화려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다. 눈물과 고통, 그리고 피로 기록된 이야기이다.

1527년, 펠릭스 만츠는 취리히의 리마트 강에서 수장되었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단지 성인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침례를 주었다는 것뿐이었다.

같은 해, 마이클 사틀러는 로텐부르크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한 뒤 화형에 처

해졌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재침례교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16세기 네덜란드 재침례파 성도 안네켄 헨드릭스의 화형식

16세기와 17세기 동안 수천 명의 재침례교인들이 유럽 곳곳에서 죽어 갔다. 그들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카톨릭만이 아니었다. 루터파가 그들을 죽였고 개혁파도 그들을 죽였다.

재침례교인들은 말 그대로 사방에서 박해를 받았다.

영국에서는 토마스 헬위스가 감옥에서 생을 마쳤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왕은 영혼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뿐이었다.

미국에서도 고난은 계속되었다. 오벌 존은 채찍에 맞았고 버지니아의 침례교 목사들은 감옥에 갇혔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정부의 면허 없이 설교했다는 것뿐이었다.

침례교의 역사는 피로 적혀 있다. 순교자들의 피, 이름 없는 신자들의 피, 진리를 지키다 죽어 간 사람들의 피. 그 피는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승리의 씨앗이었다. 고대 교부 테르툴리안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침례교 운동은 박해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해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들을 더 순수하게 만들었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더 넓게 퍼지게 만들었다.

박해자들은 권력으로 침례교인들을 억압하려 했으나 꺾지 못했다. 그들은 쓰러졌지만 그 피 위에서 교회는 다시 일어섰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의 이야기이다. 영광의 이야기이기 전에, 고난 속에서 빚어진 믿음의 이야기이다.

오늘을 위한 메시지

침례교의 역사가 21세기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가 길을 잃을 때마다 해답은 동일하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다.

둘째, 회심을 강조해야 한다. 교회는 문화적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사람은 교회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교회에 들어온다. 회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셋째, 양심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신앙을 강제하려는 모든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 정부 권력을 이용해 복음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강제된 예배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다.

넷째, 회중을 신뢰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 안에 임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중을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일반 성도를 훈련시키고 여러 분야에서 섬기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교회 권력을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

다섯째, 단순함을 유지해야 한다. 교회는 복잡한 구조나 화려한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뿐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여섯째, 신실해야 한다. 침례교 선조들은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나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기를 원하지 않았고 세상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 오직 성경적 원칙에 신실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일곱째, 분열을 피해야 한다.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아픈 장면은 불필요한 분열이었다. 핵심 진리에서는 타협하지 말되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사랑과

인내로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본질적인 것에는 통일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이라는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덟째, 차세대를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가 받은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 청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침례교의 역사와 원칙을 알려야 한다. 차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운동은 단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

미완성 여정

침례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한 장을 쓰고 있다. 우리는 500년에 걸친 유산을 물려받았다.

순교자들의 용기, 개혁자들의 지혜, 선교사들의 희생, 그리고 이름 없는 평범한 신자들의 신실한 삶. 이 모두는 값비싼 유산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이다.

그러나 유산은 저절로 보존되지 않는다. 매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유산을 지키고 전해야 하지 않는가?

도전들은 분명 존재한다. 서구에서는 세속화가 가속된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기독교가 문화적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 현상은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이는 어쩌면 교회가 국가 권력과의 마지막 고리를 완전히 끊고 다시 한번 신약 교회의 원형을 따라 순수한 자발적 공동체로 돌아갈 기회일지 모른다. 1세기 교회는 권력 없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박해가 다시 거세진다. 중국, 중동, 북한에서는 신자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1세기 성도들처럼, 16세기 재침례교인들처럼 믿음을 위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한다.

"진정한 신앙에는 대가가 따른다. 편안함이 항상 복은 아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는 늘 위험이 존재한다.

성장을 위해 복음을 희석하려는 유혹, 인기를 얻기 위해 원칙을 타협하려는 유혹, 문화의 흐름에 순응하려는 유혹.

외부의 박해는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지만, 내부의 타협은 교회를 서서히 죽인다. 그래서 타협하려는 유혹이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500년 동안 침례교를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박해 가운데서도, 분열 가운데서도,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단순하다. 신실함을 유지해야 한다. 성경에 신실하고 복음에 신실하고 신약 교회 원칙에 신실하고 선조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신앙에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면 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전 15:58)

마지막 교훈

침례교는 무엇인가? 이 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침례교는 신약 교회를 이 시대에 구현하려는 운동이다."

이것이 침례교의 본질이다. 이것이 침례교를 침례교답게 만든다. 이것이 침례교가 5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이다.

1525년 취리히의 그 작은 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콘라트 그레벨, 펠릭스 만츠, 게오르크 블라우록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들은 용기를 얻기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위험성을 알았다. 박해가 올 줄 알았다. 그들은 신실함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지키고 싶었다. 타협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순종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고자 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하는 일이 500년 후에도 계속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칙이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신자들에 의해 실천되리라는 사실도 몰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희생이 훗날 미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도 몰랐다.

그들은 단지 신실하게 살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사용하여 세상을 바꾸셨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얻는 교훈이다.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신실할 수는 있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에 신실해야 한다. 신약 성경의 원칙에 신실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그분은 지난 500년 동안 침례교를 지켜오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키실 것이다.

신약 교회는 살아 있다

침례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이 기록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장의 저자들이다.

취리히에서 시작된 그 작은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5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박해도 그 불꽃을 끄지 못했다. 분열도 그 불꽃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세월도 그 불꽃을 희미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운동이 단순한 인간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공동체이다.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이를 본다.

– 새로운 신자들이 침례를 받고 있다.
–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다.
– 회중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
– 일반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섬기고 있다.
–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 순교자들이 신앙을 위해 죽어 가고 있다.

신약 교회는 살아 있다. 1세기에도 살아 있었고 16세기에도 살아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살아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해야 한다. 우리는 용기 있게 서야 한다.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선조들이 지켰던 신약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침례교가 이 시대에도 신약 교회의 살아 있는 증거로 계속 서야 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딤후 4:7–8)

믿음을 지키자. 신약의 믿음을. 사도들의 믿음을. 순교자들의 믿음을. 침례교의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하자.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살후 2: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전 16:23–24)

Check Point

신약 교회의 회복과 침례교의 유산이 남긴 핵심 질문 일곱 가지

1. 나는 작은 순종이 500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작아 보이는 순종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세대를 넘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지, '사소하다'는 이유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2. 나는 순교자들의 피로 쓰인 유산을 단순히 받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지킬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순교자들의 희생이 오늘의 자유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무게를 이어받아 지켜 내겠다는 각오가 내 안에 실제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3. 나는 '본질에는 통일,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에는 사랑'의 원칙을 실제 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핵심 진리에서는 굳게 서되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관용을 베풀고 모든 일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4.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부름이 오늘날에도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신학적 왜곡과 타협을 분별하며 지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성경 앞에서 진지하게 묻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5. 나는 신앙과 정치권력을 결합하려는 유혹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가 권력을 잡을 때마다 부패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이번만은 다르다'는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6. 나는 일반 성도 지도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실제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현재 세대 유지만 고민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가 신약 교회의 원리를 이어가도록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7. 나는 500년의 유산이 나에게 준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순교자, 개혁자, 선교사들이 남긴 유산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 교회에서 설교하는 스펄전

부록 1

침례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신약 교회 정신을 실천한 신앙의 거인들

1. 존 번연 (John Bunyan, 1628-1688)

일반 성도에서 신약 신앙의 상징으로

존 번연의 삶은 침례교가 단순한 교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 운동임을 보여 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1628년 영국 베드포드셔의 엘스토우라는 작은 마을에서 땜장이(냄비, 팬 등 금속 용기를 수리하는 직업인)의 아들로 태어난 번연은 극도로 가난하고 불경건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

번연 자신이 기록한 회심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회심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젊은 시절 그는 술취함, 욕설, 거짓말로 악명이 높았으며, 자신을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중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다. 1650년대 중반, 번연이 우연히 들은 기독교 여인들의 대화와 그가 우연히 집어 든 기독교 서적들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아내가 물려준 「경건의 실천」과 「다리아의 일반 성도 기도

서」 같은 책들을 읽으며 그는 진정한 영적 투쟁의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다.

1653년경 번연은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우즈 강에서 신자 침례를 받고 베드포드의 비분리파 독립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이것이 단순히 교파 가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앙 정체성의 전환이었다. 번연은 일반 성도로서 설교를 시작했고 1657년(29세)에 공식적으로 일반 성도 설교자로 인정받았다. 그의 설교는 매우 강력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영적 투쟁을 깊이 있게 표현하면서도 일반 성도들의 마음에 직접 닿는 언어로 성경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다.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

1660년 왕정복고 이후의 사건은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되었다. 찰스 2세가 복위하자 국교회는 비국교파 신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시작했다. 1662년 의회는 '통일법'을 통과시켜 국교 예배 거부자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영국의 모든 목사는 국교회의 기도서를 사용해야 했고 이를 거부하는 2,000명의 청교도 목사들이 교회에서 제거되었다.

1664년 의회는 더욱 가혹한 '집회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국교회 외에서 다섯 명 이상이 종교 집회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비밀경찰 같은 조직이 가정을 습격하여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게 하는 극도의 종교 탄압이었다.

1660년 11월 12일, 번연은 엘스토우 근처의 농가에서 비밀 집회를 인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청했다. 그녀는 "당신이 복종하겠다고만 약속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라고 간청했지만, 번연은 단호했다. "나는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소."

그 한마디와 함께 그는 자유를 포기했고, 결국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 생활은 극도로 가혹했다. 감옥 문은 무겁고 어두웠으며, 환기도 거의 되지 않았다. 번연은 초기 3년 동안 한 쌍의 족쇄에 채워져 지냈고 나중에는 5

쌍의 족쇄를 찼다. 그는 감옥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신발 끈을 만들어 팔았다. 동료 수감자들은 "족쇄를 찬 번연이 신발 끈을 만들며 울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그를 방문하는 신자들에게 번연은 성경 말씀을 선포했고 영혼들을 돌봤다.

한 남자의 꿈으로 시작하는 「천로역정」의 삽화

「천로역정」: 신앙의 고전

이 12년의 감옥 생활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산물을 낳았다. 번연은 감옥에서 「천로역정」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 작품은 초판이 1678년 출판된 이후, 4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 되었다.

「천로역정」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탈출하여 천성(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개인적인 회심, 성경 중심, 신앙의 순수성, 영혼의 자유라는 침례교의 핵심 신학을 모두 담고 있다. 특히 번연이 그려낸 다양한 영적 시험들 — 의심의 수렁, 절망의 성, 죽음의 강 — 은 진정한 신앙이 얼마나 투쟁적이고 개인적인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1672년 찰스 2세의 '종교 관용령'(Declaration of Indulgence)이 발표되자 번연은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는 즉시 베드포드 교회의 목사로 임명되었고 죽기 전인 1688년까지 약 16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다. 그는 지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설교하고 권면하는 일에 헌신했고, 신자들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를 '감독 번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번연의 영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1673년 국왕이 '종교 관용령'을 철회하자 1677년에 그는 다시 감옥에 갇혔다. 이번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후로도 그는 여생을 위협 속에서 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설교하고 저술했으며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침례교 신학의 증거

번연의 삶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율성이 침례교의 근본 신학임을 보여준다. 국왕의 권위, 종교적 강압, 사회적 모욕 앞에서도 그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지, 국가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침례교가 나중에 미국 헌법에 명기하게 될 정교분리 원리를 행동으로 입증한 것이다.

번연의 저술은 그의 생애가 끝난 뒤 거의 300년 동안 침례교를 넘어 모든 기독교 전통에서 영적 고전으로 사랑받아 왔다. 특히 「천로역정」은 영어 외에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성경을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널리 번역되고 배포된 기독교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번연이 묘사한 신약 교회 신앙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지를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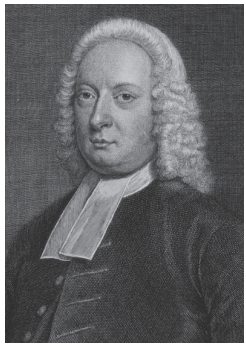
1688년, 런던에서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폐렴에 걸린 번연은 60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겼다. 그의 장례식은 런던 전역의 슬픔과 존경 속에서 치러졌다. 이는 신발 끈을 만들던 한 일반 성도 설교자가 결국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켰음을 알게 해 주는 사건이었다.

2. 존 길 (John Gill, 1697-1771)

침례교 신학의 대석학

존 길은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경학자로 평가된다. 1697년 영국 케터링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인 신동이었다. 11세에 이미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완전히 익혔고 14세에는 히브리어까지 학습했다. 18세에는 신학 강의를 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21세 전후에 런던

호즐리다운의 고트 야드 예배당(Horsleydown Goat Yard Chapel)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존 길

길이 51년 동안 목회한 이 교회는 영국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후에 찰스 스펄전이 목회하게 되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도 바로 이 전통 위에 세워졌다. 길의 설교는 매주 500-600명의 성도들을 모았으며(당시로서는 매우 큰 규모였다) 그의 신학적 영향력은 영국뿐 아니라 미국 침례교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성경 주석의 거작

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구약 성경 주석」(1748-1763, 6권)과 「신약 성경 주석」(1746-1748, 3권)이다. 이 주석들은 총 10,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단일 신학자에 의해 작성된 가장 거대한 성경 주석 프로젝트이다.

길의 주석의 특징은 철저한 성경 중심주의이다. 그는 교부 전통이나 종교 개혁자들의 해석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성경 원문 자체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 원문 분석을 위해 길은 히브리어 문법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리스어의 뉘앙스를 세심하게 살피며,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조사하고, 평행 본문들을 광범위하게 비교했다.

이는 근대 성경학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역사/문법적 해석 방법을 실천한 것이었다. 길의 주석은 후대 신학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신학 체계의 구축

길이 성경 주석 외에 남긴 가장 중요한 신학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대의와 진리」(The Cause of God and Truth, 1735-1738). 이 3부작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가장 철저하고 정교하게 변증한 대표적 저

작이다. 길은 이 책에서 초대 교부들의 글을 폭넓게 인용하며, 칼빈주의가 종교 개혁기의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신학을 회복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또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해 철저한 반박을 제시하면서 특히 예정론(predestination)의 성경적 기초를 매우 정교하게 설명했다.

길은 18세기 특수 침례교회의 대표적 신학자로서 침례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이성주의가 확산되던 시대에 침례교 신학을 체계화하고, 성경 권위, 교회 자율성, 신자 침례 등 침례교의 핵심 원리를 공고히 세웠다. 이 점에서 길의 기여는 매우 크다.[1]

둘째, 「교의 신학 개요」(A Body of Doctrinal Divinity, 1767)와 「실천 신학 개요」(A Body of Practical Divinity, 1770).

이 두 저작은 침례교 신학을 최초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 교과서이다. 신론에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개혁파 전체의 신학 구조 속에서 침례교의 독특한 교리 — 신자 침례, 교회론, 정교분리 — 를 성경과 신학적으로 일관되게 정당화했다.

이 두 저술로 인해 침례교는 단순히 감정적, 실천적 신앙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일관된 신학 체계를 지닌 교파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뛰어난 신학적 통찰

길의 신학의 여러 특징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다.

---

1. 존 길이 옹호한 칼빈주의(특히 제한 속죄와 무조건적 선택)는 침례교의 핵심 원리 — 개인의 양심의 자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 제안, 신자의 책임 있는 회심 – 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성경 전체의 증언(요일 2:2; 딤전 2:4; 벧후 3:9 등)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존 길의 학문적 성실성과 침례교 원칙 수호에 대한 공헌은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칼빈주의 체계가 직접 개입되지 않는 부분에서의 길의 주석은 오늘날에도 매우 귀한 영적·해석학적 자산이다. 그는 성경 본문의 문법과 문맥을 철저히 존중했으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주석은 침례교 전통이 중시해 온 성경 중심성, 교회 전통보다 성경 본문을 우선하는 원리,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해석과 깊이 맞닿아 있다. 그 결과 존 길의 주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을 가치가 있는, 경건과 학문이 조화를 이룬 귀중한 유산이라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양심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입장. 길은 자신의 설교와 저술에서 "정부는 양심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침례교의 기본 신학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이는 당시 영국 국교회의 압박 속에서 매우 용감한 입장이었다.

둘째, 신자 침례의 성경적 기초. 길은 신약 성경의 모든 침례 기록이 다시 태어난 개인들의 침례임을 체계적으로 보였다. 그의 주석과 신학 저작들은 유아 세례 전통을 거부하는 침례교의 신학적 기초가 되었다.

셋째, 교회론의 개혁. 길은 지역 교회의 자율성과 회중 정치의 성경적 정당성을 상세히 논증했다. 이를 통해 그는 침례교가 단순히 국교회에서 분리된 교파가 아니라 신약 교회의 원리에 기초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영적 심도와 학문적 엄격함의 결합

길의 공헌의 가장 놀라운 점은, 깊이 있는 신학적 사고와 영적 헌신의 완벽한 결합이다. 길은 매주 설교를 하면서도 평생에 걸쳐 거대한 신학 저작들을 저술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저작 능력은 지적 수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순수성과 신앙의 헌신에서 나왔다.

길은 또한 자신의 신학적 신념을 설교로 구체화했다. 그의 설교들(약 2,600편 기록)은 복잡한 신학 진리를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 준다. 길은 '신학은 선택받은 자의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길의 신학적 유산

길의 신학은 2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위 있는 자료로 사용된다. 프리미티브 침례교, 개혁파 침례교, 역사적 침례교 전통들은 모두 그의 학문적 깊이와 성경 해석의 통찰을 존중하며 그의 저술을 인용한다.

1771년 길이 74세의 나이로 런던에서 소천했을 때, 영국의 침례교회들은 한결같이 그를 '침례교 신학의 거인'으로 기렸다. 그의 방대한 저술은 침례교에게 "성경과 신학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신학적 자신감을 심어 주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침례교의 학문적 전통의 기초가 되었다.

물론 길의 저술에는 칼빈주의적 구원론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부분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주의적 논증을 제외한 나머지 그의 모든 주해와 신학적 논의는 놀랄 만큼 깊고 경건하다. 성경을 묵상하며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할 때 길의 글들은 지금도 탁월한 통찰과 영적 유익을 제공한다.

그는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성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했다. 그래서 그의 비(非)칼빈주의적 부분들은 시대를 초월한 성경 묵상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존 길은 침례교 역사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학자였고 침례교의 기본 원리를 신학적으로 정립한 인물이다. 그가 붙들었던 칼빈주의적 구원론은 성경과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저술 전체는 성경의 권위를 높이며 깊이 있는 영적 유산을 제공한다. 우리는 그의 신학 전체를 따르지는 않지만 그가 남긴 성경적 경건과 학문적 성실함은 지금도 귀하게 평가되고 있다.

3. 윌리엄 케리 (William Carey, 1761-1834)

근대 선교의 아버지의 탄생

윌리엄 케리는 침례교 신학이 어떻게 세계 선교의 운동으로 변환될 수 있는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 준 거인이다.

1761년 8월 17일, 그는 영국 노스햄프턴셔의 작은 마을 폴러스퍼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에드먼드는 장로교 배경을 가진 학구적인 직조공이었고 어머니 역시 경건한 신자였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깊은 신앙 속에 있었다.

케리는 14세에 구두 수리공의 견습생이 되어 6년 동안 수련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단순한 기술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 시절 그는 전 세계의 지도, 탐험가들의 보고서, 선주들이 들여오는 바다 건너 이야기들을 탐독했다. 영국

이 제국주의의 팽창기를 지나던 때라 세계 곳곳의 정보가 런던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케리는 그것을 집요하게 연구하며 '세계 선교의 가능성'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이 습관은 훗날 그의 위대한 소명을 결정짓는 밑거름이 되었다.

1785년, 케리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노스햄프턴셔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평생의 동역자인 앤드루 풀러(Andrew Fuller) 목사와 만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두 사람은 훗날 근대 선교 운동을 이끌 침례교 선교회의 핵심 동력이 되었고, "기독교 선교가 가능한가?"라는 당시의 의심을 깨뜨린 신학적, 실천적 논리를 함께 세워 갔다.

기독교인들이 미신도의 개종을 위해 수단을 사용할 의무

1792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언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발표되었다. 31세의 젊은 윌리엄 케리는 「기독교인들이 미신도들의 개종을 위해 수단을 사용할 의무에 관한 탐구」라는 82쪽 분량의 얇은 책자를 공개했는데 그 영향력은 가벼운 책자의 무게를 넘어 세계 역사를 바꾸는 불씨가 되었다.

이 책이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영국 교회에 깊이 자리 잡은 극단적 칼빈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이다. 18세기 영국의 많은 칼빈주의 목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선교할 필요가 없다."

"선교는 인간적이며 불경건한 시도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세계 선교를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까지 말했다.

케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경과 신학, 그리고 이성적 논거를 통해 선교의 당위성을 세 가지 근거로 제시했다.

첫째, 성경적 근거

케리는 예수님의 대위임령(마 28:18-20)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모든 민족들

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말씀은 초대 교회에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선교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다.

둘째, 신학적 근거

케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탁월하게 조화시켰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셨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또한 정하신다. 그 수단이 바로 우리의 순종과 선교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강화한다는 논리였다.

셋째, 실증적 근거

케리는 당시 영국 사회를 향해 현실적인 반문을 던졌다. "영국 상인들은 수천 마일을 건너 인도와 중국까지 가서 무역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가?"

그는 상업은 가능하면서 선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케리의 책은 침례교 안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해 10월, 침례교 지도자들은 결단을 내리고 침례교 선교 협회를 설립했고 그 첫 번째 선교사로 윌리엄 케리를 인도로 파송했다. 이는 근대 개신교 해외 선교의 출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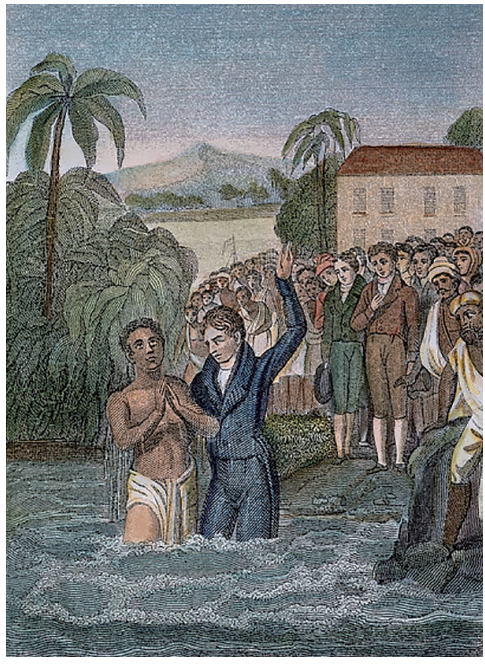
인도에서의 위대한 선교 사역

1793년 5월, 32세의 윌리엄 케리는 가족과 함께 배에 올라 벵골만을 향해 떠났다. 이때부터 그는 무려 41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국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는 그가 선교에 바친 헌신의 깊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인도에 도착한 케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어 연구였다. 그는 하루 12시간씩 벵갈어를 공부했고 불과 1년 만에 벵갈어로 설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 그는 인도 전역의 언어와 방언을 익혀 40개 이상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언어로 성경 전체 또는 일부를 번역했다.

그가 손을 댄 언어만 해도 벵갈어(성경 완역, 1801년), 펀자브어, 오리야어, 아삼어, 마라티어, 힌디어, 산스크리트어 등 당시 학자들도 넘보지 못하던 고난도 언어들이었다.

케리는 단순히 성경 번역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최초로 인도 언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되었다. 1805년에 출간된 그의 「벵갈어 문법」은 이후 수백 년 동안 벵갈어 연구의 기초 교재로 사용되었다. 산스크리트어 관련 저술 역시 서구 학계가 인도 문화를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복음을 받아들인 힌두교 개종자에게 침례를 베푸는 윌리엄 케리

더 나아가 케리는 인도의 고전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힌두교의 대표 서사시인 「라마야나」 등의 번역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기독교 선교가 단순한 '문화 침략'이 아니라 피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문적 노력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했다.

케리는 오늘날 선교학과 인류학이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의 복음화'의 기초를 이미 18세기에 세웠다.

교육의 혁신

1793년부터 케리는 가난한 인도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에 헌신했다. 이 학교에서는 카스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읽기, 쓰기, 산술, 그리고 기독교 진리를 배울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침례교 신학을 인도 땅에서 실제로 구현한 혁명적 행위였다.

1818년, 케리는 세람포르에 세람포르 대학을 설립했다. 이 학교는 아시아 최초의 근대 대학이었으며,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카스트 제도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학위를 수여한 기관이었다. 신학, 과학, 인문학, 지리학을 함께 가르친 이 학교는 단순한 성경 학교가 아니라 서구 대학 수준의 종합 학문 기관이었다.

그 공로가 인정되어 1827년, 덴마크 국왕 프리드리히 6세는 세람포르 대학에 왕실 허가장을 수여했다. 이 허가장은 세람포르 대학을 코펜하겐 대학, 킬 대학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정규 대학으로 인정하는 공식 문서였다. 이는 유럽과 미국 외에는 존재하지 않던 근대 대학이 처음으로 아시아에 세워졌다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사회 개혁

케리는 인도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악습인 '사티'(Sati)의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남편이 죽으면 살아 있는 그의 아내도 함께 화장하는 것으로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희생되는 비극적이고 잔혹한 관습이었다.

케리는 벵갈어에 능통했고 힌두 경전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 그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티가 힌두 경전에 실제로 근거한 종교적 의무가 아님을 밝혀냈다. 또한 현지 최고의 힌두 지도자들과 학자들과 협력하여 이 관습이 왜곡된 전통과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습임을 논증했다.

이러한 꾸준한 연구와 설득, 그리고 개혁 운동의 결과로 1829년 영국 동인도 회사는 사티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결과적으로 케리의 헌신적 노력으로 인해 이후 수십만 명의 인도 여성들이 죽음을 면했다고 추정된다.

침례교 신학이 선교에 미친 영향

케리는 침례교가 강조하는 지역 교회의 자율성, 그리고 회중 정치의 원리가 선교에서 얼마나 강력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실제로 증명했다.

먼저 선교사 파송의 독립성 면에서, 침례교회는 중앙 집권적 조직이나 특정

지도부의 승인에 얽매이지 않았다. 각 지역 교회가 스스로 판단하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고, 이는 선교의 주체가 '일반 성도 회중'으로까지 확장되는 선교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둘째, 케리는 현지 지도자 양육에 깊은 열정을 쏟았다. 그는 인도인 목회자들을 직접 훈련하고 안수했으며 그들을 동역자로 세웠다. 이를 통해 인도 교회는 외국 선교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케리는 철저한 성경 중심 선교를 실천했다. 그는 가장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했다. 이는 침례교 신학의 핵심 원리인 '성경의 절대 권위'를 선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모범적 사례였다.

케리의 전 생애 헌신

케리는 1834년, 73세의 나이로 인도에서 평안히 죽었다. 그의 마지막 글은 짧지만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하는 고백이었다.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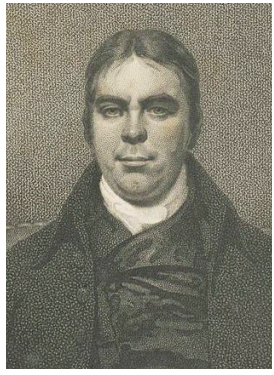
그는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인도 땅에 묻혔고 그의 무덤 역시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

케리가 남긴 유산은 실로 방대하다. 그는 4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 전체 혹은 일부를 번역했고, 아시아 최초의 근대 대학인 세람포르 대학을 세웠다. 또한 사티 철폐 운동을 통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의 생명을 살렸으며 지역 교회 중심의 침례교 선교 모델을 확립해 근대 선교학의 기초를 놓았다.

그가 1834년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세계 선교 운동은 거의 모두 케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발전했으며, 오늘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수백만 명의 침례교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케리가 제시한 선교 모델을 따르고 있다.

4. 앤드루 풀러 (Andrew Fuller, 1754-1815)

신학과 선교의 완벽한 결합


앤드루 풀러

앤드루 풀러는 윌리엄 케리보다 몇 년 앞서 근대 선교의 신학적 기초를 마련한 지도자이며, 케리의 위대한 사역을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한 숨은 영웅이었다. 1754년 캠브리지셔의 작은 시골 마을 위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신학자가 된 놀라운 인물이었다.

16세에 침례교로 개종한 풀러는 17세부터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라틴어와 헬라어를 독학으로 익혔고, 방대한 신학 서적들을 스스로 탐독하며 초대 교회 신학, 종교 개혁 신학, 그리고 당시 논쟁적이던 교리 문제들까지 깊이 파고들었다. 그 결과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동시대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신학적 깊이를 갖추게 되었다.

1782년 풀러는 케터링 침례교회의 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그곳에서 33년 동안(1782–1815) 사역하며, 단순히 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독교 세계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지적·영적 업적을 이루었다.

극단적 칼빈주의에 대한 도전

18세기 중반 영국의 많은 칼빈주의 진영에서는 극단적 칼빈주의라 불리는 왜곡된 신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사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구원받으므로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동일하게 제시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선교는 불필요하며, 영혼 구원을 향한 일반적 권면은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칼빈주의의 본래 신학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었지만 당시 많은 침례교 지도자

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었다. 케리가 인도 선교를 주장했을 때 그를 가장 강하게 반대한 이들도 바로 이러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케리의 선교 비전을 "신학적으로 불건전하다."고 비판했다.

그때 이 흐름을 바로잡은 인물이 바로 풀러였다. 그는 1785년 「모든 자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복음」을 발표하여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논증을 제시했다.

첫째, 성경적 논증이다. 풀러는 신약 성경의 모든 대위임령과 초대 교회의 복음 선포 기록을 검토하며, 성경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구분 없이 모든 죄인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선포했다.

둘째, 신학적 조화를 세웠다. 풀러의 핵심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인간의 자발적 순종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이루시며, 따라서 우리가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셋째, 실천적 논증이다. 풀러는 "만약 선교가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면, 초대 교회는 왜 온 세상으로 나아갔는가? 수많은 순교자들은 왜 생명을 걸고 선교에 헌신했는가?"라고 질문하며 극단적 칼빈주의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 책은 침례교 신학에 혁명적 전환점을 제공했다. 극단적 칼빈주의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이며 건전한 칼빈주의와 세계 선교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신학적 확신이 확립되었다.

선교 협회의 설립과 운영

풀러의 신학적 선언은 즉시 실천으로 옮겨졌다. 같은 해 10월(1792년), 풀러는 윌리엄 케리, 존 라일란드, 존 서틀리프와 함께 침례교 선교 협회를 설립했는데 이는 서방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 조직이었다. 카톨릭 선교사와 다르게, 개신교 신자들이 자신의 종교 신념에 기초하여 조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첫 사례였다.

풀러는 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23년간(1792–1815) 영국에 머물면서 기금 모집, 기도 활동의 조직화, 선교사 관리와 지원, 보고 출판 등의 사역을 감당했다.

신학적 저작을 통한 기초 마련

케리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풀러는 영국에서 신학적 저술을 계속 발표하며 선교의 신학적 토대를 더 견고하게 다져 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복음의 내재적 증거」(The Gospel Its Own Witness, 1799)이다. 이 책에서 풀러는 '복음 자체가 신적 기원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음의 도덕적 순수성, 논리적 일관성, 그리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 모든 요소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스스로 증언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증은 선교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되었다.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한다는 선교적 명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다.

또한 풀러는 「이단의 체계들과 복음의 진리」(Reply to the Systems of False Religion, 1806)라는 저술을 통해 당대에 확산되던 합리주의적, 도덕주의적 신학과 극단적 칼빈주의의 오류를 동시에 반박했다. 그는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모든 사상에 대응하며, 참된 기독교 신앙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글은 선교 운동을 지적 혼란에서 보호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 방파제 역할을 했다.

침례교 신학과 정교분리

풀러는 침례교가 오래전부터 고수해 온 정교분리 원리의 강력한 옹호자이기도 했다. 그는 "국가와 교회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기관이며, 국가의 책무는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주장했다. 두 기관이 뒤섞일 때는 언제나 권력의 오용과 신앙의 타락이 뒤따른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경고였다. 이러한 풀러의 사상은 당시 미국 정치인들, 특히 제임스 매디슨과 토머스 제퍼슨에게도 사상적 영

향을 주었고, 훗날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풀러의 영적 깊이

풀러의 위대함은 그의 신학적 업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영성, 특히 중보 기도의 삶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는 매일 여러 시간에 걸쳐 하나님 앞에 머물며, 무엇보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케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의 설교에는 영혼의 슬픔과 기쁨, 믿음의 싸움과 승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러한 진정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풀러는 병약해진 말년에도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았고 1815년 62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신학적 글쓰기를 계속했다.

1815년 5월 27일 풀러가 생을 마감하자 영국 전역의 침례교회들은 깊은 애도에 잠겼다. 그들은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풀러'의 죽음을 막대한 손실로 여겼다.

풀러의 유산

풀러의 가장 중대한 공헌은 근대 선교 신학의 토대를 세운 데 있다. 그의 신학적 논증은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의 필수성을 정당화하였고, 이는 이후 세계 개신교 선교 운동이 전개되는 기본 방향을 형성하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그는 침례교 선교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며, 조직의 재정·행정·신학적 후방 지원을 책임졌다. 케리가 현장에서 씨앗을 뿌리는 동안, 풀러는 영국에서 그 사역이 지속되고 확장되도록 뿌리를 단단히 붙잡아 준 셈이었다.

풀러의 칼빈주의 신학 체계 역시 그의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다. 그는 극단적 칼빈주의의 오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칼빈주의를 정립했다. 이 신학은 선교의 문을 닫기는커녕 오히려 활짝 여는 신학이었다.

마지막으로 풀러의 영적 지도력은 그의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다.

깊은 중보 기도, 진정성이 깃든 설교, 그리고 일관된 경건의 삶은 그가 단지 이론가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였음을 증명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생애 전체를 기꺼이 헌신했다.

결국 풀러의 유산은 단순한 신학적 업적을 넘어, 근대 선교의 지적·조직적·영적 기반을 구축한 거대한 생애의 결실이었다.

5. 아도니람 저드슨 (Adoniram Judson, 1788-1850)

미국의 첫 외국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국 침례교 전통 자체를 탄생시킨 선교사이며 버마(미얀마)의 기독교 역사를 개척한 영웅이다. 1788년 8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몰든(Malden)에서 태어난 저드슨은 저명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다.

저드슨은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드러냈다. 그는 프로비던스 대학(현 브라운 대학)에서 19세에 수석으로 졸업했다. 젊은 시절, 여행을 좋아했던 저드슨은 극장 공연을 위한 희곡을 쓰며 도시를 전전하기도 했고 뉴욕의 변방 지대로 떠나기도 했다. 그는 무신론자이자 이성주의자였으며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여행 중 묵고 있던 여관에서, 그의 친구 에임스(James Eames)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임종의 순간, 에임스는 "나는 영원히 멸망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날 밤 저드슨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깨어 있으면서 자신 또한 그 친구와 다르지 않은 영적 절망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 이 사건은 저드슨이 20세 전후의 젊은 나이에 겪은 결정적 경험으로, 그의 회심과 이후 선교사로서의 삶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1808년 저드슨은 매사추세츠의 안도버 신학교(Andover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했는데 이 신학교는 당시 회중교회 전통에 서서 보수적 정통 신학을 가르치던 기관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동시에 세계 선교에 대한 소명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선교 소명의 확립

1810년 저드슨과 몇몇 안도버 신학생들은 '형제들'(The Brethren)이라 불린 기도 모임을 조직했다. 이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깊이 논의했으며 그 결실로 미국 최초의 조직적 해외 선교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이후 발전하여 1814년 '미국 침례교 선교 협회'로 이어졌고, 오늘날 미국 침례교 선교 전통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1812년 저드슨은 앤 해슬타인(Ann Hasseltine)과 결혼했다. 앤은 당시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저드슨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보낸 결혼 청원 편지는 외모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당신의 딸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음을 먼저 알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그녀가 이방 땅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 박해를 겪고, 심지어 폭력적인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전제로 이 결혼을 청합니다."

앤의 아버지는 이 편지를 읽고 눈물로 서명했고 딸을 저드슨에게 보냈다.

버마 도착과 침례 개종

1812년 저드슨 부부는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타고 인도로 향했다. 그러나 항해 중에 극적인 신학적 전환이 일어났다. 저드슨은 신약 성경의 침례 기록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가 '신자들만의 침례'라는 성경적 진리를 깨달았다.

배에서 내려 인도 캘커타에 도착한 저드슨 부부는 윌리엄 케리를 만났는데 케리는 이미 세람포르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다. 저드슨은 케리로부터 침례교의 신학과 역사에 대해 배웠고 완전히 침례 신앙으로 개종했다.

1812년 9월 6일, 저드슨은 케리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이 개종은 미국 역사에서 극도로 중요한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저드슨의 개종이 미국 침례교 전통의 직접적인 자극이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저드슨이 침례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침례교의 선교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버마에서의 37년 헌신

1813년 저드슨은 아내와 함께 버마(미얀마)의 랑군(Rangoon)으로 향했다. 당시 버마는 불교 전통이 사회와 정치 전반을 지배하던 나라였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서방 기독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기독교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히 폐쇄적인 상태였다. 실제로 저드슨이 버마에 도착할 무렵, 많은 서구 선교 지도자들은 '버마 사람들은 결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만큼 버마는 선교지로서 가장 어렵고 소망 없어 보이는 땅으로 여겨졌으며 저드슨의 선택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도전적인 결정이었다.

극도로 어려웠던 초기 3년

저드슨은 버마에 처음 도착한 뒤 무려 3년 동안 단 한 명의 버마 사람도 개종시키지 못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 1년을 꼬박 버마어 학습에만 전념했고, 동시에 버마 사회를 지배하던 불교 전통과 종교적 사고방식, 문화 전반을 깊이 연구했다. 이후 그는 매일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대부분은 그를 무시하거나 경계했다. 가시적인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저드슨은 질병과 기아,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야 했다.

이 모든 고난은 아내 앤에게도 가혹하게 다가왔다. 앤은 버마의 열대 기후와 풍토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었고 아이를 낳았다가 잃는 깊은 슬픔까지 경험했다. 그녀는 반복되는 질병과 허약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으며 현지 사회에서는 종종 존엄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여종처럼 취급받

기도 했다. 낯선 땅에서 의지할 곳 없이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고독과 상실의 무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카렌 족의 개종

저드슨의 오랜 노고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카렌 족(Karen people)'이라 불리는 산간 소수 민족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카렌 족은 오랫동안 주변의 불교 문화와는 구별된 전통을 유지해 왔으며, 그들의 고대 전설 속에는 "언젠가 흰 이방인이 거룩한 책을 들고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전설은 세대를 거쳐 구전되며 장차 올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는 기대감으로 남아 있었다.

저드슨이 카렌 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깊이 감동하며,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고 복음은 카렌 공동체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오늘날 미얀마에 존재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바로 이 카렌 족의 후손들로, 저드슨의 인내와 충성이 어떻게 한 민족의 영적 역사를 바꾸었는지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버마 전쟁과 투옥

저드슨의 사역이 점차 번성하자, 버마 정부의 의심과 반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824년, 버마가 영국과 전쟁에 돌입하자 버마 당국은 저드슨을 '영국의 첩보원'으로 의심하며 체포했다. 저드슨이 거듭 "나는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입니다."라고 항의했지만, 전시 상황

기습적으로 체포되는 아도니람 저드슨

속에서 그의 해명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악명 높은 사형수 감옥에 던져졌다. 저드슨은 11개월 동안, 세 쌍에서 다섯 쌍에 이르는 무거운 족쇄에 묶인 채 생활해야 했고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한 동료 수감자였던 그리스 상인이 그의 팔에 기대어 숨을 거두는 경험까지 하게 되었다. 극심한 기아와 고문, 각종 질병으로 그는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다.

훗날 저드슨은 이 시간을 회상하며, "그 고통은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할 만큼 그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극한의 시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헌신이 함께 있었다. 아내 앤은 감옥 밖에 비바람을 겨우 막는 허술한 오두막을 짓고 살며, 날마다 남편을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를 했다. 동시에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버마 당국을 찾아다니며 반복해서 청원서를 제출해 남편의 석방을 호소했다. 저드슨의 옥중 생존 뒤에는, 이처럼 이름 없는 인내와 기도의 사역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버마 성경 번역의 완성

저드슨이 투옥되었을 때, 그의 아내 앤은 자신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저드슨이 작업하던 버마어 성경 번역 원고를 지켜 냈다. 그녀는 원고가 훼손되거나 압수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쌀자루에 담아 현지 조력자에게 맡겨 안전하게 보관하게 했다.

이후 저드슨은 석방되었는데, 이는 무죄 판결의 결과라기보다 버마 정부가 외교적 필요에 따라 그를 풀어 준 결정이었다. 석방된 저드슨은 다시 번역 작업에 매달렸고, 무려 24년에 걸친 노력 끝에 1834년 버마어 성경 번역을 완성했다. 이 번역본은 당시 버마어 문헌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번역으로 평가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미얀마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성경 번역본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1950년대 버마의 불교 총리였던 우 누(U Nu)는 "저드슨의 번역은 너무나 완벽해서 새로운 번역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침례교 신학과 미국 침례교의 탄생

저드슨의 개종과 선교 사역은 미국 침례교 전통의 직접적인 출현을 이끌어 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여정이 아니라 한 교단의 정체성과 사명을 형성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첫째, 1814년 '미국 침례교 선교 협회'의 설립이다. 저드슨의 침례교 개종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그의 선교 동료였던 루터 라이스(Luther Rice) 역시 침례 신앙으로 개종했다. 두 사람의 요청과 호소에 응답하여 미국 침례교회들은 최초로 전국적 차원의 조직 선교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침례교 선교 운동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둘째, '신자 침례'의 성경적 정당성에 대한 실제적 입증이다. 저드슨의 개종은 감정적 결단이나 교단 이동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였다. 이 사건은 신자 침례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교리임을 역사적으로 보여 준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셋째, 세계 선교의 실제적 모델 제시이다. 저드슨이 37년에 걸쳐 보여 준 헌신적인 선교 사역은 미국 침례교회에 강력한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세계 선교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동시에 침례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 주었다.

저드슨의 영적 유산

저드슨은 1850년 1월 12일, 요양을 위해 모리셔스(당시 일 드 프랑스, le de France)를 향해 항해하던 중 배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순간 그가 남긴 유산은 분명했다. 약 3,600명의 버마 사람 개종자, 완성된 버마어 성경 번역, 카렌 족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교회 성장, 미국 침례교 전통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출발점,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책임 의식이었다.

오늘날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저드슨의 사역과 헌신에서 비롯된 영적 유산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다. 저드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성이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충성과

인내로 한 민족과 한 교단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조용한 미국인'(The Quiet American)의 가장 뛰어난 본보기이며, 동시에 침례교 신앙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 상징적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6. 찰스 스펄전 (Charles Spurgeon, 1834-1892)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

찰스 해든 스펄전은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이자, 침례교 신학을 가장 강력하게 설파한 위대한 설교자였다. 그는 1834년 6월 19일, 영국 에식스 주의 켈베던(Kelvedon)에서 태어났으며 회중교회 목사의 손자였다.

스펄전의 회심은 매우 극적이었다. 1850년 1월 6일, 열다섯 살의 소년 스펄전은 눈보라를 피해 우연히 작은 원시 감리교(메소디스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날 그곳에는 목사가 없었고 한 평범한 일반 성도가 대신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는 직업적으로는 목수에 불과했지만 단순하고 진실한 음성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씀이 스펄전의 마음을 깊이 꿰뚫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런던 설교의 폭발적 성장

1852년, 불과 18세의 나이에 스펄전은 런던의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New Park Street Chapel)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임명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명의 일반 성도 설교자에 불과했던 젊은이가 런던에서 제법 규모 있는 교회의 목사로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펄전이 설교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즉시 나타났다.

첫째,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었다. 부임 후 몇 주 만에 예배당은 가득 찼고, 몇 달이 지나자 수천 명이 교회 밖에 서서 그의 설교를 들을 정도가 되었다. 교회는 여러 차례 예배당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회중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둘째, 대중 매체의 집중적인 주목이었다. 1855년부터 스펄전의 설교는 주간 소책자 형태로 「뉴 파크 스트리트 설교」(New Park Street Pulpit)라는 제목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 소책자는 매주 1펜스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고 런던을 넘어 영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후에는 미국까지 배포되었다.

셋째, 설교의 전례 없는 확산이었다. 스펄전의 설교는 주간 단위로 인쇄되어 지속적으로 배포되었고 그 결과 그의 설교집은 19세기 기독교 출판물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는 설교가 단지 강단에 머무르지 않고 인쇄 매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였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의 건설과 사역

1861년, 스펄전은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이었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Metropolitan Tabernacle)로 예배 장소를 옮겼다. 이 건물은 좌석 5,000석과 입석 1,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이었으며 의회의 하원 건물보다도 큰 공간이었다. 건축 비용은 약 31,000파운드로 그 시대 기준으로는 막대한 액수였다.

이 태버내클은 본질적으로 스펄전의 설교 사역을 위해 세워진 교회였다. 그는 매주 주일 아침과 저녁에 두 차례 대형 설교를 전했고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수요일 저녁에도 설교회를 열었다. 그의 설교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런던 전역에서 몰려든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고통과 비극이 함께했다. 이미 1856년 서리 가든스 뮤직홀에서 열린 예배 중, 누군가 "불이 났다."라고 외치

자 군중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7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스펄전은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평생 우울증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반복되는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종종 강단을 떠나 요양이 필요할 만큼 심리적으로 무너졌고 이 비극은 그의 사역 전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스펄전은 지병인 통풍으로 평생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통증은 극심했고 발작이 올 때마다 정상적인 보행조차 어려웠다. 그는 잦은 질병과 탈진으로 설교 일정을 취소해야 했고 요양을 위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도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은 설교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더욱 깊이 설교했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은 단지 대형 교회 건물이 아니라 위대한 설교와 깊은 고난이 함께 어우러진 장소였다. 스펄전의 사역은 외적 성공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그의 생애는 영광과 고통이 동시에 존재했던 목회자의 전형을 보여 준다.

3,600편의 설교와 112권의 저작

스펄전의 설교 생산성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기록적인 수준이었다. 그는 약 38년의 사역 기간 동안 3,600편에 달하는 설교 기록을 남겼고 49권의 주석서와 신학·경건 저작을 집필했다.

또한 1855년부터 1917년까지 매주 설교 소책자가 한 편씩 출판되었는데, 이는 그의 사후까지 이어진 작업으로 약 62년에 걸친 연속 출판이었다. 이 설교들은 총 63권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 설교」(Metropolitan Tabernacle Pulpit)로 묶여 출간되었다.

이 설교 모음의 분량은 제9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7권에 맞먹을 정도로 방대하며 단일 기독교 저자가 남긴 저작 가운데 가장 거대한 규모에 속한다. 더 나아가 이 시리즈는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설교 시리즈로 평가받으며 스펄전이 단지 위대한 설교자에 그치지 않고 인쇄 매체를 통해 전 세계 교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설교 방법의 혁신

스펄전의 설교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하고 혁신적이었다.

첫째, 철저한 준비와 즉흥성의 결합이다. 스펄전은 설교를 위해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거쳤고 핵심 개요와 노트를 작성했다. 그러나 강단에 오를 때는 간단한 노트 카드만을 들고 원고를 읽지 않고 즉흥적으로 설교했다. 그럼에도 그의 설교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구조와 논리가 분명하며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

둘째, 속기 체계의 적극적 활용이다. 스펄전은 여러 명의 속기사를 고용해 설교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게 했고 다음 날이면 그 원고를 직접 검토하고 최소한의 교정을 거친 뒤 곧바로 인쇄소로 보냈다. 이 방식은 설교를 거의 즉시 대중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실시간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 배포에 비견될 만큼 선구적인 시도였다.

셋째, 깊이 있는 신학과 평이한 언어의 결합이다. 스펄전의 설교에는 정교하고 탄탄한 신학적 사고가 담겨 있었지만 표현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성도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 그는 런던의 가난한 노동자들조차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화와 실제적인 교훈을 풍부하게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설교는 지적 깊이와 대중적 전달력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다.

신학적 영향 – '하강 논쟁'

스펄전의 가장 위대한 신학적 공헌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하강 논쟁'(Downgrade Controversy)에서 침례교의 성경 중심 신학을 단호하게 지켜낸 것이다.

19세기 후반, 영국 신학계에는 독일에서 발전한 그래프-벨하우젠 가설(Graf-Wellhausen Hypothesis)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이론은 성경이 여러 시대의 저자들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기적과 초자연적 요소를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이 일부 침례교 신학자들과 지도자들 사이에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1887년, 스펄전은 공개적으로 "기독교는 하강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신학적 흐름을 단순한 학문적 차이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보았다. 스펄전은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는 신학은 영혼을 새 생명으로 재생시킬 수 없다."고 말했으며, 나아가 "확신 없는 신앙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결국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으로, 자신이 목회하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을 침례교 연합에서 탈퇴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신학적·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스펄전에게는 제도적 연합보다 성경의 진실성과 무오성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다.

이러한 스펄전의 입장은 당대에는 고립을 초래했지만 이후 20세기에 전개된 근본주의 논쟁(Fundamentalist Controversy) 속에서 중요한 신학적 선례와 정당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대가를 치른 설교자였으며 그 결단은 오늘날까지도 침례교와 복음주의 신앙의 기준점으로 남아 있다.

스펄전의 성경관과 킹제임스 성경 옹호

19세기 후반 영국은 외형적으로 기독교 문명의 절정기에 이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성경 자체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독일에서 시작된 고등 비평과 인본주의적 성경관이 영국 신학계로 유입되며,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 종교 의식의 산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었다.

스펄전에게 성경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 전체를 떠받치는 절대 기준이었다. 그는 "성경의 영감을 가장 강한 의미에서 믿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며, 교리적 타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에 대한 충분한 믿음의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성경의 권위를 한 걸음이라도 양보하는 순간, 교회는 나침반과 닻을 동시에 잃고 시대사조에 떠밀리게 된다. 그는 설교자를 성경 위에 자기 해석을 덧붙이는 해설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로 보았다. 설교자가 자기 사상이나 시대정신을 성경 위에 올려놓는 순간, 강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의견을 포장하는 연단으로 전락한다.

1881년에 출간된 '영국 개역 성경'(Revised Version, RV)은 단순한 번역 개정판이 아니었다. 오히려 성경의 최종 권위를 교회에서 학계로 이동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스펄전이 보기에 이는 기존 성경의 표현을 다듬는 개정이 아니라, 학문적 가설을 기준으로 본문 자체를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었다. 말과 문장을 다듬는 수준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다.

그가 남긴 경고는 날카롭다. "RV 개정자들은 성경의 번역을 고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학자들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의심과 비평에 노출되고, 결국 극소수의 학자들만이 '이것이 성경이다, 저것은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그러면 평범한 성도들과 교회는 스스로 성경을 믿고 읽는 주체가 아니라, 그들의 판단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스펄전이 우려하는 핵심은 분명하다. 인본주의 불신 학자들의 끝없는 성경 본문 수정과 비평 속에서 성도들은 성경을 직접 믿는 위치에서 밀려나고, 소수 학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번역 문장의 세련됨이나 현대적 표현 채택 여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왔는가라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정면으로 흔드는 문제였다. 교회는 사도 시대 이후 약 1,800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어 온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해 왔다. 이 본문은 특정 지역이나 시대, 혹은 소수 학자 집단이 임의로 선택한 본문이 아니다. 장구한 교회사 속에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예배와 설교와 교리 형성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존되어 온 본문이다.

바로 이 공인 본문에 근거하여 '1611년에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KJV)은 단순히 영어권 번역본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

로 받아들이고 신뢰해 온 본문을 충실히 옮긴 성경이었다. 이 성경을 통해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 교리 체계가 정립되었고 성경적 설교와 목회가 뿌리를 내렸다. 또한 이 성경은 세계 선교 운동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성경을 들고 강단에 섰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다 죽음에 이르렀다.

KJV의 이러한 역사적 사용은 결코 우연이나 관습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인도해 오셨다는 강력한 역사적 증거이다.

이러한 역사적 정통성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소수의 학자들이 '더 오래된 사본', '더 초기 형태로 추정되는 본문'이라는 순수 가설을 앞세워, 교회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해 온 성경을 다시 재검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 시도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려는 겸손한 연구라기보다, 교회가 이미 신뢰해 온 성경을 학문적 판단 아래 재편성하려는 시도에 가까웠다.

그 결과 성경은 더 이상 교회의 공적 신앙 위에 굳게 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수정과 재구성을 전제로 한 연구 대상, 곧 학문적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회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은 확정된 계시가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되고 수정되는 유동적 본문이 되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 학자들의 주석과 "더 좋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설명 앞에 서게 되었다. 사실 이것은 현시대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1881년 이전에는 과연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가?" "사도 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종교 개혁 시대와 청교도 시대를 거쳐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불완전한 성경을 붙들고 예배하고 설교하며 선교해 왔다는 말인가?" "루터와 칼빈, 수많은 개혁자들, 청교도들과 이름 없이 죽어 간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고 생명을 내놓았다는 말인가?"

더 나아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면서, 정작 가장 핵심적인 계시인 말씀은 수백 년 동안 불완전한 상태로 방치해 두셨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소수 학자들의 손을 통해 비로소 회복하셨다는 말인가?"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적 보존에 대한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주신 뒤 그것이 소실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낳으셨고, 그 교회를 통해 다시 그 말씀을 보존해 오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실제로 사용해 왔고, 설교해 왔고, 믿어 왔으며, 생명을 걸고 지켜 온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시대, 특정 학문 체계, 특정 소수 집단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다면, 그 순간부터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에 좌우되고 만다.

RV의 그리스어 본문은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가 편집한 비평 본문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몇 개의 소수 사본, 즉 로마 카톨릭 전통과 깊이 연결된 사본들을 과도하게 중시했다. 그 결과, 교회 역사 전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설교되어 온 다수 본문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참고로 NIV, ESV 등 대다수 현대 역본들도 비평 본문을 근간으로 번역되었다.

웨스트코트(왼쪽)와 호르트

본문 비평의 이면에는 단순한 필사학적 판단을 넘어서는 신학적 전제가 깔려 있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교회의 역사적 사용을 본문 권위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초기 형태로 추정되는 텍스트'라는 학문적 가설을 절대화했다. 이 접근은 성경의 보존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 학문의 성취로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성경관을 떠올리게 된다. 오웬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처음에 영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모든 시대에 교회를 위해 보존되어 왔다고 보았다. 그는 성경

본문을 소수 학자의 판단에 맡기는 발상을 단호히 거부하며, 교회 전체가 실제로 사용해 온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펄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학문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천주교 소수 비평 본문이 강단으로 직행하면서 설교자의 확신을 잠식하는 방식을 엄중히 경계했다. 설교자가 반복해서 "이 구절은 더 좋은 사본에는 없다", "이 부분은 후대 삽입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결국 특정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의심하게 된다.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복원된 문헌'이 되는 순간, 믿음은 설 자리를 잃는다. 스펄전은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보았다.

스펄전의 성경관은 단순한 보수적 취향이 아니라, 교회론적이고 신앙적인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을 뿐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존해 오셨다. 교회가 실제로 사용해 온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소수 학자의 추정과 가설 위에 새롭게 구성된 본문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스펄전의 입장은 분명하다. 킹제임스 성경은 공인 본문 위에 서서 교회를 통해 검증되고, 설교되고, 믿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이며, 1881년 이전의 교회는 온전한 말씀이 존재하지 않던 암흑기에 머무른 적이 결코 없음을 분명히 증언한다. 그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전 세계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는 문제는 단순한 번역 논쟁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와 실천

스펄전은 단지 뛰어난 설교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천한 영적 지도자였다. 그는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과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할 진리로 이해했다.

첫째, 노예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스펄전은 미국의 노예 제도를 '기독교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남부 침례교 진영으로부터 설교 원고 구매 거절과 협박성 편지까지 감수해야 했지만, 그는 경제적 손실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그의 반노예제 주장은 신학적 신념에 근거한 도덕적 용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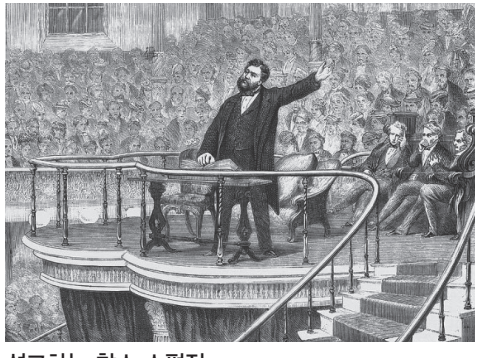
둘째, 사회 복지 사역을 실천했다. 스펄전은 런던의 빈곤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고 직접 스톡웰 고아원(Stockwell Orphanage)을 설립해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았다. 이 외에도 여러 자선 기관과 교육 시설을 세워 복음이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닿아야 한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셋째, 목회자 양성에 헌신했다. 스펄전은 당시 신학교들이 지나치게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스펄전 대학'(Spurgeon's College)을 설립했다. 이 학교는 학벌이나 재정적 배경이 아니라 소명과 인격, 성경에 대한 헌신을 기준으로 가난하지만 부르심이 분명한 청년들을 목회자로 훈련시켰다. 이 대학은 오늘날까지도 존속하며 스펄전의 목회 철학과 신앙 유산을 이어 가고 있다.

이처럼 스펄전의 사역은 설교, 사회 정의, 구제, 교육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기독교적 삶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그의 영향력은 강단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스펄전의 영적 깊이

스펄전의 설교가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단지 신학적 깊이에만 있지 않았다. 그 핵심에는 깊은 영적 진정성이 있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며, 스스로 "내가 설교 외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설교하는 찰스 스펄전

스펄전이 말한 '매일 몇 시간의 기도'가 특정 시간표에 고정된 경건 훈련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설교 준비와 목회 사역 전반에 스며든,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의 삶을 의미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은 그의 설교에 그대로 스며들어, 말씀을 단순한 전달이 아닌 영혼을 향한 호소가 되게 했다. 그의 설교에는 차가운 논증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과 간청이 담겼고, 죄인들을 향한 절실한 마음의 부르짖음이 살아 있었다.

스펄전의 유산

1892년 1월 31일, 스펄전은 58세의 나이로 런던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장례식은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고 이는 영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종교 행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었다.

스펄전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분명히 살아 있다. 약 3,600편에 이르는 설교는 여전히 읽히는 기독교 고전으로 남아 있으며,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은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이다. 그가 설립한 스펄전 대학 역시 여전히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로 사명을 이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침례교 전통 안에서 성경 중심 신학을 지켜 낸 설교자로 기억된다.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스펄전의 설교를 읽고 연구하며, 때로는 그것을 본받으려 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의 설교에는 신학적 깊이와 성경적 정확성, 영혼을 향한 진지한 관심, 그리고 탁월한 표현력이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펄전은 단지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와 삶, 신학과 실천을 함께 보여 준 침례교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7. 말콤 펜윅 (Malcolm Fenwick, 1863-1935)

한국 침례교의 설립자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은 한국 침례교의 실질적 설립자이자, 아시아에 침례교 신앙을 뿌린 개척 선교사였다. 그는 1863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

마컴(Markham)에서 태어나 캐나다 침례교 선교 전통 속에서 성장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한국과 같은 극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적 소명을 품고 있었다.

말콤 펜윅

펜윅은 처음에는 캐나다에서 목회 사역을 했으나 1889년, 불과 26세의 나이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는 일생을 한국에 헌신하기로 결단했고 실제로 1889년부터 1935년까지 46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며 이 땅에 침례교의 기초를 놓았다.

한국 선교의 극도로 어려운 상황

펜윅이 한국에 도착한 1889년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 중 하나였다.

첫째, 정부 차원의 기독교 배척이었다. 조선 정부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경계했고 선교 활동은 공식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신자들 역시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었다.

둘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었다. 1890년대부터 일본의 한반도 침투가 본격화되었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뒤 1910년 결국 일본에 병합되었다.

셋째,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였다. 특히 일제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민족의식과 결부되어 의심받았고 일본은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에 저항하며 신앙의 시험을 겪어야 했다.

'사업 선교'의 독특한 모델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펜윅은 '사업 선교'(Business Mission)라는 독창적인 선교 방식을 개발했다. 그는 선교 활동과 분리된 경제 활동이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를 선교의 장으로 활용했다. 펜윅은 직접 세라믹 제조업을 운영하

고 무역에 참여했으며 현지인들과 고용·거래 관계를 맺어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그는 선교 재정을 자립시켜 선교 본부나 외부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고 정치적·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 활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현지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 펜윅은 사업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았으며 일상의 대화와 삶의 교류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방식은 공식적인 선교가 제한되던 상황에서도 복음이 삶의 자리에서 전달되게 했고 신앙이 외래 사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이러한 '사업 선교'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으며, 오늘날 말하는 자비량 선교의 선구적 모델로 평가된다.

한국 교회의 자립·자치·자전 원리 실천

펜윅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침례교 신학의 핵심 원리 — 지역 교회의 자율성, 회중 정치, 신자들의 자발적 참여 — 를 한국 교회 현실 속에 실제로 적용한 것이었다.

첫째, 지역 신자들의 신속한 리더십 양성이다. 펜윅은 한국 신자들을 단순한 보조자나 피선교인이 아니라 곧바로 설교자와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힘썼다. 이는 선교사가 교회의 유일한 영적 권위로 군림하던 당시의 일반적인 선교 패턴을 근본적으로 깨뜨린 결정이었다.

둘째, 회중 정치의 실제적 실천이다. 펜윅이 세운 교회들은 처음부터 회중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비록 초대 한국 교회의 신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배의 형식, 헌금의 사용, 지도자의 선출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결정했다.

셋째, 현지 문화와의 조화로운 접목이다. 펜윅은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했으며 예배 속에 한국적 음악과 기도 방식을 자연스럽게 포함시켰다. 그의 설교 또한 한국인의 이해 수준과 감정을 고려해 전달되었고, 이는 복음이 외래

사상이 아니라 자국 문화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침례교 신학과 한국 기독교의 영향

펜윅은 '신자 침례, 자발적 신앙 공동체, 개인의 회심'이라는 침례교의 핵심 신학을 한국에 분명하게 전했다. 이는 당시 한국 선교의 주류를 이루던 다른 기독교 전통 — 예를 들어 감리교의 방편적·제도 중심적 접근 — 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입장이었다. 펜윅에게 신앙은 제도에 소속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성경 말씀 앞에서 회심으로 응답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신학은 그의 성경 사역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펜윅은 한국 신자들이 교회나 선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고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성경 번역과 보급에 깊이 관여했으며 한국 교회 초기에는 흔히 '펜윅 성경'으로 불리는 성경 본문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직설적인 문체로 개인 성경 읽기와 회심 중심 신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한국 침례교는 초대부터 성경 중심, 회심 중심, 개인 신앙 중심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형성했다. 구조적으로도 한국 침례교는 '선교사 중심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현지 신자들이 주체가 되는 교회로 세워졌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 침례교의 가장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일제 시대의 신앙 투쟁

1910년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한국 기독교는 극도의 시험에 들어갔다. 일본 제국은 신사 참배를 강요하며 기독교 신앙을 압박했고, 선교사들의 언론·출판 활동을 제한했으며, 기독교 신자들의 이른바 '민족주의적 성향'을 면밀히 감시했다.

노년에 접어든 펜윅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한국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영적

으로 격려하며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권면했다. 또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학 교육과 지도자 양성을 계속 지원하며 한국 교회의 자립을 뒷받침했다.

기록에 따르면, 펜윅이 세운 교회의 한국인 신자들 가운데는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끝까지 저항한 이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다가 기독교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 이는 펜윅이 심어 준 성경 중심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실제적인 믿음의 힘으로 작동했음을 보여 준다.

한국 침례교의 다양한 분파

펜윅이 세운 초기 한국 침례교는 이후 역사적·제도적 전개 과정 속에서 여러 교단과 분파로 나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한국침례회(Christian Korean Baptist Association), 대한예수교침례교회(Korean Baptist Church), 기독교한국침례회(Christian Korean Baptist Denomination) 등 다양한 침례교 교단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펜윅이 세운 초대 교회의 영적 후손이며 성경 중심, 회심 중심, 교회 자치라는 그의 신학적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펜윅의 신학적 입장

기록에 따르면, 펜윅은 일관되게 근본주의적(Fundamentalist) 신학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성경을 단순한 신앙 문서가 아니라 완전한 영감과 무오성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으며, 모든 교리와 교회 실천의 최종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신념 아래 그는 신자 침례의 성경적 필연성을 분명히 주장했고 침례가 교회 전통이나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개인의 회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성경적 순종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어떤 외부 제도나 교단 권위보다 지역 교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력히 옹호했다.

이러한 펜윅의 신학적 입장은 한국 침례교의 형성 과정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 결과 한국 침례교는 초대부터 성경 중심, 신앙 중심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교회의 권위는 조직이나 인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자들의 양심에 있다는 원리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 신학적 유산은 이후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침례교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해 왔다.

펜윅의 유산과 의의

1935년, 펜윅이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을 때, 한국 침례교는 이미 수백 개의 교회와 수만 명의 신자를 가진 공동체로 성장해 있었다. 오늘날 한국의 침례교인은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들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펜윅의 영적 유산에서 비롯된 신앙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다.

펜윅의 가장 큰 공헌은 침례교 신학이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도 충분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음을 몸소 입증한 데 있다. 그는 선교사에게 의존하는 교회 구조가 아니라 한국인 신자들이 주체가 되는 교회를 세웠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침례교가 '성경 중심, 신앙 중심, 자발성 중심'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이끌었다. 더 나아가 그는 '사업 선교'라는 혁신적 선교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을 제시했다. 비록 펜윅은 미국 침례교 역사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조명받지 못했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 침례교라는 하나의 교단 전체가 곧 그의 선교적 헌신과 신학적 유산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8. 아이작 포스터 (Isaac F. Foster, 표수다, 1923-2010)

한국 성서침례교회의 첫 개척 선교사

아이작 F. 포스터(Isaac F. Foster, 한국명 표수다) 선교사는 1923년에 출생하여 2010년에 소천한 미국 근본주의 침례교 선교사로서, 한국 성서침례교

회의 첫 개척 선교사이자 한국 근본주의 성서침례 운동의 실질적 출발점이 된 인물이다. 그는 단순히 한 교회를 세운 선교사가 아니라 성경 무오, 신자 침례, 지역 교회 자치, 분리의 원리라는 침례교 신학을 한국 교회 현실 속에 구조와 제도로 구현한 개척자였다.

특히 포스터의 사역은, 독립침례교회 전통 안에서도 책임 있는 파송과 지속적인 해외 선교가 가능함을 실제 역사 속에서 입증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교회사적 의미를 지닌다.

출생과 근본주의 침례교적 배경

포스터는 1923년 미국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성서침례친교회(Bible Baptist Fellowship International, BBFI) 계열 근본주의 침례교회 전통 속에서 신학과 선교 훈련을 받았다. 이 전통은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분명한 신학적 선을 긋고, 성경의 완전 영감과 무오성, 개인의 회심에 기초한 신자 침례, 그리고 교단보다 지역 교회를 우선하는 교회론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훗날 포스터가 한국에서 중앙 집권적 교단을 세우기보다 자립적인 지역 교회들의 연속과 친교를 통해 사역을 확장하게 만든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한국 선교 소명과 공식 파송

포스터는 초기 일본 선교 경험을 거쳐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상황을 접하면서 한국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전쟁 직후 W. E. 다웰(W. E. Dowell) 목사가 그에게 300달러를 보내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포스터는 전쟁의 참상과 영적 황폐함을 직접 목격한 뒤 한국 선교를 평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1954년 11월 18일,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인근 화이트 세틀먼트에 위치한 캐슬베리 침례교회(Castleberry Baptist Church)에서 선교사 부부로 공식 파송을 받았다. 성서침례교회 연혁 자료와 이후의 각종 기념 집회 기

록들은 이 파송을 한국 성서침례교회 역사의 공식적 출발점으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한국 입국과 개척 중심의 초기 사역

포스터 선교사는 1954년, 6·25 전쟁 직후의 혼란과 가난 속에 있던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처음부터 대형 집회나 제도 구축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영혼 구원 – 침례 – 훈련 – 파송이라는 단순하지만 성경적인 선교 원리에 따라 사역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영어 학원 사역을 통해 미군과 한국인들을 자연스럽게 모았고 이 만남의 장을 개인 전도와 성경 공부의 통로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첫 회심자가 된 김대현은 통역자로 시작해 곧 제자이자 동역자로 성장했으며 이후 한국 성서침례교회의 첫 안수 목회자로 세워졌다. 김대현은 포스터의 신학과 사역 철학을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개척 교회들과 지역 확장 사역

1954년 서울 충정로에서 미군과 한국인 6명이 모여 조직한 '성서침례교회'(Bible Baptist Church)는 한국 성서침례교회 운동의 공식적인 출발점이었다. 이후 포스터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267-9번지(약 722평)의 대지를 구입해 가족과 함께 이주했고 선교사 사택 다락방 예배로 교회를 시작했다. 이 작은 가정 예배 모임이 오늘날 행당동(왕십리) 성서침례교회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었다.

그는 주일 학교 건물을 신축해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어린이·청소년 중심의 주일 학교 사역을 정착시켰고, 이를 통해 회심과 침례, 제자 훈련으로 이어지는 성서침례교회의 전형적인 성장 구조를 한국에 심었다. 이후 종암성서침례교회, 검암성서침례교회의 개척과 재정비를 통해 서울·인천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했다.

또한 포스터 선교사의 사역은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고, 경상도 지역과 부산으로도 확장되었다. 특히 경남과 부산은 전쟁 이후 복음 전도의 필요가 크고

교통·인구 측면에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포스터는 이 지역에서 성서침례교회의 신학과 교회 개척 노선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서침례교회 내부 증언에 따르면, 그는 BBFI에서 파송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부산과 경상도 지역의 교회 개척자들과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교류하며, 성경 무오와 신자 침례, 교회 자치라는 침례교적 원리가 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또한 부산에 성서침례교회 친교회의 목회자 훈련과 신학교 사역이 형성되던 시기, 포스터 선교사는 직접적인 설립자 역할을 맡지는 않았지만, 그가 세운 교회들과 양성한 목회자들, 그리고 그가 강조한 근본주의 성경관과 교회론은 부산 지역 사역의 신학적 방향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영향은 특정 기관의 명칭보다 사람과 신학을 통해 전해진 영향력이었으며, 이는 독립침례교회 전통이 갖는 비제도적 확산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인 목회자 양성과 교회 이양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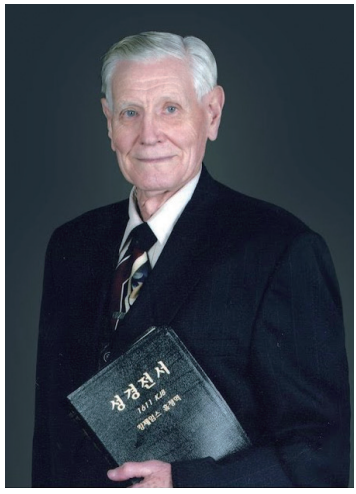
포스터의 선교 전략에서 중요한 원칙은 교회가 선교사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장기적으로 붙들기보다 준비된 한국인 목회자에게 담임직을 이양했다.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의 강인규 목사는 회중의 청빙을 받아 2대 담임 목사로 섬기며 교회를 한국인 중심의 자치 교회로 정착시켰다. 또한 강교구 목사를 비롯한 여러 한국인 목회자들이 포스터의 사역 속에서 훈련받아 이후 전국 성서침례교회 친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후배 목회자들을 양성하며, 포스터가 심어 놓은 신학적 노선을 계승했다.

킹제임스 성경 옹호와 성경관

포스터 선교사의 사역 중심에는 성경 영감, 무오, 보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는 공예배 설교와 성경 교육에서 킹제임스 성경(KJV)을 기준 본문으로 사용했고, 성경을 신앙의 참고 자료가 아니라 유일한 최종 권위로 가르

쳤다. 그는 시편 12편 7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을 반복해서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에서 세대로 보존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이러한 성경관은 한국 성서침례교회 안에 킹제임스 성경 중심 신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후 한국어로 번역된 킹제임스 계열 성경 번역을 수용하고 옹호하는 토대를 제공했다.



평소 사용하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든 생전의 포스터(표수다) 선교사

독립침례교회 전통 속 선교의 역사적 의의

포스터 선교사의 사역은 교단 중심·총회 중심 구조 없이도 독립침례교회 전통 안에서 책임 있는 파송, 신학적으로 일관된 선교, 지속적인 교회 개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사 속에서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는 중앙 집권적 조직이 아니라 성경 – 지역 교회 – 헌신된 성도라는 침례교의 기본 요소만으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실증했다.

아내와 함께한 삶, 그리고 한국에 뼈를 묻은 헌신

포스터의 사역에는 항상 아내의 헌신적 동역이 함께했다. 이 부부는 한국을 임시 파송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맡긴 사역지로 받아들였다. 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한국에서 소천했다. 그의 장례는 한국 성서침례교회 전국 친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친교회 안에서는 그를 '캐슬베리 침례교회에서 파송받아 한국에 와 뼈를 묻은 선교사'로 기억한다.

평가와 유산

아이작 F. 포스터(표수다)는 대형 교단을 세운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 땅에 성경 무오, 신자 침례, 교회 자치, 분리의 원리를, 규모는 작지만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워 갔다. 그의 유산은 숫자나 조직이 아니라 성경 중심 신앙을 지키는 독립적 지역 교회들과 이를 이끄는 한국인 목회자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표수다 선교사는 한국 성서침례교회사에서, 그리고 독립침례교 선교 역사 전체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초를 놓은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결론 - 침례교 인물들의 공통 신학적 유산

존 번연에서 아이작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이 여덟 명의 인물들은 침례교 신학이 얼마나 일관되고 실천적이며 시대를 초월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번연과 길은 신학적 기초를 놓았고, 케리와 풀러는 그것을 세계 선교로 확장했으며, 저드슨과 스펄전은 삶과 사역으로 이를 입증했고, 펜윅과 포스터는 마침내 그 유산을 한국 땅이라는 선교의 현장에 옮겨 심었다.

이들은 모두 성경의 절대 권위를 견지했고 신자 침례와 개인의 회심을 강조했으며, 지역 교회의 자율성과 회중 정치를 실천했고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옹호했다.

이 다섯 가지 기둥은 침례교 역사를 관통하며, 신약의 정신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운동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이들의 삶과 사역은 침례교가 단순한 역사의 부산물이 아니라 성경이 명하는 신앙의 회복임을 증언한다.

부록 2

죽음으로 지킨 진리
침례(Baptism)/ 침례 성도(Baptists)

침례(Baptism)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세례를 주고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침례를 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와 세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저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 행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침례냐 세례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천주교의 영향으로 기존의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침례의 참된 의미가 가려졌으며 심지어 성경 구절 자체가 삭제되어 진리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부디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주 예수님의 진리인 침례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순교한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무엇을 주저하는가? 사람과 전통을 따르려는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따르려는가? 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성경대로 바르게 행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니라. (요 15:14)

침례인가, 세례인가?

한글 개역(개정)성경에서 '세례'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밥티조'(baptizo, 스트롱 번호 907번), '밥티스마'(baptisma, 908번), 그리고 '밥티스테스'(Baptistes, 910번) 등이다. 이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 '밥토'(bapto, 911번)에서 나왔으며, 신약 성경에 총 115회 사용되었는데 용례별로 살펴보면 동사 '밥티조'가 77회, 명사 '밥티스마'가 23회,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밥티스테스'가 15회 쓰였다.

한편 개역(개정)성경과는 달리 「바인의 신약성경단어사전」, 「국제표준성경백과사전」, 「엉거의 성경사전」, 「스트롱의 용어색인」 등 기독교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참고 문헌들과 신학적 편견 없이 영어 단어 자체의 뜻을 가장 잘 보여 주기로 정평이 나 있는 「옥스퍼드 영어사전」 등의 세속 문헌들은 한결같이 이 단어들의 바른 의미가 '물을 뿌리는 세례'(sprinkling)가 아니라 '물속에 담그는 침례'(immersion)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처럼 어원 자체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한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로 번역되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침례 대신 세례를 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게 되었을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유독 중국, 일본, 한국 성경에만 이 단어들이 세례로 번역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 침례가 세례로 바뀐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진출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논리를 따라 세례가 옳고 침례는 그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국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침례를 시행하는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침례가 맞고 세례는 틀린 것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실까? 침례는 중요한 성경의 교리일 뿐 아니라, 성경 본문 전달 과정에 악한 세력이 개입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므로 성경에 근거해 바르게 침례를 이해해야 한다. 성경대로 행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이 문제 역시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성도들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 그 기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

성경의 침례

침례를 주려면 몸이 완전히 잠길 만큼의 많은 물이 필요하지만 세례를 주는 데는 많은 물이 필요 없다.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많은 물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으니 (요 3:23)

침례를 받으려면 많은 물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야 하지만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가져와도 된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르매 (행 8:36)

침례를 받으려면 직접 '물속으로'(into the water) 내려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행 8:38)

침례는 '강 속에서'(in Jordan) 받으나 세례는 그렇지 않다.

[그들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마 3:6)

침례를 받은 뒤에는 '물속에서'(out of the water) 나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침례 이후에]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행 8:39)

성경은 한결같이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

며 불 침례와 성령 침례 역시 '잠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참으로 나[침례자 요한]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 분[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마 3:11–12)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성령 침례가 곧 불 침례이므로 뜨거운 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침례자 요한은 결코 그러한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문맥과 함께 이 구절을 읽어 보면 성령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곳간,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 침례를 받는 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에서 침례, 즉 '몸 전체가 잠기는 것'과 세례, 즉 '이마에 뿌리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성령 세례를 받아 이마에만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서 과연 이마에만 불이 붙을까? 성경은 침례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온몸이 물속에, 성령님 안에, 불 속에 잠기는 것'임을 보여 준다.

침례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death)과 장사(burial) 그리고 부활(resurrection)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특별히 성도들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임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규례이다.

세례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즉 사망과 매장과 부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골 2:12)

세례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상징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전

혀 드러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롬 6:3-4)

세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이 옷 입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는 진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 3:27)

침례의 대상

어떤 이들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침례 중생' 교리를 믿고 가르친다. 특히 유아 세례를 주는 천주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의식을 통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 중생'을 지지하지 않으며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 자신의 다시 태어남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및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보인다고 말한다. 즉, 믿고 다시 태어난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 그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행 8:12).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 주며 이 과정에서 초대 교회가 어떤 일을 실행했는지 보여 준다.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이때 처음으로 빌립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이 자세히 나온다(26-40절).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장면에서 개역(개정)성경은 이상하게도 37절을 삭제

한 후 '없음'이라고 표기했다. 원래 이 구절이 없었다면 그다음 구절들이 한 절씩 앞으로 올라가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군가가 자신의 교리나 신학을 세우기 위해 고의로 이 구절을 삭제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 구절은 도대체 무엇인가? 36절에서 내시는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이 37절에 나오고 내시는 그 답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한다.

물이 나타나자 병거에서 내려 침례를 거행하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행 8:37)

이 장면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친히 37절을 기록하셨다. 즉,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명확한 근거로 인해 초대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침례를 받아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교도들의 믿음과 연합한 천주교가 생겨났다. 중세 암흑시대를 주도한 천주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자신들의 체제하에 가두기 위해 유아 세례라는 비성경적 관행을 도입하여 믿음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고는 어려서부터 천주교인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행 8:37의 말씀이 이러한 비성경적 관행에 큰 걸림돌이 되었기에 그들은 과감히 성경 본문에서 이 구절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개역(개정)성경,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Message 등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근거한 역본들에서는 이 중요한 구절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바른 본문에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 구절을 잘 보존하여 천주교의 유아 세례 교리가 허구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구절이 없으면 문맥이 통하겠는가?

침례의 시기

천주교에서는 어른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교리 문답서' 공부를 위한 일정한 학습 기간을 두는 전통을 세워,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세례를 준다. 또한 천주교인들은 세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7대 성사' 중 하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가 아닐뿐더러 구원이나 은혜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엡 2:8-9).

성경은 이러한 천주교의 관행과는 달리 누구든지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믿음 고백과 함께 즉시 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6장의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믿는 즉시 침례를 받았으며(13-14절) 같은 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다.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 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 (행 16:33)

침례의 방법

앞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은 요르단 강에서, 어떤 사람은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는 몸을 담글 수 있는 곳이라면 강이든 호수든 바다든 침례탕이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침례가 교회의 회원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자라면 누구나 침례를 줄 수 있으나 지역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목사나 혹은 교회에서 정한 성도가 침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침례를 행할 때 침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편한 옷을 입은 채 물속에 들어가고 침례를 주는 사람은 먼저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간단하게라도 믿음의 고백을 요청한다. 침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침례를 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침례를 준다.

"○○○ 형제/자매님의 믿음 고백과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같이 죽었다가"(In the likeness of His death)라고 말하면서 침례받는 사람을 뒤로 눕혀 물속에 잠근 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같이 살아났습니다."(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라고 말하면서 그를 물속에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해서 이 형제/자매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매장되었고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이로써 복음의 진수가 시청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언된다.

침례는 명령이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산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 14:21)

예수님의 명령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침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마 28:19)

주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불순종의 죄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약 4:17)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면 침례교인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한 좋은 크리스천이 된다. 중세 암흑시대의 절정기에 종교 재판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 당시 천주교 사제는 종교 재판소에 끌려온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물로 뿌리는 유아 세례가 맞는가, 아니면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맞는가?" 사제의 이 질문에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맞는다."라고 대답한 이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손을 뒤로 묶인 채 물속에 던져져서 수장되었다. 이렇듯 진리를 지키려고 고난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바른 성경, 바른 진리가 전해지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의 수를 따라 전통대로 세례를 고집하겠는가? 아니면 성경대로 침례에 순종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는 무효임을 깨닫기 바란다. 필자 역시 전통대로 세례를 받았으나, 후에 성경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침례를 받았다. 잘못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행 19:1–5). 이처럼 귀중한 침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침례 성도(Baptists)

21세기 교회 현황

한국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 크리스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수적 열세와 카톨릭교회 그리고 중국어 성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침례(浸禮)가 아닌 세례(洗禮)로 표기된 성경

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국민성이 유대인들처럼 획일적이고 율법적인 면이 있어서 자기와 다른 것을 잘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침례교회라고 하면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또 실제로 많은 이단 교회들이 침례교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을 현혹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바르게 행하는 침례교회들마저 오해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에 따라 차츰 교세가 확장되고 인식이 개선되어 이제는 침례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해소되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침례 성도이며 장로교/감리교의 교세는 그리 크지 않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침례를 주는 교회가 세례를 주는 교회보다 결코 적지 않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이러한 방송국에 나와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들의 대부분이 침례교 목사이다. 또한 지금도 가가호호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침례 성도들이며 전체적으로 교회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침례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인본주의 교회들은 이제 거의 노인들만 남은 상태이다. 그나마도 은사주의 교회나 수정 교회, 윌로우크릭 교회 혹은 새들백 교회 같은 현대 교회가 성장을 한다지만, 이는 성경에 근거한 성장이 아니라 기업 경영 기법과 고도의 심리학 그리고 록 음악이나 드라마를 통해 감정 자극을 동원한 철저한 인본주의의 산물이다. 반면 독립·자유 침례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 어디서든 오직 말씀 중심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며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경적인 교회이다.

침례교회와 침례 성도의 유래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회도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등과 같이 개신교회 내의 여러 교단 중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위 '개신교회'라 불리는 교회들은 중세 카톨릭교회에서 '항거하여 나온 사람들' 즉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카톨릭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을 가

리킨다. 거기에는 여러 분파가 있어 칼빈과 녹스 등이 세운 장로교, 웨슬리 형제가 세운 감리교 등이 있다. 그러나 침례 성도들은 한 번도 어디에 항거하여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라 걸어 온 사람들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프로테스탄트라 할 수 없다. 침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음을 당당히 자랑하며 동시에 인간 창시자가 없음을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는 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립되어 예수님 때부터 존재해 온 성경적 교회이기 때문이다(마 16:18).

'침례 성도'는 영어로 '뱁티스트'(Baptists)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시작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용어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침례자 요한'(John the Baptist)에서 '뱁티스트'라는 단어가 나왔다. 구약 성도인 침례자 요한이 신약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인 것처럼(행 11:26) 침례 성도(뱁티스트) 또한 성경에 근거를 둔 단어이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믿음의 고백으로서 모두 당연히 침례를 받으므로(롬 6:3-5) 굳이 침례교회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만 세례를 주는 교회들과 구분하기 위해 어느 때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침례교회로 불리게 되었다.

침례교회와 침례 성도의 믿음

침례 성도들은 다른 프로테스탄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구원 즉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얻는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구원을 넘어서서 막상 성경적인 믿음의 실행 문제에 들어가면 여러 면에서 개신교회와 차이점을 보인다. 신약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등장한 침례 성도들은 '국가 교회'가 아닌 '자유 교회'를 형성했으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원칙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였다. 여덟 가지 원칙은 'Baptists'의 글자들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1. 성경의 최종 권위(Bible's Final Authority, 딤후 3:16-17)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초대 교회 때부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

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기에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오류가 없음을 믿었다. 또한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을 완전한 섭리로 보존해 주심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개개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 처음부터 독립·자유 교회는 크리스천의 교리와 실행에 있어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었으며 교회나 공회나 신조나 전통이나 사람의 어떤 기관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음을 믿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같은 믿음은 감옥이나 불이나 물이나 칼이나 맹수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고 이들의 후예로서 우리도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오류가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2. 자치적 지역 교회 (Autonomy of Local Churches, 마 18:15–17)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역 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 오직 우리 주(主)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독립 기관임을 믿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독립·자유 지역 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할 수 없으며 카톨릭교회나 다른 개신교회들처럼 주교, 추기경, 감독, 총회장 등의 성직자 체계가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성직자를 임명하며 교회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임을 믿는다. 각 지역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체 회원들끼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하나님의 유기체이자 조직체이다.

3. 전 성도 제사장 직분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벧전 2:5–9)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신약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가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다. 이는 영적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며 구약 시대에 존재하던 육적 제사장 직분은 사라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카톨릭교회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 중보자 제사장(사제, priest)을 두

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님을 확실히 믿는다. 또한 교회를 성전이나 성당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마치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는 집례로 표현하며 성도를 평신도라 지칭하여 의도적으로 계급을 만들고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성직자가 가운을 입는 것 등의 겉치레 의식주의를 배격한다. 이것들은 모두 구약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며, 예수님의 신약 교회에서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과 더불어 이미 사라져 버린 것들이다.

4. 교회의 두 규례 (Two Ordinances, 마 28:19; 고전 11:23-32)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지역 교회가 실행해야 할 두 개의 규례임을 믿었다. 우리는 침례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하므로 반드시 온몸을 물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일으키는 형식이어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머리에 물을 끼얹고 천국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선포하는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주의 만찬' 역시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규례로 믿고 지키며 카톨릭교회의 화체설, 즉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는 교리가 명백한 이단 교리임을 믿는다. 카톨릭교회에서는 화체설에 근거하여 주의 만찬이 구원이나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Sacrament)라고 주장하며 '성만찬'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성경적 관행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만찬'이라 부른다. 또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 반드시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지 않은 포도즙,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사용해야 함을 믿는다. 이 외에 우리는 세족식 등의 행위는 신약 교회의 규례로 믿지 않는다.

5. 양심의 자유 (Individual Soul Liberty, 롬 14:5-13)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속사람의 명령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중히 여겼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의 자유를 소유하였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중세 이슬람교도나 천주교도 그리고 심지어 칼빈 같은 프로테스탄트처럼 무력으로 남에게

자기의 믿음을 결코 강요한 적이 없으며 자기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적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것을 믿도록 강요받을 수 없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는다. 반면에 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회계 보고할 줄을 믿는다(롬 14:10–12; 히 9:27).

6.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행 2:41–47)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구원받은 신자만이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었다. 중세 암흑시대에 카톨릭교회는 믿음이 없는 아기도 유아 세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 영원히 신앙의 자유를 빼앗았으며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 사회에서 매장시키거나 퇴출시켰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즉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 독립·자유·자치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는다.

7. 지역 교회의 두 직분 (Two Offices in Local Churches, 딤전 3:1–13)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따라 교회 내에 오직 두 가지 직분, 즉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믿었다. 이 두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반드시 남자들만이 맡을 수 있으며 성경에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을 가리킨다. 우리는 독립·자유 지역 교회가 결코 카톨릭교회와 같은 성직자 체제가 아니며 직분은 성도들 간의 기능의 차이일 뿐 결코 계급이 아님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목사나 성도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형제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신약 교회임을 믿는다(히 2:11).

8. 교회와 국가의 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마 22:15–22)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하며 어

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믿었다. 중세 암흑시대의 사악한 종교 독재 행위는 바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 교회, 즉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 간 독재 교회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역사를 통해 자유 교회 교인들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 교회에 항거하여 피를 흘렸다. 그 결과 미국 헌법에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명문화되었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에도 이것이 파급되어 현대 시민들이 이러한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다.

미국의 침례교회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큰 꿈을 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유럽 사람들에게는 국가 교회의 독재와 탄압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따라서 비록 청교도들의 장로교회가 신대륙에 먼저 들어왔으나, 개인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고 교회 내에 계급 없이 모두를 형제자매라 부르며 남녀노소 및 인종의 평등, 회중의 대의 통치를 주장하는 성경적 침례교회가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의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침례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보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기에,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하였다.

한편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지역 교회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가의 지방 자치제도 역시 급속도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실로 지금까지 미국의 국력과 위상이 유지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적 신약 교회 신자들의 기도와 노력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다수가 위의 여덟 가지 원칙을 지키는 독립침례교회라는 점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침례 성도들의 유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종에 상관없이 침례 성도들은 항상 서민들에게 다가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침례 성도들은 일관되게 인격화된 기독교, 즉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인격이 배어 나오는 뜨거운 복

음을 전하였다. 또한 이들의 교회 생활에서 드러난 소박한 민주주의는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서민층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보였다. 이들은 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오직 성경에만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허락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성경을 통해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교파나 교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특징이었다. 이러한 영적인 자유와 평등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 침례 성도들은 전력투구하였으며,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카톨릭교회의 유아 세례와 성만찬의 화체설이라는 이단 교리와 싸우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다. 우리 침례 성도들의 선조들은 이러한 희생으로 온 인류의 자유·독립 역사를 수놓아 왔으며 그 결과 오대양 육대주의 자유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갈채를 받아 왔다.

21세기 침례 성도들의 책임

이제 우리 눈앞에 21세기가 환하게 열렸다. 국내에서 수적 열세로 인해 때로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우리 침례 성도들은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야 할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는 교황의 천주교와, 이에 부응하여 점점 더 천주교화되고 있는 개신교회들을 보며 우리 침례 성도들은 더욱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침례 성도 선조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킨 바른 성경 곧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채택하여 '오직 성경으로'라는 기치하에 영혼 구령에 매진하여야 한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 목사,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 불굴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등과 같은 침례교 선조들의 본을 따라 우리 또한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큰 배도의 물결을 보고 있다. 천주교, 배도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뉴에이지 등이 하나가 되어 단일 세계 종교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미 교황의 지도하에 여러 차례 예행 연습을 하였다. 이러한 위험한 시점에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단호하게

비성경적 에큐메니컬 종교 일치 운동을 배격하고 이 같은 배도의 누룩에 조금이라도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특히 록 음악 위주의 경배와 찬양과 연극·드라마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대체하며 은사주의·신비주의로 인한 기복 신앙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 침례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유 3) 복음적 근본주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계 2:7, 11, 17, 29; 3:6, 13, 22)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용기 있게 복음을 들고 나서야 한다. 그래서 21세기를 우리 침례 성도들의 전성기로 만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지옥의 문들을 부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 침례 교회의 창시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

"우리는 침례 성도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는다. 침례 성도들의 순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그 어떤 연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찰스 스펄전

부록 3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I will build my church, 마 16:18)는 웅대한 선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라는 유기체를 세우셨다. 미래형으로 기록된 이 획기적인 선언 속에는 교회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교회의 소유주가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예배당을 교회로 알고 있지만 사실 교회 곧 '에클레시아'(ekklesia)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뜻한다. 즉,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 자체가 교회이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신약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이다(벧전 2:5, 9).

그러나 주후 1세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구약의 제사장 계급 체제로 돌아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무리가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 이들은 예수님의 신약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계 2:15). 그 이후의 교회 역사는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Christianity)와 창조물인 교회

를 따르는 '교회교'(Churchianity)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반목의 역사이다. 즉, 교회 역사는 '국가 교회'(State church)인 '교회교'가 '자유 교회'(Free church)인 '기독교'를 심히 핍박하고 박해해 온 역사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된 교회와 바른 교회사에 근거하여 '성도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말세의 배도가 바로 교회라 불리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큰 오해: 기독교의 뿌리는 천주교가 아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천주교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구약 성도들, 열두 사도들, 첫 순교자 스데반, 첫 선교사 바울 등 대다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천주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으며 성경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다. 사실 베드로나 바울은 천주교를 알지도 못했다. 신약 성경의 복음 또한 로마에서 시작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확산됨으로써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참 교회는 시작부터 천주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거짓말을 믿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다. 그것은 곧 기독교회사가 필립 샤프 같은 자유주의자, 즉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교회사가들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었고 이처럼 '왜곡된 교회사' — 엄밀한 의미에서 카톨릭교회사 — 를 '천주교에서 나왔으나 천주교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신들의 교회와 신학교에서 여과 없이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초기 신약 시대의 고귀한 무리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시민으로 국가의 법에 순응하였으나 카이사르(가이사)가 자기를 주 하나님으로 선언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카이사르는 자기를 신이라 부르면서 자기에게 경배와 희생을 드릴 것을 요구

했으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그들에 대한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덕이나 가치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황제의 법도 주 하나님의 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믿었고 결국 자기를 신으로 선언한 황제의 눈 밖에 나게 되었다.

한편 카이사르는 기독교와 바빌론 신비 종교를 혼합해서 자신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가 교회인 천주교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많은 교인들이 천주교라는 배도의 넓은 길을 따라갔다. 반면에 이를 거부하는 참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으며 맹수들의 밥이 되면서도 결코 국가 교회의 일원이 되려 하지 않았다. 이 고귀한 무리들은 자기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신앙 양심을 따라 국가 교회가 아닌 자유 교회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냐, 카이사르냐?

주후 313년, 대음모자 콘스탄틴 황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공인했다. 그 이후로 이 타락한 국가 교회는 이교도들의 풍습에 근거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각종 우상 숭배, 제사장 체계, 교황, 추기경, 교부, 연옥, 면죄부, 유아 세례 등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을 강제로 교회에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교회는 자신들의 범주 안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 자유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참 성도들을 화형이나 수장 등 각종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였다. 이단이란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중세 암흑시대에 카톨릭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피 흘린 발자취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 1세기 후반에는 그 당시의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또 국가 교회의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짊어지고 도시를 떠나 산지에서, 계곡에서 유랑하며 꾸준히 순례의 행보를 이어 갔다. 주후 2세기에는 처음으로 소아시아에서 몬타니스트들(Montanists)이 사도 교회의 순수성을

외치면서 믿는 성도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으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베푸는 유아 세례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임을 선언하고 재침례(Anabaptism)를 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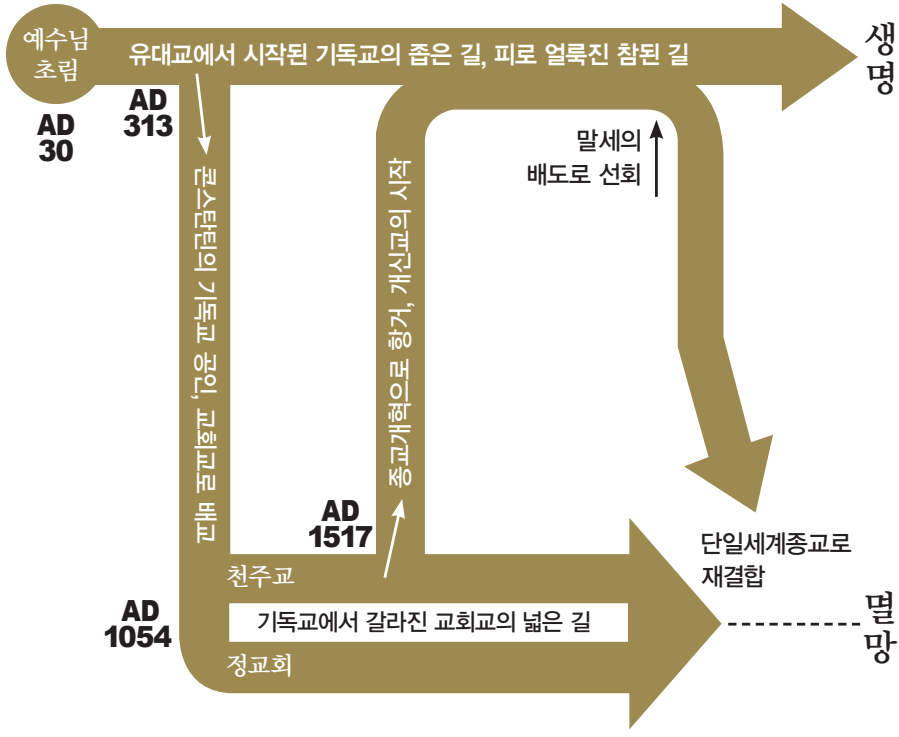
주후 3세기에는 전 로마 제국에서 노바티안들(Novatians)이 일어났다. 이들 역시 유아 세례의 죄악을 폭로하며 교회의 순수성을 외쳤다. 이들은 그 순수성으로 인해 후에 '순수한 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카타리들(Cathari)이 되었다. 그 뒤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들(Donatists, 혹은 도나투스파)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외치며 일어났다. 또한 7세기경에는 타우루스 산지에서 폴리시안들(Paulicians)이 초대 자유 교회의 맥을 이으며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침례와 그러한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을 주장했다.

그 뒤 자유 교회는 12세기경의 왈덴시스들(Waldensians, 혹은 왈도파)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알프스 계곡에서 바른 성경을 붙들고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외치면서 카톨릭교회와 분리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불가리아와 보스니아에서는 보고밀(Bogomil)이라는 이름의 자유 교회가 카톨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한편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폴리시안들과의 사상적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알비겐시스들(Albigenses, 혹은 알비파)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 흘린 발자취'에서 언급되는 여러 무리들과 재침례교회 성도들은 교리 전반에서 현시대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와 동일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부 집단은 신학적으로 불균형하거나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는 신약 교회가 지키고자 했던 다섯 가지 근본 원리, 곧 성경의 절대적 권위, 거듭난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신자 침례(침수례),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회중 정치와 지역 교회의 자율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동일 계보라기보다, 제도화된 국교회 체제에 맞서 신약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려 했던 흐름 속에서 침례교회와 일정한 영적 유대성을 형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된 기독교와 교회교의 과거·현재·미래



프로테스탄트/개신교

1517년 카톨릭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교황과 카톨릭교회에 대항하며 '항거자', 즉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신약 성경의 자유 교회에서 출발하지 않았기에 카톨릭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남아 있으면서 개혁을 이루고자 했다. 그 결과 루터 교회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핵심 교리를 제외하고는 카톨릭교회의 악습과 전통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아 생명이 없는 국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고, 결국 1998년 6월에 미국 루터 교회는 다시 카톨릭교회와 하나가 되기로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장로교회 혹은 개혁 교회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칼빈 역시 유아 세례 등의

악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제네바에서 국가 교회를 구축하면서 재침례교도 같은 자유 교회 무리들을 핍박하였다. 카톨릭교회에서 나온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카톨릭교회의 신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결같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따랐고 성경 말씀 준수 측면에서 자유 교회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근대 자유 교회

한편 종교 개혁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교회는 재침례 성도(Anabaptists), 메노나이트(Mennonites) 등의 이름으로 온 유럽에 등장하여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회중 통치를 가르치며 믿는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 전 성도 제사장 직분, 국가와 교회의 분리, 양심의 자유 등을 외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민의 물결을 따라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17-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자유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침례교인들(Baptists)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존 번연, 찰스 스펄전, 윌리엄 케리,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걸출한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국가 교회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침례교인들이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이들로 인해 국가와 교회의 분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헌법에 명시되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종교를 택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국가 교회의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대 국가들의 대부분이 미국 헌법을 기초로 하여 이러한 자유들을 허락하게 되어 결국 전 세계 시민들이 자유 교회의 투쟁으로 인한 인권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말세의 배도

지금 온 세상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정치는 UN 주도하에, 경제는 WTO 등을 통해 이미 통합이 시작되었고, 종교는 1960년대의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카톨릭교회의 주도하에 급속도로 통합되고 있다. 그 결과 WCC, NCC, 오순절 은사주의(신사도 운동), 뉴에이지 운동, 록 음악,

NIV, Living Bible 등의 타락한 성경, ECT, 즉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도들의 연합' 등이 일정 측면에서 카톨릭교회의 통제를 받으며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카톨릭교회가 주축이 된 사상 최대의 국가 교회가 우리 앞에 출현하여 다시 한번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 같은 말세의 배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서신서들에 여러 차례 기록해 놓았다! "어떻게 루터로부터 출발한 프로테스탄트 루터 교회가 카톨릭교회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필요는 없다.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누구나 배도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여!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배도한 교회와 철저히 분리된 성도들이 성경에 따라 피를 흘리며 남겨 준 발자취를 따를 때에만 배도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의 극심한 우상 숭배 속에서도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당신도 그러한 남은 자들 중에 있는가? 성경대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후에 주님께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크기를 보지 말고 내가 속한 무리가 순결한 자들인가를 살펴보기 바란다. 부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과연 맹목적으로 '교회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기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여! 지금 당신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그분의 '내 교회'에 속해 있는가?

>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 및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히 11:36-38)

참고 문헌

제1장: 초대 교회 시대 – 국가 권력과 대립한 순수한 교회 시대

1. The Holy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Acts 2, 4, 8; 1 Corinthians 12; Ephesians 4. (초대 교회의 신자 침례, 성령의 사역,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보여 주는 신약 기본 경전)
2. Eusebius of Caesarea. Church History (Historia Ecclesiastica, ca. 325 AD). Books 2–5, 8. (초대 교회부터 콘스탄틴 시대까지의 교회 발전과 박해의 역사를 기술한 최초의 기독교 교회사)
3. Tertullian. Apology (Apologeticum, ca. 197 AD). Chapters 37, 39, 50.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변론한 초대 교부의 저작)
4. Stark, Rodney. The Rise of Christianity: How the Obscure, Marginal Jesus Movement Became the Dominant Religious Force in the Western World in a Few Centuries. San Francisco: HarperCollins, 1996. pp. 3–46, 147–162. (초대 교회가 박해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회학적 원인을 분석한 현대 학술서)
5. Gonz lez, Justo L. The Story of Christianity: Volume 1: The Early Church to the Dawn of the Reformation. New York: HarperOne, 2010. pp. 35–102. (초대 교회의 신앙, 조직, 예배 전통을 라틴 아메리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한 교회사 개론서)
6. Wilken, Robert L. The First Thousand Years: A Global History of Christian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 47–88. (초대 교회의 신앙과 사회적 영향력을 세계적 관점에서 추적한 최근 대작)
7. Hurtado, Larry W. Destroyer of the gods: Early Christian Distinctiveness in the Roman World.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16. pp. 12–67, 127–154.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보여 준 독특한 신앙 실천과 사회적 특성을 분석한 신약학 전문가의 저작)
8. Lane Fox, Robin. Pagans and Christians. New York: Alfred A. Knopf, 1987. pp. 419–492. (초대 교회와 로마 제국 사회의 상호 작용을 종교사적 관점에서 상세히 기술한 광범위한 연구서)

제2장: 밀라노 칙령과 기독교 공인 – 정치와 종교의 일치

1. Edict of Milan (313 AD). In Lactantius, On the Deaths of the Persecutors (De Mortibus Persecutorum), Chapter 48. (콘스탄틴과 리키니우스가 선포한 기독교 공인 칙령의 원문으로, 종교의 자유를 처음 법적으로 보장한 역사적 문서)
2. Eusebius of Caesarea. Life of Constantine (Vita Constantini, ca. 339 AD). Books 1–3. (콘스탄틴 황제와 기독교의 관계, 교회에 대한 황제의 정책과 영향을 기술한 당대 교부의 증언 기록)
3. Theodosian Code (Codex Theodosianus, 438 AD). Book XVI, Title 1. (기독교의 국교화 과정에서 발표된 황제 칙령들을 집성한 법전으로, 국가와 교회의 결합을 법적으로 규정한 문서)
4. Barnes, Timothy D. Constantine and Eusebiu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p. 43–76, 210–244. (콘스탄틴과 교회의 관계를 역사적 증거와 문헌 비판을 통해 재검토한 학술 연구서)
5. MacMullen, Ramsay. Christianizing the Roman Empire (A.D. 100–4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p. 43–85.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 과정을 사회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로마 제국사 전문가의 저작)
6. Drake, H. A. Constantine and the Bishops: The Politics of Intoleran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0. pp. 187–234. (콘스탄틴 시대의 교회 정치와 종교적 불관용의 출현을 정치사적으로 분석한 연구서)
7. Gonz lez, Justo L. The Story of Christianity: Volume 1. New York: HarperOne, 2010. pp. 125–145. (기독교의 국교화가 교회의 신앙과 조직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교회사 개론)
8. Cameron, Averil. The Later Roman Empire, AD 284–43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pp. 58–92. (4세기 로마 제국의 정치·종교 변화를 광범위한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기술한 로마 제국사 개설서)

제3장: 어거스틴과 국가 교회 – 천주교 신학의 완성

1. Augustine of Hippo. On the Free Choice of the Will (De Libero Arbitrio, 388–395 AD). Books 1–3. (신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 의지의 관계를 다룬 어거스틴의 신학적 주저로, 강제와 자유에 관한 그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
2. Augustine of Hippo. The City of God (De Civitate Dei, 413–426 AD). Books XIX, XXII. (기독교 국가관과 교회의 역할을 정립한 중세 신학의 기초 저작으로, 국가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정당화한 문헌)
3. Augustine of Hippo. Letter 93: To Vincentius (408 AD). Sections 16–17. (도나티스트 논쟁에서 "이단을 강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최초로 표명한 어거스틴의 서신으로, 종교적 강제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 문헌)
4. Brown, Peter. Augustine of Hippo: A Biograp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p. 235–278, 330–352. (어거스틴의 생애와 신학 사상의 발전 과정을 추적한 기독교사 분야의 고전적 전기)
5. Markus, R. A. Saeculum: History and Society in the Theology of St August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p. 112–144, 172–196. (어거스틴의 역사관과 국가관, 세속과 거룩의 관계에 관한 신학적 분석)
6. Fredriksen, Paula. Augustine and the Jews: A Christian Defense of Jews and Juda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pp. 125–160. (어거스틴의 종교적 강제론이 유대인과 기독교 이단자들에게 미친 역사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서)
7. Pelikan, Jaroslav. The Christian Tradition: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Doctrine, Vol. 1: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 (100–60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pp. 303–340. (초대 기독교 신학의 발전 과정에서 어거스틴의 위치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룬 신학사 대작)
8. Chadwick, Henry. Augustine of Hippo: A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78–115. (어거스틴의 영적 여정과 신학적 전환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 최근 전기)

제4장: 중세 카톨릭교회의 등장 –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다

1. Gregory I (the Great). Pastoral Care (Regula Pastoralis, ca. 590 AD). Books I–IV. (중세 교회 조직과 목사의 역할을 규정한 그레고리 1세의 저작으로, 교회 제도의 중앙 집중화를 정당화한 문헌)
2. Donation of Constantine (Constitutum Constantini, 8th century forgery, exposed 1440). (교황권의 세속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조된 문서로, 중세 교회가 권력 추구한 근거를 보여 주는 역사적 증거)
3. Innocent III. On the Misery of the Human Condition (De Miseria Humanae Conditionis, 1195). Books 1–3. (중세 교황권의 절정기에 인간의 비참함과 영적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교황의 신학 저작)
4. Southern, R. W. Western Society and the Church in the Middle Ages. London: Penguin Books, 1970. pp. 91–153. (중세 유럽 사회에서 교회의 광범위한 지배력과 정치·경제적 역할을 분석한 중세사 개설서)
5. Tierney, Brian. The Crisis of Church and State 1050–1300.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8. pp. 13–95. (중세 시기에 교회와 국가 권력의 갈등과 타협 과정을 기술한 정치사 연구서)
6. Morris, Colin. The Papal Monarchy: The Western Church from 1050 to 1250.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p. 79–158. (그레고리 개혁 이후 교황권의 확대와 제도화 과정을 다룬 중세 교회사 전문 저작)
7. Gonz lez, Justo L. The Story of Christianity: Volume 1. New York: HarperOne, 2010. pp. 221–298. (중세 교회의 권력화, 신학, 사회적 영향을 비판적 관점에서 개괄한 교회사 개론)
8. Ullmann, Walter. A Short History of the Papacy in the Middle Ages. London: Routledge, 2003. pp. 145–203. (초대 교회부터 종교 개혁까지 교황권의 발전과 변화를 추적한 교황사 입문서)

제5장: 중세 종교 재판소 – 교회의 무력 사용과 이단 탄압

1. Ad Abolendam (Papal Bull by Pope Lucius III, 1184). Verona Decree establishing the Episcopal Inquisition. (이단 탄압을 위해 교황이 선포한 칙령으로, 종교 재판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공식 문서)
2. Excommunicamus (Fourth Lateran Council, Canon 3, 1215). (제4차 라테란 공의회의 결정으로, 이단자와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강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교회법)
3. Bernard Gui. The Inquisitor's Guide (Practica Inquisitionis Heretice Pravitatis, 1323–1324). Parts I–V. (종교 재판소 심문관을 위한 실무 지침서로, 이단자 심문과 처형의 구체적 절차를 기술한 당대 문헌)
4. Kamen, Henry. The Spanish Inquisition: A Historical Revi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pp. 37–85, 153–203. (스페인 종교 재판소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재검토한 학술 연구서로, 통념적 과장을 시정한 저작)

5. Given, James B. Inquisition and Medieval Society: Power, Discipline, and Resistance in Languedoc.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23–76. (중세 랑그독 지역의 종교 재판소를 지역사적으로 분석한 연구서로, 이단 탄압의 사회적 영향을 보여 주는 저작)
6. Peters, Edward. Inquis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p. 40–92. (종교 재판소의 역사와 그 신화화 과정을 다룬 종교사 개론으로, 역사적 사실과 전설의 구분을 시도한 저작)
7. Lea, Henry Charles. A History of the Inquisition of the Middle Ages (3 vols.). New York: Harper & Brothers, 1888. Vol. 1, pp. 306–390. (19세기에 저술된 종교 재판소의 종합적 역사로, 당대의 광범위한 문헌 자료를 활용한 고전적 연구 저작)
8. Moore, R. I. The Formation of a Persecuting Society: Authority and Deviance in Western Europe 950–1250. Oxford: Blackwell, 2007. pp. 67–133. (중세 유럽에서 이단 탄압의 제도화 과정을 사회사적으로 분석한 현대 저작)

제6장: 어둠 속의 등불 – 선구자들의 등장

1. The Confession of the Waldensian Brethren (ca. 1180). Article 1–12. (왈도파 운동의 신앙 고백서로, 성경 중심 신앙과 일반 성도 설교를 강조한 선구적 종교 운동의 원문)
2. John Wycliffe. On the Truth of Holy Scripture (De Veritate Sacrae Scripturae, ca. 1378). Books I–II.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한 위클리프의 저작으로, 종교 개혁의 신학적 기초를 제시한 선구자의 문헌)
3. Jan Hus. On the Church (De Ecclesia, 1413). Chapters 1–18. (후스가 지은 교회론으로, 종교 개혁의 핵심 개념들을 미리 제시한 보헤미아 선구자의 신학서)
4. Audisio, Gabriel. The Waldensian Dissent: Persecution and Survival, c.1170–c.15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2–68. (왈도파의 장기간 신앙 활동과 박해 속에서의 생존을 추적한 현대 학술 연구서)
5. Spinka, Matthew. John Hus: A Biogra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pp. 87–156, 234–289. (얀 후스의 생애와 신학, 그의 화형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룬 전문 전기)
6. Hudson, Anne. The Premature Reformation: Wycliffite Texts and Lollard History. Oxford: Clarendon Press, 1988. pp. 23–95. (위클리프와 롤라드 운동의 신학과 저작, 사회적 영향을 문헌 비판적으로 분석한 저작)
7. Lambert, Malcolm. Medieval Heresy: Popular Movements from the Gregorian Reform to the Reformation. Oxford: Blackwell, 2002. pp. 62–145, 234–289. (중세 이단 운동들을 사회학적·신학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포괄적 저작)
8. Cameron, Euan. Waldenses: Rejections of Holy Church in Medieval Europe. Oxford: Blackwell, 2000. pp. 45–112. (왈도파의 신앙 내용과 역사적 전개, 교회로부터의 단절 원인을 분석한 종교사 연구서)

제7장: 16세기 종교 개혁 – 좋은 시작, 미완의 개혁

1. Martin Luther. Ninety-Five Theses (Disputatio pro declaratione virtutis

indulgentiarum, 1517). (루터가 제시한 95개 항목으로, 면죄부의 신학적 오류를 지적하여 종교 개혁의 발단이 된 역사적 문헌)
2. Martin Luther.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 1520). (루터의 핵심 개혁 저작으로, 성례의 오용과 교회의 타락을 비판한 신학서)
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36/1559). Books III–IV. (칼빈의 종교 개혁 신학을 체계화한 대작으로, 개신교 신학의 표준을 제시한 문헌)
4. Bainton, Roland H.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50. pp. 43–117, 185–238. (루터의 생애와 종교 개혁 사상을 역동적으로 서술한 고전적 전기)
5. MacCulloch, Diarmaid. The Reformation: A History. New York: Viking, 2004. pp. 110–187, 227–289. (종교 개혁의 복잡한 역사를 다각적으로 기술한 최근의 포괄적 저작)
6. McGrath, Alister E.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4th ed.). Oxford: Wiley-Blackwell, 2012. pp. 45–98, 126–174. (종교 개혁 신학의 핵심 개념들을 신학 입문서 형식으로 설명한 저작)
7. Lindberg, Carter. The European Reformations (2nd ed.). Oxford: Wiley-Blackwell, 2010. pp. 53–142.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 다양한 개혁자들의 운동을 비교한 종교 개혁사 개론)
8. Oberman, Heiko A. Luther: Man between God and the Devi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pp. 189–245. (루터의 영적 투쟁과 신학 형성 과정을 심리적·역사적으로 분석한 전기)

제8장: 스위스 재침례교회 – 신앙의 자유를 향한 여정의 출발

1. The Schleitheim Confession (Brotherly Union of a Number of Children of God, 1527). Articles 1–7. (재침례교의 신앙과 실천의 원칙을 정리한 초기 신앙 고백서로, 신자 침례와 정교 분리를 명확히 한 문헌)
2. Grebel, Conrad, Felix Manz, and others. Letters and Documents (1524–1527). In Sources of South German/Austrian Anabaptism. (재침례교 지도자들의 편지와 문서로, 신학적 고민과 실천의 과정을 보여 주는 당대 사료)
3. Estep, William R. The Anabaptist Story: An Introduction to Sixteenth-Century Anabaptism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6. pp. 11–62. (재침례교 운동의 신학과 역사를 입문서 형식으로 설명한 표준 개론서)
4. Snyder, C. Arnold. Anabaptist History and Theology: An Introduction. Kitchener, ON: Pandora Press, 1995. pp. 53–118. (재침례교의 신학적 기초와 역사적 발전을 통합적으로 다룬 학술 입문서)
5. Stayer, James M. The German Peasants' War and Anabaptist Community of Goods.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1. pp. 67–134. (독일 농민 전쟁과 초기 재침례교의 관계, 공동 소유 운동을 다룬 사회사 연구)
6. Yoder, John Howard. The Legacy of Michael Sattler. Scottdale, PA: Herald Press, 1973. pp. 28–87. (재침례교 순교자 사틀러의 영향과 슐라이트하임 고백의 의미를 분석한 신학서)

7. Williams, George H. The Radical Reformation (3rd ed.).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2. pp. 117–234. (종교 개혁의 급진적 흐름으로서 재침례교의 위치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다룬 대작)
8. Armour, Rollin Stely. Anabaptist Baptism: A Representative Study. Scottdale, PA: Herald Press, 1966. pp. 34–89. (재침례교의 침례 이해와 실천을 신학적·역사적으로 분석한 전문 연구서)

제9장: 영국 침례교의 탄생 및 확산 – 분리주의에서 침례교로

1. Helwys, Thomas. A Short Declaration of the Mystery of Iniquity (1612). Full text. (영국 침례교 설립자 헬위스가 제임스 1세에게 제출한 종교 자유 청원서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최초로 명확히 표현한 역사적 문헌)
2. Smyth, John. The Character of the Beast (1609). Chapters 1–8. (스마이스가 카톨릭과 국교회의 오류를 비판한 저작으로, 신자 침례의 필요성을 강조한 초기 침례교 신학서)
3. The First London Confession (1644). Articles 1–52. (영국 침례교의 신앙을 체계화한 초기 신앙 고백서로, 개신교와 구별되는 침례교의 원칙을 명시한 문헌)
4. White, B. R. The English Separatist Tradition: From the Marian Martyrs to the Pilgrim Fath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pp. 87–156. (영국 종교 개혁의 분리주의 운동과 침례교의 연결 관계를 추적한 종교사 연구서)
5. Underwood, A. C. A History of the English Baptists. London: Baptist Union Publication Dept., 1947. pp. 42–98. (영국 침례교의 성립부터 17세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기술한 권위 있는 침례교사 저작)
6. Lumpkin, William L. Baptist Confessions of Faith (revised ed.).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69. pp. 117–171. (영국과 미국 초기 침례교의 신앙 고백서들을 수집·정리한 자료집)
7. Haykin, Michael A. G. Kiffin, Knollys and Keach: Rediscovering Our English Baptist Heritage. Leeds: Reformation Today Trust, 1996. pp. 23–87. (17세기 영국 침례교 지도자들의 신학과 실천을 복원한 학술 연구서)
8. Brackney, William H. A Genetic History of Baptist Thought.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2004. pp. 45–112. (침례교 신학의 역사적 발전을 추적한 신학사 저작으로, 영국에서 미국까지의 흐름을 보여 주는 문헌)

제10장: 신대륙의 청교도 신정 국가 – 광야에서 피어난 자유

1. Williams, Roger. The Bloudy Tenent of Persecution for Cause of Conscience (1644). Full text. (로저 윌리엄스의 종교 자유 선언으로, 양심의 자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정교분리를 옹호한 혁신적 저작)
2. Williams, Roger. The Bloudy Tenent Yet More Bloudy (1652). Chapters 1–12. (윌리엄스의 첫번째 저작에 대한 추가 변론서로, 종교적 강제의 모순을 더욱 상세히 논박한 문헌)
3. Charter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1663). Full text. (로드아일랜드 주의 설립 헌장으로,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공식 문서)

4. Gaustad, Edwin S. Liberty of Conscience: Roger Williams in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1. pp. 34–98, 145–203. (로저 윌리엄스의 신앙 여정과 종교 자유 사상을 종합적으로 추적한 전문 연구서)
5. Miller, Perry. Roger Williams: His Contribution to the American Tradition. Indianapolis: Bobbs-Merrill, 1953. pp. 67–145. (미국 지적 전통에 미친 윌리엄스의 영향을 분석한 철학사적 저작)
6. Morgan, Edmund S. Roger Williams: The Church and the Stat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7. pp. 45–112.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윌리엄스의 사상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서)
7. Hall, Timothy L. Separating Church and State: Roger Williams and Religious Liberty.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8. pp. 23–89. (현대의 정교분리 원칙의 역사적 기원을 윌리엄스의 사상에서 추적한 헌법사 저작)
8. Barry, John M. Roger Williams and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Soul: Church, State, and the Birth of Liberty. New York: Viking, 2012. pp. 189–267. (로저 윌리엄스와 미국 건국 이념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한 최근 저작)

제11장: 버지니아에서의 자유 투쟁 – 세계 최초의 정교분리 성취

1. Jefferson, Thomas. Virginia Statute for Religious Freedom (1786). Full text. (제퍼슨이 주도한 종교 자유법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최초로 국가법에 명시한 역사적 문서)
2. Madison, James. Memorial and Remonstrance Against Religious Assessments (1785). Full text. (매디슨이 기초한 청원서로, 종교세 부과에 반대하며 종교 자유의 원칙을 이론화한 중요 문헌)
3.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1791). Religion Clauses.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확립한 세계 최초의 헌법 규정)
4. Buckley, Thomas E. Church and State in Revolutionary Virginia, 1776–1787.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77. pp. 34–112. (버지니아에서의 종교 자유 투쟁 과정과 침례교인들의 역할을 상세히 기술한 지역사 저작)
5. Dreisbach, Daniel L. Thomas Jefferson and the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2. pp. 45–98. (제퍼슨과 정교분리 원칙의 역사와 의미를 문헌 비판적으로 분석한 헌법사 연구서)
6. Ragosta, John A. Wellspring of Liberty: How Virginia's Religious Dissenters Helped Win the American Revolution and Secured Religious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67–156. (버지니아의 침례교인과 다른 종파들이 미국 혁명과 종교 자유에 미친 영향을 추적한 저작)
7. Witte, John Jr. Religion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Experiment (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78–145.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 종교의 자유가 반영된 과정과 의미를 헌법학적으로 분석한 저작)
8. Lambert, Frank. The Founding Fathers and the Place of Religion 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p. 189–245. (미국 건국자들의 종교관과 종

교 자유의 역사적 뿌리를 추적한 정치사 연구서)

제12장: 침례교 신학이 법이 되다 – 266년 투쟁의 완성

1. The Schleitheim Confession (1527). Articles 4, 6. (1525년 취리히의 신자 침례 운동이 1527년 신앙 고백서로 완성되어, 침례교 신학의 핵심 원칙을 확립한 사료)
2.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1791). Religion Clauses. (1525년부터 시작한 신자 침례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266년 후 미국 헌법에 법적으로 반영된 역사적 완성)
3. Leland, John. The Rights of Conscience Inalienable (1791). Full text. (미국 독립 직후 침례교 설교자 리랜드가 쓴 종교 자유 선언으로, 침례교 신학이 미국 헌법에 영향을 미친 증거 문헌)
4. McBeth, H. Leon. The Baptist Heritage: Four Centuries of Baptist Witness. Nashville: Broadman Press, 1987. pp. 203–289. (침례교의 4세기 역사를 신학과 실천의 연속성 속에서 기술한 포괄적 침례교사)
5. Gaustad, Edwin S., and Leigh E. Schmidt. The Religious History of America (revised ed.).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2002. pp. 112–178. (미국 종교 역사에서 침례교가 차지한 위치와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미국 종교사 개론)
6. Noll, Mark A. America's God: From Jonathan Edwards to Abraham Lincol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53–134. (미국 기독교 신학의 발전 과정에서 침례교의 역할을 추적한 기독교사 저작)
7. Hankins, Barry. Baptists in America: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 45–98. (식민지 시대부터 현대까지 미국 침례교의 변화와 영향을 기술한 최근 침례교사)
8. Kidd, Thomas S., and Barry Hankins. Baptists in America: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 67–145. (미국 침례교의 신앙적 정체성과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룬 현대 침례교사 저작)

제13장: 자유의 열매 – 미국 침례교의 폭발적 성장

1. Sandy Creek Baptist Association Minutes (1758–1770). North Carolina. (18세기 샌디크릭 침례교 협회의 회의 기록으로, 개척지의 침례교 부흥 운동과 조직 방식을 보여 주는 당대 사료)
2. Backus, Isaac. A History of New England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Baptists (1777–1796). 3 vols. (미국 초기 침례교 지도자 백커스가 저술한 침례교 역사로, 미국 독립 시대의 침례교 성장 과정을 기술한 문헌)
3. Semple, Robert B. A History of the Rise and Progress of the Baptists in Virginia (1810). Full text. (버지니아 침례교의 성장 과정을 기술한 당대 기록으로, 남부 침례교 운동의 발전을 보여 주는 사료)
4. Torbet, Robert G. A History of the Baptists (3rd ed.).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63. pp. 234–312. (미국 침례교의 성장 과정과 그 원인을 분석한 종합적 침례교사)
5. Leonard, Bill J. Baptist Ways: A History.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2003. pp. 145–234. (침례교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지역적 특성을 포함한 포괄적 침례교사)
6. Spangler, Jewel L. Virginians Reborn: Anglican Monopoly, Evangelical Dissent, and

the Rise of the Baptists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8. pp. 78–156. (버지니아에서 성공회 독점을 깬 침례교의 역할을 사회사적으로 분석한 지역사 연구)
7. Hatch, Nathan O. The Democratization of American Christian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pp. 67–145. (18–19세기 미국 기독교의 민주화 과정에서 침례교의 선도적 역할을 분석한 저작)
8. Heyrman, Christine Leigh. Southern Cross: The Beginnings of the Bible Belt. New York: Alfred A. Knopf, 1997. pp. 98–189. (미국 남부의 침례교 부흥 운동과 영적 문화 형성을 추적한 종교사 저작)

제14장: 침례교 최대의 분열 – 남침례교 총회의 탄생

1. Triennial Convention Minutes (American Baptist Missionary Convention, 1814–1845). (미국 침례교 3년 주기 총회의 회의 기록으로, 노예제 문제로 인한 분열 과정을 보여 주는 당대 기록)
2. Constitut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ay 8, 1845, Augusta, Georgia). (노예제를 옹호하는 남부 침례교인들이 총회를 설립한 공식 문서로, 미국 교회 분열의 핵심 기록)
3. Basden, William B.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845–1953. Nashville: Broadman Press, 1954. pp. 12–89. (남침례교 총회 설립부터 현대까지의 첫 100년을 기술한 남침례교 공식 역사서)
4. Baker, Robert A.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and Its People, 1607–1972. Nashville: Broadman Press, 1974. pp. 145–234. (남침례교 역사와 신학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다룬 대규모 침례교사)
5. Spain, Rufus B. At Ease in Zion: Social History of Southern Baptists, 1865–1900.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67. pp. 56–134. (남북 전쟁 후 남부 침례교의 사회적 역할과 변화를 분석한 사회사 저작)
6. Brackney, William H. Baptists in North America: An Historical Perspective. Oxford: Blackwell, 2006. pp. 112–189. (북미 침례교의 분열과 통합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룬 침례교사)
7. Fletcher, Jesse C.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A Sesquicentennial Histo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pp. 23–98. (남침례교 150년 역사를 기념하며 저술한 공식 침례교사)
8. Leonard, Bill J. Baptist Ways: A History.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2003. pp. 289–356. (미국 침례교 분열의 역사적 맥락과 신학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저작)

제15장: 세계로 뻗어나간 침례교 – 선교 확장과 영적 부흥

1. Carey, William. 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1792). Full text. (근대 선교의 아버지 케리가 주장한 선교의 필요성과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 역사적 문헌)
2. Judson, Adoniram. Letters and Journals (1813–1850). Selected correspondence.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 저드슨의 서신과 일지로, 미국 침례교 해외 선교의 개척 과정을 보여 주는 당대 기록)
3. Stanley, Brian. The History of the Baptist Missionary Society, 1792–1992. Edinburgh: T&T Clark, 1992. pp. 34–112. (영국 침례교 선교회의 200년 역사를 기술한 선교사 전문 저작)
4. Robert, Dana L. Christian Mission: How Christianity Became a World Religion. Oxford: Wiley-Blackwell, 2009. pp. 45–98. (침례교 선교사들의 역할을 포함한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 과정을 분석한 선교사 저작)
5. Pierard, Richard V. Baptists Together in Christ, 1905–2005: A Hundred-Year History of the Baptist World Alliance. Falls Church, VA: Baptist World Alliance, 2005. pp. 23–89. (세계침례교연맹 100년 역사를 기술한 공식 기념 저작)
6. Wardin, Albert W., ed. Baptists Around the World: A Comprehensive Handbook.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pp. 67–234. (전 세계 각 지역의 침례교 발전을 국가별로 기술한 포괄적 참고서)
7. Randall, Ian M. Communities of Conviction: Baptist Beginnings in Europe. Schwarzenfeld: Neufeld Verlag, 2009. pp. 112–189. (유럽의 침례교 발전 과정을 국가별로 추적한 유럽 침례교사)
8. Brackney, William H.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Baptists (2nd ed.). Lanham, MD: Scarecrow Press, 2009. pp. 145–234. (침례교의 주요 인물, 기관, 신학 개념을 백과사전 형식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서)

제16장: 독립침례교회의 도전과 응답 – 침례교 본래 정신의 회복

1. Marsden, George M.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ing of Twentieth-Century Evangelicalism 1870–1925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75–263. (미국 근본주의 형성과 분열 속에서 독립침례교회의 사상적 기원을 조망하는 고전적 연구서)
2. Beale, David O. In Pursuit of Purity: American Fundamentalism Since 1850. Greenville, SC: Unusual Publications, 1986. pp. 189–312. (미국 근본주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침례교 근본주의와 독립침례교회의 형성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저작)
3. Dollar, George W. A History of Fundamentalism in America. Greenville, SC: Bob Jones University Press, 1973. pp. 247–389. (근본주의 진영 내부 시각에서 20세기 중반 독립침례교회 네트워크와 지도자들을 상세히 다루는 대표적 사료성 연구)
4. Ritchie, Homer G. The Life and Legend of J. Frank Norris: The Fighting Parson. Fort Worth, TX: Norris Publications, n.d. pp. 45–210. (노리스의 생애와 양대 도시 목회, 남침례교와의 결별 배경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서술한 전기적 연구)
5. Schepis, Michael E. J. Frank Norris: The Fascinating, Controversial Life of a Forgotten Figure of the Twentieth Century. Bloomington, IN: WestBow Press, 2012. pp. 83–214. (근본주의·정치·언론을 아우른 노리스의 다면적 활동과 논쟁들을 현대 연구 기준으로 재평가한 전기)
6. Cloud, David W. The History and Heritage of Fundamentalism and Fundamental

Baptists. Port Huron, MI: Way of Life Literature, 2000. pp. 153–312. (독립 근본주의 침례교회의 신학·분리 원리·국제적 확산을 내부자 관점에서 정리한 방대한 개관서)
7. Rawlings, John, and James Rawlings. Mega-Churches and Independent Baptists. Springfield, MO: Baptist Bible College Press, 1977. pp. 21–146. (20세기 중반 미국 독립침례 대형 교회들의 성장 전략, 버스 사역, 주일 학교 사역을 사례별로 분석한 기록)
8. Abrams, Cooper P. A Brief Survey of Independent Fundamental Baptist Churches. In Baptist History Resources (online monograph). 2009. Sections II–IV. (독립근본주의침례교회의 역사적 전개, 신학적 특징, 교단과의 차이를 간결하게 정리한 온라인 참고 문헌)

제17장: 신약 교회의 회복과 침례교의 유산 – 사도행전에서 오늘날까지

1. Bebbington, David W.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London: Unwin Hyman, 1989. pp. 1–102. (근대 복음주의의 네 가지 표지와 함께 성경의 권위·회심·활동주의가 신약 교회 회복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한 고전적 연구)
2. McBeth, H. Leon. The Baptist Heritage: Four Centuries of Baptist Witness. Nashville: Broadman Press, 1987. pp. 39–118, 647–720. (초대 교회 이해에서 영국·미국 침례교의 전개까지, 침례교 정체성을 '신약 교회 회복'의 관점에서 서술한 표준 교재)
3. Nettles, Thomas J. The Baptists: Key People Involved in Forming a Baptist Identity. Vol. 1–3. Fearn: Christian Focus, 2005–2007. Vol. 1, pp. 23–96; Vol. 2, pp. 201–272. (헬위스, 윌리엄스, 케리 등 주요 인물들의 신학과 사역을 통해 '다섯 기둥'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형성·유지되었는지 보여 주는 인물 중심 연구)
4. Estep, William R. The Anabaptist Story: An Introduction to Sixteenth-Century Anabaptism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6. pp. 89–173. (취리히 재침례파의 순교와 신약 교회 이상이 이후 침례교 전통의 교회론·침례 이해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고전적 아나뱁티스트 연구)
5. Noll, Mark A. Turning Points: Decisive Moments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3r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pp. 133–170, 233–268. (콘스탄티누스 이후 국교화, 종교 개혁, 근대 복음주의 형성이 '신약 교회'의 본래 모습에서 어떻게 이탈·접근했는지 전환점별로 조망한 개론서)
6. Kidd, Thomas S. Baptists in America: A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 21–86, 187–236. (미국 침례교가 양심의 자유, 정교분리, 회중 정치, 회심 중심 교회를 실제 정치·사회 구조 속에 구현해 온 과정을 추적한 현대 연구)
7. Griffiths, Brian, and Michael Rohlf. Church and State: Biblical Perspective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6. pp. 57–129. (정교분리·양심의 자유를 성경과 교회사 관점에서 정리하며 침례교 전통의 기여를 신약 교회 원리와 연결해 분석한 저작)
8. Foxe, John. Foxes' Book of Martyrs: Updated and Revised. Grand Rapids: Baker Books, 2001. pp. 171–248. (초대 교회와 종교 개혁기 순교자들의 증언을 통해 '피로 쓰인 역사'와 신약 교회의 지속성을 조명하는 대중적 순교사 개론)
9. Brackney, William H. A Genetic History of Baptist Thought: With Special Reference to Baptists in Britain and North America.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2004.

pp. 3–78, 301–356. (성경 권위, 신자 교회, 침례, 자유, 회중 정치가 어떻게 침례교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신약 교회 회복'이라는 축으로 재구성되었는지 추적한 사상사 연구)

부록: 침례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1. 존 번연 (John Bunyan, 1628–1688)
   1. Bunyan, John.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 London: George Larkin, 1666. (자신의 회심과 영적 투쟁을 상세히 기록한 자전적 영적 고전으로, 번연의 신약 성경에 근거한 회심의 이해와 설교 사역의 내면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
   2. Bunyan, John.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London: Nathaniel Ponder, 1678.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에 이르는 '크리스천'의 여정을 통해 개인 회심, 성경 중심, 신앙의 인내를 묘사한 기독교 우화의 대표작으로, 침례교 신학의 대중적 표현)
2. 존 길 (John Gill, 1697–1771)
   1. Gill, John. Exposition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9 vols. London: George Keith, 1746–1766.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룬 방대한 성경 주석으로, 원어 해석·역사·문법적 방법을 결합하여 침례교 성경 해석 전통의 기초를 세운 거작)
   2. Gill, John. A Body of Doctrinal and Practical Divinity. 2 vols. London: George Keith, 1767–1770. (신론에서 종말론, 교회론과 신자 침례에 이르기까지 침례교 교리를 조직신학 형태로 체계화한 저작으로, 침례교를 '신학을 가진 교파'로 세운 대표 신학서)
3. 윌리엄 케리 (William Carey, 1761–1834)
   1. Carey, William. 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Leicester: Ann Ireland, 1792. (근대 개신교 선교의 신학적·실천적 기초를 제시한 선언문으로, 대위임령의 계속성과 선교의 의무를 논증한 역사적 문헌)
   2. Marshman, John Clark. The Life and Times of Carey, Marshman, and Ward: Embracing the History of the Serampore Mission. 2 vols. London: Longman, Brown, Green, Longmans, & Roberts, 1859. (세람포르 선교 동역자들의 공적과 함께 케리의 성경 번역, 교육·사회 개혁 사역을 상세히 기록한 1차 자료 성격의 전기)
4. 앤드루 풀러 (Andrew Fuller, 1754–1815)
   1. Fuller, Andrew. The Gospel Worthy of All Acceptation; or, The Duty of Sinners to Believe in Jesus Christ. Northampton: T. Dicey, 1785. (극단적 칼빈주의를 반박하고,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선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대표 저작)
   2. Fuller, Andrew. The Complete Works of Andrew Fuller. 3 vols. Edited by Joseph Belcher.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45. (논문·설교·선교 보고 등을 망라한 전집으로, 근대 침례교 선교 운동과 정통 복음주의 신학 형성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
5. 아도니람 저드슨 (Adoniram Judson, 1788–1850)
   1. Judson, Adoniram. A Dictionary of the Burmese Language. Maulmain: American Baptist Mission Press, 1849. (버마어 성경 번역과 선교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제작된 사전

으로, 버마 선교와 언어 연구의 표준 참고서 역할을 한 저술)
2. Knowles, James D. Memoir of Adoniram Judson, D.D., Missionary to Burmah. Boston: Gould, Kendall and Lincoln, 1842. (저드슨의 회심, 침례 개종, 버마 선교, 투옥과 성경 번역 과정을 동시대 증언과 함께 정리한 고전적 전기)

6. 찰스 스펄전 (Charles H. Spurgeon, 1834–1892)
1. Spurgeon, Charles H. The Metropolitan Tabernacle Pulpit Sermons. 63 vols. London: Passmore & Alabaster, 1855–1917. (3,600편이 넘는 설교가 수록된 시리즈로, 침례교 설교 신학·복음 전도·목회 신학의 보고로 평가되는 설교 집대성)
2. Spurgeon, Charles H. Lectures to My Students. London: Passmore & Alabaster, 1875.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한 설교·목회·영성 훈련 강의를 정리한 책으로, 침례교 설교자 양성 및 강단 신학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저작)

7. 말콤 펜윅 (Malcolm C. Fenwick, 1863–1935)
1. Fenwick, Malcolm C. Korea: Crossroads of a Continent. Toronto: Evangelical Publishing House, 1919. (한국 선교의 영적 필요와 문화·역사적 상황을 기술하며, 자립·자치·자전 원리에 기초한 한국 침례교 선교 전략을 제시한 저작)
2. Kim, Jung-Sun. Malcolm C. Fenwick and the Korean Baptist Mission. Seoul: Korean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Press, 2005. (펜윅의 생애, 사업 선교 모델, 한국 침례교 형성 과정과 영향력을 한국·영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서)

8. 아이작 포스터 (Isaac F. Foster, 1923–2010)
1. 기독교 한국성서침례교회 전국 친교회, 「한국 성서침례교회 50년사」, 2004. (포스터의 파송, 선교, 한국 성서침례교회의 형성 과정)
2. 기독교 한국성서침례교회 전국 친교회, 「표수다 선교사 소천 공지」, 2010. ('뼈를 묻은 선교사'라는 평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문헌. 교단 내부에서 포스터의 역사적 위치와 신학적 유산을 평가한 핵심 자료)

King James Bible 1611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깁,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흠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해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잭슨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묵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제,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베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흠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터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 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헌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뵈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웅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자!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 (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디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 성경바로보기 | 요한계시록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ISBN 978-89-951587-8-4

03230

값 8,000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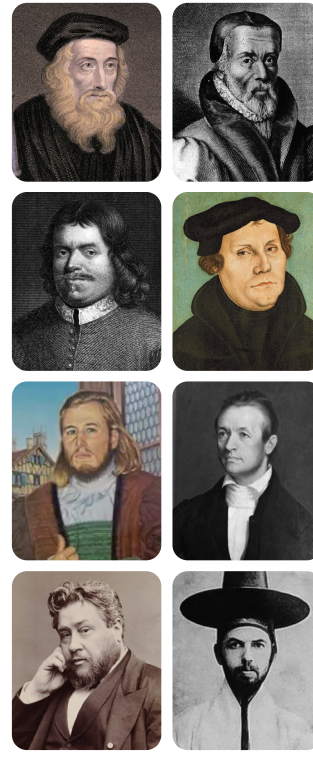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신약 교회 회복을 위한 교회사의 이해

제1장 | 초대 교회 시대
제2장 | 밀라노 칙령과 기독교 공인
제3장 | 어거스틴과 국가 교회
제4장 | 중세 카톨릭교회의 등장
제5장 | 중세 종교 재판소
제6장 | 어둠 속의 등불
제7장 | 16세기 종교 개혁
제8장 | 스위스 재침례교회
제9장 | 영국 침례교의 탄생 및 확산
제10장 | 신대륙의 청교도 신정 국가
제11장 | 버지니아에서의 자유 투쟁
제12장 | 침례교 신학이 법이 되다
제13장 | 자유의 열매
제14장 | 침례교 최대의 분열
제15장 | 세계로 뻗어나간 침례교
제16장 | 독립침례교회의 도전과 응답
제17장 | 신약 교회의 회복과 침례교의 유산



부록 »

침례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신약 교회 정신을 실천한 신앙의 거인들
죽음으로 지킨 진리: 침례(Baptism)/침례 성도(Baptists)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교회사

값 25,000원